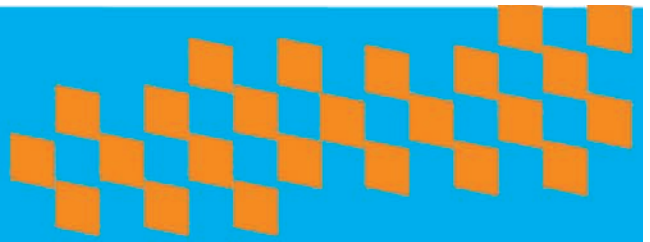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육  
세상을 변화시키는 대학



# 2012 하계 국내봉사대



삼육대학교 사회봉사단





환영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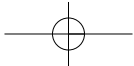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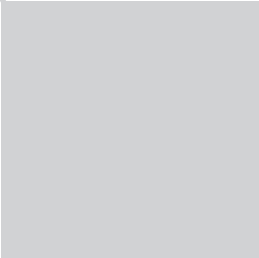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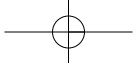
김상래  
총장(사회봉사단 단장)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행복을 추구하며 삽니다. 그런데 진정한 행복은 나눌 때 찾아옵니다. 삼육대학교에도 행복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봉사를 통해 나눔의 기쁨을 경험한 학생들입니다. 삶의 변화를 주목한 학생들입니다. 나와 내가 연결되어 있음을 체험한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야기들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행복을 나누려고 합니다.

삼육대학교는 사람과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봉사의 가치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봉사가 필요한 곳으로 학생들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이 감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의 가치를, 사람됨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 보고,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씨앗들이 심어져 지금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행복들이 우리의 행복으로 전달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그 행복이 담겨 있습니다. 그 행복이 읽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한가득 전달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봉사를 향한 열정의 씨앗이 싹트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김원곤  
사회봉사단 부단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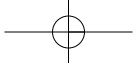
2012년도 삼육대학교 국내단기봉사 프로젝트 SSS36(SU Short-Term Service 36)가 많은 학과와 동아리들의 참여 속에 성황리에 종료되었다. 올 여름은 어느 해보다도 무덥고 비가 많이 내렸지만 모든 참가 학생들이 건강하게 봉사활동을 마치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우리 대학의 학생 봉사교육이 성황리에 진행될 수 있는 것은 총장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교수님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었기 때문이다. 몇 년 전만해도 봉사 팀이 조직이 되었으나 같이 동참할 지도교수를 확보하기가 어려워 모든 교수들은 5년에 한 번씩 반 의무적으로 봉사대 지도교수로 동참해야 하는 료를 시행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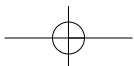
봉사대 지도교수는 학생지도를 위해서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많은 것들을 봉사를 통해 배우게 되고 봉사를 다녀온 후에도 감동적인 경험담 발표를 하고 그들의 삶에 변화가 있는 모습을 보면서 수고도 잊고 마음 뿌듯하여 계속적으로 학생들과 봉사활동에 동참하면서 점차 봉사에 중독되는 교수님들을 보게 된다.

봉사대원들의 수고와 맘을 사진과 글로 담아 책자를 발간하게 되었다. 이 귀한 책이 여러 사람들에게 읽힐 뿐만 아니라 봉사한 학생들이 졸업한다 해도 후배들에게는 역사적 기록으로 남아서 우리 대학의 봉사운동이 세계로 퍼져가는데 기여하는 소중한 자료가 되기를 소망한다.





SSS36  
소개







## 1. 개요

- 1) 사업명 : 삼육대학교 국내 단기봉사 프로젝트 『SU Short-term Service 36(SSS36)』
- 2) 비전 : 사람을 살리는 봉사! Why not Change the World!
- 3) 내용 : 방학 중 매년 36개 단기 봉사팀을 국내 각 곳에 파견
- 4) 목적 : 자랑스런 삼육인(진리와 사랑의 봉사자)양성, 학과 교육역량 강화
- 5) 활동시기 : 하계(6~8월), 동계(12~2월) 방학 중 7일 이상
- 6) 팀구성 : 팀 지도교수 외 학생 10명 이상
- 7) 주관 : 삼육대학교 사회봉사단

## 2. 기대효과

- 1) 개인 :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지도력 향상, 공동체 의식 함양, 글로벌 리더십 교육을 통한 봉사 엘리트 양성, 대학 브랜드 가치 향상
- 2) 학과 : 학과의 교육역량 강화
- 3) 대학 : 봉사특성화를 통한 대학의 정체성과 대외 이미지 강화, 사회봉사교육 선도대학





▶ 2012 하계 국내봉사대 팀 리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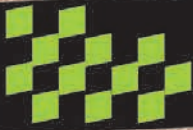
구분	No	팀명	봉사지역	봉사기간	봉사내용	지도교수	대원구성	
							교수	학생
학 과 팀	1	경영학과A (학생회)	충북 청주	6.17-6.24	농촌봉사	정태석, 임명성	2	44
	2	컴퓨터학부 (36계의 희망)	충북 괴산	6.19-6.25	농촌봉사	신동근	1	18
	3	물리치료학과 (GATE)	전남 무안	7.28-8.04	물리치료봉사 및 과 학교실운영	이병희	1	12
	4	식품영양학과	경북 봉화	7.01-7.07	농촌봉사	김원곤	1	16
	5	영미어문학부	강원 철원	7.15-7.22	교육봉사	이훈재	1	12
	6	간호학과A (BenuFam)	경기 여주	7.22-7.28	교육봉사	한숙정	1	13
	7	환경그린디자인	남양주	7.22-7.28	교육, 농촌봉사	차민경	1	11
	8	경영학과B (안교)	전북 정읍	7.22-7.29	농촌봉사	박철주, 임태중, 강정수	3	26
	9	생명과학과	강원 평창	7.22-7.29	교육봉사	김현희, 나승호	2	14
	10	음악학과	경기 여주	7.22-7.29	교육봉사	김영문, 임형준	2	19
	11	신학과(참사랑)	충남 홍성	7.22-7.29	교육봉사	윤주연	1	10
	12	사회복지학과 (한뜻봉사대)	경북 봉화	7.25-8.01	교육, 의료봉사	최윤호	1	11
	13	보건패밀리	충남 계룡	7.30-8.05	교육봉사	유재현	1	10
	14	약학과	경기 가평	7.30-8.10	교육봉사	강진양, 강태진	2	10
	15	간호학과B (BRANT)	충남 대천	8.04-8.11	교육봉사	정현철	1	11





구분	No	팀명	봉사지역	봉사기간	봉사내용	지도교수	대원구성	
							교수	학생
통합 / 연 합 팀	1	캠퍼스미션	경기 하남	6.24-6.30	교육봉사	차민경	1	12
	2	일곱빛	충남 천안	7.01-7.07	농촌봉사활동	마이클리	1	10
	3	SAY1	경북 경산	7.06-7.14	선교봉사	김영문, 차민경	2	18
	4	SAY2	용인, 일산	7.06-7.14	선교봉사	이훈재, 나승호 지성훈, 김동욱	4	13
	5	가브리엘	충남 천안	7.08-7.14	농촌봉사 및 어린이, 학생 프로그램	제해중	1	12
합 계							30	302
							332	





# 컴퓨터학부 (36계의 희망)



*I really hope  
I'll travel to  
Europe some day*





# 경영학과(학생회)







일곱빛



*I really hope  
I'll travel to  
Europe some 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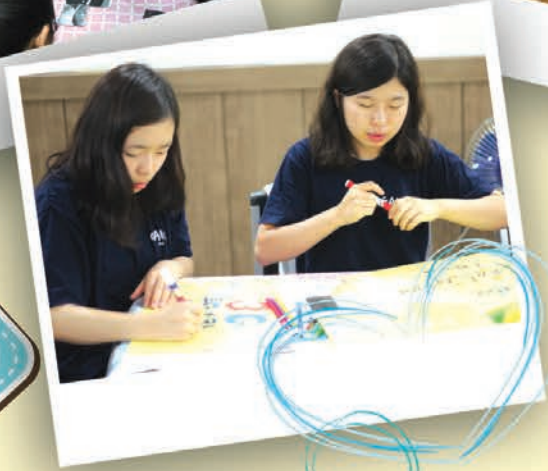
# 식품영양학과







# 가브리엘



*I really hope  
I'll travel to  
Europe some day*





# 영미어문학부





# 환경그린디자인



*I really hope  
I'll travel to  
Europe some day*





# 캠퍼스 미션







# 사회복지학과(한뜻봉사대)





# 생명과학과







# 음악학과



*I really hope  
I'll travel to  
Europe some day*





# 신학과(참사랑)

go!







# 간호학과(BENUFAM)



*I really hope  
I'll travel to  
Europe some day*





# 보건관리학과(보건패밀리)







# 경영학과(안교)



*I really hope  
I'll travel to  
Europe some day*

*How long does it  
take to  
travel around the world?*



# 간호학과(BRANT)







# 물리치료학과(GATE)



I love you ♡



I really hope I'll travel to Europe some day





# SAY 1







# SAY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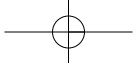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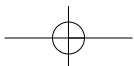
# SAY3







목차







환영사	002	생명과학과	170
발간사	004	음악학과	184
SSS36 사업소개	006	참사랑	198
컴퓨터학부	032	간호학과(BENUFAM)	212
경영학과(학생회)	050	보건관리학과	224
일곱빛	070	경영학과 안교	236
식품영양학과	084	간호학과(Brant)	254
가브리엘	102	물리치료학과(GATE)	270
영미어문학부	114	약학과	288
환경그린디자인	128	SAY 1	292
캠퍼스미션	142	SAY 2	312
사회복지학과	152	SAY 3	326



## 컴퓨터학부(36계의 희망)

팀 명	36계의 희망	주최학과/부서	컴퓨터학부
지도교수	신동근	학생대표	김명규
봉사 지역	충청북도 괴산 적석리 입석마을 사과농장	활동기간	2012.6.19 ~ 6.25
파견인원	지도교수 : 1명, 대장 : 1명, 대원 : 17명		
협력 및 후원기관	삼육대학교	주소/연락처	충북 괴산군 연풍면 적석리 560번지
봉사영역	농촌 일손 돕기	봉사대상자	농촌주민, 마을, 노인

### ▶ 팀 명단

No	이름	학과	학년	역할/담당	No	이름	학과	학년	역할/담당
지도교수	신동근	컴퓨터학부			대원10	서준혁	컴퓨터학부	1	
학생대표	김명규	컴퓨터학부	1	대장/총무	대원11	김호민	컴퓨터학부	1	
대원2	김은지	컴퓨터학부	1	부대장/서기	대원12	강수림	컴퓨터학부	1	
대원3	한영석	컴퓨터학부	1	부대장/총괄	대원13	김서령	컴퓨터학부	1	
대원4	강경한	컴퓨터학부	1	부대장/식사	대원14	조인식	컴퓨터학부	1	
대원5	허범성	컴퓨터학부	1	부대장/백업	대원15	정민지	컴퓨터학부	1	
대원6	최찬흠	컴퓨터학부	1		대원16	안지혜	컴퓨터학부	1	
대원7	원유민	컴퓨터학부	1		대원17	김영민	컴퓨터학부	1	
대원8	정푸름	컴퓨터학부	1		대원18	황희빈	컴퓨터학부	1	
대원9	홍정선	컴퓨터학부	1						

### ▶ 봉사활동 전체 일정표

일정	구분	활동내용	일정	구분	활동내용
6/19	오전	집합 후 괴산으로 출발	6/23	오전	마을탐방
	오후	짐을 풀고 마을회관 정리		오후	계곡가서 휴식
6/20	오전	화단을 정리	6/24	오전	이삿짐 나르기
	오후	썩발에 가서 썩 캐기		오후	비닐하우스 잡초 제거
6/21	오전	썩발에 가서 썩 캐기	6/25	오전	마을회관 청소 및 정리
	오후	사과나무 사과 고르기		오후	서울로 출발
6/22	오전	감자, 마늘 캐기			
	오후	썩발에 가서 썩 캐기			



▶ 봉사주요 활동내용 및 결과

No	활동영역	날짜	장소	내용	평가 및 의견	결과(참여인원)
1	화단 가꾸기	6.20	마을	잡초를 뽑고, 화단의 벽돌 정리를 함	더욱 더 깔끔해짐	대원 전원
2	쑥 캐기	6.21	마을	쑥밭의 쑥을 9박스 채움	지루하고 힘들	대원 전원
3	감자, 마늘 수확	6.22	마을	감자 밭에 숨어 있는 감자를 캐. 마늘 밭에 숨어 있는 마늘을 뽑음	감자, 마늘이 더욱 좋아 보임	대원 전원
4	문화활동	6.23	마을	마을탐방	심신을 정리할 수 있게 됨	대원 전원
5	이삿짐 나르기	6.24	마을	마을 안에서 새로 집을 지어 이사를 가는 분의 이삿짐을 옮겨 드리고 남은 철근을 옮겨드림	무겁고, 힘들었지만 제일 뿌듯함	대원 전원
6	비닐하우스 잡초 제거	6.25	마을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잡초들을 모두 제거	쉬운 일이었음	대원 전원

▶ 봉사활동 운영 전반평가

매우안 좋음 1	안 좋음 2	보통 3	중음 4	매우중음 5	활동에 필요한 준비물은 빠짐없이 준비됐는가?	1	2	3	4	5
계획된 활동은 모두 실행했는가?					1	2	3	4	5	5
활동 목표는 달성했는가?					1	2	3	4	5	5
활동영역	평가				활동영역	평가				
지도교수 역할	대원들을 이끌어주시고 다독여주시어 대원들이 즐겁고 힘을 낼 수 있게 해주심				학생대표 역할	교수님, 부녀회장님의 말씀을 대원들에게 전하고 대원들을 이끌고 이해충돌이 생기지 않게 분위기를 잘 조성함.				
학생대원소양	모든 어르신분께 공손히 밝게 인사를 함				현지반응	젊은 학생들이 와서 반가워하심				
숙식 및 생활여건	숙식은 요리조의 활약으로 소박하지만 마음만은 풍족하게 식사함. 씻는 문제가 안 좋아서 불편을 겪음				활동지역 및 안전관련	가뭄 시기라 물이 귀하고 할 일이 많지는 않았음. 교통편이 불편함				
잘된점	멀게만 느껴졌던 교수님과 좀 더 친근하게 얘기를 할 수 있었고 학우들 간의 더욱 더 돈독한 우정을 쌓을 수 있게 됐다				운영평가 및 애로사항	사람 수가 많고 동급생의 대장이다보니 공지 전달과정에서 오류가 남.				
개선(보완) 사항	차비 16명부터 13명으로 취급하는 문제.				총평	농촌의 사정과 환경을 자세히 알 수 있었고, 어르신들과의 대화를 통해 깊은 지식과 도덕심을 쌓을 수 있었고,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 할 수 있게 됐다				





# PHOTO

▶ The pictures came out well.



▶ 사과 자르는 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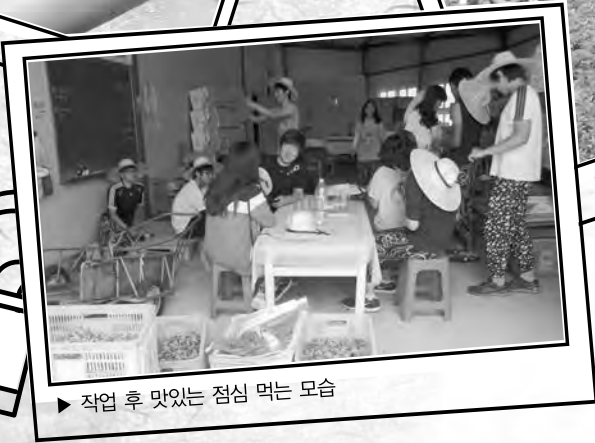
▶ 잡초 제거작업 중



▶ 캐온 썩을 씻는 모습



▶ 부녀회장님 댁 뒷마당에서 썩 캐는 모습



▶ 작업 후 맛있는 점심 먹는 모습



# PHOTO



▶ 저녁식사 모습



▶ 사과 따는 모습



▶ 비닐하우스에서 잡초 제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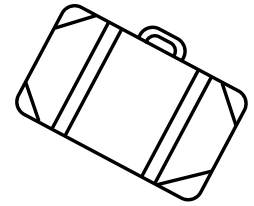
▶ 화단 가꾸기 전



▶ 비닐하우스 앞의 캠퍼 여자들



▶ 썩을 깨는 모습





## | 지도교수소감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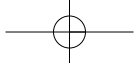


컴퓨터학부 | 신동근

## “충북 괴산을 다녀와서”

학생들이 봉사의 뜻이 있어 자발적으로 봉사대를 구성하고, 우리 농촌지역 중 한 곳을 섭외하여, 봉사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다. 이번 2012년 여름 하계 봉사 활동 기간은 하필 우리나라의 극심한 무더위와 가뭄에 찌든 사정 등의 분위기로 인하여 그 배경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게다가 현지의 숙소인 마을회관의 시설이 상당히 낙후되어있어 냉방 시설도 전혀 갖추어져 있지 않은 곳이었고, 몸을 씻는 환경도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였으며 화장실은 재래식 전통화장실의 구조였다. 따라서 우선 몸을 씻거나 용변을 해결하는 문제가 상당히 불편하여, 현지 주민의 전임 부녀회장 댁의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다. 현지 숙소와 마을의 전임 부녀회장 댁과의 거리는 도보로 10분여 소요되는 거리로,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 컴퓨터학부 봉사대 학생들의 봉사 의지는 이에 굴하지 않고 모든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고 본다. 처음 하루, 이틀 동안은 봉사 활동 자체에 회의감을 갖고, 봉사 오게 된 것을 후회한 학생들조차 일부 발생하였으나, 3일이 지나면서 서서히 적응하여, 거의 마지막 날에 있어서는 완벽하게 적응이 끝난 모습을 보여 주었다. 이는, 역시 인생에 있어서의 젊은 시기의 그 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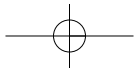


봉사대 학생들은 전체 3개조로 구성하여 요리 조와 A조 B조로 구성되었고, 요리 시간이 소요되는 요리 조에게 몸을 씻거나 화장실 이용하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순서대로 자율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는 합리적 희생정신을 보여주었다.

봉사 활동 자체는 휴서 시간대를 피하여 오전 이른 시간과 오후 늦은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시행하였다. 많은 젊은 학생들이 아침 일찍 기상하는 문제를 힘들어하였지만 나름대로 잘 적응하여 활동을 할 수 있었다. 우리 봉사단원 모두 우리나라 현지 농촌 마을에서의 봉사를 나름대로 잘 소화하고 학교의 명예에도 누를 끼치지 않은 좋은 봉사활동이 진행되었음을 자평한다. 봉사대를 총괄하는 현지 마을의 부녀회장으로부터도 같은 피드백을 받았다.

특히 봉사대의 봉사 활동기간이 주중에서 시작해서 주중으로 끝나는데, 중간에 안식일이 끼어 있으므로, 해당 안식일에 가장 가까운 SDA 교회 (괴산 제칠일안식일 예수재림교)에 방문하여 예배를 함께 드리고, 오후에는 좀 떨어져 있는 근처 계곡으로 나아가서 심신의 피로를 풀었던 점도 참으로 의미 있는 행사의 일정 이었다고 생각된다. 봉사대

가 비록 비 신앙인이 많아서 우리 신앙적 활동은 결여되어 있었지만, 학교 이념에 맞는 봉사 활동을 성공적으로 한 점과, 삼육인의 긍지를 갖고 임한 점, 대외적으로는 학교 명예에 관련되어 미력이나마 기여한 점 등으로 이번 봉사대 활동을 높이 평가한다.





## | 학생대표소감문 |

김명규 | 컴퓨터학부 1학년  
리더 및 백업

## “컴과 친구들과의 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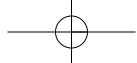
내 기억으로는 3월 달쯤 친구들과 사이에서 국내봉사를 할 것인지 해외봉사를 할 것인지에 대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었다. 나는 고민을 하다가 돈이 적게 드는 국내봉사를 택했다. 물론 나는 비행기를 한 번도 타 본적이 없었는데 학교에서 지원이 되는 해외봉사를 가고 싶긴 했었다.

그렇게 국내봉사를 정하고 어느 날 A반인 은지가 나한테 리더를 맡아줬으면 좋겠다고 개인적으로 말했다. 나는 중, 고등학교 때부터 언제나 비공식 회장 같은 걸 해왔었고 이것 또한 친구가 해달라고 하는데 그냥 하면 될 것 같아서 흔쾌히 알았다고 했다. 그때부터 나는 리더라는 자리를 맡았고, 내가 뛰어다녀야했다. 그래서 어렵사리 신동근 교수님께 부탁을 하여 지도교수님을 구했다.

1학기를 다니는 동안 자주 사회봉사단에서 공지도 날아오고 서류 제출 대원들에게 공지도 전달해 주었다. 문제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계속 그게 반복 됐지만 운이 좋다고 해야 할까 계속 해결이 잘됐다. 그렇게 기반을 다지고 조를 나누고, 제일 걱정이었던 요리조가 목록도 미리 다 짰다.

나랑 범성이랑 경한이는 미리 사전답사를 갔는데 그때 갔을 땐 꽤 괜찮았고 나름 다 지낼 만하다고 생각했다. 이후 우리는 지원비를 받아 출발 당일 4명에서 장을 미리 봤다. 걱정이었던 것은 분명 17명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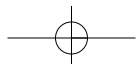
내가 이끌어야하고 내가 아무리 공지를 띄우고 해도 몇몇 대원들이 다시 되묻는 모습을 보았을 때 “아..난 분명히 공지해줬는데 내 말을 집중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다. 아니나 다를까 차시간과 김정리 시간을 고려하여 한 시간 일찍 모이라했는데 몇몇이 늦었다. 하지만 별 문제가 생기지 않았으니 신경 쓰지는 않았다.

그렇게 우리는 출발을 하였고 신나게 도착을 하였는데 사과농장에서와 말이 엇갈려 1시간을 기다리기도 하고 많이 지쳐있었다. 우리는 마을회관에서 지냈는데 첫째 날 미리 갔던 것이 좋았던 것 같다.

마을회관은 더러웠고 우리도 정신이 없었기에 각자 역할분담을 하여 청소 및 식사 준비도 했다.

둘째 날부터가 진짜 힘들었다. 17명을 이끌며, 내가 리더라는 생각이 들었기에 더 정신이 없었다. 처음에는 화단을 가꾸었는데 이정도 쪼아야 하면서 했고 점심을 먹고 축을 캐는데 이때부터 집에 가고 싶었다. “괜히 왔나 그냥 집에서 이 때쯤이면 편히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했다 물론 나뿐만 아니라 모든 애들이 딱 처음 축 캐 때 저런 생각을 했다고 했다.

3,4시간 축을 겨우 다 캐고 내려와서 회관으로 갔다. 씻는 게 여자, 남자 모두 불편했다. 차가운 물만 나오는 것은 시원해서 좋았지만 거리가 있고 2명씩 씻어야 한다는 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다. 통제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모두 잘 순서에 맞게 해주었다. 화장실은 푸세식이 있었는데 나는 옛날시골집이 푸세식이어서 별로 불편하지 않았다. 하지만 처음 시골 온 친구들도 많았고 여자 대원들이 걱정이 많이 되었다. 하지만 다들 불평, 불만 하지 않고 잘 지냈다. 두 번째 날은 사과를 속아내는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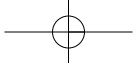
업을 했는데 이걸 비교적 쉽게 했다. 그리고 8명 정도는 이사하는 분의  
철근 같은 것을 평별에서 옮겼고 국수도 얻어먹었다.

감자 캐기, 마늘 캐기, 자두 고르기 등 많은 봉사를 하면서 세상에 쉬  
운 일은 없고 요즘 맨날 다들 귀농 귀농하는데 만만하게 볼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다. 우리 대원들은 아침 일을 하고 오면 마을회관  
에 다들 지쳐 쓰러졌다. 나는 그때 거의 자지 않았는데 애들이 열심히  
일하고 와서 잠을 자는 모습을 보았을 때 왠지 기분이 뿌듯했고,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서 덜 힘들게 해주고 싶었다.

밤에는 식사 후 산책을 나갔다. 하늘에는 별이 엄청 많았는데, 평소에  
는 집이 다 멀어서 친구들과 그 시간에 별을 볼 수도 없었지만 이곳에서  
여러 얘기도 하고 장난도 치고 그러한 것들이 난 너무 좋았다. 왠지 정  
겹고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것 말이다. 교수님도 우리한테 신경 많이 써  
주시고 내가 신경 못 쓴 것들 까지 꼼꼼히 신경써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신동근 교수님과 지도교수님인 정수목 교  
수님과 더 가까워진 것 같다. 내가 생각하기에 교수님은 좀 거리감이 많  
이 느껴지는 그런 분이셨다. 하지만 신동근 교수님은 그런 나의 생각을  
바꾸듯이 너무 친근하셨고 같이 놀아주시고 얘기도 하시고 계곡을 갔을  
때 적극적인 교수님의 모습에 존경스러웠다. 계곡을 갔다 온 다음 날부  
터 벌써 일주일이었나 싶을 정도로 시간이 훌쩍 지나갔고 뭔가 아쉬움  
이 많이 느껴졌다. 더 지내고 싶었고 이제 친구들과 말 할 수 없을 돈독  
한 우정도 쌓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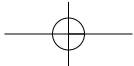
마지막 날 우리는 부녀회장님 차를 타고 이동하였고 단체 사진도 찍  
었다. 서울에 도착하여 모두 지하철역에서 헤어졌는데 그 뒷모습들을





보았을 때 속이 찡했다. 왠지 더 같이 있고 싶고 그 힘든 기간을 같이 보냈고 웃고 지치고 하는 모습들이 내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갔다. 지금 이 소감문을 쓰면서 느끼는 건 이진 단순한 봉사를 갔다 왔다 라는 것보다 나한테 있어서는 내 인생의 보물이 하나 더 생긴 것이었다. 내가 유독 그런 정이 많긴 하지만 왠지 모르게 내년엔 군대를 가면 뽕뽕이 흩어질 수도 있지만 대학 졸업 후에도 평생 연락하고 싶은 그런 친구들을 얻은 것 같다. 마지막으로 이 기회를 준 삼육대학교, 신동근 교수님, 17명의 친구들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컴퓨터학부





## | 대원소감문 |



김은지 | 컴퓨터학부 1학년  
부리더

### “농촌봉사 보고서”

국내봉사신청 마감 하루 전, 국내봉사를 가기로 마음먹기 시작하고 나서 장소를 어디로 정할지, 어떤 교수님을 섭외해야할지, 팀원 구성은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야 될 것이 많았다. 마감기간을 약 하루 남기고 애들과 컴퓨터실에서 머리를 모으고 장소를 찾았다. 장소가 찾아서 마감 날에 교수님을 급히 섭외하기까지 교수님께서 화를 많이 내지 않을까 했었는데 흔쾌히 허락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었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구성된 농촌봉사대 활동을 잘할 수 있을까 걱정됐었다. 선배들이나 경험자가 없어서 뼈격될 것만 같았던 우리의 농촌봉사는 상상이상으로 모두가 잘해주었다. 리더는 자신이 해야 되는 임무 외에 우리를 위해 많은 것을 힘써주었다. 또한 같은 부리더들도 각자의 맡은 일들과 아이들의 통솔을 잘해주었다. 가서 배불리 못 먹을 거란 나의 기대와는 달리 요리조는 너무 맛있는 요리를 해주었고, 그 외의 아이들 모두 서로를 도와주며 자신의 할 일을 불평불만 없이 너무 잘해주었다.

설레는 출발하는 날 부리더들과 요리 조는 6박 7일이라는 긴 기간 동안 먹을 식량과 필수품들을 사기위해 장을 보았다. 아이들의 짐들과 필수품, 식자재들까지 합해 어마어마한 짐들에 파묻혀 우리는 어렵사리 괴산으로 향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부녀회장님과 마을 분들이 반갑게 맞아주셨다. 쉼 쉼 캐기와





사과 숙아내기, 하우스잡초 뽑아내기 등 여러 가지일을 했다.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마을 분들의 일을 다 도와 드려야하지만 심한 가뭄 때문에 할 일이 거의 없다고 하셨다. 그래도 최대한 많은 일들을 하려고 노력했다. 쑥 캐는 일이 가장 힘들었지만 모두 다 함께 힘을 합쳐서 할당량을 채워나가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다 캐고 나서 모인 쑥들을 보면 내 자식같이 소중했다. 이번 봉사를 통해 농산물들의 소중함과 팀원들과의 팀워크, 협동력을 배우고, 가뭄 하나에 농촌이 이렇게 힘들어한다는 것에 물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었다. 또한 농부들이 피땀 흘려 얻은 농산물이 어떤 뜻인지 몸소 깨달아 농사일의 고단함과 노력을 알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6박 7일 긴 시간동안 18명의 아이들과 살을 부대끼며 같이 씻고 같이 자면서 더욱 가까워져서 좋았다. 요리조가 열심히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고 아이들과 설거지 내기, 시원한 밤공기를 쉼터에서 다함께 하는 산책 등 추억거리도 많았다. 사방이 아름다운 자연인 이곳에서 다함께 계곡으로 더위를 식히러 간 것도 기억에 남는다. 가자마자 소나기가 내려서 당황했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잊을 수 없는 추억거리를 만들게 된 것 같다.

초기에 급하게 만들어진 팀이지만 모두가 서로를 믿고 리더가 잘 이끌어 준 덕분에 모두가 무사히 6박 7일 봉사를 마치게 된 것 같다. 그 당시에 일찍 일어나고 씻는 문제도 힘들었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모든 게 다 추억이고 배우고 느끼는 점이었던 것 같다. 너무 많은 것을 배워가고, 내년엔 기회가 된다면 또 이 멤버들과 함께 가고 싶다.



## | 대원소감문 |



한영석 | 컴퓨터학부 1학년  
조장

### “18명의 배려”

기말고사가 끝나고 방학을 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충북 괴산 사과농장에 국내봉사대를 하러 다녀왔다. 방학기간동안 공부나 알바도 중요하지만, 여름에 보람되는 일을 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국내봉사대를 신청하게 되었다. 요즘 가뭄이고 날이 더워서 날씨에 대한 걱정을 제일 많이 하고 출발했다. 출발 첫날 일주일이상의 기간 동안 18명이 먹을 아침과 저녁메뉴를 미리 계획한 것을 토대로 강변역 근처에 있는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았다. 국내봉사대를 가기 전에 오랫동안 시간을 투자해서 만든 메뉴와 구입목록들 덕분에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 수량을 잘 맞출 수 있었다. 동서울터미널에서 두 시간을 걸려 괴산터미널에 도착하고, 마을버스를 30분정도 타서야 마을입구에 도착할 수 있었다. 시골이라 열악한 환경일 것이라 생각을 했었지만, 씻을 공간과 화장실 문제 때문에 마지막 날까지도 많은 불편을 겪었다. 마을분들께서 노인 회관을 우리의 숙소로 쓰게 허락해주셔서 남녀 방을 나눠서 사용하게 되었다. 처음 노인 회관에 들어섰을 때 사용하신지가 오래되어서 대청소부터 깨끗이 하고 저녁 늦게 되어서 밥을 먹을 수 있었다. 부녀회장님께서 바쁘신 관계로 봉사 첫째 날이 되어서야 만나 뵈 수 있었다.

첫째 날은 부녀회장님 댁 뒷마당에 있는 쭈을 2명당 한 상자씩 채우는 일이었다. 18명 모두가 쭈을





처음 따보는 것이라서 오래 걸렸지만 부녀회장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열심히 쭉 따서 모았다. 간식으로 쭉떡을 먹으면서 우리가 딴 쭉으로 이런 것들을 만든다는 것이 신기했다. 봉사기간 내내 더운 날씨 때문에 아침 7시 30분부터 점심시간까지 일하고 쉬었다가 오후 4시 30분부터 7시까지 마을 일들을 도와드렸다. 둘째 날은 사과와 상품성을 위해서 가지 하나에 하나 이상씩 달린 열매들을 골라서 자르는 일을 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을 배우고 직접 가지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보고 다른 사과가 다치지 않게 조심히 따는 것들이 처음 경험해보는 일들이라 재밌었다. 봉사기간동안 주로 쭉과 사과 따는 일들을 했지만 그 밖에도 텃밭 가꾸기, 비닐하우스 잡초 뽑기, 무거운 양파 망 배달해드리기, 공사 자재 나르기 등 일손이 부족한 일들을 위주로 활동하였다.

18명이라는 많은 인원 덕분에 많은 일들을 비교적 빠르게 끝낼 수 있어서 좋았다. 하지만 다수의 인원이라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것을 우려했지만 모두들 사소한 것부터 하나씩 배려하고 맞춰가는 모습을 보고 느낀 점이 많았다. 서로 씻는 시간을 정해서 나누고 설거지 등의 뒷정리를 나눠서 정해진 시간동안 효율적이게 움직이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고 모두들 피곤한 가운데서도 봉사활동 외의 것들도 잘 따라줘서 너무 고맙고 일정동안 모든 스케줄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었다. 신동근 교수님께서도 바쁘신 가운데 봉사대를 위해 많은 지원들을 해주시고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셔서 봉사대원들 모두 감사한 마음으로 더욱 힘을 낼 수 있었다. 저희를 다 이해해주시고 프로그램에도 같이 참여하셔서 국내봉사 내내 즐거운 분위기로 이끌어 주셨다. 신동근 교수님과 부녀회장님과 마을주민 분들과 봉사대원들 하나하나의 협조와 노력으로 긴 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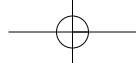




사기간동안 아무런 사고와 탈 없이 모든 활동들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다. 이번 국내봉사로 인해서 봉사활동을 해서 좋았고 서로 협력하면서 배려하는 방법을 배워서 많은 것을 얻어가게 된 국내봉사였다. 삼육대학교는 인성교육을 중요시 하는 대학교인데 이러한 봉사활동 프로그램들을 체계적으로 운영해서 많은 학생들이 봉사를 가깝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점들이 너무 좋았다. 이번 봉사활동을 계기로 봉사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투자한 시간과 노력보다 더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다는 것을 깨달고 보다 크고 다양한 봉사활동들을 해보고 싶단 생각이 들었다.







| 대원소감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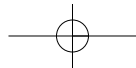


강경한 | 컴퓨터학부 1학년  
사과 봉사

| 컴퓨터학부 |

## “많은 것을 배운 농촌봉사”

방학을 맞이하여 괴산으로 봉사를 떠났다. 이렇게 봉사를 몇 박 며칠로 가는 건 처음이어서 끼니해결과 잠자리 등 6박7일간 있는 동안 잘 해결할지 걱정이 됐다. 막상 갔다 왔더니 집에 있을 때보다 더 잘 먹고 잘 씻은 거 같아 만족스러웠다. 사과봉사이었지만 다른 일도 꽤나 했었다. 화단 가꾸기, 쭉 캐기, 잡초 뽑기, 양파 나르기 등 마을에 도움이 될 만한 일들을 했다. 부녀회장님이 지금은 사과농장일이 그리 많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셨다. 우리 봉사대가 일하는 시간이 아침 7시 30분부터 정오까지 하고 햇볕이 강할 때는 쉬었다가 오후 3시부터 7시 30분까지 다시 일을 했다. 그러나 막상 가보니 햇볕이 생각보다 너무 세서 일하는 시간이 단축되기도 하였다. 햇볕이 가장 강할 때를 피해서 일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할 때에는 온 몸이 땀으로 젖었다. 18명이 동시에 일을 해도 몇 시간씩 걸리는 작업을 평소에는 18명보다 훨씬 적은 수의 사람으로 일을 한다는 게 대단했다. 물론 우리 봉사대가 처음 하는 일들이라 작업 속도가 느리긴 하다. 하지만 그만큼 개인의 작업량도 적고 활동량도 적을 것이다. 이것들을 감안하면 매일 일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힘드실 것이다. 우리는 오전 시간 때 일을 마치고 회관에 가서 쉴 때면 한 번도 빠짐없이 매일 잠을 잤다. 그렇게 잠을 자야 오후 시간 때 일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었다. 한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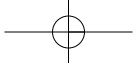


은 부녀회장님을 따라 다른 마을 분의 일을 도와드리러 갔었는데 곰치 이외의 풀들을 뽑는 작업이었다. 작업을 하면서 곰치를 키우시는 마을 분이 여럿이서 하니까 금방 한다고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고 조금 짠했다. 우리에게 정말 별거 아닌 일들이지만 마을 주민 분들이 고마워하시며 웃어주시니 정말 뿌듯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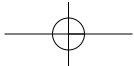
이런 기회가 다음에 언제 또 올지는 모르겠지만 꼭 참여할 것이다. 당시에는 정말 힘들고 쉬고 싶고 그렇지만 다녀오고 나니 기분 좋고 추억이 쌓인 것 같아서 지금 당장 또 가자해도 가고 싶다. 친구들과 같이 가서 그런지 길면 긴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서 마치 꿈을 끈 거 같다. 우리 할아버지께서 과수원을 하셔서 내려갈 때마다 일을 도와 사과나무를 관리하고 해서 자신이 있었지만 부녀회장님이 정말 엄청난 노력과 정성을 들여 키운 사과나무들이라 자신 있어도 사과나무를 소중히 다루며 조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힘들긴 했었다. 우리는 그냥 마트에 가서 사먹는 사과가 이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과 노동력을 투자해야 얻어지는 결실이라는 걸 다시 한 번 깨달을 수 있었다. 썩도 마찬가지로 지었다. 그냥 무턱대고 뽑으면 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억센 줄기를 제외하고 약한 윗부분의 썩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물론 아래 억센 곳도 사용하지 않지만 쓰이는 곳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억세지 않은 썩을 먼저 뽑고 나중에 억센 부분을 뽑는 것이었다.

이번 국내봉사를 통해 배운 것이 정말 많은 것 같다. 집에 있었으면 그냥 의미 없는 하루를 보냈을 것을 이렇게 국내봉사를 다녀와서 보람찬 일주일이 되었다. 현재의 농촌 상황들이 얼마나 열악한지도 알게 되었고 얼마나 힘들게 결실이 맺어지는지, 일손이 얼마나 부족한지 알게





되었다. 우리가 도움이 얼마나 된 진 모르겠지만 정말 기억에 남을만한 일주일이었다.





## 경영학과(학생회)

팀 명	경영학과 학생회	주최학과/부서	경영학과
지도교수	정태석, 임명성	학생대표	김영진
봉사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농협)	활동기간	2012.6.17 ~ 6.24
파견인원	지도교수 : 2명, 대장 : 1명, 대원 : 43명		
협력 및 후원기관	청주농협협동조합	주소/연락처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1674번지
봉사영역	농촌봉사활동	봉사대상자	일손부족농가

### ▶ 팀 명단

No	이름	학과	학년	역할/담당	No	이름	학과	학년	역할/담당
지도교수	정태석	경영학과		지도교수	지도교수	임명성	경영학과		지도교수
학생대표	김영진	경영학과	3	학생대표	대원23	이승민	경영학과	3	대원
대원2	박용배	경영학과	3	학생부대표	대원24	최성관	경영학과	3	대원
대원3	김동현	경영학과	3	총무	대원25	김보람	경영학과	4	조장
대원4	고용준	경영학과	4	대원	대원26	서현솔	경영학과	3	대원
대원5	권이슬	경영학과	3	대원	대원27	이상용	경영학과	2	조장
대원6	박희진	경영학과	3	대원	대원28	김정수	경영학과	4	대원
대원7	지수민	경영학과	2	대원	대원29	김영훈	경영학과	2	대원
대원8	임현우	경영학과	4	대원	대원30	원선재	경영학과	2	대원
대원9	육아영	경영학과	2	조장	대원31	송민근	경영학과	2	대원
대원10	김도이	경영학과	3	대원	대원32	최지연	경영학과	2	대원
대원11	이정원	경영학과	2	대원	대원33	권오규	경영학과	1	대원
대원12	최설화	경영학과	2	대원	대원34	권오덕	경영학과	1	대원
대원13	이경민	경영학과	2	대원	대원35	김지훈	경영학과	1	대원
대원14	권기욱	경영학과	2	대원	대원36	여정훈	경영학과	1	대원
대원15	안수진	경영학과	4	대원	대원37	윤여경	경영학과	1	대원
대원16	김연희	경영학과	3	대원	대원38	장종현	경영학과	1	대원
대원17	김재석	경영학과	4	조장	대원39	정동준	경영학과	1	대원
대원18	우승용	경영학과	4	조장	대원40	최지현	경영학과	1	대원
대원19	이인엽	경영학과	4	조장	대원41	신윤구	경영학과	1	대원
대원20	이종찬	경영학과	4	대원	대원42	백인성	경영학과	1	대원
대원21	김준업	경영학과	3	조장	대원43	이보람	경영학과	1	대원
대원22	이동훈	경영학과	3	조장	대원44	김재윤	경영학과	2	대원



▶ 봉사주요 활동내용 및 결과

No	활동영역	날짜	장소	내용	평가및 의견	결과(참여인원)
1	농촌봉사	6.17 ~ 6.24	청주	포도 봉지 싸기 : 각자 맡은 농가의 포도 봉지 싸는 일을 함.	대체로 만족	대원 : 44명
2	노력봉사	6.17 ~ 6.24	청주	비닐하우스건축 : 한 조가 배치되서 인력이부족한 농가의 비닐하우스를 건축함.	대체로 만족	대원 : 5명
3	문화활동	6.20, 23	청주	단합대회	만족	대원 : 44명
4	문화활동	6.23	청주	단합대회	만족	대원 : 44명

▶ 봉사활동 운영 전반평가

매우안 좋음 1	안 좋음 2	보통 3	중음 4	매우중음 5	활동에 필요한 준비물은 바짐없이 준비됐는가?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활동영역	평가					활동영역	평가				
지도교수역할	인원파악 및 건강이상유무 파악					학생대표역할	인원파악 및 건강이상유무 보고				
학생대원소양	농촌봉사활동					현지반응	매우 좋음				
숙식 및 생활여건	매우 좋음					활동지역 및 안전관련	매우 좋음				
잘된점	숙식 및 휴식여건 보장					운영평가 및 애로사항	특이사항 없음				
개선(보완) 사항	없음					총평	전반적으로 숙박시설, 식사제공, 병원과의 접근성이 좋았음				

▶ 봉사활동 전체 일정표

일정	구분	활동내용	일정	구분	활동내용
6/17	오전	학교출발	6/21	오전	농촌봉사
	오후	숙소배정		오후	농촌봉사
6/18	오전	농촌봉사	6/22	오전	농촌봉사
	오후	농촌봉사		오후	농촌봉사
6/19	오전	농촌봉사	6/23	오전	농촌봉사
	오후	농촌봉사		오후	단합대회
6/20	오전	농촌봉사	6/24	오전	농촌출발
	오후	레크레이션		오후	학교도착





# PHOTO

▶ The pictures came out well.



▶ 포도알 숙는 모습



▶ 조별 사진



▶ 포도 봉지 씌우는 모습



▶ 포도알 숙는 모습



▶ 경영학과 단합대회



▶ 경영학과 단합대회



# PHOTO



▶ 하우스 건축하는 모습



▶ 포도 밭



▶ 작목 반장님과



▶ 포도알 숙는 모습



▶ 농지 개간하는 모습



▶ 조별 사진



▶ 마지막 날, 아쉬움을 뒤로 한 채





## | 지도교수 소감문 |



경영학과 | 정태석

## “청주를 다녀와서”

사람들은 정의하는 것을 좋아한다. 정의를 하면 의사소통도 용이해지고 개념적으로 명확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상에 정의할 수 없는 것도 많다. 오히려 정의하지 않는 것이 더 나올 수 있는 것들이 있다. 봉사도 그 중 하나라도 생각한다. 진정한 봉사란 무엇일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오히려 이러한 언어유희보다는 행동하는 것이 더 나올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봉사란 말로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행동에는 특징이 있다. 첫째, 자발적이어야 한다. 누군가의 강요나 외적 압력에 의해 봉사를 할 경우 그 진정성을 스스로 의심하게 된다. 둘째, 아깝지 않아야 한다. 내가 지금 쏟고 있는 노력과 시간, 그리고 비용들이 절대 아깝지 않아야 한다. 물론 선행적으로 자발적이지 않으면 소소한 것조차 아깝게 생각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봉사하는 동안 기쁨을 찾아야 한다. 자발적이고 아깝지 않을 경우 자신이 행하는 봉사 속에서 적든 크든 그 안에서 스스로 기쁨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 경영학과는 충북 청주시의 외곽에 있는 작지만 인정이 넘치는 마을에 7박 8일간 봉사를 다녀왔다. 학생들은 8개의 조로 나뉘어 8개 농가에 배치되어 각각의 농가의 일손을 도왔다. 처음에는 어색





한 손놀림과 장기간의 노동에 과연 모든 학생들이 잘 '견딜' 수 있을까 염려가 앞섰다. 물론 농가에서도 처음 하는 노동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을 것이며, 초보자의 손길이 마냥 믿음직스럽지만은 않은 표정이었다. 그러나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나의 염려는 기우가 되어 버렸다.

학생들은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왔다는 것을 자랑이라도 하고픈 듯이 모든 일에 적극적이었다. 봉사에 참여한 것이 행운인 것처럼 힘든 내색 없이 항상 웃는 모습으로 봉사에 임했다. 심지어 배탈이 난 학생도, 감기에 걸린 학생도 오전만 쉬고 오후에 나가면 안 되냐고 오히려 나에게 부탁하였다. 또한 학생들은 이곳에서의 활동이 그리고 어르신과 함께 하는 시간이 소중한 듯 자신들의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직업 멀리 있는 사진관에 걸어서 갔다 오는 수고도 마다하지 않았고, 어르신과 함께 찍은 사진을 정성스레 포장하여 선물하기도 하였다. 또한 봉사를 즐기고 있었다. 몇몇 팀들은 단체 활동 시간에도 농가를 도우러 가면 안 되냐고 물어왔고, 어떤 팀들은 누가 정확히 정해진 시간동안 일을 완벽히 완수하는지 조원끼리 경쟁도 하면서 스스로 봉사를 즐기는 장면, 그리고 돌아올 때 농가 어르신들과 아이들의 눈가에 맺힌 눈물도 목격할 수 있었다.

나는 이번 봉사활동이 진정한 봉사였다고 정의할 수는 없다. 하지만 조심스럽게나마 이들의 활동은 진심이었다는 것은 확신할 수 있다. 어느 누구도 타인의 힘에 이끌려 오지 않았다. 그리고 스스로 더 많은 시간을 봉사하고 싶어 했다. 또한 그 곳에서 서로 다르지만 봉사를 통한 기쁨을 스스로 찾고,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한명의 낙오자 없이 7박 8일 동안 함께 봉사를 즐겨준 학생들의 이번 봉사는 진정한 봉사라 생각한다.



## | 학생대표 소감문 |



김영진 | 경영학과 3학년  
하우스건축/학생대표

## “햇살처럼 뜨거웠던 열정”

지금까지 봉사활동은 많이 해 봤지만 농촌봉사활동은 처음이었다. 게다가 학생대표로서 농촌봉사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한다는 것이 그리 쉽지만은 않았다. 먼저 농촌사랑운동본부와 연락을 하여 장소를 섭외하였다. 이 곳, 저 곳에서 많은 연락이 왔지만 학생들을 생각하여 숙식여건을 따지다보니 가선택된 곳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에 위치한 포도를 재배하는 마을이었다. 삼육대 경영학과 농촌봉사 활동을 담당하시는 농협 과장님과 몇 차례 통화로 대략적인 틀을 잡고 봉사활동 이주 전, 학생회 임원들과 청주 포도마을의 사전 답사를 다녀왔다. 숙박시설의 제공은 어떻게 할 것인지, 식사의 제공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일의 강도와 일정, 학생들의 동선을 파악하고 난 뒤 이 곳이면 학생들이 재밌고 보람찬 농촌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겠다 싶어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포도마을로 선정하였다. 그 이후에도 과장님과 수시로 통화하여 우리 측과 농촌 측의 의견을 조율하였다. 감사하게도 농협과 마을 측에서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 정말 많은 배려를 해주셨다. 식사제공 뿐만 아니라 새 이불까지 사주시고 부식을 제공 해 주시는 등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은 배려를 아끼지 않으셨다.

농촌봉사활동 시작 당일, 44명의 대원들과 버스를 타고 청주의 포도마을에 도착하였다. 그러나 우리





가 계획 했던 것과는 달리 많은 것이 바뀌어 있었다. 인력이 필요한 농가 수의 변경, 숙박시설 환경의 차이,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첫 날 통제하는데 많은 혼란을 겪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끝나고 마을 어르신들과의 기념 촬영, 그리고 각자가 일할 농가를 방문하여 농가의 위치를 파악하고 일터의 위치를 파악하고, 각 농가 어르신들과 인사를 하며 봉사활동을 하기 위한 준비가 거의 마무리되어가고 있었다. 우리 경영학과는 농촌봉사활동을 통해 보람을 얻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학생들간의 단합도 함께 목표하고 있었다. 우리는 첫 날, 서로 잘 몰라서 먹서먹한 친구들이 많았지만 좀 더 재밌고 수월한 봉사활동을 위해 학생들 간 서로 자신을 소개하고 봉사활동을 오게 된 계기와 각자가 봉사활동을 통해 목표하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며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다.

월요일부터는 본격적인 봉사활동이 시작되었다. 각자 맡은 농가로 가서 농지 개간, 하우스건축, 포도봉지 싸기, 포도 알 숙기 등 각자 다른 일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다. 각자 일이 다르고 일 마다의 강도가 다르고, 학생 개개인 마다 느끼는 일의 난이도가 상대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학생 모두가 자신의 농가에 만족하고 일을 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군가를 돕기 위한 봉사활동을 하러 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상기시켜주고 문제가 있으면 교수님과 함께 중재하며 학생들이 문제가 생기지 않고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렇게 하여 학생들은 점점 서로 친해지고 일에 익숙해지며 일에서 즐거움을 느끼고 보람을 찾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변화해가는 학생들을 보며 학생대표로써도 농촌봉사활동을



준비한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힘들지만 싫은 소리 하지 않고 묵묵히 봉사활동 해주는 학생들에게 정말 고마웠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우리는 봉사활동 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의 단합에도 신경을 쓰고 준비했다. 그래서 수요일 오후에는 봉사활동에 대한 중간 평가와, 학생들에게 휴식시간과 즐거움을 주기 위해 우리 학생회에 서는 TV프로그램 런닝맨을 모방한 게임을 준비하였다. 그간 쌓인 피로로 힘들만도 하지만 학생들은 각 조원들과 함께 학생회에서 준비한 게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었다. 그리고 농촌을 떠나기 전날인 토요일에는 봉사활동에 대한 최종 평가와 함께 학생들이 한 번 더 뭉칠 수 있도록 경영학과 단합대회를 준비하였다. 우리는 족구, 배구, 줄다리기, 계주, OX퀴즈를 준비하여 봉사활동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대원들을 위해 보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그 동안 보살펴주신 어르신들을 위해, 열심히 일 해 준 대원들을 위해 각 농가마다 기념촬영을 하고 사진을 인화하여 액자로 만들어 나누어주었다. 그 액자를 받으신 어르신께서는 다른 어떤 큰 선물보다 더 기뻐하셨고 헤어짐을 아쉬워하는 어르신들과 학생들의 눈시울은 붉어졌다. 나도 한 농가에서 일주일 동안 일 하며 동고동락 하였지만 헤어짐의 아쉬움은 일주일 그 이상이었다. 일주일,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지만, 사람의 정이 무섭다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서로의 마음은 이미 한 가족이나 다름없었던 듯하다.

학생대표로써 농촌봉사활동을 마무리 지으며 느끼는 것은 우리나라의 농촌의 현실은 열악하다는 것이다. 마을에는 혼자 힘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어르신들이 하루하루 자신의 온 힘을 쏟으며 더운 날씨에 일





을 하고 계셨고, 나라의 외면을 받으면서 나라를 위해 농사를 짓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계셨다. 이런 농가와 어르신들을 위해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젊은이들이 작지만 힘을 보태 그 분들의 고생을 조금이나마 털어드리는 것이었다. 일에는 서툴지만 도와드리려는 마음씨, 그 조그마한 정성만으로도 농가 어르신들은 고마워하고 아들 딸 같이 대해 주셨다. 남을 돕는다는 것은 굳이 큰 돈이 없어도 굳이 큰 힘이 없어도 된다는 것을 이번 농촌봉사활동을 통해 느꼈다. 사람과 사람 간에 마음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그 어떤 물질적인 것에 비할 것이 아니었다.

이 농촌봉사활동을 계획할 때만 해도 이 더운 날씨에 일주일동안 이 힘든 일을 할 수 있겠냐며 걱정하던 학생들, 외면하는 학생들도 많았다. 하지만 7박 8일간의 농촌봉사활동을 다녀와서 봉사활동을 통해 보람을 느꼈다는 학생, 여러 프로그램이 있어 재미있었다는 학생, 그리고 포도가 재배될 즈음에 단체로 가지 않는데도 개인적으로라도 찾아뵈길 거라던 학생들이 있어 학생대표로서도 힘들었지만 내가 원래 얻을 수 있었던, 그 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학생들이 낯선 곳에 와서 불편하면 안 된다며 학생들은 잘 먹어야 한다며 전폭적인 지지를 아끼지 않으신 청주농업협동조합의 임상순 과장님,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 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일을 뒤로하고 항상 학생

들을 생각해주신 박장래 작목반장님, 혹여나 학생들이 다칠까 항상 마





음 즐기시며 학생들의 건강에 신경써주신 정태석 교수님, 임명성 교수님, 농가 일을 도우면서 학생회 일까지 하느라 더 힘들었을 학생회 임원들, 그리고 더운 여름에 7박 8일 동안 불평불만 없이 힘든 일 마다하지 않고 농촌봉사활동에 참가해준 44명의 학생 대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 대원소감문 |

| 경영학과(학생회) |

우승용 | 경영학과 4학년  
포도밭 개간/조장

## “삼육대학교 경영학과 하계 농촌봉사활동 보고서”

나는 2학년 때 복학을 하고 처음 농촌봉사활동을 갔다 왔었다. 그 때의 추억을 되살리며 그 때 내가 경험하면서 받았던 것들을 다시 느끼고 선배들이 보여주었던 솔선수범한 모습을 내가 후배들에게 보여주고자 4학년임에도 불구하고 농촌봉사활동을 신청해서 다녀왔다.

첫날 차를 타고 올 때에 청주의 모습은 너무 조용하고 깔끔한 이미지였다. 우리가 갔던 용박골은 길가에 쓰레기도 없고 집들도 매우 예뻐다. 안쪽으로는 큰 차가 들어가지 못해 짐을 들고 이동했는데 마을 안쪽으로 들어와 보니 포도밭이 보이기 시작했다. 나는 사실 포도를 사서 먹어보기만 했지 포도나무를 그 때 처음 보았다. 첫 날은 내일 작업을 준비하며 팀원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둘째 날엔 5시에 기상하여 씻고 각 작업 조에 따라 다르게 아침 식사를 하러 출발하였다. 우리 조는 한식 뷔페로 아침식사를 해결하고 작년에 귀농하셔서 포도나무에 아직 열매가 열지 않고 땅도 나무가 자라기엔 아직 개간이 더 필요한 아버님, 어머님 두 분이 하시는 포도밭으로 향했다. 이 날, 날씨도 덥고 일이 익숙하지 않아 조원들이 너무 고생하는 모습에 가슴이 아팠다. 그리고 팀원들 간에 서먹한 분위기와 서로 간에 오해로 인해 우리 조는 요주의 조가 되었다. 교수님과 나는 팀원들 간에 오해를 풀고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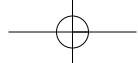


를 개선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다.

셋째 날엔 작업을 우선으로 하되, 팀원 간에 관계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 식사하면서 서로 간에 오해가 있었던 것을 풀고 서로를 조금씩 알아가면서 관계는 급속히 호전되었다. 관계가 개선되니 구름 한 점 없는 땃별인데도 모두가 웃으면서 즐겁게 일할 수 있었다. 사실 다른 조는 포도봉지 싸기, 포도알 숙아내기 등의 일을 하는데 우리 조는 포도밭의 돌을 골라내는 일을 하게 돼서 조원들에게 미안했다. 특히 여자 조원들에게는 정말 미안하고 고마웠다.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 문득 시골에 계시는 할머니가 생각났다. 할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는 쌀, 배추, 무, 마, 깨, 고구마 등을 두 분이서 모두 농사지으셔서 자식과 손주들을 챙겨주셨다. 내가 20대의 혈기 왕성한 젊은이인데도 허리를 숙여하는 일이 이렇게 힘든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훨씬 더 힘드셨을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찡했다.

이 날 저녁에 교수님께서 우리조만 너무 고생이 많다고 하시면서 맛있는 피자를 사주셨다. 힘든 일을 같이하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니 서로가 서로에게 행복을 주는 것 같아 마음이 따스했다. 다른 조 사람들이 우리 조를 '아우지 탄광 조'라고 부르는 것을 피자 먹다 알게 돼서 모두 크게 웃었다. 팀명처럼 힘들지만 재미있는 우리 조다. 넷째 날엔 오전 작업만 하고 오후엔 학과 프로그램으로 게임을 했다. 일하는 것이 3일째 되니 피로가 쌓여 나를 포함한 조원들이 모두 지쳐있었다. 다행히 중간에 쉴 수 있는 시간을 가져 체력을 회복할 수 있었다. 오후에 게임에서 비록 1등은 못했지만 단합하는 모습과 열정적인 참여로 3등을 해서 상품을 받았다. 무엇보다도 조원들과 재미있는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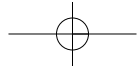




뜻 깊은 시간이었다.

다섯째 날, 나에겐 봉사 마지막 날이었다. 집안에 큰 경조사가 있어 다음날 떠나야했던 나에겐 이 날이 마지막으로 조원들과 작업하고 식사할 수 있는 날이었다. 지쳐있는 애들을 깨우고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일터로 향해 열심히 돌을 줍고 잡초를 뽑았다. 몸이 힘들다는 것을 알기에 나의 제안과 의견을 따라주는 조원들이 너무 고마웠다.

나는 농촌봉사활동을 다녀와서 보수가 없는 일도 나에게 보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한 번 느꼈다. 다친 사람 없이 열심히 일하고 서로를 챙겨주는 우리 조원들이 난 너무 좋았다. 아버님, 어머님께서 이것저것 챙겨주시려는 모습도 감사했고 혹여나 우리가 가서 폐를 끼친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과 함께 더 열심히 일하지 못하고 온 것이 후회된다. 다시 추억을 되새기려 개인 활동사진을 찾아보았는데 개인 사진뿐만 아니라 단체사진도 몇 장 없어 사진을 많이 찍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내가 너무 일에만 치중해 조원들에게 많은 추억을 남겨주지 못한 것 같아 후회가 된다. 나는 이번 농촌봉사활동이 너무 재미있고 뜻 깊은 시간들이었으며, 행복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다. 나를 조장으로 만나 많은 고생했던 우리 조원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전해주고 싶다.





## | 대원소감문 |



김준엽 | 경영학과 3학년  
4조 조장

### “새로운 경험과 인연”

살면서 내가 남을 위한 일을 얼마나 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 그러던 중 방학 동안 농촌봉사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신청했다. 하지만 출발 전부터 많은 고민을 했다. 일기예보에서 연신 무더운 날씨를 얘기했기 때문이다.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드디어 청주를 향해 출발했다. 차로 두 시간 정도를 가니 한 농촌에 도착했다.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이곳이 일주일동안 머물게 될 집이다.

도착하고 나서 숙소에 짐을 풀고 우리가 일하게 될 발주인 분의 집을 방문했다. 친가, 외가가 모두 서울이라 태어나서 처음으로 시골집에 들어가 봤다. TV에서나 보던 집을 들어가 앉아 할아버지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다. 시골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마치 사촌동생들과 시골에 내려와 할아버지의 옛날 얘기를 듣는 것 마냥 정겨웠다.

밭일은 그 다음 날인 월요일부터 시작했다. 우리가 처음으로 하게 된 작업은 포도 알을 숙아내는 작업이었다. 아저씨의 설명에 따르면 알을 숙지 않으면 줄기가 찢어지고 알들이 서로 부딪혀 터지기 때문에 상품성이 없어진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었다. 난생 처음으로 하다 보니 손에 익을 리가 없었다. 알들 간의 간격을 맞추기도 힘들고 송이 안에 박힌 작은 알





들을 골라내기도 힘들었다. 무엇보다도 힘든 것은 찌는 듯한 날씨였다. 가만있어도 땀이 흐르는 날에 작업을 하려니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오전 작업이 끝나고 농가로 돌아와 점심을 먹었다. 소박하고 정갈한 시골밥상이었지만 그 어떤 일품요리들보다도 맛있게 먹었다.

이전에 뉴스에서 가뭄이 심각하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실제로 보니 더 큰 문제였다. 작물들이 말라가고 열매들이 매우 작았다. 주인아저씨도 가뭄을 걱정하셨다. 일주일동안 딱 하루 비가 왔는데 해결하는 데는 턱 없이 부족한 양이었다. 그냥 서울에 있었으면 넘어갈 수도 있었던 문제였지만 현장에서 보니 정말 내 마음도 너무나 안타까웠다. 무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우린 계속 작업을 했다. 포도 알을 숙고 특수종이로 포도송이들을 감쌌다. 종이로 감싸야 병충해와 농약으로부터 포도송이를 보호할 수 있다고 한다.

그렇게 우리들의 일주일 지났다. 처음 하는 발일은 힘들었다. 더구나 조장의 역할을 수행하느라 더욱 익숙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같은 조를 이룬 조원들이 너무나 많은 도움을 주었다. 힘든 발일을 하면서도 서로 얘기를 나누며 웃음을 잃지 않았고 몸이 불편한 인원이 생기면 모두 자신의 일처럼 걱정해주고 격려하였다. 또 부족한 나에게 불평 한마디 없이 잘 따라와 주었다. 그런 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내가 많은 것을 배웠다. 조금이라도 힘든 일이 닥치면 포기할 생각뿐이었던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동생들, 형에게 미안하단 말과 함께 고맙단 말을 하고 싶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아저씨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 | 대원소감문 |



서현슬 | 경영학과 3학년  
포도 숙기, 뽕지 씹우기

### “아름다운 포도밭에서 배움”

봉사활동을 가기 전 날, 랫별이 내리쬐는 포도밭 아래 땀을 흘리고 있을 나 자신을 떠올리며 기대감과 걱정으로 가득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정말 힘들고 덥고 벌레도 많이 물리고 살도 새까맣게 탄다고 했다. 이 때문에 같이 가려한 친구들이 모두 겁을 먹고 신청을 포기하였다. 덕분에 동갑내기 이성친구와 가게 되었다.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금방 친해질 수 있으리라는 믿음과 함께 굳건히 봉사에 참여하였다. 한창 미모 가꾸기에 관심이 많아 타는 것도 끔찍하게 싫어하지만 이것쯤은 두렵지 않았다. 여러 가지 힘든 체험을 하면서 몸과 마음으로 무언가를 배우고픈 의지가 더 컸기 때문이다. 그것이 교우관계든 인내심이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분명 일주일 동안 배우고 오는 것이 많을 것임을 확신하며, 기대감과 함께 청주로 향하였다.

허름한 초가집이 있을 것 같았던 청주는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아름답게 가꾸어져 있었다. 한번쯤 들어 가보고 싶은 펜션들이 줄줄이 늘어서 있었고 포도밭이 곳곳에 있어 아름다움을 더했다. 항상 각박하고 매연냄새 가득한 곳에 있다가 한적한 마을에 오니 마음도 평안해지는 기분이었다. 각 조로 나뉘어 우리가 일주일 동안 머물고 일하게 될 농가에 방문하였다. 조원들과 어색한 만남 속에서 친해지려 노력하





며 할머니, 할아버지, 아저씨를 뵙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농가에는 시골 냄새가 풍겨 어렸을 적 할머니 댁에 갔던 생각이 들었다.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시는 할아버지 덕분에 조원들과의 어색함도 조금씩 사라지는 것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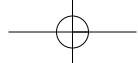
이틀 날, 처음으로 포도밭 일을 하게 되었다. 포도가 너무 풍성하게 자라면 포도알이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포도를 숙는 작업을 했다. 적당히 포도를 떼어내야 건강한 포도들이 더 클 수가 있다. 마치 포도를 예쁘게 그리듯 모양을 만들며 잘 숙아내야 한다. 처음에는 포도를 너무 많이 따서 아저씨에게 지적을 받고, 또 너무 숙아내지 않아서 지적을 받았다. 계속 아저씨에게 설명을 듣고 잘 숙은 포도를 관찰하여 포도 따기를 여러 차례 한 결과, 손도 빨라지고 포도도 나름 모양을 제대로 갖추었다. 아저씨도 잘 하고 있다고 칭찬해주셨다. 우리 조원들과 함께 '파이팅!' 응원까지 외치며 열심히 숙는 작업을 했다. 동생들이 열심히 하려는 모습에 언니로서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더 일을 하게 되었다. 봉지를 씌우는 작업을 할 때는 지금 하고 있는 빵집 아르바이트에서 빵 봉투를 여러 번 씌워본 노하우로 속도를 내서 일을 할 수 있었다. 봉지가 씌워진 포도들이 하나씩 들어가면서 뿌듯함이 더해졌고 빨리 작업을 완성하고 싶었다. 그러나 포도가 끝도 없이 많아서 마음먹은 것처럼 쉽게 일을 끝내지 못하였다. 해는 점점 저물고 일을 끝내고 농가로 돌아가야 할 때는 할머니에게 죄송한 마음까지 들었고 아쉬웠다. 일 잘 하라고 맛있는 밥 지어주시는 할머니를 생각하면 더 많이 일을 하고 싶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했다.

포도밭 일 외에도 학회에서 준비한 런닝맨이나 체육대회도 너무나 흥

미로웠다. 어쩌면 포도밭에서 보다 더 힘들게 뛰어다녔던 것 같다. 경쟁심에 불타서 앞 조를 따라잡고자 열심히 게임에 참여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조가 꼴등으로 런닝맨 성적을 거두었다. 하지만 우리조의 자세는 거의 1등 수준이었다. 계속 운이 따라주지 않았지만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다들 열심히 하였고 계속 '파이팅'을 외쳤다. 또 서로를 배려하고 격려하는 모습이 다른 조보다 뛰어났던 것 같다. 체육대회에서 피구를 할 때에도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다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무섭기도 했지만 좋아보였다. 우리 경영학과 학생들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게 된 순간이었다. 아쉬운 게 있었다면 봉사활동 초반에 내가 가졌던 열정과는 다르게 속이 안 좋아 병원에 가게 된 일이었다. 농촌에 와서 장염이 다시 발생한 것이다. 아침밥도 거르고 몇 시간째 배가 너무 아프고 하니 말할 힘조차 없었다. 이런 상태로는 봉사활동을 더 할 수 없을 것만 같았다. 그러나 우리 조원들이 계속 걱정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해주어 몸도 괜찮아지고 다시 일을 할 수 있었다. 아플 때 그냥 집으로 올라가버렸으면 그 후에 있을 재미난 활동과 다양한 체험을 느끼지 못할 뻔해서 지금 생각해보면 꼭 참고 버틴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하루 간 열심히 일을 하지 못해서 농가 할머니에게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들어 배가 괜찮아졌을 때는 대신 할머니 어깨도 주물러 드리고 설거지도 도맡아 했다.

봉사활동이 막바지에 이를 쯤, 농가와 동생들과 정이 들어 곧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일도 더 열심히 하고 서로 좋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했다. 할머니와 우리 서로에게 쓰는 롤링페이퍼를 준비하고 사진도 많이 찍었다. 아침에는 항상 아저씨가 여자 숙소까지 데리러 왔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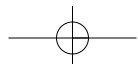




는데 나중에는 우리가 좀 더 일찍 일어나서 농가에 걸어갔고 부지런히 할머니를 도왔다.

봉사활동이 끝나는 날, 우리 조원들 눈에는 보이지 않게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절대 친해질 수 없을 것 같던 몇몇 조원까지도 모두 정이 들었고 이제 이곳을 떠나야한다는 아쉬움에 마음이 아팠다. 그동안 쉬엄 쉬엄 일해도 절대 혼내지 않는 아저씨와 몸도 편찮으신데 매일 다섯 조원들의 밥을 챙겨주시느라 고생하신 할머니와 항상 미소로 맞아주시는 할아버지, 그리고 동생들에게 잔소리도 듣지만 항상 챙겨주는 조장오빠, 포도밭에서 노래를 불러 분위기를 좋게 해주는 보람이, 누나 누나하며 잘 따르는 오덕이,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윤구 모두 너무나 고마웠다. 아쉬움을 뒤로하고 우리는 집으로 향하였다.

일주일 동안 포도밭 일을 할 때 더운 햇볕이 힘들게 하고 온 몸이 아팠지만 이것도 추억이 되었다. 우리는 일주일만 고생하면 되지만 항상 이 일을 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아저씨가 얼마나 힘들까. 또 우리에게 맛있는 포도를 제공하는 모든 농촌에 계신 분들이 얼마나 고생하시는지를 알게 되었다. 그냥 포도 즐기만 심어 놓고 물만 주면 끝인 줄 알았던 일이 얼마나 많은 정성이 담겨있는지도 알게 되었다. 낫선 장소, 낫선 사람들과 함께한 일주일이 힘들기도 했지만 그만큼 얻어가는 것도 많았다. 단순히 포도밭 일만 하고 배운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그 속에서도 배운 것이 많았다. 열심히 하는 동생들을 보며 배운 것도 있고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배우게 되었다. 많은 것을 배우게 해준 일주일이었다. 내일이면 또 포도밭 일을 하러 농가에 내려가야 할 것만 같은 좋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 일곱빛

팀명	일곱빛	주최학과/부서	봉사동아리 일곱빛
지도교수	마이클 리	학생대표	남궁윤영
봉사지역	충청남도 천안	활동기간	2012.7.1~7.7
파견인원	지도교수 : 1명, 대장 : 1명, 대원 : 10명		
협력 및 후원기관	-	주소/연락처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하장리 265
봉사영역	농촌 봉사	봉사대상자	포도농장

### ▶ 팀 명단

No	이름	학과	학년	역할/담당	No	이름	학과	학년	역할/담당
지도교수	마이클리	경영정보학과			대원6	문태준	경영정보학과	3	대원
학생대표	남궁윤영	유아교육과	4	대장	대원7	이형철	경영정보학과	2	대원
대원2	설다운	화학과	3	부대장	대원8	김준희	경영정보학과	1	대원
대원3	김준희	경영정보학과	1	총무	대원9	여수진	경영정보학과	1	대원
대원4	박수완	원예학과	1	서기	대원10	차혜은	경영정보학과	1	대원
대원5	홍미란	경영정보학과	1	약품					

### ▶ 봉사 주요 활동내용 및 결과

No	활동영역	날짜	장소	내용	평가 및 의견	결과(참여인원)
1	농촌봉사	7월 1일(일)	포도밭	포도 싸기: 포도가 비에 젖지 않게 종이로 포도를 싸기	생각보다 수월했음	대원: 10명 지도교수: 1명
2	농촌봉사	7월 2일(월)	포도밭	포도 싸기: 포도가 비에 젖지 않게 종이로 포도를 싸기	50분 활동 10분 휴식으로 효율성 높이기 필요	대원: 10명 지도교수: 1명
3	농촌봉사	7월 3일(화)	포도밭	포도 싸기: 포도가 비에 젖지 않게 종이로 포도를 싸기	휴식시간을 통해 에너지를 비축해 좀 더 수월했음	대원: 10명 지도교수: 1명
4	농촌봉사	7월 4일(수)	포도밭	포도 싸기: 포도가 비에 젖지 않게 종이로 포도를 싸기	손이 빨라져서 수월하고 빠르게 활동 할 수 있었음	대원: 10명 지도교수: 1명
5	농촌봉사	7월 5일(목)	포도밭	포도 싸기: 포도가 비에 젖지 않게 종이로 포도를 싸기	비가 와서 다하지 못해 아쉬웠음	대원: 10명 지도교수: 1명



No	활동영역	날짜	장소	내용	평가 및 의견	결과(참여인원)
6	문화활동	7월 6일(금)	입장	동아리소개 및 수화공연	감동있는 순서였음	대원: 10명 지도교수: 1명
7	문화활동	7월 7일(토)	입장	음악활동 및 어린이 활동	준비시간이 부족했지만 만족할만한 순서였음	대원: 10명 지도교수: 1명

▶ 봉사활동 운영 전반평가

매우안 좋음 1	안 좋음 2	보통 3	중음 4	매우중음 5	활동에 필요한 준비물은 바짐없이 준비됐는가?	1	2	3	4	5					
계획된 활동은 모두 실행했는가?					1	2	3	4	5	모두 건강하게 활동을 마무리했는가?	1	2	3	4	5
활동 목표는 달성했는가?					1	2	3	4	5	대원들 간에 문제없이 생활했는가?	1	2	3	4	5
활동영역		평가			활동영역		평가								
지도교수역할		사진 촬영 및 학생들의 전반적인 생활 지도			학생대표역할		전체 활동 진행 및 관리								
학생대원소양		한 명도 빠짐없이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임했음			현지반응		만족하며 좋아하심								
숙식 및 생활여건		따뜻한 물이 4일 동안 나오지 않고 습기가 많았으나 큰 불편은 없음			활동지역 및 안전관련		깨끗하고 조용하며 안전함								
잘된점		-			운영평가 및 애로사항		농장 활동에는 애로사항이 없었으나, 이틀이나 순서 요청을 요구 받아 휴식을 해야 하는 시간에도 순서연습을 하여 피로가 가중되었음. 찬물로 샤워해 감기몸살에 걸리는 대원들이 생김								
개선(보완)사항		-			총평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움								

▶ 봉사활동 전체 일정표

일정	구분	활동내용	일정	구분	활동내용
7/1	오전	포도농장 일손 돕기, 아침 식사	7/4	오전	포도농장 일손 돕기, 아침 식사
	점심	포도농장 일손 돕기		점심	포도농장 일손 돕기
	오후	점심 식사 및 휴식		오후	점심 식사 및 휴식
7/2	오전	포도농장 일손 돕기, 아침 식사	7/5	오전	포도농장 일손 돕기, 아침 식사
	점심	포도농장 일손 돕기		점심	포도농장 일손 돕기
	오후	점심 식사 및 휴식		오후	점심 식사 및 휴식
7/3	오전	포도농장 일손 돕기, 아침 식사	7/6~7	문화활동 및 정리	
	점심	포도농장 일손 돕기			
	오후	점심 식사 및 휴식			
		포도농장 일손 돕기, 씻기, 평가회, 취침			



# PHOTO

▶ The pictures came out well.



▶ 출발 전 서울역에서



▶ 즐거운 새참시간



▶ 일과를 마치고



▶ 열심히 포도 따는 중



▶ 선물 사러 나가는 중



▶ 즐거운 새참시간 수박 먹는 중



# PHOTO



▶ 어린이 프로그램 활동



▶ 합창 연습 중



▶ 서울로 돌아가기 전 단체사진



▶ 아직 익지 않은 포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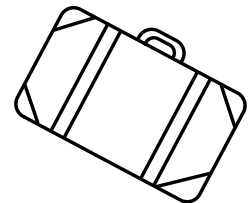
▶ 포도 싸매는 모습



▶ 어깨 마사지 중



▶ 포도농장에서 설명 듣는 중



## | 학생대표 소감문 |



남궁윤영 | 유아교육과 4학년  
포도농장 일손 돕기/ 학생대표

## “깨달음을 준 포도송이”

우리 일곱빛 팀은 7월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동안 천안 입장면에 있는 입장교회로 포도농장 봉사활동을 다녀왔다. 하기봉사대는 여러 번 다녀왔지만 농촌봉사활동으로 봉사대를 가는 것은 처음이어서 설레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했다. 포도농장에 도착하기 전엔 포도농장의 일은 크게 어렵거나 힘들지 않을 거 같아서 편한 마음을 가지고 출발했다. 첫날 도착하자마자 짐을 풀고 바로 농장 일을 했다. 첫날엔 오래하지도 않고 일을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힘들지 않았다. 그러나 그 다음 날부터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했다.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부랴부랴 30분 만에 준비를 하고 6시부터 농장 일을 시작했다. 그리고 아침 먹을 때까지 일하다가 아침식사를 하고 또 점심때까지 일하고, 점심을 먹고 잠깐 2시간 정도 휴식을 취한 뒤 또 저녁을 먹을 때까지 계속 일을 했다. 일을 마치면 다들 씻고 평가회를 하고 기도회까지 마치면 밤 12시가 되었다. 그렇게 또 설 새 없이 다음 날 일찍 일어나기 위해 잠들어야 했다. 이런 빠빠한 일정이 계속되고, 안 쓰던 근육들을 쓰다 보니 어깨, 허리 안 아픈 곳이 없었다. 또 날이 갈수록 피로가 누적되어서 점점 지치고 힘들었다. 그래서 일하기 싫고 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함께 하는 모든 대원들도 모두 힘들어했다. 그러나 대원들은 투정부리거나 쉬지 않고 서로를 위해 힘든 와중에도 재





미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신나는 노래도 부르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었다. 만약에 팀워크가 좋지 않거나 이타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모인 팀을 꾸려서 왔다면 일주일을 채우지 못하고 서울로 도망쳐 왔을지도 모른다. 그만큼 힘든 일주일을 팀원들의 단합과 서로를 위한 마음 덕분에 열심히 이겨낼 수 있었다. 우리는 포도를 비에 맞지 않게 종이로 감싸는 일을 했는데 포도에 가지가 짧거나 꼭대기에 매달려 있으면 포도를 종이로 감싸기가 까다롭다. 그래서 그런 포도들은 못 본 척 하고 지나칠 때도 있었다. 그런데 나중에 뒤돌아보니 다른 친구들이 내가 지나친 포도를 킁킁거리며 싸고 있었다. 내가 나 편하자고 내 일을 외면하니까 내 뒤에 따라오던 다른 친구들이 내 몫을 대신하고 있었다. 내가 힘들다고 내 몫을 피해버리면 내 몫을 누군가가 지게 되어 있고, 우리를 위해 내가 더 노력하면 내가 노력하는 만큼 나에게 많은 것이 돌아온다는 것을 이번 경험을 통해 느낄 수 있었다.

포도 하나에도 이렇게 많은 손길과 고생이 들어간다는 것을 글이 아닌 몸을 통해 처음으로 알 수 있었다. 포도 한 알에도 많은 정성을 기울였듯이 포도보다 훨씬 귀하고 소중한 우리 일곱빛 팀원들을 위해 더 노력하고 귀 기울여야 하겠다. 일주일동안 힘들지만 열심히 일한 이 경험을 가지고 앞으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겠다.

## | 대원소감문 |



박수완 | 원예학과 1학년  
서기

### “천안의 포도와 일곱빛”

나는 내가 속한 일곱빛이라는 봉사 동아리에서 천안으로의 2012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의 6박 7일간 하는 농촌 봉사 활동에 참가하였다. 첫날에 대원들을 서울역 1사에서 보기로 하였다. 나는 그 전날에 미리 싸두었던 내 키의 반 정도 되는 가방을 들고 집에서 12시 정도에 출발하였다. 첫날은 일요일이었는데 주말이다 보니 지하철에 사람이 평소보단 많이 없어서 큰 짐을 들고 있었지만 수월하게 갈 수 있었다.

1시가 안되어 서울역에 도착을 하고, 다른 대원들을 기다리고, 2시에 천안으로 가는 기차를 탔다. 기차를 타서 그런지 1시간 30분 정도 밖에 걸리지 않고 천안역에 도착을 하였다. 우리는 충청남도 입장면 입장리에 있는 입장교회에 머무르기로 하여서 그곳으로 곧장 향했다. 그곳에서 도착을 하여, 짐을 풀었다. 그러던 도중, 오늘 날씨가 좋아서 오늘부터 포도농장에 있는 포도를 따내는 작업을 하러 가야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첫날은 작업을 하지 않는다는 일정이었는데 급하게 준비했다.

바지를 작업하기에 편한 몸빼 바지로 갈아입고, 햇볕에 피부가 타지 않도록 썬크림도 바르고 모자도 챙겨서 포도 농장으로 갔다. 포도 농장의 주인은 입장 교회의 장로님이시다. 장로님은 우리에게 포도를





어떻게 싸매는지 직접 설명해 주시고 하얏고 네모난 포도봉지를 100장씩 대원들에게 나눠 주셨다.

포도 작업을 시작하려고 농장을 둘러 봤더니 농장이 정말 크게 보였다. 끝이 없는 알알이 달려있는 포도송이들을 보니 징그럽게 느껴지기도 했다. 그래도 열심히 하다보면 금방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열심히 했다. 포도를 처음 싸보는 거라 속도가 느리고 영성했지만 그래도 1시간 조금 넘겨서 100장을 다 썼다. 그래도 저녁시간까지 시간이 조금 남아서 작업을 계속 하였다.

조금 높이 있는 포도들은 발판을 이용하여 싸매었다. 포도를 싸매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 시간이 금방 지나갔다. 7~8시까지 작업을 하다가 장로님께서 부르셔서 저녁을 먹으러 갔다. 저녁을 먹으면 9시 정도가 되고 숙소에 도착을 해서 씻고 잠깐 쉬면 11시가 금방 된다. 11시부터 다음 날의 일정과 식사당번 정하기 등의 주제로 회의를 했다.

나는 서기 역할을 했는데 서기의 역할은 회의의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다. 회의가 끝나면 마이클 리 교수님의 주도로 성경 한 구절씩 읽고, 기도를 하며 하루를 마쳤다.

바쁘게 포도 작업을 하고, 또 바쁘게 쉬거나 밥을 먹고 다시 작업을 하니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갔다. 처음엔 길었던 하루가 농촌에서의 일이 익숙해지자, 하루가 짧게 느껴졌다. 한편으로 보면, 하루가 짧게 느껴지는 것이 일이 너무 고되어서 좋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 아쉬움도 조금 남는다.

일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이렇게 사흘을 보냈다. 아침 5시 반에 일어나서 6시에 농장에 도착하여 포도 싸매는 작업을 하다가 9시가 되면 장

로넨 댁에 가서 아침밥을 먹고 다시 농장으로 와서 1시까지 일을 하고 점심을 먹은 뒤로는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2시간 정도 쉰 후, 다시 3시에 농장으로 가서 작업을 하다보면, 5시 정도 새참을 주시면 먹고 또 일하고 7~8시가 되면 일이 끝난다. 일이 끝나면 11시에 회의를 하고 기도로 하루를 마친다.

우리는 비가 오는 날에는 안교 연습을 했다. 봉사 동아리인 일곱빛을 소개하고 수화공연을 하고 수화공포드도 짜서 수화를 가르쳤다.

첫날부터 시간이 흐를수록 포도 작업의 강도가 높아졌다. 그 이유는 우리가 봉사활동을 시작한 날로부터 5일 후에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이다. 비가 오면 포도 작업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비가 오기 전에 많이 싸놔야 해서 작업의 강도가 높아졌었던 것이다.

작업을 할 때 작업의 강도도 세지고 팔을 계속 위로 들고 있어서 어깨도 뭉치고 목도 아팠지만 그래도 다 함께 하는 일이라 견딜 수 있었다. 고개를 조금만 돌려서 보면 열심히 작업하는 대원들이 보였다. 그리고 나만 힘든 게 아니라는 것을 느꼈다. 그것에서 조금 위로를 느껴 힘들지만 열심히 했다. 대원들이 힘든 일을 함께 하니깐 팀의 결속력도 강해지는 것 같았다.

나는 농활을 하면서 협동심과 인내심을 배웠다. 많은 포도를 싸매는데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가끔 너무 힘들어서 하기 싫을 때도 있었지만, 참고 하였다. 포도농장은 이렇게 나의 인내심을 길러주었다.

하지만 농촌봉사활동을 하면서 인내심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서로의 키를 맞춰가며 포도를 싸고, 속도도 함께 맞춰가며 작업하는 협동심도 필요하다. 농촌봉사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인데, 여러 명에서 같이 봉사



를 할 때는 협동심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 명 한 명의 협동심이 모여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예로, 끝이 보이지 않는 포도밭에서 대원들이 힘을 합해 포도들을 싸서 포도밭이 하얀 종이로 다 메꾸어졌을 때 너무 기뻐다.

농촌 봉사 활동을 하기 전에 생각했던 농활의 장점보다 원래의 장점들이 훨씬 많은 것 같다. 그 전에는 두루뭉술했던 장점들이 더 뚜렷해지고, 들었던 얘기들보다 직접 체험해 보니 더 좋은 것 같다. 올해의 농촌 봉사활동은 내가 처음이라서 그런지 우왕좌왕한 면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다음에 또 농촌 봉사 활동을 간다면 그때는 지금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할 것이다.



## | 대원소감문 |



문태준 | 경영정보학과 3학년  
포도농장 일손 돕기

### “깨달음의 열매 포도, 그리고 일곱빛”

7월 1일부터 7월 7일 삼육대학교 봉사 활동 동아리 일곱빛은 전라남도 천안 입장면에 있는 입장교회를 본진으로 하여 포도농장 일손 돕기 활동을 하였다.

돈도 안 되고 힘만 들 수도 있는 이 봉사활동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내 삶에 대한 자극이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군 전역 후 1년간의 휴학, 나는 나태해질 때로 나태해져 있었고 ‘되는대로 되겠지’ 라는 생각이 내 마음속 한구석에 자리잡혀있었다. 어느 순간 매사에 열심을 다하지 않는 나를 발견했었다.

그런 와중에 농촌봉사활동에 대하여 공지가 있었고 그런 나를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젊어서 고생은 사서 고생이라는데... 이 생각들이 나를 농촌 봉사 활동으로 이끌었다.

더운 날씨 5시 기상 8시 저녁식사를 끝으로 끝나는 포도농장 일손 돕기 일정... 첫날은 아무 생각도 안 들었고 그냥 힘만 들며 후회만 했던 그런 기간이었다. 이걸 내가 왜 했을까 나에게 남는 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이 들던 차였다. 그러나 지난 셋째 날 작업이 끝나갈 즈음 지칠 때로 지쳐가는 몸과는 반대로 갑작스럽게 내면에서 변화의 신호와 깨달음이 일어났다. “대충 일하나 열심히 일하나 똑같이 시간은 흘러가는데 그렇다면 열심히 일하는 편이 더 멋지지 않나, 내가 대충 대충하면 대원 모두에게 피해가 가





고 포도농장에도 피해를 주게 될 것인데 하는 김에 똑바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하는 생각이 변화의 시작이었다. 그 이후로 열심히 목적을 가지고 봉사를 할 수 있었다.

비가 와서 포도 일손 돕기를 하지 못하였을 때는 실수 있다는 즐거운 마음도 있었지만, 아쉽다는 마음, 더 열심히 했다면 좋았을 텐데 하는 후회가 더 컸던 것 같다.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그 후회를 줄일 수 있게 노력하고 보완해 나갈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진 기간이 젊음이며 청춘일 것이다.

나는 이 봉사활동을 통해서 내가 목표한 바를 이루었다고 생각한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 고생, 이 고생을 통해 난 변화를 이루었고 이 변화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봉사활동을 다녀온 지금의 내 모습을 보았을 때 분명한 변화를 나 스스로 인지할 수 있었다.

다시 나태해지는 내가 되었을 때, 이 날이 그리워질 것이며 그 날의 나를 그리워 할 것이다.

내가 베푼 것보다 받은 것이 많은, 또 다시 떠나고 싶은 생각을 들게 한 농촌봉사 활동이었다.

## | 대원소감문 |

이형철 | 경영정보학과 2학년  
포도농장 일손 돕기

### “포도농장”

필리핀 봉사에 다녀와서 불과 4일 남짓을 겨우 쉬고 다시 이렇게 농활을 오게 됐습니다. 사실 이번 농활을 오기까지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방학하기 전부터 농활에 참여하기로 신청하기는 했지만 필리핀 봉사를 다녀오니 집에서 별다른 일을 하지 않아도 계속 피곤해서 하루에도 14시간씩 나도 모르게 자는 것을 보면 여독이 미처 풀리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태로 과연 내가 이번 농활에 참여하였을 때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컸습니다. 그러나 농활을 신청했다는 것은 일종의 사람들과의 약속인데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옳을 것 같았고 교수님의 대화를 통해 힘을 얻어 오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내키지 않지만 조금은 억지로 온 셈입니다. 이렇듯 비록 억지로 온 봉사활동에 가깝지만 이제까지 경험한 적이 없는 힘을 쓰는 일을 하는 이번 봉사는 저에게 세 가지 교훈을 주었습니다.

첫째, 농사라는 노동의 가치를 몸으로 체감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22살입니다. 헬기왕성하고 소위 돌도 씹어 먹는 나이라고 부르는 20대 초반의 저에게도 포도농장에서의 노동은 첫날부터 어깨가 걸리고 다리도 아파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고작 5일 남짓의 노동을 경험하는 저와 달리 이 일을 업으로 삼으며 5년, 50년을 계속해야 하는 분들 덕분에 우리는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이 ‘농사가 힘





들다'는 것을 체감한 것만으로도 상당한 배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농작물은 오랜 시간을 거쳐서 나오는 것이다', '농사는 농부의 피와 땀이 섞여 있다'와 같이 책에서 얻은 피상적인 정보만으로 알고 있던 내용들은 공감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농사가 힘들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면서 단순히 책에서의 글귀가 아닌 공감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둘째, 농작물을 대하는 생각이 변했습니다. 봉사활동의 기간 동안 팽별 아래 봉지를 씌웠던 포도를 비롯한 농작물을 먹을 때 이전까지는 아무런 생각 없이 혹은 돈이라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였으니 그걸로 충분하다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일을 하면서 돈을 지불한 것만으로 농부의 땀의 노력의 대가를 치렀다고 말하는 것이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경제적인 대가를 넘어서는 감사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세 번째는 인내와 팀워크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농사는 힘듭니다. 그래서 포도를 종이봉지로 감싸다가 잘 감싸지지 않는 것은 그냥 뜯어버릴까? 저 포도 송이는 너무 높이 있는데 못 본 척 할까 하는 생각이 종종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처음 이곳에 오기 전에 했던 고민이 생각났습니다. 과연 내가 필요한 존재가 될까라는 고민 말입니다. 저는 이곳에 온 것을 후회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후회하고 있지 않습니다. 봉사활동을 왔음에도 후회하는 일을 겪고 싶지 않았던 저는 못 본 것도 다시 보는 인내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지 않으면 저기 앉아 있는 일곱 빛 저희 팀원 중에 한 명이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이제는 잘 알고 있습니다. 봉사는 혼자 힘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고, 나 혼자 게으름은 전체가 책임져야 하는 결과로 드러납니다.

길지 않은 기간 체감했던 이 교훈들이 일곱 빛 여러분들과의 앞으로의 봉사활동에서도 잊히지 않고 발휘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더운 여름날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노동을 경험한 우리 팀원들과의 추억 역시 잊혀지지 않을 겁니다.

## 식품영양학과

팀 명	식품영양학과	주최학과/부서	식품영양학과 안교
지도교수	김원곤 교수님	학생대표	이준혁
봉사지역	경상북도 봉화	활동기간	2012.7.1 ~ 7.7
파견인원	지도교수 : 1명, 대장 : 1명, 대원 : 15명		
협력 및 후원기관		주소/연락처	경상북도 봉화군 법전면 농산 2리
봉사영역	농촌봉사	봉사대상자	부천동 농가

### ▶ 팀 명단

No	이름	학과	학년	역할/담당	No	이름	학과	학년	역할/담당
지도교수	김원곤				대원9	한민우	식영과	1	홍보/사진
학생대표	이준혁	식영과	2	총괄	대원10	박희원	식영과	1	사고
대원2	이하늘	식영과	2	서기/재무	대원11	민신희	식영과	1	사고
대원3	양임경	식영과	1	총무/식사	대원12	김은정	식영과	1	봉사
대원4	송세린	식영과	1	부서기	대원13	김솔이	식영과	1	봉사
대원5	이소미	식영과	1	부총무	대원14	윤창식	식영과	1	홍보
대원6	조성완	식영과	1	식사	대원15	김다혜	식영과	1	어린이
대원7	최가희	식영과	1	문화	대원16	양혜빈	식영과	1	어린이
대원8	노우림	식영과	1	문화					

### ▶ 봉사 주요 활동내용 및 결과

No	활동영역	날짜	장소	내용	평가 및 의견	결과(참여인원)
1	농촌활동	7.2	마을 농가	울타리, 고추밭, 하우스, 발김매기 작업	아이들이 처음 하는 농촌 활동이었는데 난이도가 너무 높았음	대원: 16명 마을주민: 4명 교수님: 1명
2	농촌활동	7.3	마을 농가	울타리, 고추밭, 하우스 작업	첫 날 보다는 적응해서 그런지 대체적으로 괜찮았음	대원: 16명 마을주민: 3명 교수님: 1명
3	농촌활동	7.4	마을 농가	감자 수확, 제초, 콩밭 작업	대체적으로 다들 적응은 했으나 몸이 힘든 하루였음	대원: 16명 마을주민: 3명 교수님: 1명
4	농촌활동	7.5	마을 농가	페인트 작업	페인트칠을 하기 위해서 전에 있던 페인트를 벗기는 과정에서 먼지가 너무 날려서 힘들었음	대원: 16명 마을주민: 20명 교수님: 1명



No	활동영역	날짜	장소	내용	평가및 의견	결과(참여인원)
5	문화활동	7.7	마을	활동보고 순서 진행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봉사하면서 느꼈던 소감 발표 시간이 좋았음	대원: 16명

▶ 봉사활동 운영 전반평가

매우인중음 1	인중음 2	보통 3	중음 4	매우중음 5	활동에 필요한 준비물은 바짐없이 준비됐는가?	1	2	3	4	5
					모두 건강하게 활동을 마무리했는가?	1	2	3	4	5
					대원들 간에 문제없이 생활했는가?	1	2	3	4	5
활동영역	평가				활동영역	평가				
지도교수역할	대원, 주민들에게 봉사정신을 일깨우고 학생대표 지도				학생대표역할	지도교수님의 지시를 받고, 의견을 물은 뒤 대원들을 이끌었다.				
학생대원소양	대체적으로 모두 열심히 활동하였지만 가끔 개인의 목소리를 높일 때가 있었다.				현지반응	마을 주민 가정에서 너무나도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많은 사랑을 받고 왔다.				
숙식 및 생활여건	숙식하는 조건은 정말 쾌적하고 좋았으나 씻을 때 물이 잘 안 나올 때가 많아서 힘들었다.				활동지역 및 안전관련	활동하면서 크게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몇몇 활동지역은 긴바지를 입지 않아서 살이 활켜거나 한 경우가 있었다.				
잘된점	농촌 봉사활동은 처음 하는 대원들이 하기에는 난이도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해내준 점, 순서를 준비하면서 부서별로 잘 준비한 점.				운영평가 및 애로사항	대원들이 많다보니 개개인의 의견을 다 반영할 수 없어서 조금 의견 충돌이 있었지만 목사님이 잘 이끌어주셔서 무사히 잘 운영할 수 있었다.				
개선(보완)사항	대원들이 1학년이고 처음 하는 봉사활동인데 활동내용이 난이도가 높아서, 미리 답사오지 못한 점이 아쉬웠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방문하여서 사전답사를 꼭 해야겠다.				총평	교수님이 잘 이끌어주셔서 아무런 사고 없이 잘 마칠 수 있었고, 처음 하는 봉사활동이고 난이도가 높아서 많이 힘들었을 텐데 열심히 활동을 해준 대원들이 기특하다. 봉사활동으로 도움을 주러 왔지만 많이 배우고 느낀 감사한 일주일이었다.				

▶ 봉사활동 전체 일정표

일정	구분	활동내용	일정	구분	활동내용
7/1(일)	오전		7/5(목)	오전	사무회, 건물 페인트 벗기기 작업
	오후	동서울 → 봉화(춘양)		오후	활동준비
7/2(월)	오전	사무회, 농활	7/6(금)	오전	공동체훈련
	오후	농활, 평가회		오후	활동준비
7/3(화)	오전	사무회, 농활	7/7(토)	오전	문화활동
	오후	농활, 평가회		오후	주변관광, 평가회, 봉화→동서울
7/4(수)	오전	사무회, 농활			
	오후	농활, 평가회			



# PHOTO

▶ The pictures came out well.



▶ 봉화로 오기 전 터미널에서



▶ 고추밭 헛골비 및 재초작업



▶ 감자밭 감자 줍기



▶ 울타리 보수 및 재초작업



▶ 공동체 훈련하면서



▶ 페인트 벗기기 작업



# PHOTO



▶ 집 가기 전에 청량산에서



▶ 고추밭



▶ 농촌봉사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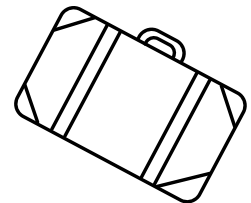
▶ 노래시간



▶ 작업하시는 교수님



▶ 콩밭에서 잡초 제거



## | 지도교수 소감문 |



교양성경과 | 김원곤

## “고추 하나가 이렇게 귀한 줄 몰랐어요”

우리 16명의 봉사대원들이 너무도 자랑스럽다. 우리 대원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힘든 일을 해본 것은 처음이었다. 더운 여름날 한두 시간 밖에 서있는 것조차도 힘든 일인데 우리 학생들은 하루 6-7시간씩 5일 동안 농촌 일을 해야만 했다. 더구나 남학생보다 여학생들이 많아 더 걱정이었지만 우리 학생들은 모든 과정을 성공적으로 잘 마친 것이다.

봉사활동 기간 중 가장 힘들었던 날은 첫 번째 날이었다. 첫날은 4개조로 나뉘어서 각 조마다 다른 장소에서 고추밭 비닐 설치, 잡초제거, 비닐하우스 보수작업, 울타리작업 등 각기 다른 일들을 하게 되었다. 하루 일을 마치고 와서 학생들은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앞으로 한 주일을 어떻게 보낼지 걱정스러워하는 모습이었다. 지도교수인 나도 우리 학생들이 끝까지 일을 잘 할 수 있을지 염려가 되었다.

학생들은 신기하게도 어려운 일을 잘 적응해 갔다. 둘째 날은 첫째 날보다 조금 적응이 되었고 날이 갈수록 힘들기는 해도 잘 적응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때로는 밤늦게까지 놀기도 했지만 다음날 주어질 일을 어김없이 잘 수행하였다. 첫째 날 일하고 나서 친구들 가운데서도 가장 힘들어 했던 민희는 마치는 날까지 어찌나 열심히 일하던지 나는 민희를 다시 보게 되었다. 세린이와 은정이 같이 암전한 친





구들은 일할 때도 불평 없이 열심히 했다. 말은 없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니 안쓰러웠다.

무엇보다 우리 5명의 남자 대원들은 역시 남자답고 듬직하고 신사적이었다. 식탁에서 흔히 먹는 고추 한 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다는 고추밭 조에서 일하고 온 임경이, 보수가 좋은 아르바이트를 한주일 빠지고 왔지만 보람 있고 많은 것을 배웠다는 성완이, 이제 농촌에 사시는 할머니 집에 가면 할머니의 일을 도와드려야 하겠다는 친구들, 모두가 묵묵하게 일하며 여학생들의 힘을 덜어주던 우리 남학생들 매너 짱이다.

봉사대의 백미는 마치는 날 부천동 교회 교우들에게 보여준 간증순서였다. 아직 힘든 일을 해보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힘든 농촌봉사였지만 그 과정을 어떻게 견디고 봉사활동을 잘 마치게 되었는지 그간의 고맙고 감사하고 보람 있었던 점들을 고백 하였다. 이 시간은 모든 교우들뿐만 아니라 모든 봉사대원들 간에도 피차 감동을 주고받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이번 봉사대에 가장 수고한 학생은 봉사대장 준혁이와 부대장 하늘이다. 과 선배이지만 모두가 1학년인 대원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부드러운 말과 행동으로 모본을 보이며 학생들을 통솔하는 멋진 두 사람에게 감사한다. 이번 봉사경험은 힘든 일을 해냈다는 마음 뿌듯함이 자신감으로 남아 우리 친구들의 생애에 오래 간직되어 세상 살아 갈 때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 대원소감문 |



노우림 | 식품영양학과 1학년  
문화 활동 담당

### “길지만 짧았던 하계봉사를 다녀와서..”

학기 중 사회봉사의 시간이 많지 않아 걱정하고 있을 때, 방학 중에 하는 하계봉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농촌활동을 하는 것이라는 말을 듣고 기대 반으로 바로 신청을 하였다. 드디어 기다리던 하계봉사 출발 날, 2012년 7월1일 우리는 '식품영양학과 안교 팀'을 구성하여 서울 강변역에서 출발하여 경상북도 봉화군으로 향했다. 비록 우리 과 전체는 아니지만 안교 친구들과 함께 고속버스를 타고 향하는 그 설렘이 매우 컸고, 봉화로 향하는 버스 안이 정말 즐거움이 넘쳐났다. 버스터미널에 도착한 후 교회 장로님께서 데리러 와주셨다. 차를 타고 조금 더 들어가니 '부천동 교회'라는 곳에 도착하였다. 짐을 풀고 밖으로 나와 보니 사방이 산과 밭으로 둘러싸여있고, 앞에는 기차길이 지나가고, 집들도 듬성듬성 있는 정말 시골이었다. 교회도 조금 낡고 오래된 교회라 남자들이 쓰는 곳을 곰팡이 천지에 여자들이 쓰는 곳도 그렇게 깔끔하진 않았지만 앞으로 일주일동안 우리가 생활해야 할 곳이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청소를 하고 지냈다.

그렇게 도착한 하루는 지났고, 드디어 첫 봉사활동을 시작하였다. 우리는 4조로 나뉘어 흩어졌고, 내가 속해있던 4조는 고추밭으로 향하였다. 차를 타고 굽이굽이 높은 산길을 들어갔더니 한 집과 밭들이





나왔다. 그곳이 우리가 일할 곳이었고, 우리는 높은 경사에 놀라고 말았다. 70도 정도 되는 경사를 기준으로 사방이 밍이였다. 그 경사 길을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도 힘들었다. 우리는 고추밭에서 고추사이사이 고랑에 비닐을 씌우는 작업을 했다. 비닐을 씌우고 날아가지 못하도록 나무젓가락을 꼽고 돌을 엮고..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고 고랑 사이가 좁아 계속 몸을 웅크리고 하는 작업이 무척 힘이 들었다. 하지만 우리가 일한 곳은 앞쪽에 산과 강이 있고, 경사가 놓아서 그런지 중간 중간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었던 것 같다. 점심을 먹는데 집사님께서 밥을 고봉으로 떠주셔서 '이걸 어떻게 먹나?' 싶었다. 하지만 밥 자체가 너무 맛있어서 싹싹 비웠고, 유일한 청일점이던 친구는 고봉밥을 2그릇이나 먹어치웠다. 점심을 먹고 끝맛 같은 낮잠을 청한 뒤 남은 고추밭 일을 끝냈고, 옆쪽에 있는 깻잎 밭의 김매기 작업을 했다. 햇볕도 너무 세고 고도도 높고 해서 현기증이 났지만 여기서 쓰러지면 농작물도 죽고 나도 죽는다는 생각으로 정신력으로 버티면서 무사히 모든 일을 끝마쳤다. 너무 힘이 들어 녹초가 되어버렸지만 그곳에 집사님과 집사님의 부모님 이렇게 3명에서 사시는 데 총 합쳐서 2000평이나 되는 밭일을 혼자 다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괜히 피를 부린 것 같기도 하면서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 우리가 그날 한 일이 집사님 혼자 하시면 2일 치라는 소리를 듣고 우리가 조금이나마 일손을 걷어 드린 것 같았고, 보람되고 뿌듯한 마음이 들며 숙소로 돌아왔다. 2일째부터는 제비뽑기를 하여 봉사하러 갈 곳을 골랐다. 우연스럽게도 4조였던 우리 조는 다시 함께 붙었고, 이번에는 울타리 작업을 하였다. 이곳은 정말 산 속에 박혀있는 것처럼 산 사이에 집 한 채가 있었다. 전 날 이곳

에서 봉사한 친구들이 많은 일을 해놓아서인지 우리가 갔을 때는 별로 힘든 일은 아니었지만, 전 날 고추밭에서의 일이 너무 힘들었는지라 피로가 축적되어 더 힘이 드는 것처럼 느껴졌다. 가시철사를 울타리에 얹으면서 다리가 굽히고 해서 아프고 짜증도 났지만 봉사라는 생각에 꼭 참고 열심히 했던 것 같았다. 일이 끝날 때쯤 집사님께서 발목이 탕탕 부으셨고, 걷지 못할 정도가 되셨다. 대장 오빠가 집사님을 업어 집으로 모셨고, 우리는 마저 일을 끝낸 뒤 돌아왔다. 넓은 곳을 집사님 혼자 일 하시면서 발목 상태가 더 안 좋아지신 것 같아 너무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다. 그래도 이번 우리들의 봉사로 인해 요번 년 혹은 내년까지도 멎되지들로 인해 생활 터전이 안전하게 보호되었으면 하는 큰 바람이 있었다. 셋째 날에는 감자밭에서 감자를 수확 하는 일을 하였다. 일을 하기 전 수확의 기쁨을 느껴보고자 하는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일을 시작 하였다. 하지만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만만치 않은 일이었다. 호미로 직접 감자를 캐는 일이 아닌 기계로 캐면 그것을 주워 담기만 하는 일이었는 데도 감자가 꽤 크고 계속 쭈그리고 앉아 하는 일이어서 그런지 꽤 힘이 들었다. 중간 중간 기계가 고장이 나서 호미질을 하며 감자를 캐기도 하였다. 처음에는 재미있었지만, 감자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조심해서 캐야한다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감자밭을 하시는 장로님 부부께서 다른 분들과 함께 양로원을 운영하시고 계셨는데 몸이 불편하신 할머니들을 정성스럽게 돌보시는 모습에서 정말 본받을 만 하였던 것 같았다. 며칠 일하면서 먹은 점심 중에 제일 맛있었던 점심을 먹고 다시 감자밭으로 향했다. 다음 날을 비가 온다는 날씨예보가 있던 터라 비가 오기 전에 모든 감자를 수확해야 한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 힘에 벅





차기 시작했다. 목사님께서 다른 곳에서 봉사를 하고 있던 친구들을 데려 오셨고, 그 친구들로 인해 조금은 수월하게 빨리 일을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았다.

금요일은 봉사가 없었고, 대신에 바다에 놀러 가기로 계획이 세워져 있었지만 목요일 밤부터 심한 천둥 번개가 치더니 결국 금요일 내내 비가 내렸다. 금요일 오전에는 우리들끼리 레크리에이션으로 팀을 짜서 게임을 하였고, 저녁에는 토요일에 있을 순서를 연습하였다. 안교에서 울동 부인 나는 요번에도 울동을 맞아 학교에서 자주 하던 울동들을 다른 부원들과 연습하였다. 부원들과 내일을 이야기하며 이제는 이곳에서의 마지막이라는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이곳에는 젊은이가 아무도 없던 터라 마을 어른들이 우리를 상당히 예뻐해 주시고 챙겨주셨는데 감사한 마음에 더 열심히 준비했다. 다음날, 낮에 우리 모두는 금요일에 놀지 못한 아쉬움을 달래고자 드라이브를 하기로 하였다. 이곳에서 청량산이라는 곳이 유명하다 하여 청량산 드라이브를 떠났다. 언제 비가 왔었냐는 듯 하늘이 정말 예뻐고, 시원한 도로를 달리면서 계곡을 보며



우리 나름대로의 드라이브를 즐겼던 것 같았다. 드라이브를 마치고 와서 마지막 소감 발표 시간을 가졌고, 우리 모두는 힘든 일도 많았지만 보람되고 얻어가는 것도 많은 일주일동안의 봉사를 마음속에 새기며 서울로 돌아왔다.

우리는 항상 하루의 봉사활동이 끝나면 그날의 소감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었다. 힘들다는 말도 많이 나왔



지만 그 속에서는 조금씩 봉사의 기쁨도 느낀 것 같았고, 보람됨을 얻어가는 마음도 생겼던 것 같았다. 일주일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힘들 때 서로 의지가 되고, 서로가 서로를 더욱 챙겨주면서 더욱 많이 친해지는 것도 느끼게 되었다. 솔직히 처음 농촌봉사활동을 하러 간다고 했을 때는 농촌체험처럼 그런 단순한 봉사를 하는 줄로만 알고 있었던 터라 즐거움과 설렘을 가지고 떠났던 것이었지만, 우리는 체험이 아닌 말 그대로 농촌활동을 하러 왔었던 것이었다. 우리들의 불평과 불만이 많기도 하였지만, 이로 인해 농사꾼들의 마음과 정성을 느끼게 되었고, 비록 우리들이 하나 일은 농부들의 반의 반도 안 되지만 우리들이 먹는 이 식재료들이 우리의 땀과 노력이라는 생각으로 정말 감사히 먹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것 같았다. 봉사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정말 순수하게 나의 마음으로 봉사하는 거지만 요번 봉사활동을 통해 투정을 많이 부린 것 같아 후회가 되기도 하였고, 조금 더 열심히 봉사활동을 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점이 그분들에게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도 들었다. 앞으로도 봉사활동에 많이 참여하고 싶고, 내 자신이 조금 더 보람을 많이 느낄 수 있도록 행동해야겠다는 마음도 생겼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많은 것을 얻어오는 봉사활동이라고 느끼고 싶다.



## | 대원소감문 |



최가희 | 식품영양학과 1학년  
문화활동

## “사람을 살리는 봉사, 봉화 농촌 봉사를 갔다 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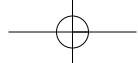
저희 식품영양학과 안고 임원들은 경북 봉화로 농촌 봉사활동을 갔다 왔습니다. 저는 충북 보은이라는 농촌에 살기 때문에 밭과 산으로 둘러싸인 봉화 마을이 그리 낯설지는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7월1일에 출발하여 굉장히 먼 거리를 힘들게 도착하였습니다. 아침과 저녁은 저희 대원들끼리 조를 짜서 돌아가면서 만들어 먹었고 점심은 봉사를 가는 농가에서 챙겨주셨습니다.

처음 봉사를 가기 전에는 농촌체험만 조금 하고 수박 먹고 친구들과 계곡에 놀러가서 놀지 않을까 라는 철부지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봉화에 도착하여 봉사를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께서 저희를 불러 앉혀 놓고 이 봉사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봉사이다. 우리가 게을리 해서 안 되고 진심을 담아 도움을 드리는 봉사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짧게나마 철부지 같은 생각을 했던 제 자신을 반성하고 최선을 다해 봉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7월 2일 첫날 봉사의 시작은 비닐하우스 만들기였습니다. 비닐하우스는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낡은 비닐들을 다 벗겨 내고 새로운 망을 씌우는 작업을 했습니다. 저희는 첫 봉사의 첫 일이라서 많이 서툴렀습니다. 그래도 농장주께서는 화 한번 안내시고 항상 웃는 모습으로 저희를 도와 주셨습니다. 너무 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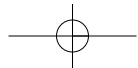
사했지만 한편으로는 죄송스럽기도 해서 얼른 일이 손에 익길 바랐습니다. 둘째 날은 마을의 고추밭을 갔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 너무나도 넓게 펼쳐진 고추밭을 보고 감탄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덥기도 했고, '과연 내가 이 일을 무사히 끝마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바닥에 비닐을 깔아서 나무젓가락으로 고정 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이 일은 고추가 쓰러지지 않고 잘 고정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작물이 쉽게 재배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앞으로는 채소를 더 감사해 하며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셋째 날은 콩밭을 방문하였습니다. 천 평이 넘는 땅에 심어져 있는 콩 옆에 자라나 있는 풀을 뽑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 일도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친구들과 힘을 내서 열심히 하였습니다. 콩밭 아저씨께서는 저희가 힘들까봐 손수 파라솔을 가져 오셔서 앞으로 나아갈 때 마다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저씨의 따뜻한 마음에 저희는 모두가 감동하였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에 힘입어 더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또 덥다고 수박을 주시면서 쉬면서 하라고 하시고 힘들지 않냐며 토닥여 주셨습니다. 넷째 날에는 저희 과 봉사대원들과 장로님들께서 모두 모여 저희가 묶었던 숙소의 페인트칠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비가 오는 바람에 페인트칠은 하지 못했지만 전에 있던 페인트를 벗겨 내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페인트 가루가 날려 온 몸에 묻고 기침을 해도 모두가 즐겁게 벗겨 내었습니다. 첫 날의 힘들었던 마음과는 달리 즐겁고 그 환경에 익숙해져 가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날은 모두가 청량산으로 드라이브를 떠났습니다. 4일 동안 힘들게 봉사를 하다가 드라이브





를 떠난 다고 하니 모두가 들뜬 마음이었습니다. 차에 올라타 바람을 만  
 낚으며 커다란 강과 산이 있는 도로를 달렸습니다. 마음과 눈이 맑아지  
 는 느낌을 받았고 상쾌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숙소로 돌  
 아와 휴식을 취하고 친구들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마지막 날은 봉화에  
 서 만났던 소중한 인연들과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일주일 동안의 봉사를 끝마쳤습니다. 이번 봉사를 통  
 해 우리가 사먹는 채소들이 쉽게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손  
 을 거쳐야지 싱싱하고 건강한 작물들이 재배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  
 다. 저희가 도와드리면서도 이걸 언제 다하나 하는 걱정이 많이 들었는  
 데 저희가 없을 때는 이 모든 것을 몇 분 안 되시는 분들이 하신다고 생  
 각하니 그 분들이 너무 대단하고 박수를 쳐드리고 싶었습니다. 항상 어  
 른들께서는 공부할 때가 가장 좋을 때다 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봉사를 통해 정말  
 공부 하는 것이 가장 쉽다는 것을 깨달았고 집에 계신 부모님 생각이 많  
 이 났습니다. 부모님께서 과일과 채소 가게를 하시는데 공부하느라 힘  
 들다는 핑계로 많이 도와드리지 못한 저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너무 죄송하고 앞으로는 부모님을 많이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학에 입학하여 첫 하계봉사는 저에게 많은 깨달음을  
 안겨주었습니다. 결코 짧지만은 않은 일주일 동안의 봉사활동은 저 자  
 신을 다시 한 번 돌아 볼 수 있게 해주었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일을 하면서 협동심도 배우게 되었고, 남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 곳에서 남에게 도움이 되고 저 또한 남에게 도움  
 을 받는 기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 | 대원소감문 |



한민우 | 식품영양학과 1학년  
홍보부

### 봉화봉사를 다녀와서...

처음 봉사를 시작했을 때는 봉사를 한다는 마음가짐보다는 놀러간다는 마음가짐이 더 컸다.

그런데 봉사대가 떠나기 전날에 회의를 했다. 거기서 김원곤 목사님께서 우리가 지금 가장 준비가 시급한 것은 바로 봉사를 하겠다는 마음가짐이라고 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이제까지 내가 봉사를 한다는 마음가짐보다 놀러 간다는 마음가짐이 컸음을 반성하고 목사님 덕분에 나는 가서 땀 흘려 일하자는 봉사의 정신을 갖추고 봉사를 떠나게 되었다. 그렇게 시작한 봉사 첫날, 봉사를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가짐에도 불구하고 처음 해보는 농촌봉사와 날씨 때문에 조금만 일해도 몸이 몹시 힘들었다. 첫 날 봉사는 오히려 봉사를 했다는 생각보다 누를 끼쳤다는 생각이 지배적일만큼 별 도움이 된 것 없이 짐만 되는 봉사를 했다. 그렇게 첫 날 봉사를 무사히 마치고 둘째 날은 고추밭 봉사를 하러 갔다. 고추밭은 첫날 봉사와는 다르게 무지 힘들었다. 너무 힘들어서 대충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집사님이 이번 수확이 첫 수확이라는 말씀을 듣고 대충하겠다는 생각을 한 나 자신을 반성하고 정말 죽을 정도로 열심히 일했다.

그렇게 둘째 날 봉사를 마치고 셋째 날은 제초를 하러갔다. 첫날과 둘째 날의 피로가 셋째 날 몰려와서 그전 봉사들도 별 도움이 되지는 못했지만 셋째 날은 정말 일을 한 게 없다. 마음은 돕고 싶었지만 몸





이 따라주질 않았다. 그렇게 셋째 날 봉사가 끝나고 넷째 날이 되었을 때 교회 페인트칠을 다시 하는 것을 도우려 여러 집사님과 장로님들이 교회로 오셨다. 우리 봉사단들도 같이 일을 돕기 위해서 집사님이나 장로님들이랑 같이 일을 했다. 같이 일을 해보면서 느낀 것이 집사님이나 여러 장로님들의 봉사정신을 우리가 따라가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우리 봉사단들은 조금 일을 하고 쉬고 하는 식이었지만 집사님, 장로님들은 쉬지 않고 계속 일하면서 비가 오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하셨다. 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저 모습이 바로 봉사하는 모습이구나.”라고 느끼면서 봉사도 깊은 마음가짐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넷째 날까지 해서 모든 봉사들이 끝났다. 우리 봉사대가 가서 별 도움은 안됐지만 항상 챙겨주고 우리를 소중히 대해 주신 집사님이나 장로님들이 너무나도 감사했고, 농산물 하나를 기르는데도 힘들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그리고 봉사를 하는 시골에 가서 밥을 먹을 때 전부 야채라서 밥맛이 없었다. 하지만 봉사를 하면서 매일 채소를 보고 땀 흘려 일한 뒤에 먹게 되면서 야채만 있어도 밥을 한 그릇 금방 비우는 내 자신이



신기했다. 봉사를 하는 동안 집사님들이랑 이런 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방문한 집의 집사님들은 거의 농사를 한지 별로 되지 않으셨다. 서울에 사시다가 농사를 하러 내려오신 분들이었다.

집사님들이 모두들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정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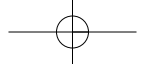
이렇게 매일 일하고 하느라고 힘들 것 같지만 현재 자신들의 삶이 행복하다고 하셨다. 도시에 살면서 있던 병들도 시골 와서 농사짓고 하면서 거의 다 없어졌다고 했다. 집사님들의 눈을 보니까 정말 진심이 느껴졌다. 봉사를 하면서 가끔 쉴 때 가만히 있으면 주위가 너무 조용하고 평온했다. 도시에서 생활하는 나로서는 무지무지 신기하고 부러웠다. 그리고 평소에 무언가를 애타게 가지려고 집착하는 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과연 그렇게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한 것인가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했다.

이렇게 봉사를 끝마치고나서 지금 생각하면 평생 지워지지 않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머릿속에 기억되어진다. 친구들과도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고 학교에서는 쌓을 수 없었던 우정을 쌓게 돼서 너무나도 좋았다. 비록 봉사라는 일념 하나로 떠났지만 내가 얻어 온 열매는 너무나도 많았다.

소소한 것에 감사하기, 봉사하는 마음가짐, 이해하려는 마음가짐, 공동체 생활, 감사하는 마음가짐, 사랑 하는 마음가짐은 평소에 쉽게 얻을 수 없는 것들이 봉사 하나로 모두 가지게 되었다.

봉사하면서 가장 많이 깨달은 것은 바로 이 세상에 쉬운 일 하나 없다는 것이다. 내가 방문한 집의 집사님이나 장로님들이 어제는 무슨 일했니? 라고 물으시면서 꼭 하시는 말씀이 “해보니까 쉬운 일 없지?”라고 말씀 하셨다. 정말 해보니까 어느 하나 쉬운 일이 없었다. 그러면서 평소에 무언가 쉬운 일을 하려고 찾아다닌 것을 생각하면 정말 한심하게 생각이 된다. 단순하게 농작물하나 기르는 것도 너무나도 어렵고 피곤한데 더 복잡한 곳에서 쉬운 일을 찾으려한 내 자신을 돌이켜 보면서 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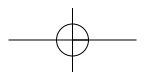


소에 나태했던 내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반성하게 되었다.

봉사 중간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내가 여기 왜 왔을까 하는 생각이 컸다. 하지만 이렇게 봉사를 마친 지금 너무나도 소중한 추억이고 인생에서 가장 큰 교훈을 얻을 수 있었던 장으로 기억되어진다. 이번 봉사를 통해서 참된 봉사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고 이번 하계봉사에서 배운 참된 봉사정신을 평소에도 실천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1 식별영양학과 1



## 가브리엘

팀 명	가브리엘	주최학과부서	가브리엘 선교단
지도교수	제해중	학생대표	전인규
봉사지역	충청남도 천안	활동기간	2012.7.8. ~ 7.15
파견인원	지도교수 : 1명, 대장 : 1명, 대원 : 13명		
협력 및 후원기관		주소/연락처	충남 천안시 입장면 하장리 265 041-583-5366
봉사영역	농촌봉사(포도농장) 및 어린이·학생 프로그램	봉사대상자	지역 어린이, 초·중학생

### ▶ 팀 명단

No	이름	학과	학년	역할/담당	No	이름	학과	학년	역할/담당
지도교수	제해중				대원7	박순우	물리치료	1	3G CLASS
학생대표	전인규	신학과	3	학생대표	대원8	박성은	물리치료	1	4G CLASS
대원2	김진호	신학과	4	봉사대장	대원9	송시온	물리치료	1	2G CLASS
대원3	손목민	경영학과	2	총무	대원10	이진중	경영학과	1	3G CLASS
대원4	신홍철	물리치료	2	2G CLASS	대원11	이루리	간호학과	1	2G CLASS
대원5	정호렬	물리치료	1	4G CLASS	대원12	김요한	신학과	1	3G CLASS
대원6	전완규	물리치료	1	4G CLASS					

### ▶ 봉사주요 활동내용 및 결과

No	활동영역	날짜	장소	내용	평가 및 의견	결과(참여인원)
1	지역 일손 돕기	7/8~10	입장	마을 포도농장 포도 봉지 씌우기	목표한 작업량을 수행하였음	대원: 13명
2	교육활동	7/11~15	입장	지역 어린이 대상 방과 후 프로그램 "비전스쿨" -미취학아동(2G CASS) -초등반(3G CLASS) -중등반(4G CLASS)	누적 참가인원 70명	대원: 13명



▶ 봉사활동 운영 전반평가

매우인중음 1	인중음 2	보통 3	중음 4	매우중음 5	활동에 필요한 준비물은 바짐없이 준비됐는가?	1	2	3	4	5					
계획된 활동은 모두 실행했는가?					1	2	3	4	5	모두 건강하게 활동을 마무리했는가?	1	2	3	4	5
활동 목표는 달성했는가?					1	2	3	4	5	대원들 간에 문제없이 생활했는가?	1	2	3	4	5
활동영역		평가				활동영역		평가							
지도교수역할		봉사대가 최선의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셨습니다.				학생대표역할		학생들을 잘 챙기며, 봉사대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휘하셨습니다.							
학생대원소양		학생들을 잘 지도하고 좋은 모범을 보였습니다.				현지반응		잘 준비된 프로그램으로 인해 매우 흡족해 하셨습니다. 참가학생들도 많았습니다.							
숙식 및 생활여건		봉사대원을 위한 별관이 따로 있어 생 활하는데 큰 불편은 없었습니다.				활동지역 및 안전관련		찾길이어서 조금 위험했지만, 주의하면서 안전한 가운데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잘된점		비전스쿨이라는 프로그램으로 현지의 좋은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었던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운영평가 및 애로사항		비전스쿨에 참여한 학생들에 비해 봉사대원의 숫자가 부족하여 지나치게 분주했던 모습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 봉사활동 전체 일정표

일정	구분	활동내용	일정	구분	활동내용
7/8	오전	입장 도착	7/12	오전	방과 후 프로그램 준비
	오후	농촌봉사(포도농장)		오후	방과 후 프로그램 비전스쿨 2일차(참가 학생 총 63명)
7/9	오전	농촌봉사(포도농장)	7/13	오전	방과 후 프로그램 준비
	오후	농촌봉사(포도농장)		오후	방과 후 프로그램 비전스쿨 3일차(참가 학생 총 73명) 문화의 밤 순서
7/10	오전	농촌봉사(포도농장) 방과 후 프로그램 준비	7/14	오전	봉사대 현황 보고 및 발표회
	오후	농촌봉사(포도농장) 인근지역학교 프로그램 홍보 방과 후 프로그램 준비 레크레이션 및 교구준비		오후	비전스쿨 1박2일 캠프
7/11	오전	방과 후 프로그램 준비 인근지역학교 프로그램 홍보	7/15	오전	
	오후	방과 후 프로그램 비전스쿨 1일차(참가 학생 총 43명)		오후	삼육대학으로 출발



# PHOTO

✦ The pictures came out well.



▶ 캠프활동



▶ 3G CLASS의 프로그램 진행모습



▶ 포도농장 봉사활동



▶ 비전스쿨 준비 중



▶ 3G CLASS의 비전강의 모습



▶ 각자 맡은 대로 준비하는 대원들





# PHOTO



▶ 초등학생모집 홍보활동



▶ 3G CLASS의 야외활동 모습



▶ 움직이는 중



▶ 학생프로그램



▶ 비전스쿨 준비 중



▶ 금요일 문화의 밤



▶ 4G CLASS의 프로그램 진행하는 모습



## | 지도교수 소감문 |



신학과 | 제해중

## “가브리엘 팀”

개인 일정 관계로 봉사대 기간 중 계속 함께 하진 못했지만 봉사대 활동을 매일 점검하며 격려하는 식으로 봉사대를 지도했다. 타 봉사대 팀들과는 달리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교내 거의 유일의 신앙, 봉사 동아리 회원들로 이루어진 본 봉사대는 탄탄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포도 봉지 싸는 노력봉사와 어린이 학생을 비전스쿨 운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훌륭한 봉사를 펼쳤다.

7월 9일(일) 오후부터 11일(화) 오후까지 어려운 노력 봉사 일을 마친 봉사대원들은 지친 몸을 이끌고 라도 전혀 불평 없이 12일(수)부터 15일(일) 오전까지 비전스쿨을 성공리에 개최했다. 매일 평균 약 50~60명 정도 되는 어린이 학생들을 교회로 초청하여 꿈을 심어주는 비전스쿨을 열었다. 더욱 고무적인 사실은 이번 비전스쿨을 계기로 학생 반을 조직하게 되었고 2학기 중에도 대원들이 번갈아가며 방문하여 그들을 지도하기로 했다.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불평 없이 봉사에 임하는 대원들이 대견하고 자랑스러운 뿐이었다. 이런 봉사의 기회를 모든 삼육 동 학생들에게 제공한다면 학교가 변화될 것이라는 확신까지 가지게 되었다. 작은 봉사를 통해 큰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봉사대에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 | 학생대표 소감문 |



전인규 | 신학과 3학년  
학생대표

## “봉사대를 마치고 나서”

이번에 이렇게 봉사대를 가는 것이 대학교에 입학한지 4년 만에 처음이었다. 이번 봉사대를 가기 전에 가장 최근에 2006년도였으니 오랜만에 봉사대를 간다는 것이 어색하기도 했다. 게다가 학생대표라는 직책을 맡게 되어 부담이 있었다. 가브리엘 동아리에서 함께 활동하는 친구들에게 봉사대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가기 전 여러 사무적 업무를 보는 것이 쉽지는 않았다. 그러나 모든 준비를 마치고 막상 봉사대를 갈 때는 설렘으로 가득하였다. 원래 우리 봉사대 팀은 입장에서 지역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멘토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되어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오기 전 전국적으로 내린 비 때문에 일곱빛 봉사대 팀이 마무리 짓지 못한 포도농장 작업을 우리가 하게 되었다.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작업 복장으로 갈아입고 포도밭으로 들어갔다. 장로님께서 포도 봉지를 싸는 방법을 알려주실 때까지 해도 이 일이 그렇게 힘든 일이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하나, 둘 포도봉지를 쌀 때마다 어깨가 빠근해지고 뒷목이 당겨오면서 이 작업이 보통 작업이 아니라는 것이 뼈저리게 느껴졌다. 포도나무 높이가 생각보다 높지 않아 어지간해서는 허리와 목을 구부리고 작업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그리고 포도나무가지에 포도송이가 일정하게 달려있지 않아 더 힘이 들었다. 일하는 내내 “어떻게 하면



일을 안 할 수 있을까?”라는 안일한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봉사대 학생대표로서 다른 대원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생각으로 스스로 채찍질하였다. 그 다음 날 우리는 새벽 6시부터 작업을 시작하였다. 지난주에도 비가 제법 내려 작업의 진척이 별로 없었고, 이번 주에도 수요일부터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어 비가 오기 전에 일을 서둘러 마무리해야 했기에 우리는 더욱 더 힘을 내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저녁형에서 새벽형 라이프스타일로 바꾸려니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 그렇게 포도밭에서 정신없이 일을 하다 보니 어느덧 우리에게 맡겨진 양의 일을 마쳤다. 육체노동으로부터의 해방감이 가장 먼저 밀려왔지만, 그래도 막상 일을 마치고 나니 뿌듯했다. 수십 년을 일하신 분들에 비하면 작업속도나 정교함이 떨어지지만, 13명의 대원들이 한꺼번에 일을 하니 꽤 많은 양의 작업을 순식간에 마칠 수 있었다.

포도밭 작업이 모두 끝나고 수요일부터는 지역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멘토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프로그램 회의를 하며 ‘비전스쿨’이라는 명칭 하에 아이들에게 각 반별로 활동을 하기 전에 다 같이 모여 어린이들을 어른과는 다르게 이해할 수 있지만 마을에 부족한 청년층인 우리 대원들이 각 반별 프로그램을 통하여 아이들에게 꿈과 비전을 함께 가져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렇게 3일의 프로그램이 마무리되고, 희망인원에 한해 1박 2일 캠프를 가졌다. 초등학교생들은 애니메이션 영화 상영을 하고 취침을 했고, 중·고생들은 레크리에이션 위주의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일요일에는 2박 3일간의 비전스쿨과 1박 2일 캠프를 마무리하면서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끝으로 봉사대 모든 일정을 마쳤다. 이번 봉사대는 특별한 봉사대였던 것 같다. 우리가 가기 전에 왔던 일곱빛 봉사대는 농촌 일손 돕기만 했지만 우리 가브리엘 봉사대는 농촌 일손 돕기와 더불어 ‘비전스쿨’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까지 바쁘고 힘들었지만 참 뜻 깊은 일주일이었다.



## | 대원소감문 |



박순우 | 물리치료학과 1학년  
포도봉지 싸기, 비전스쿨 교사

### “가브리엘 팀”

대학교 입학 처음 맞는 여름방학에 하계봉사대를 가기로 마음을 먹었다. 바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가브리엘 동아리와 함께 우리 집인 입장교회로 오게 되었다. 입장은 거봉으로 유명했고, 우리 대원들은 약 삼 일간 포도봉지 싸기를 했다. 작년에 엄마와 함께 포도봉지를 싸는 적이 있어서 나에게는 익숙했다. 역시 포도봉지 싸기는 만만한 일이 아니었다. 고개를 들고, 두 손을 들어 애지중지하게 포도를 감싸 철로 입구를 쪼여 매는 건 어떻게 보면 간단한 일일 수도있겠지만 장시간을 하다보면 어깨 옆구리가 쭈시고 또한 강렬한 햇빛 때문에 마음껏 비타민D를 섭취할 수 있었다. 가브리엘 하계봉사대는 실 새 없이 스케줄이 빡빡하게 짜여 있었다. 새벽에 일어나 오후까지 일하고 오후에 다시 주변 입장초등학교, 양대 초등학교, 입장 중학교를 찾아다니며 비전스쿨을 홍보했고, 홍보하면서 웃으면서 받아준 아이들 덕분에 힘을 내고 열심히 초코파이를 주면서 홍보했다.

드디어 수요일. 비전 스쿨이 시작되는 날이다. 나는 2g,3g,4g 중에 3학년부터 6학년까지를 담당하는 3g선생님을 맡았고, 첫째 날은 런닝맨을 준비했다. 역시 아이들은 런닝맨을 좋아했다. 미션이 써져 있는 종이를 찾아 각각 선생님들에게 가서 미션을 성공하면 그림 조각들을 나눠주어 먼저 맞추는 팀이

이기는 게임이었다. 런닝맨은 탁월한 선택이었다. 첫날에 14명이 왔는데 둘째 날에는 34명이 찾아와주셨다. 공교롭게도 그 날은 런닝맨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아이들은 런닝맨을 하러 온 아이들이었다. 아쉬웠지만 그래도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져서 감동을 받았다. 내가 입장에 살지만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교회에 헌신하지 않았음을 몸소 느꼈다. 셋째 날에는 아이들이 오기 전 교회 전단지를 들고 다니면서 주변 집들을 찾아다니면 아름다운 소식이 적힌 전단지를 주면서 행복한 하루를 빌며 동네를 한 바퀴 돌았다. 내가 사는 주변 이웃에 이런 어른 분들이 사시는 줄 몰랐는데 이 경험을 통해 얼굴을 익히고 지나가면 인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다소 부정적으로 받아드리는 분들도 계셨지만 웃는 얼굴로 고맙다고 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생각하며 힘을 냈다. 그날은 3g가 점심을 준비하는 날이었다. 메뉴는 닭볶음! 내가 제일 친한 집 사님의 도움을 요청을 했다. 집에서 요리를 일절 해 본적이 없는 나는 야채 씻는 것부터 생소하고 재미있었다. 항상 요리는 귀찮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나였지만 요리가 얼마나 재미있다는 것인지를 느꼈다. 특히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요리를 한다는 것은 의미 있는 것 같았다. 우리 가브리엘의 하이라이트는 금요일 예배 찬양의 밤이었다. 하나님을 노래로 전하는 가브리엘은 째 시간을 내서 연습해온 것을 정말 노래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하면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제일 보람을 느꼈던 것은 교회 성도님들이 나가면서 손을 잡으며 은혜 많이 받았다고 하실 때 보람을 느꼈다, 그리고 인상적 이었던 것은 토요일 비전 스쿨을 통해 느낀 것 바탕으로 풍트를 한 것이다.

일주일을 돌이켜 보면 지루했던 나의 방학 중에 제일 활력이 넘쳤고





열정과 은혜와 행복이 가득한 한 주였던 것 같았다. 비록 이리저리 칼 스케줄에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특히 마음 맞는 사람들과 함께 봉사한다는 것은 도움을 받는 사람보다도 하는 쪽이 더욱 더 보람차다는 것을 느꼈다. 제일 은혜가 넘쳤던 주위의 반응은 가브리엘이 교회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시고 자녀분들을 삼육대에 보내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들었을 때 가장 기뻐다, 나의 일 주일은 절대 헛되지 않았다. 집에서 빈둥빈둥 텔레비전만 보면서 하루를 보내는 것 보단 매 주 매 주 봉사대를 다녀도 좋을 것 같았다. 나의 대학 시절 큰 성장을 하게 해준 하계봉사대 절대 잊을 수 없고, 겨울 방학 때도 하계봉사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 | 대원소감문 |



이루리 | 간호학과 1학년  
유치반선생님/유치반

### “입장교회, 비전을 말하다.”

저희 가브리엘팀이 간 입장은 저의 고향이기 때문에 매우 친숙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혀 낯 설음 없이 편안하게 지내고 더욱 더 열심히 봉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 성경학교 때에는 어린이들이 28명이 와서 사실상 이번년도에는 성경학교를 계획하려고 했었지만 가브리엘 팀과 함께 비전스쿨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저희들의 다짐과 열정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기도와 간구로 열심히 봉사하였습니다. 주어진 일주일이라는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기간에 월요일, 화요일은 입장교회에 출석하시는 장로님 댁에 방문하여서 포도밭에서 포도봉지를 싸는 일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포도나무에 포도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이 많은 걸 다 쌀 수 있을까?’ 하는 염려를 많이 하였습니다. 제 신체구조상 키가 작아서 하늘을 치켜보고 포도봉지를 싸는 작업이라 몇 시간이 지나면 어깨통증과 뒷목 결림에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보니 우리 가브리엘이 포도봉지를 싸는 일을 도와드리지 않았다면 장마철로 인해 급히 작업할 시기에 장로님 혼자서 이 넓은 포도밭에서 봉지를 싸시는 모습을 생각하니 하나님께서 입장교회에 저희를 보내신 이유 한 가지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포도가 얼마나 많은 땀과 노력의 결실로 맺어지는 열매이며 우리





의 입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농촌의 일손이 부족한 곳에 이렇게 가끔 방문하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드린 다는 것에 소소한 기쁨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수요일부터는 본격적인 지역 아이들과 함께 꿈을 찾는 비전스쿨이 시작되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참석하였고 그에 보답하여 저희는 열심히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활동하였습니다. 저희 반은 유치반이라 준비한 내용에 귀를 쫓긋 세우고 집중하여 듣지는 않았지만 울동시간에 조금한 몸짓으로 따라하는 아이들을 보니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금요일 마지막 날까지 비전스쿨을 끝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무려 73명의 학생들이 참석하여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든 대원이 열심히 또 진심으로 사람에게 다가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육체는 피로하여 지친상태였지만 심신은 기쁨과 뿌듯함과 감사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봉사대를 하면서 일주일 사이에 빼곡한 일정을 소화하느라 가브리엘단원들은 힘들었지만 얼굴만큼은 웃음꽃이 활짝 폈고 가브리엘봉사대는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뜻 깊고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또한 아이들에게 잠깐 스쳐지나가는 재미난 추억거리가 아니라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두고두고 생각하고 인연의 끈을 놓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하계봉사대기간이 끝난다고 아이들과의 인연도 끝이 아니라 자주는 못 만난다 하더라도 가끔 연락하여 찾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지금도 아이들을 생각하면 얼굴에 미소가 완연합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아이들은 우리에게 서로 따뜻한 마음을 주고받은 시간이었습니다.

## 영미어문학부

팀 명	영미어문 안교	주최학과/부서	영미어문학부
지도교수	이훈재	학생대표	최기쁨
봉사지역	강원도 철원	활동기간	2012.7.15 ~ 7.21
파견인원	지도교수 : 1명, 대장 : 1명, 대원 : 11명		
협력 및 후원기관		주소/연락처	강원도 철원군 서면 외수6리 587-3
봉사영역	교육 봉사	봉사대상자	지역주민 및 초등학교생

### ▶ 팀 명단

No	이름	학과	학년	역할/담당	No	이름	학과	학년	역할/담당
지도교수	이훈재	영미어문학부		총괄	대원7	박상훈	영미어문학부	1	대원
학생대표	최기쁨	영문학과	2	총괄	대원8	강경석	영미어문학부	1	대원
대원2	최예진	영문학과	2	총무	대원9	김혜원	영미어문학부	1	대원
대원3	김대건	신학과	3	사진	대원10	김예린	영미어문학부	1	대원
대원4	박수연	영미어문학부	2	대원	대원11	조정아	영미어문학부	1	대원
대원5	공효빈	영미어문학부	1	대원	대원12	김서리	영미어문학부	1	대원
대원6	최슬기	영미어문학부	1	대원					

### ▶ 봉사 주요 활동내용 및 결과

No	활동영역	날짜	장소	내용	결과(참여인원)
1	영어교육봉사	7.15-21	감화	1:1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침	대원 : 12명 어린이 : 20명
2	노력봉사	7.18	토마토 농장	토마토 농장에 가서 일손을 도움	대원 : 13명
3	교육봉사	7.15-17	감화	성인 영어 강좌 수강생 대상 문화활동	대원 : 12명



▶ 봉사활동 운영 전반평가

매우인중음 1	인중음 2	보통 3	중음 4	매우중음 5	활동에 필요한 준비물은 바짐없이 준비됐는가?	1	2	3	4	5					
계획된 활동은 모두 실행했는가?					1	2	3	4	5	모두 건강하게 활동을 마무리했는가?	1	2	3	4	5
활동 목표는 달성했는가?					1	2	3	4	5	대원들 간에 문제없이 생활했는가?	1	2	3	4	5
활동영역		평가			활동영역		평가								
지도교수역할		지원, 상담			학생대표역할		좋음								
학생대원소양		중상			현지반응		매우 좋음								
숙식 및 생활여건		중상			활동지역 및 안전관련		좋음								
잘된점		현지 지역 주민에게 학교 봉사 인식 심어준 것			운영평가 및 애로사항		지역이 갑자기 바뀌어서 지역기관과 협의가 안 된 봉사가 많아서 어려웠음								
개선(보완)사항		봉사대를 두 주 정도 집중적으로 준비하면 좋을 듯함			총평		학생들이 많은 것을 느끼고 지역에도 도움을 주는 의미 있는 기간으로 마침								

▶ 봉사활동 전체 일정표

일정	구분	활동내용
7/15 ~ 21	오전	성인 영어, 농촌 봉사 활동
	오후	어린이 영어



# PHOTO

▶ The pictures came out well.



▶ 영어활동



▶ 교육봉사활동 중



▶ 봉사대원들 식사준비



▶ 어린이활동 발표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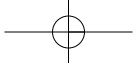


▶ 토마토 수확



▶ 토마토농장 봉사활동





| 지도교수 소감문 |



이훈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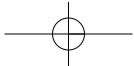
## “영미어문학부 봉사대”

이번 학기 처음으로 학과목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게 되었습니다.

한 학기 영미 안교 친구들이 서로 친하게 될 기회가 없었는데 한 주 간의 합숙으로 많이 친해진 모습이 첫 번째로 얻은 수확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직 어리고 봉사의 마음이 없는 학생들이 어떻게 봉사할까 걱정이 되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순간순간 번뜩이는 재치로 난관들을 헤쳐 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특히 마지막 날 대원들과 어린 학생들이 서로 울면서 순서를 쓰는 모습을 보면서 ‘봉사자가 오히려 더 많은 사랑을 받는구나’ 하며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대원들을 위해서 그 지역을 위해 기도하며 한 주를 보냈는데 모든 기도응답을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 대원소감문 |

최예진 | 영문학과 2학년  
총무

### “봉사대를 다녀와서”

대학에 와서 처음으로 하기봉사대를 갔습니다. 영문학과 안교임원으로 구성된 우리 봉사대 팀은 영어 교육 봉사를 목적으로 강원도 철원군 와수리에 있는 김화교회에 갔습니다. 저는 이번 봉사대 총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오전에 영어문화원에 다니시는 어른들을 맡았고, 또한 1:1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한 분씩 맡아 함께 마음의 이야기를 하고 영어를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영어문화원에 오는 아이들을 1:1로 맡아서 영어공부를 시켜주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인 박다운 어린이를 맡았습니다. 다운이는 사연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중국인 여성분과 국제결혼을 하셨고, 다운이가 태어날 때쯤, 어머니가 집을 나가셨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또 카자흐스탄 여성분인 자나라씨와 재혼 하셨는데, 다운이를 방에 가둬두거나 매일 집안일을 시키신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 또한 알코올 중독 자셔서 다운이에게 전혀 신경을 쓰시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환경 때문인지 첫인상은 소극적이고 우리를 조금은 무서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운이에게 선생님께서 다가가기보다는 친언니처럼 느낄 수 있도록 다가갔습니다. 함께 영어 이야기 독해하는 것과 읽는 것을 가르치고 외우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그 외의 시간에는 아이와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첫날 우리를 낯설어하던 아이는 둘째 날





부터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고 친근감있게 행동했습니다.

다은이는 밝은 아이인데 집에만 가면 소외당하고 엄마 때문에 두려움에 떠는 가여운 아이였습니다. 어머니는 다은이에게 전혀 베푸는 것이 없으셨습니다. 김화교회 목사님 내외분이 다은이의 공부에 필요한 것들을 대신 사주신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다은이 소식을 듣고 저는 정말 사랑으로 다가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다은이를 위해, 다은이를 만날 내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곳 와수리에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꽤 많았습니다. 영어문화원에서 영어를 가르치시는 필리핀 출신 메를리 집사님도 그러한 경우였습니다. 다문화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어려움을 제가 다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그 아이들이 겪는 소외나 어려움이 얼마나 큰 마음의 상처일지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다문화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나, 그들의 부모님을 위한 아버지학교, 어머니학교, 문화센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국제결혼을 한 가정의 대부분은 부부간의 나이차이가 많이 나고, 서로 소통도 잘 안되고, 함께 가정을 꾸려나가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제 꿈은 영어 어린이집이나 영어 유치원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직접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이번에 봉사대를 다녀와서 앞으로 더 늘어날 다문화가정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상담학과를 복수전공할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함께 병행해서 다문화가정 사람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어루만져 줄 수 있으며 그들이 한국에 살면서 겪게 될 문화적, 언어적인 문제들을 같이 고민해주고 해결해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봉사대 첫날, 일요일에 교회에 도착하여 함께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의견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어느 봉사대든, 협동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건데 이번 우리 봉사대는 특별히 첫날부터 삐걱거리서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도사님이 혼자서만 모든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고 깊어지고 가려고 하는 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혼자 힘들어 하시면서 우리와는 소통을 하지 않으려고 한 점이 피드백을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다툼으로 변했습니다. 어른들이 말씀하시길 진정한 리더는 혼자 다 깊어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적절히 모두에게 잘 분배하는 것이 리더가 하는 역할이라고 하시는 것을 종종 들었습니다. 대학에 와서 특별히 종교 활동이나 행사에서 리더를 할 경우가 생기는데 그 때마다 지혜롭게 잘 운영했는지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봉사대 떠나기 며칠 전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으로 고생했고, 떠나기 하루 전날에는 링거를 맞아가면서까지 준비한 봉사대였습니다. 봉사대를 준비하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가서도 일주일 내내 머리가 아파서 고생했고, 1학년 봉사대원들을 잘 챙겨주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배울 점이 많았던 즐거운 봉사대였습니다.



| 대원소감문 |

| 영미어문학부 |  
| 수필 |

최슬기 | 영미어문학부 1학년  
대원

## “하기봉사대 소감문”

7월15일, 비가 추적추적 오는 아침에 김화로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 강변터미널로 향했다.

버스를 타고 한 시간 반이 조금 넘는 시간을 달려 드디어 강원도 철원 와수리에 도착을 했다. 목사님 차를 타고 몇 분 더 들어갔다. 역시 주변엔 눈과 산으로 둘러싸여 공기가 너무나도 좋았다. 도착해서 짐을 풀고, 정리를 했다. 그때까지도 비가 와서 기분이 그리 좋지는 않았다. 이동하느라 힘이 들었는지 한숨자고 다시 모여 의지를 다진 후 저녁을 먹었다. 그리고 나서 회의를 했다. 자기가 멘토로써 담당할 아이들을 맡는 시간이었는데, 다 솔선수범하여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맡겠다고 해서 너무 좋았고, 또 내가 맡은 아이가 과연 어떤 아이일지 너무 궁금했다. 또 어른도 한 분씩 맡아서 기도도 해드리고 또 이야기도 들어드리는 시간도 있어서 정하고, 밥 당번도 조별로 정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고, 드디어 아이들을 만나는 시간이 왔다. 내가 담당한 아이는 E2반 아이라서 E1아이들보다 한 시간 더 늦게 만났다. 그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길던지 정말 선우가 기다려졌고, 더 보고 싶었다. 드디어 E2시간이 되어 아이들이 왔다. 나는 얼른 먼저 나가서 선우가 누구냐고 물어봤다. 그런데 제일 처음에 물어봤던 아이가 선우였다. 선우의 첫인상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하얗다 못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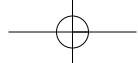
뽀얀 얼굴에 뽀족한 브이라인 특히나 한쪽만 뚫은 연두색깔 귀걸이..... 너무 귀여웠다. 한눈에 봐도 착해 보였다. 앞에서 울동과 노래를 하고, 각자 선생님과 아이들의 소개가 끝난 뒤 나와 선우는 영어공부를 하기 위해 자리를 이동했다.

첫 시간이라 서로 알아가는 시간에 주로 초점을 맞췄다. 역시나 너무 착하고, 말도 잘했다. 웬지 '일주일동안 서로 잘 지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서로 질문을 하고 소개도 다시 한 번 하고, 영어지문을 읽었다. 정말 놀랄 만큼 발음도 좋고, 읽기도 꽤나 잘 했다. 그리고 일주일동안 배울 것을 알려주고, 숙제도 내주었다. 다 하고 시간이 조금 남아서 서로 얘기를 했다. 피드백을 했는데 처음이라 어설픈 면도 있었지만, 우리 모두가 잘 해낸 것 같았다.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을 우리 스스로가 요리해서 먹는 거라 살짝 걱정도 되었지만 정말 모두가 너무 맛있게 잘해서 놀랐다. 밥 먹는 시간이 기다려질 정도였다. 특히나 기억에 남는 밥이 있었다면 우리 조가 만든 북어국이였다. 다시 생각해 봐도 정말 맛있는 북어국이였다.

둘째 날은 역시나 첫째 날 보다는 훨씬 밝은 아이들의 표정을 볼 수 있었고, 또 서로 인사도 하면서 만났다. 이제 각자 선생님과 학생들끼리 만나서 공부하는 시간이 되어 선우와 만나서 숙제검사도 하고 공부도 하고 또 사적인 이야기도 했다. 어제보다 훨씬 나은 시간이었다. 또 다른 아이들과도 친해지기위해 대화도 많이 나눴으니 아이들 모두가 너무 사랑스럽고 착했다. 여기 봉사 와서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 만난 게 정말 축복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저녁마다 피드백시간에 건의사항이나 좋았던 점, 나빴던 점 등을 말하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고치고 조언도 해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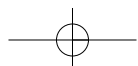




는 시간을 통해 더 나아지는 우리들의 모습에 나 자신도 너무 뿌듯했고 좋았다.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너무 빠른 것 같아서 뭐 하나라도 더 하기 위해 더 많은 것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또 들어 주기 위해 노력했다.

또 농활봉사도 즐거웠다. 그곳은 토마토하우스였는데 다른 토마토보다 조금 더 늦게 심어서 해야 할 일이 많았다. 우리는 가위를 들고 겉손과 원손을 자르고 또 집게로 토마토가지가 쓰러지지 않게 지탱이 되게 집어 주는 것을 하였다. 역시 처음에는 서툴러서 많이 물어보았지만 친절하게 어떻게 하는지 자세하게 가르쳐주셔서 잘 할 수 있었다. 괜히 우리가 와서 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했다. 끝나고 나서 손을 보고 깜짝 놀랐다. 손이 악어껍질 같았다. 그래서 손을 씻으러 갔는데 세면실이 정말 특이했다. 물탱크 같은 것을 가지고 개조해서 만드신 거였는데 신기 했고, 나름 괜찮았다. 다하고 아저씨께서 시원한 수박을 한 통 내주셨다. 설탕을 뿌려놓은 것처럼 정말 달고 맛있었다. 역시 열심히 일하고 먹는 수박이 최고였다.

오후 시간이 되어 조금 쉬고 아이들을 만나서 열심히 공부하고 놀고 얘기도 했다. 점점 만나면 만날수록 정이 드는 것 같아 벌써부터 헤어질 때가 겁이 났었다. 공부하는 시간이 다 끝나고 아이들과 밖에서 숨바꼭질, 이어달리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도 하며 재밌게 놀았다. 첫날엔 저녁에 세 명밖에 안 남았던 아이들이 많이 남아서 저녁도 같이 먹었다. 또 시간이 남는 저녁에는 자전거도 탔다. 정말 노을 지는 하늘도 예쁘고 어느 길로 가든 한 바퀴를 돌면 다시 숙소가 나왔다. 시내와 거리도 가까워서 한 바퀴씩 돌고 오면 정말 기분이 좋았다. 이렇게 봉사대할





동이 거의 다 끝나고 마지막 날인 토요일이 되었다. 아이들이 이제까지 배운 것들을 발표하고 우리가 준비한 선물, 정성과 노력이 담긴 아이들의 초상화를 주었다. 정말 울지 않으려고 했는데 아이들이 울어버리니 결국 눈물이 났다. 정말 슬펐다. 일주일 만에 정이 너무 들어버렸다. 정말 일주일동안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가지고 가는 것 같다. 이번 봉사대를 통해 다음에도 봉사대를 또 하고 싶단 생각이 들었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봉사를 베푸는 만큼 그 사람들도 나에게 무언가를 준다는 것을 깨달았다. 정말 이번 봉사대 일주일 동안 행복했고 벌써부터 아이들과 봉사대원들이 너무 보고 싶다.



| 대원소감문 |



김예린 | 영미어문학부 1학년  
대원

## “영미어문팀”



7월 15일, 영미어문학부 안교임원들과 학교에서 모여 철원에 있는 감화 마을로 봉사활동을 위해 떠났다. 비도 오고 날씨가 쌀쌀했지만 오랜만에 만난 친구, 언니들과 함께 여행을 가는 기분에 조금 들뜨기도 했었고, 새로운 환경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에 설레기도 했다. 김화에 도착하니 7월 중순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만큼 너무 추워서 덜덜 떨었다. 긴 옷을 미처 챙기지 못해서 앞으로가 걱정되기도 했지만, 그 다음날부터는 다시 여름 날씨가 시작되어서 잠깐의 걱정으로 그쳤다.

도착 후, 짐정리를 하고 조금 쉬 다음 다 함께 모여 앞으로의 일정과 계획에 대해 회의를 했다. 우리는 교회가 영어문화원에서 방과 후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다양한 영어 노래를 알려주며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는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비록 여러 부분에서 나의 생각보다 열악한 교회와 지역 환경 때문에 걱정도 되고 적응도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우리들이 잘하는 분야의 특성을 살려서 그 곳의 상황에 맞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봉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그렇게 16일부터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아이들이 처음에는 수줍어하기도 하고 조금은 신기해하는 눈치였지만 이내 즐거워하며 우리들을 잘 따르는 모습을 보

니 기뻐다. 특히 둘째 날부터는 첫날 참석했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더 많은 아이들이 찾아왔고, 함께 놀고 공부했다. 일주일 동안 많은 일들이 일어났고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지만 그 중에서 몇 가지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일들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다.

첫 날, 조금 경계하던 아이가 점점 말 수가 늘더니 다음날부터 활동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해 준 아이, 하루의 프로그램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지났지만 가지 않고 문화원에 남아서 함께 있고 싶어 하던 아이들, 봉사대원 누나(언니), 형(오빠) 들이 학교에서 경쟁을 통해 선발되어 오게 된 특별한 팀인지 묻던 아이, 다음 주에도 우리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주말이 되면 서울로 다시 떠날 거라는 말에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던 아이들의 얼굴은 아마 많은 시간이 지나도 잊지 못할 것 같다.

그 중에서도 난생처음 일대일로 아이들에게 직접 영어를 가르쳤던 경험은 나에게 정말 새롭고 벅찬 기분이 들게 했다. 공부할 때만큼은 아이들에게 언니, 누나가 아닌 “선생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렸다. 자기들이 잘 모르고 궁금한 것들을 물어볼 때면 “내가 이 어린 친구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기뻐고, 어쩌면 그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에 더욱 열심히 가르칠 수 있었다. 물론 피곤하기도 하고 쉬고 싶을 때도 많았지만 아이들과 함께 노래하고, 공부하고, 뛰어 놀았던 아이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오랜만에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금세 시간이 흘러 마지막 날이 되었고, 그동안 함께 공부했던 아이들과 함께 마지막 순서를 가지게 되었다. 아이들은 한 주 동안 배웠던 노래들과 공부 내용을 발표하였고, 우리들은 아이들과 함





께 하며 생긴 추억과 생각들을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순서를 쓰면서 아이들이 하나 둘씩 울음을 터트렸고, 봉사대 친구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아이들의 순서를 보러 온 부모님들도 많은 감동을 받으신 것 같아서 기뻐다. 다시 돌아보면 쉽지 않았지만 함께 해서 즐거웠던 행복한 봉사시간이었다. 아이들에게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남기고 왔으니 다음에 꼭 다시 찾아가서 만나기를 바라고 이런 기회를 누릴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드린다.

## 환경그린디자인학과

팀 명	환경그린디자인	주최학과/부서	환경그린디자인
지도교수	차민경	학생대표	조은비
봉사지역	경기도 남양주시	활동기간	2012.7.22 ~ 7.28
파견인원	지도교수 : 1명, 대장 : 1명, 대원 : 10명		
협력 및 후원기관	-	주소/연락처	경기도 남양주시 율석리 748-32
봉사영역	교육봉사, 농촌봉사	봉사대상자	율석리 아이들

### ▶ 팀 명단

No	이름	학과	학년	역할/담당	No	이름	학과	학년	역할/담당
지도교수	차민경				대원6	신현일	환경그린디자인	1	교사
학생대표	조은비	환경그린디자인	2	감독	대원7	이호진	환경그린디자인	1	교사
대원2	김민지	환경그린디자인	2	서기	대원8	정다미	환경그린디자인	1	노래
대원3	이유리	환경그린디자인	2	총무	대원9	김다혜	환경그린디자인	1	교사
대원4	김동현	환경그린디자인	4	촬영	대원10	신하정	환경그린디자인	1	교사
대원5	김정음	환경그린디자인	1	울동	대원11	임경숙	환경그린디자인	1	교사

### ▶ 봉사 주요 활동내용 및 결과

No	활동영역	날짜	장소	내용	평가 및 의견	결과(참여인원)
1	농촌봉사	7.23	밭	옥수수 밭 잡초 제거	생명을 살린 보람된 하루	대원:11명 담당교수:1명
2	교육활동	7.24~28	율석리	어린이학교	오후 놀이학습을 통한 아이들과의 교제를 나누며 친밀한 시간을 가짐.	대원:11명 담당교수:1명
3	교육활동	7.24~7.26	공부방	교과목 지도	보람있는 활동이었음	대원:11명 담당교수:1명



▶ 봉사활동 운영 전반평가

매우인중음 1	인중음 2	보통 3	중음 4	매우중음 5	활동에 필요한 준비물은 비침없이 준비됐는가?	1	2	3	4	5					
계획된 활동은 모두 실행했는가?					1	2	3	4	5	모두 건강하게 활동을 마무리했는가?	1	2	3	4	5
활동 목표는 달성했는가?					1	2	3	4	5	대원들 간에 문제없이 생활했는가?	1	2	3	4	5
활동영역		평가			활동영역	평가									
지도교수역할		모든 활동을 총괄 및 지도			학생대표역할	전체적인 것을 확인하고 일정에 맞게 움직이도록 진행함.									
학생대원소양		리더 중심으로 모든 일정 무사히 소화함.			현지반응	아이들의 호응도가 높았으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									
숙식 및 생활여건		숙박 시설과 식사 모두 매우 만족스러웠음.			활동지역 및 안전관련	인근지역에서 활동하여 무난히 진행됨									
잘된점		아무 문제없이 무사히 마쳤으며, 아픈 곳 없이 모두 건강하게 봉사대 일정을 소화함.			운영평가 및 애로사항	울석리 지역의 아이들이 많지 않았음. 노인 인구 비율이 높았다.									
개선(보완) 사항		없음			총평	인원수는 적었지만 기존의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울석리 지역의 아이들을 찾아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음									

▶ 봉사활동 전체 일정표

일정	구분	활동내용
7/22	오전	삼육대학교 집결 및 출발
	오후	도착 및 전반적인 교육
	7:00	기상
	7:00-8:00	새벽 기도회
	8:00-9:00	준비
	9:00-11:00	오후 프로그램 준비
7/24 ~ 7/27	11:00-12:00	점심 식사
	12:00-1:00	초정장 배부 및 집 방문
	1:00-3:00	휴식 및 교과 활동 준비
	3:00-5:00	여름 문화학교 진행
	5:00-6:00	저녁 식사
	6:00-8:00	공부방
7/28	8:00-9:00	교사회의
	9:00-10:00	피드백
	10:00-	세면 및 취침
	오전	발표회
	오후	교류의 날
		정리 및 귀가



# PHOTO

▶ The pictures came out well.



▶ 어린이학교시간, 회의 중



▶ 어린이 미술활동



▶ 수공-슬리퍼만들기



▶ 옥수수밭에서 잡초 제거 중



▶ 아이들과 함께하는 조별 게임



▶ 함께 모여 아이들을 맞이할 본당꾸미기 돌입





# PHOTO



▶ 아이들과 함께



▶ 장애물 달리기 중 과자 따먹기



▶ 연습 중



▶ 초대장을 주는 모습



▶ 어린이반 활동 중의 모습



▶ 프로그램 회의



▶ 농촌봉사활동



| 지도교수소감문 |



환경그린디자인학과 | 차민경

## “국내봉사를 다녀와서”

계속되는 전도회와 봉사대로 심신이 많이 지쳐있었던 때에 환경그린디자인 학과 봉사대를 출발하였다. 한 달 전부터 기도하며 대원들을 훈련시키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준비시켰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막막했다. 준비를 할수록 부족한 것들이 보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나에게 말씀하셨다.

부족한 모세를 쓰신 하나님이 이 대원들을 쓰시겠다고 그리고..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해주겠다고 말이다.

그래서 어쩌면 이 봉사대는 어린아이들을 전도하기 위한 봉사대이기도 했지만 나에게는 함께 가는 환경그린디자인 학과 학생들이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고 오는 것이 목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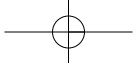
일요일부터 교회에 모였다. 모였는데 막막했다.

울동조차 알아오지 못했고 정말 생각보다 심각하게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런데 오히려 감사했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알아보라고 큰 소리쳤다^^





기도도 할 수 없는 대원들에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었고, 봉사 즉 서비스가 뭔지 가르쳐주었으며 어떤 선생님이 되는지도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하루 하루 대원들을 변해갔다.

밤새 순서를 준비하고 더운 땀방울에 어린 아이들을 찾으러 이곳저곳 다니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감사했다.

또한 선후배간 아름답게 봉사하고 섬기는 모습들이 감사했다.

마지막 금요일 날 학생들이 준비한 예배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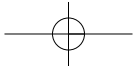
우리 모두는 감사해서 울었다.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은 믿지 않던 대원들을 위해 친히 천사를 보내 주셨고 하나님의 손길을 알게 해주셨다. 이 모든 사건은 함께 간 우리 대원들은 다 알고 느끼고 경험한 것이다.

그래서 금요일 날 감사해서 울었다. 또한 이 봉사대를 계기로 지속적으로 울석리 어린이들을 위한 봉사를 하겠다고 대원들이 결심한 것이 가장 큰 성과이며 감사이다.

이 모든 것들을 준비시키시고 부족한 사람을 통하여 큰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 환경그린디자인 |



## 학생대표 소감문 I



조은비 | 환경그린디자인학과 2학년  
업무 총괄 및 감독

### “하계 봉사대를 다녀와서..”

우리 학과는 일주일동안 울석본향교회로 봉사대를 떠났다. 2주 전부터 봉사대원들과 함께 기획을 하였다. 가기 전부터 많이 걱정되고 고민이 되었다. 첫날이 지나고 월요일에는 밭에 가서 옥수수 농사를 방해하는 잡초제거를 하였다. 일하면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우리는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 말씀을 듣고 이번 봉사대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화요일부터는 폭염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우리들은 아이들이 많은 지역에 다니면서 어린이 여름학교 초청장을 나눠주기 시작하였다. 초등학교에 가서 아이들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 기다려 초청장을 나눠주며 설명을 하였지만 선뜻 오겠다고 하는 아이들은 없었다. 아이들의 대부분이 학원에 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기도하며 아이들을 만나러 나갔다. 더운 날씨 속에 봉사대원들은 한마디 불평도 없이 너무나도 잘해주었다. 너무나도 고마운 후배들, 친구들 이었다. 수요일부터 본격적인 여름학교가 시작되었다. 밤늦게까지 준비하느라 굉장히 피곤한 상태였다. 하지만 아이들 만날 생각에 긴장되는 하루를 시작하였다.

생각보다 아이들이 많이 왔고 첫날이라서 실수도 많이 하였지만 봉사대원들이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지도 해주고, 잘 놀아주었다. 둘째 날에는 교회근처에 아이들을 찾아보기로 하였다. 대부분의 시골은 어린아이들이 뛰어놀지만 그 지역은 아이들 찾아가기가 정말로 힘들다. 하지만 집집방문을 하며 뽀뽀이 흠뻑이 흠뻑이 찾아보니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숨어있었다. 이때 방문하며 만난 아이들이 찾아오기도 하였다. 이렇게 더 많은 아이들과 함께 우리는 좀 더 친해지며 익숙해지며 둘째 날을 보냈다.

마지막 날이 되니 아이들과 많이 친해지고 정말 익숙해져서 우리 봉사대원들이 너무나도 잘해주었다. 그때 깊은 감동을 받아서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을 우리 모두가 흘리며 정말 오길 잘했다는 생각과 우리 대원들이 사랑스러웠다. 여름학교 수료식을 하고 오후에는 달란트시장을 열어 잔치를 하였다. 이렇게 우리의 일주일간 봉사대는 끝이 났다.

작년에 해외봉사를 두 번이나 갔다 왔지만 이번만큼의 느낌은 없었다. 이번 봉사대는 대장으로서 책임감이 막중하였고 할 일도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었다. 하지만 하루하루 지날수록 감사함을 느꼈다. 매일 자기 전 피드백을 하였는데, 첫날에는 그냥 하루일정에 대하여 얘기를 했다고 하면 하루하루 지날수록 감사함을 느끼고 마음의 변화가 오는 대원들이 많았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 또한 감사함을 느끼고 저절로 뿌듯하고 미소가 번졌다. 매일매일 매시간이 피곤하였지만 이진 보람찬 피곤함이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하였다.

어느 한명 다친 사람도 없고, 아픈 사람 없이 무사히 일주일을 보냈다. 외부에서 도와주신 분들이 정말로 많다. 그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리고, 특히 울석본향교회의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무엇보다도 너무나 큰 사랑과 깨달음을 얻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 | 대원소감문 |



김민지 | 환경그린디자인학과 2학년  
서기 및 교사

## “환경 그린 디자인학과 봉사대 소감문”

7월 22일.. 농촌봉사와 교육봉사를 위해 울석리로 떠나는 날이었다. 모든 봉사 물품을 옮기고 다 같이 그 곳으로 떠났다. 1학기 때, 토요일에 몇 번 가봤지만 여전히 익숙하지 않는 길이어서 찾아가기가 힘들었다. 그래도 우리들을 데리러 와주신 정영근 목사님 덕분에 우리들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다. 도착하고 나서 제일 먼저 시작했던 일은 짐정리였다. 봉사에 필요한 물품부터 시작해서 우리들이 먹을 부식물까지 교회로 옮기고 우리들의 짐은 우선 교회에 갖다 놓았다. 그리고 올라가서 우리 지도교수님이신 차민경 목사님과 회의를 하며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을 정하고 본격적인 봉사 준비에 들어갔다. 그 이후 계속 준비기간 동안에 준비에 들어가면서 필리핀이나 대만 해외봉사를 갔다 와서 여기서도 잘할 거라고 자만심에 빠져있던 나에게 충격을 주었다. 우리가 해외봉사에서 했던 준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국내봉사는 해외봉사와는 또 다르게 소통과 결과가 명확히 전달되기 때문에 교과공부를 잘 짜야했고, 아이들의 흥미를 이끌 수 있는 것으로 준비를 해왔지만 각부(유치, 유년, 소년부가 있었다.)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조금 우왕좌왕했었다. 그런 결점들을 보완하면서 화요일에 농촌봉사를 떠나게 되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어서 감자를 캐러 갈려고 했던 원래 계획을 수정해서 옥수수 밭에 가서 잡초





를 뽑았다. 비가 내린 상태라 땅이 눅눅하고 진흙처럼 되어 신발을 벗고 맨발로 뽑은 것부터 시작해 땅이 무척이나 물러서 잡초를 뽑으면 옥수수까지 같이 뽑힐 뻔한 상황이 여러 번 발생하는 등 여러 문제가 있었다. 하지만 그런 여러 문제를 딛고 우리 봉사 대원들을 맘을 홀리며 잡초를 뽑아내고 옥수수 뿌리를 고정시켰다. 비록 조금 밖에 잡초를 정리하지 못했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할 수 있었다는데 뿌듯했고 생명을 조금이나마 살릴 수 있었다는데 큰 기쁨을 느꼈다. 그런 힘든 농촌 봉사를 한 후에도 간식이나 밥을 제대로 못 먹을 정도로 밤늦게까지 성경학교를 준비하였고 더운 땀벌에서도 울석리 아이들과 금곡, 덕소 아이들에게 성경학교를 홍보했다. 그런 상황에서도 내 옆에 있는, 힘이 되어주는 대원들이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고 그리고 웃을 수 있었던 것 같다.

울왕리 어린이여름학교의 당일이 왔을 때는 솔직히 긴장했다. 첫 날의 소년부 교과공부를 내가 맡았기 때문이다. 사실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재능이 없었던 내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걱정도 많이 했었다. 수공 시간에 양파 껍질 천연 염색을 하는데 양파 껍질 물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서 세 시가 될 때까지 긴장하며 두근거리는 가슴을 부여잡았다. 워낙 아이들이 없는 곳이라 몇 명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아이들이 왔고 내가 있는 소년부에는 새로운 친구까지 찾아주어서 놀랐다. 그리고 교과공부를 시작하는데 아이들이 워낙 착해서 잘 따라와 줬고 나와 같이 있었던 대원들이 있었기에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무사히 첫 날을 보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그 이후에도 숨 쉴 틈도 없이 바빴고 항상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는 상황이 연속이었지만, 다 잘



되는 느낌이 들었고 모든 대원들과 같이 여름학교를 하고 있는 어린 아이들이 있어서 그 힘든 것을 수용할 수 있었다. 이번 봉사를 통해 그동안 나의 생활과 다르게 새로운 많은 것들에 도전하고 경험해보았다.

이렇게 해서 토요일의 달란트 시장까지 잘 마칠 수 있었고 봉사하면서 아이들에게 준 것도 있지만 오히려 우리들이 아이들에게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지 않았나 하고 생각한다.





| 대원소감문 |

| 환경그린디자인 |

이유리 | 환경그린디자인학과 2학년  
총무 및 유지반 교사

## “울석 본향교회 봉사대를 다녀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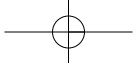
울석리는 저번 학기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안교 친구들과끼리 가던 곳이었다. 우린 그 곳으로 어린이 여름학교를 다녀왔다. 울석리는 우리학교에서도 그리 먼 곳은 아니었다. 하지만 주변에 집이 별로 없고 시내를 나가려면 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했다. 주변은 창고뿐, 어린이 인구가 별로 없어 우리 프로그램을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가 아니라 함께할 아이들이 있을까 하는 염려로 우리의 봉사대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봉사대를 참가하는 친구들 대부분 집이 시골에 있어 자주 만나지도 못했고 준비도 미흡했다. 그래서 여름학교 시작하기 이틀 전부터 우리는 합숙을 통해 준비를 해나갔다. 아이들에게 기억에 남을 수 있는 특별함을 선물해주고 싶었기에 우리는 생각하고 생각했다.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순서를 어떻게 짜야 할지 아이들을 나누어 각 반별로 눈높이를 맞추려고 노력했고 프로그램을 꾸려나가기 시작했다.

눈을 뜨자마자 함께 모여 회의하고 저녁엔 하루 일과를 정리하며 피드백을 했었다. 그 시간을 통해 우리는 다음날을 위한 준비를 더욱 잘 할 수 있었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힘든 것을 조금이나마 의지할 수 있었다. 그렇게 저녁에 피드백 시간이 끝나고 나면 내일 있을 일정을 준비했다. 각 반별로 교과공부 준비, 오후 활동프로그램 준비, 영상 및 ppt 자료를 준비하느라 매번 12시가 넘어 잠이 들곤 했다. 각 반

별, 나는 유치반 리더였기 때문에 내 일을 마치고 일학년 친구들도 확인을 하고 지시를 해야 했기 때문에 더욱 힘들었다. 여름학교가 시작되기 전까진 힘들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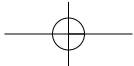
하지만 힘든 것은 그때뿐이었다. 아이들을 만나고 같이 공부하며 너무나도 즐거웠다. 우리가 준비 한 것들을 즐겁게 활동해주면서 신나게 참여하는 아이들을 보면 보람찼다. 힘들다고 느꼈던 내 자신에게 반성의 시간을 주었다. 여름학교 첫 날을 무사히 마치고 다음 날 부터는 더욱 열심히 임했다. 그렇게 금요일이 왔다. 저녁에 환디과 친구들이 특별 프로그램으로 연극을 했다. 연극의 내용은 우리의 일과였다. 말 그대로 우리의 일기 첫날부터 마지막 날 까지 우리의 피드백 종이를 참고해서 만든 대본으로 우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연기를 통해 보여드렸다. 마지막 노래를 부를 때 짙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앞에 계신 교수님도 우셨다. 친구들이 울었다. 동생들도 운다. 그렇게 우리는 노래를 부르며 울고, 우릴 향해 감사하다는 눈빛과 미소를 보내 주시는 마음이 감사했다. 우릴 향해 눈물을 흘려주시는 교수님께 감사했다. 함께 마음을 나눠준 친구들과 동생들에게 고마웠다. 모든 게 감사했다. 알 수 없는 눈물 왜 눈물이 났는지도 모르겠다. 그저 너무나 행복했다. 그렇게 우리의 일주일간의 일정이 모두 끝났다. 눈물을 흘리는 아이, 가지 말라고 외치는 아이, 또 오라는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환디과 친구들은 결심했다. 아이들을 더욱 자주 만나기 위해 매주 오기로 한 것이다. 강제가 아니었다. 순수하게 우리들 마음의 결정에 의해 그렇게 했다. 여름성경학교가 끝인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 매주 선생님이 되어주기로 했다. 그렇게 우리는 을왕리를 떠나 왔다.





일주일 간 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환디친구들의 고마움도 배웠고 더욱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몸은 힘들었지만 더욱 큰 깨달음을 가지게 한 이번 봉사대 너무나도 감사하다.

이 환경그림디자인  
| 전지민 |



## 캠퍼스 미션

팀 명	캠퍼스 미션	주최학과/부서	캠퍼스 미션 교내 동아리
지도교수	차민경	학생대표	김민진
봉사지역	경기도 하남(동성학교)	활동기간	2012.6.24 ~ 6.30
파견인원	지도교수 : 1명, 대장 : 1명, 대원 : 11명		
협력 및 후원기관	-	주소/연락처	경기도 하남시 광암동 333 02-485-0103
봉사영역	교육봉사	봉사대상자	동성학교 학생들

### ▶ 팀 명단

No	이름	학과	학년	역할/담당	No	이름	학과	학년	역할/담당
지도교수	차민경				대원7	안나래	신학과	1	사진
학생대표	김민진	간호학과	2	대장	대원8	나지수	신학과	1	청소
대원2	노푸름	신학과	4	영상 만들기	대원9	최기별	신학과	1	식사
대원3	채동현	신학과	3	진행요원	대원10	심예인	신학과	1	빨래
대원4	윤아름	생명과학과	2	준비요원	대원11	신현일	환경그린디자인	1	사진
대원5	이준혁	식품영양학과	2	식사	대원12	김상원	화학과	1	청소
대원6	정우진	신학과	1	빨래					

### ▶ 봉사주요 활동내용 및 결과

No	활동영역	날짜	장소	내용	평가 및 의견	결과(참여인원)
1	홍보	6.24-6.30	동성 학교 내	대원들이 학생들을 1:1로 만나 프로그램 홍보	고민을 함께 나눔	대원: 12명 학생: 90명
2	상담	6.24-6.30	동성 학교 내	학생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멘토가 되어줌.	학생들의 개인적인 이야기 들을 함께 나누며 공감해주고 그들의 멘토가 되어줌.	대원: 12명 학생: 90명
3	문화 봉사	6.29	동성 학교 내	금요일 저녁 스페셜 콘서트를 개최함.	교내의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일주일의 시간을 돌아보며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됨.	대원: 12명 학생: 90명
4	문화 봉사	6.24-6.30	동성 학교 내	주어진 시간에 이벤트를 진행하고 함께 참여함. (미션 레이스, 음식 만들기)	학생들과 교제를 나누며 친해지는 시간을 갖게 됨.	대원: 12명 학생: 90명
5	교육 봉사	6.24-6.30	동성 학교 내	동성학교프로그램 지원	질서 있고 예를 갖춘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힘씀.	대원: 12명 학생: 90명



▶ 봉사활동 운영 전반평가

매우인중음 1	인중음 2	보통 3	중음 4	매우중음 5	활동에 필요한 준비물은 바짐없이 준비됐는가?	1	2	3	4	5					
계획된 활동은 모두 실행했는가?		1	2	3	4	5	모두 건강하게 활동을 마무리했는가?				1	2	3	4	5
활동 목표는 달성했는가?		1	2	3	4	5	대원들 간에 문제없이 생활했는가?				1	2	3	4	5
활동영역		평가					활동영역		평가						
지도교수역할		진행하는 모든 것을 확인하고 주도함.					학생대표역할		전체적인 것을 확인하고 일정에 맞게 움직이도록 진행함.						
학생대원소양		모든 대원들이 성실하고 적극적이었으며 자신들의 역할에 최선을 다함.					현지반응		대원들과 진행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관하여 매우 긍정적.						
숙식 및 생활여건		숙박 시설과 식사 모두 매우 만족스러웠음.					활동지역 및 안전관련		동성학교 내에서만 활동하여 무난히 진행됨						
잘된점		전체적인 것들이 모두 매끄럽게 잘 진행하였고 아무 문제없이 무사히 마침.					운영평가 및 애로사항		날씨가 더웠지만 실내 공간이 확보가 많이 되어있지 않아 성경공부와 학생상담 모두 밖에서 진행하였다.						
개선(보완) 사항		상담 할 수 있는 실내 공간 필요.					총평		일주일간의 모든 일정이 무사히 마쳐졌으며 동성학교에 있는 학생들과 진정한 멘토, 멘티 관계가 성립 될 수 있었고 대원들과 학생들 모두 뜻 깊고 의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음.						

▶ 봉사활동 전체 일정표

일정	구분	활동내용
7/22	오전	삼육대학교 집결 및 출발
	오후	도착 및 전반적인 교육
6/25- 6/29	7:00	기상
	7:00-8:00	새벽 기도회
	8:00-9:00	준비
	9:00-11:00	프로그램 준비
	11:00-12:00	점심 식사
	12:00-1:00	학생들 상담
	1:00-3:00	프로그램 준비
	3:00-5:00	학생들 상담
	5:00-6:00	저녁 식사
	6:00-7:00	학생들 상담
	7:00-8:00	문화활동
	8:00-9:00	소그룹
	9:00-10:00	피드백
6/30	10:00-	세면 및 취침
	오전	문화활동
	오후	소그룹 활동 정리 및 귀가



# PHOTO

▶ The pictures came out well.



▶ 단체사진



▶ 준비하는 모습



▶ 함께 요리하는 모습



▶ 동성학교에서 화평조





# PHOTO



▶ 서현이가 노래하는 모습



▶ 공동체 훈련 전 대기하는 친구들



▶ 야외활동



▶ 학생들과 함께



▶ 사랑해.



▶ 예인아와 함께



▶ 아이들과 같이 단체사진



| 지도교수소감문 |



캠퍼스 미션 | 차민경

## “경기도 하남을 다녀와서”

방학과 동시에 소그룹을 다녀온 직후 떠난 봉사대라 정신없이 시작되었다.

준비시간이 예전과는 다르게 많이 확보되지 않아 마음속에 많은 부담이 있었다. 그래서 시작 전 2박 3일 동안 개인적인 준비시간을 갖게 하기 위하여 재림연수원에서 개인기도시간을 갖게 하였다.

그리고 일요일 출발했다.

동성학교 멘토링은 작년부터 시작되었던 터라 학교에 대한 생소함 대신 기대감을 갖고 시작했다.

도착했을 때 동성중학교 아이들은 우리들에 대한 신비함도 있었지만 학교의 특성상 처음엔 경계를 하고 우리를 바라봤다.

참고로 동성학교는 대안학교로써 학교 내에서 핸드폰 간식 등 모든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교내에서 모든 활동 및 기숙생활을 하는 학교이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 안에서만 생활하고 살아가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다가갈 수 있을지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쭙봤다.

전교생이 100명도 되지 않았기에 간 모든 대원과 학생들 간에 소그룹을 운영하여 가족화 시켰다. 이





모든 일은 먼저 동성중학교 교목실에서의 사업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던 일이라 더 훨씬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오전, 오후에는 소그룹 및 개인별 상담을 실시하였다.

상담은 어떤 상담이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상담으로 끝을 맺게 학생들을 훈련시켰고, 또한 이런 상담을 통하여 파악된 미수침자에게 성경을 자연스럽게 소개하기도 하였다.

14명의 학생이 아직 미수침자였다. 그러나 아이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딱딱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소개할수 있을까..나 역시 대원들을 보며 학생들을 위해 기도했고 매일 밤 선포되는 기도주일 말씀을 통하여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 또한 경험했다.

1주일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앞에서 보고 왔다.

딱딱한 아이들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도 보았고 어린 중학생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자 눈빛이 달라지고 꿈도 생겨나는 것을 보았다.

아직도 전도회가 끝나고 출발하던 그 토요일 오후를 잊지 못한다.

함께 캠퍼스 미션이 되어 학교의 선교와 주님을 증거하겠다고 고백하고 울던 아이들의 눈빛을 말이다.

함께 갔던 대원들과 나는 주님의 얼굴을 직접 보고 왔다.

그리고 그곳에서의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이 이렇게 행복하고 보람되는지 다시 한번 알게 되었고 대원들 또한 청소년들에게 주를 증거하는 일을 멈추지 않기로 결심하였다.

## | 대원소감문 |



최기별 | 신학과 1학년  
학생대원

### “캠퍼스미션-동성학교 봉사대 보고서”

나는 지난 7월 24일~30일에 하남시에 있는 동성학교에 가서 봉사대를 하고 돌아왔다.

동성학교는 중학생이 다니는 대안학교이다.

또한 그 학교는 외박일이 아닌 이상 절대 바깥출입이 금지되어있고, 음식도 학교에서 나오는 급식과 직접 키우는 오이 보리수 자두 천도복숭아와 유일하게 학교로 유통되는 두유 말고는 아무 간식도 먹을 수 없는 곳이다. 나는 그 곳에서 자비라는 조의 교사로 투입되었다.

그런데 그 곳에 있는 학생들은 가정의 상처나 아픔이 많은 친구들이 많이 있었고, 자신의 학교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친구들도 많이 있었다. 처음에는 이 친구들이 우리에게 쉽사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자신에 대해서 속내를 이야기해주지도 않았다. 이 친구들에게 우리가 해줄 것이 무엇이 있을지 고민을 하며 걱정을 하는 도중 나는 깨달았다.

우리가 이 친구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다만 천천히, 진실한 위하는 마음으로 이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전부였던 것이다.

그 다음 날 우리 조 친구들은 나와 상담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정한 시간에 조 친구들이 오지



않을까 조마조마 하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다행히 자기 시간을 맞추어서 와주었다. 아이들이 나에게 축구를 일주일 동안 포기하고 이곳에 올게요. 라고 말하는 아이도 있었고, 나에게 보리수를 엄청 많이 따다 주다가 귀에 벌 쏘인 아이도 있었다. 그리고 동성학교에서는 두유가 화폐로 통할만큼 귀중하고 소중한 친구에게 주는 것인데 두유를 아이들이 하나 둘씩 챙겨와 주는 모습에 너무나 감동했다. 세상과 동 떨어져 자신이 불쌍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이들이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이 다른 중학교 학생들보다는 너무나도 순수한 아이들이었다. 그런 아이들을 만나게 된 것에 너무 감사했다. 또한 나보다도 더 힘든 환경에서 자라온 아이들에게 내가 멘토가 되어준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미안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마지막 날에 자신의 어려운 가정환경을 누나와 나눌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다.

동성학교 친구들이 같이 가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자신의 학교에 대해 사랑할 줄 아는 아이가 되었고, 자신이 먹고 있는 밥이 얼마나 맛있고 감사한 밥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아이들이 되었다. 그리고 자신의 환경에 대해서 자책하기 보다는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자신은 정말 소중한 존재이고 내가 아닌 주변 사람들도 소중한 존재임을 알게 되어서 서로가 소중한 존재이고 배려해주고 사랑해 주어야한다는 사실을 아이들이 마음 속 깊이 알게 되었다.



## | 대원소감문 |



김상원 | 화학과 1학년  
학생대원

### “캠퍼스미션-동성학교 봉사대 보고서”

이번 6월 24일에 있었던 동성학교 멘토링은 대로 잇을 수 없는 경험이었다. 우리 캠퍼스미션 팀과 난 두 달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 준비하는 기간에 하필 기말고사가 끼는 바람에 포기할까도 생각했지만, 다시 한 번 사명감을 가지고 준비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봉사대 날짜가 다가왔고 우리는 동성 학교로 출발했다. 큰 꿈을 가지고 동성학교 학생들에게 사랑과 꿈과 희망을 전하고 싶은 마음에 모두 들떠 있었다.

우리의 목적은 그들의 멘토가 되어 상담을 해주는 것이었다. 하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한창 예민할 나이의 아이들과 쉽게 터놓고 이야기 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환경요건도 좋지 않았다. 학교 실내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기에 우리는 야외에서 돛자리를 펴고 학생들을 대면했다. 워낙 트여 있는 공간이라 1대1로 집중해서 상담하기 힘들었고 상담하는 학생들도 다른 기다리는 학생들의 눈치를 보며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를 망설였다. 이 학생들이 마음을 열고 마음 속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 무지 노력했다.

우린 밤에 늦게 자더라도 기도하는 시간을 더 가졌다. 모두 피곤하지만 함께 모여 피드백의 시간도 가



졌다. 멘토링이 시작 되지 3일째가 되는 아침, 난 배에서 많은 고통을 느꼈고 밥도 먹지 못한 채 계속 토를 했다. 난 음식이 걸려서 체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친구에게 손가락을 따달라고 부탁했으나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너무 배가 고파 물이라도 마셨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마신 물도 토해버렸다. 결국 차민경 목사님께서 병원에 가보라고 하셔서 병원에 가게 됐다. 병원에서 의사가 말하기를 난 요즘 유행하는 장 바이러스에 걸렸다고 말했다.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면 최소 일주일에서 최대 3주까지 아플 수 있다고 한다. 동성학교는 산중에 있는 학교이기에 새벽엔 바람이 쌀쌀했다. 이점을 주의하지 못한 탓인 것 같다. 난 그 병원에서 링겔을 맞은 후 처방받은 약을 들고 왔다. 차민경 목사님께서선 전도도 중요하지만 일단 내 건강이 우선이라고 하루 쉬어보고 그래도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 집에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고 하셨다. 그날 밤 난 간절히 기도 했다. 여기서 돌아갈 수 없었다. 다음날이 되었다. 아침으로 죽을 먹고 약을 먹었다. 다른 대원들이 학생들을 만나는 동안 난 숙소에서 쉬었다. 현장에 있을 수 없기에 다른 대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로 후원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너무나도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배가 아프지 않고 몸 상태도 좋아지면서 회복의 기미가 보인 것이다. 난 너무나도 감사했다. 바로 우리대원들과 학생들을 향해 달려갔다.

한주가 거의 다 지나가며 이 봉사기간에 봉사대원들과 난 더 큰 감사를 받았음을 느낄 수 있었다. 처음에 어색하기만 했던 우리들은 누구보다도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친구가 되었다. 난 그저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눠주러 왔을 뿐인데, 그저 그들에게 꿈을 주러 왔을 뿐인데, 그저 그들의 아픔을 치료해주러 왔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이 모든 것을 받았다. 성공적으로 봉사대를 끝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사회복지학과

팀 명	한뫓봉사대	주최학과/부서	사회복지학과
지도교수	최윤호	학생대표	강해라
봉사지역	경상북도 봉화	활동기간	2012.7.25 ~ 8.1
파견인원	지도교수 : 1명, 대장 : 1명, 대원 : 10명		
협력 및 후원기관		주소/연락처	경북 봉화군 재산면 현동리 599-18 054)673-7260
봉사영역	교육, 노력	봉사대상자	아동, 청소년

### ▶ 팀 명단

No	이름	학과	학년	역할/담당	No	이름	학과	학년	역할/담당
지도교수	최윤호	사회복지			대원6	채광직	사회복지	1	교사, 주방보조
학생대표	강해라	사회복지	2	교사, 총무, 엔지니어	대원7	백미리	사회복지	1	교사, 율동
대원2	이은미	사회복지	2	교사	대원8	이재현	사회복지	1	교사, 율동, 주방보조
대원3	이은아	사회복지	2	교사, 식사, 엔지니어	대원9	이진수	사회복지	1	교사, 주방보조
대원4	강희연	사회복지	1	교사	대원10	장인후	사회복지	1	교사, 주방보조
대원5	김선귀	사회복지	1	교사, 율동, 주방보조	대원11	정현진	사회복지	1	교사, 식사, 율동



▶ 봉사주요 활동내용 및 결과

No	활동영역	날짜	장소	내용	평가 및 의견	결과(참여인원)
1	창의력 개발	2012.7.26	재산	미술활동: 데칼코마니, 투시화, 찰흙놀이, 공동그 림, 원안의 친구들, 종이공 예 등 창의력 개발 프로그 램을 실시함.	충분한 설명이 보태어졌다 면 더욱 의미있었을 것으로 생각됨.	대원: 11명 어린이: 30명
2	교육 활동	2012.7.28	재산	어린이 학교 활동으로 교과공부, 노래 및 율동을 진행함	방과 후 시간을 의미 있게 보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 었음	대원: 11명 어린이: 31명
3	문화 활동	2012.7.29	은어 축제	봉사대원들과 청년반이 함께 봉화군 지역축제인 은어축제에 방문함.	연합된 시간을 가짐으로써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하였음	대원: 11명 어린이: 0명 청년: 5명
4	연극	2012.7.31	재산	봉사대원들과 아이들이 함께 지팡이가 된 나무라 는 주제로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리는 연극을 함.	평소 아이들이 겪어보지 못한 연극이라는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일깨워 줄 수 있었음.	대원: 11명 어린이: 35명

▶ 봉사활동 운영 전반평가

매우인중음 1	인중음 2	보통 3	중음 4	매우중음 5	활동에 필요한 준비물은 바짐없이 준비됐는가?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활동영역	평가	활동영역	평가
지도교수역할	기관과 봉사대원 사이의 의견 차이를 조율하여 안정감 있게 어린이학교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	학생대표역할	봉사대원들이 부지런히 움직일 수 있도록 매 순간 격려했으며, 아이들과의 연합을 주도하여 연합감 및 친밀감을 형성함.
학생대원소양	학생대표의 리더에 맞추어 최대한 계획대로 실행하기 위해 힘썼으며, 성실한 태도로 프로그램을 준비하였음.	현지반응	어린이학교를 통해 새로운 문화활동을 경험하였다며 고마워함
숙식 및 생활여건	지역아동센터장님 내외분의 봉사로 인해 숙식 및 생활여건은 좋았음.	활동지역 및 안전관련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이라서 대원들 모두가 안전에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안전하게 진행 될 수 있었음.
잘된점	마을에서 기반이 잡힌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하여 많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활동 하였음	운영평가 및 애로사항	사전에 지역과 봉사대 사이에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 의견차이로 힘들었으나, 서로 간에 타협점을 찾아내 계획한 대로 운영할 수 있었음.
개선(보완) 사항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 초반에 많이 힘들었으므로 사전에 의사소통을 확실히 하고, 사전답사를 꼼꼼히 할 것.	총평	준비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초반에 있었던 의사소통 문제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문제없이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었음. 봉사 계획단계에서 봉사지역의 입장을 더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봉사활동 전체 일정표

일정	구분	활동내용	일정	구분	활동내용
7/25	오전	청량리역 출발	7/26	오전	어린이학교
	오후	봉화 도착		오후	창의력 계발 프로그램 (데칼코마니, 투시화, 찰흙놀이, 공동그림, 원안의 친구들, 종이공예 등)
7/27	오전	어린이학교	7/28	오전	문화의 날
	오후	활동준비		오후	물총싸움
7/29	오전	어린이학교	7/30	오전	어린이학교
	오후	음식 만들기(샌드위치, 주먹밥), 물놀이		오후	연극준비, 운동능력향상 프로그램 (사람빙고게임, 꼬리잡기, 좁은땅, 벽공놀이, 수구, 탁구 등)
7/31	오전	어린이학교	8/1	오전	서울로 출발
	오후	레크레이션 (연극, 가라사대, 스피드 퀴즈, 스무고개, 동글게 동글게 등)		오후	서울 도착



# PHOTO

▶ The pictures came out well.



▶ 춘양역으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 아이들과 물총 싸움을 끝내고



▶ 아이들과 함께



▶ 연극 '지팡이가 된 나무들'



▶ 아이들과 슈퍼로 go go



▶ 유치부 프로그램이었던 데칼코마니



# PHOTO



▶ 오후 프로그램 중 하인 물놀이



▶ 아이들과 연극을 마친 후



▶ 물놀이 프로그램



▶ 레크레이션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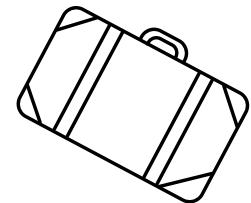
▶ 율동팀의 모습



▶ 물총놀이 하는 중



▶ 아이들과 찰흙 놀이 중에



# PHOTO



▶ 학생반 친구와 상담



▶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운동연습



▶ 아이들과 함께 참흥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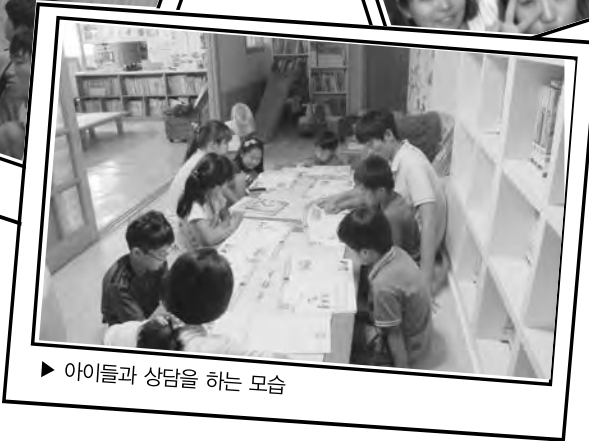
▶ 오리엔테이션



▶ 단체사진



▶ 아이들과 레크레이션 하는 시간



▶ 아이들과 상담을 하는 모습



## | 지도교수 소감문 |



최윤희

## “한뜻 봉사대”

지난해 여름방학에 이어 올해도 사회복지학과 안교팀과 함께 국내 하계봉사대에 다녀오게 되었다. 방학 후 한주일간 해외하계봉사대를 인솔해야 했기에 이번 7월 25일부터 있던 사복학부 하계봉사대에는 사전에 많은 신경을 쓰지 못하였다. 하지만 이번 봉사대 대장을 맡은 2학년 안교장이 작년에 다녀온 경험과 지난 학기 중 안교를 지도하며 토요일 오후 지속적인 봉사를 다녀온 경험이 있어서인지 봉사대에 대한 사전 준비를 스스로 잘 준비하며 중간 중간 진행상황을 알려주며 진행해 나갔다.

국내 봉사대는 경북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도심 아이들에 비하여 방학기간 제공되는 교육 서비스가 미약한 아이들에게 여름방학 어린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었다.

이번 사복안교 봉사대 팀은 구성원이 평소 함께 활동하던 팀 외에도 많은 학생들이 모였기 때문에 약간은 염려와 우려가 있었지만 막상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진행되자 모두가 다 열심히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다.

이번 봉사대를 간 경북 봉화지역 재산교회는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조그마한 시골 교회였다. 현지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우리나라 3대 오지 중 한곳이라고 할 정도로 외져있고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 지역





이었다. 지역 자체에 인구도 얼마 되지 않았으며, 특히 중학생은 전교생이 20여명, 초등학생은 전교생이 40여명으로 학생들 수가 많지 않는 곳이었다. 하지만 그 교회에서는 그 지역에 있는 초, 중고생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아동센터를 지난 12월에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이번 삼육대학에 봉사대를 초청하였고, 우리 대원들이 한주일 동안 가장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전교생에 절반에 해당하는 평균 20여명의 학생들을 참석시켜 배움의 기쁨을 제공했다.

참으로 무덥고, 숙소와 식사 환경이 열악한 가운데서이지만 우리 대원들이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이끌어 가는 모습이 참으로 대견하고 훌륭해 보였다. 물론 처음에는 아동센터와 대원들 간에 프로그램과 몇 가지 일로 오해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으로 노력하여 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아동센터의 교우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돌아오는 경험을 하였다.

이번 봉사대를 통하여 우리 대원들이 스스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경험을 얻었을 뿐 아니라 현지에 여러 가지 변수를 만날 때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며, 어떻게 새로운 방법을 찾아가야 하는 가에 대해서도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리라 생각한다.

각 가정에서는 아무런 부족 없는 생활을 하던 대원들이지만 봉사의 기간 동안에는 모든 것이 다 불편하고 열악한 환경으로 쉽지 않는 봉사기간이었지만, 모두 서로를 향한 이해와 배려로 건강하고 무사히 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게 되었다.

이러한 봉사를 위하여 여러 가지로 지원해주신 학교에 감사를 드린다.

## | 학생대표 소감문 |



강해라 | 사회복지학과 2학년  
학생대표

## “대한민국 오지, 경북 봉화군”

사회복지학과의 토요일채플을 이끄는 토요일채플리더에서 경북 봉화군 재산교회가 운영하는 아동센터의 아이들을 위해 준비한 여름어린이학교교장이 되기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처음 봉사대장이 되어 봉사대를 신청할 때 봉사대 파견지역 선정으로 인해서 많이 빼격거렸고, 힘들게 봉사지역을 정해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번 계획을 수정하여야 했기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힘들게 도착한 봉사지역인 경상북도 봉화군은 정말로 이런 곳이 다 있었나 싶을 정도로 오지였습니다. 김치 같은 간단한 식재료를 사려고만 해도 20분간 차를 타고 나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다행이 자전거로 10분정도 거리에 작은 동네 슈퍼가 하나 있어서 그 곳에서 아이들에게 간식으로 줄 과자정도는 구입할 수 있었지만, 버스도 몇 시간에 한 대씩 다니는 오지라서 차가 없이 식재료를 사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나마 먹는 것은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당장 자는 것, 씻는 것이 더욱 큰 문제였습니다. 사전에 연락을 주고받을 때는 들은 적도 없는 많은 문제들을 교회에 도착하고 나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따로 숙소가 없어서 잠은 교회에서 자야하고, 교회 안에 우리만이 아니라 선교사 한 분과 지역아동센터 선생님 한 분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는 집사님 내외분과 그분들의 어린 딸이 있다는 것이었



습니다. 한 마디로 작은 교회 안에서 17명이 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  
던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많이 당황했고 불편했지만 씹는 시간을 줄이  
고 서로 배려하며 생활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 잠도 못자고 땀기까지  
해서 서로 많이 예민해져있고 건드리면 당장이라도 터져버릴 것 같은  
긴장감이 있었지만, 그것도 잠시일 뿐 아이들이 오고 어린이학교를 시  
작하게 되면 그 속에서 많은 에너지를 얻어갔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지금, 봉사대에서 겪었던 많은 일들이 떠오릅니다. 아  
이들과 물놀이를 간 기억, 냉장고를 열다가 실수로 간장을 뒤엎어 버린  
기억.. 또 물총싸움에서 다투던 아이들을 화해시킨 기억.. 여기에는 다  
적지 못할 만큼 많은 추억과 교훈을 얻고 왔습니다. 올 여름 중에서도  
가장 무더운 여름날 봉사대를 출발했기 때문에 교회와 우리 봉사대원  
모두가 많이 걱정했지만, 함께 나눈 따뜻한 사랑과 우리 봉사대원 그리  
고 도움 주신 봉화 사람들과의 연합된 분위기 속에서 여름의 더위도 잊  
을 만큼 많은 에너지를 얻고, 또 나누고 왔습니다. 올 여름 가장 특별한

추억을 만들고 온 것 같아서 뿌듯합니  
다.





## | 대원소감문 |



이은미 | 사회복지학과 2학년  
봉사대원/ 학생반 교사

### “교감하기”

처음 재산교회에서 운영하는 아동센터 여름방학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하였을 때부터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정해져 있던 날짜도 바꾸어야 했고 재산으로 가는 교통편을 여러 번 바꿔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봉사대원들과 부푼 마음을 안고 갈 수 있었습니다. 재산교회의 상황은 생각보다 열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놀랐던 것은 찬물로 샤워를 해야 하고, 벌레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서울에서만 생활했었기에 벌레들이 많은 것에 적응을 하기가 사실은 조금 어려웠습니다.

재산에 도착하자마자 아이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과의 첫 대면은 그저 낯설, 어색함 그 자체였습니다. 아이들이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 듯해 보여 더욱 다가가기 어려웠습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먼저 다가가니 아이들도 쉽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준비해 간 울동을 하면서 아이들과의 어색한 시간을 없애고자 하였는데 아이들이 생각만큼 따라주지 않아 힘겨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시간이 흐를수록 고민거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앞 다투며 울동을 다 외웠다고 선생님들에게 자랑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있는 동안 가장 힘이 들었던 것은 서울에서 계획해 왔던 프로그램 진행시간이 달랐던 것이었습니다. 계획상으로는 4시에 모든 프로그



램을 마쳐야 했는데 교회에서 아이들이 집에 가는 시간은 6시 반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원들이 더욱 피곤해 했던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을 마치고 아이들을 보내고 씻고 피드백하고 내일 프로그램을 준비해도 12시가 훌쩍 지나가 있었고, 다음 날은 6시 반에 일어나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름성경학교를 준비해야 하는 날보다 했던 날이 많아질수록 아이들과의 사이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재산교회 측에서 요청했던 몇몇 아이들과의 상담이 진행되자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더 관심을 가져주고 이야기를 더 하다 보니 이별을 준비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봉사를 하면서 봉사를 하는 사람이 봉사 대상자보다 훨씬 많은 것을 배운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을 통해서 그동안 내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어른의 모습을 지금의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시골 아이들이라 그런지 동네에서 보던 아이들과는 다르게 누군가에게 정을 쉽게 주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시골 아이들이라 그 아이들에게 주는 관심이 서울 아이들이 받는 관심보다 적어서 누군가 관심을 조금만 보이면 정을 다 줘버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마지막 날 아이들이 교회 차를 타고 집에 갈 때 마음이 많이 아파 울적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저 뿐만이 아니고 같이 갔던 봉사대원들과 그 교회에 오던 아이들 모두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집에 간다는 마음과 아이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이중적인 마음이 공존했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 | 대원소감문 |



이재현 | 사회복지학과 1학년  
중사대원/유치반 교사, 율동

### “아이처럼”

7박 8일 동안 재산교회에서 운영하는 아동센터의 여름방학 프로그램에 함께 하였습니다. 시골이라 아이들이 별로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이들이 30명 정도 있어서 처음 갔을 때 놀랐었습니다. 그 30명이 되는 아이들 중에는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부모님이 둘 중 한 분이 같이 살지 않는 가정, 부모님 두 분 다 없으시고 할아버지와 함께 사는 가정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아동센터가 없었다면 아이들이 이제 방학이다 보니까 집에서 혼자서 방치되고 굉장히 외로움을 느끼며 제대로 된 음식을 먹을 가능성이 적어 영양도 부족해 위험한 상태에 빠져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라도 같이 살지 않는 아이들은 굉장히 무언가가 결핍이 되어있었습니다. 그 무언가는 바로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삶 중에 어쩌면 가장 사랑을 받아야 할 나이에 부모님의 사랑이 결핍되어서 되게 위축되어 있는 아이도 있었고, 괜히 그것을 폭력적이고 부정적인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곧 부모님 관계가 깨지게 될 상황이 되어 그 것이 정말 우울하고 난 화목하지 않은 가정에서 살아왔다고 부모님을 원망했는데 제 그 아픔은 그 아이들에 비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느꼈던 아픔보다 아이들이 더 큰 아픔을 가지고 있





다는 것에 더욱 더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7박 8일 동안 아이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정을 주고 함께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화하고 같이 놀면서 아이가 안 좋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조금이라도 고쳐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이들이 자기 맘대로 되지 않을 때 부정적인 표현을 많이 했는데 그 아이를 잘 타이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속에서 아이들이 쉽게 말을 듣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아이에 대해 더 이해하게 되어서 좋았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생활을 하다 보니 이 아이들뿐만 아니라 많은 다른 아이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계속 발전되어 저도 아이들을 위한 복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중요한 시기에 청소년기를 지나 건전하고 건강한 성인으로 무럭 무럭 자랄 수 있는 토양과 거름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이 문제의 원인은 부모님, 그 가정에 있는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족 전체에 대한 가족복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곧 군대를 가는데 아이들에게서 아이들만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아이들에게 받은 선물은 아이들은 사람들과 노는 거에 있어서 그렇게 사람을 따지지 않는 천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좋으면 다 같이 놀고 가리지 않고 노는 모습이 좋아보였습니다. 그 천진난만함, 동심이 저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미소를 지으며 저를 따라 주고 저를 찾아 주는 것이 군대니 뭐니 우울해 하던 저에게 봉사대원들과 함께 지내는 시간과 더불어 삶의 활력소가 되어주었



습니다.

봉사대를 준비하면서 어려움이 있었고 진행 중에도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끝까지 할 수 있게 했던 것은 아이들이 보여준 미소였고 그것이 봉사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봉사대가 끝난 후에 봉사대에 관한 어려움들이 극복되어 굉장히 좋았고 역시 밑으로 떨어진다고 끝이 아니라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진로선택에 영향을 주었고, 큰 공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곁에 없다는 것이 허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계신 센터 선생님들 좋은 분이셨고, 우리 한뜻봉사대도 정말 너무 좋은 사람이고 같이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소중한 추억을 함께해서 기쁩니다. 연락이 되는 아이들이 있는데 계속 연락을 할 것이고 이번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 인연이 7박 8일로 끝나지 않고 계속 가길 바라고 그리 할 것입니다.

## | 대원소감문 |



장인후 | 사회복지학과 1학년  
선생님(학생들 안전담당)

## “1초 같은 1주일”

처음에 경북 봉화군 재산으로 봉사대를 간다고 했을 때 봉사대장 강해라 선배님께서 현지 상황이 무척이나 열악하다고 하셨다. 하지만 처음에 재산에 도착했을 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아이들이 있었고 아동센터의 시설도 생각했던 것보다 좋았다. 도착하자마자 짐을 풀고 함께 모여 포부를 다진 후 아이들과 친해질 시간도 가질 겸 아이들과 노는 시간을 가졌다. 경북 봉화군으로 오는 기차에서부터 ‘아이들과 어떻게 친해질까, 아이들에게 어떻게 다가갈까’ 라는 걱정을 했던 나인데 그런 걱정을 한 것 자체가 시간낭비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들이 먼저 나에게 다가와 같이 놀아달라고 하고 장난도 치고 해서 아이들과 금방 친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 날부터는 우리 한뜻 토요일채플팀이 준비한 여름어린이학교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사실 인구도 매우 적고 교육열도 낮은 환경이라는 소리를 듣고 아이들에게 프로그램이 잘 전달될까, 그것보다 프로그램을 잘 실행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생각과는 다르게 많은 학생들이 모여서, 또 조금이라도 더 많은 학생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어서 기분이 정말 좋았다. 이렇게 여름학교 프로그램이 끝나고 아이들이 귀가하기 전까지 대원들은 학생들과 함께 놀아주었다. 위에 봉사역할/담당을 보면 내 담당이



학생들 안전담당이라고 쓰여 있는데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다. 아이들과 놀아주다가 아이들이 싸우거나 다쳐서 올 때 마다 먼저 달려가서 아이들이 싸우는 것을 말리고 아이들이 우는 것을 달래주다가 저렇게 학생들 안전담당이라는 역할이 생긴 것이다.

여름학교프로그램을 하고 아이들과 놀아 주는 것을 날마다 반복하니 몸이 많이 지쳤지만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우선 아이들은 솔직하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아이들을 보며 나도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또한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서로 아껴주고 보살펴준다. 아직 어린나이임에도 불가하고, 자신이 보살핌을 받아야함에도 불가하고 자신보다 어린 아이들을 챙기고 보살피는 모습들을 보며 '아 이런 아이들이 나보다 낫구나. 나도 항상 주변 사람들을 잘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런 생각을 했을 때는 내가 봉사를 하러 간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나를 위해 봉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아이들에게도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이번 봉사대를 통해 깨달았다.

하루하루 아이들과 뜻 있는 날을 보내며 마지막 여름학교프로그램을 하고 아이들과 헤어지는 시간을 가질 때였다. 집으로 귀가하는 아이들에게 작별인사를 해주며 아이들에게 울지 말라고 소리치던 내가 아이들이 눈물을 글썽이던 모습을 보고 그만 영영 울어버렸다. 사실 그 전 날 밤에도 많이 울면서 내일 아이들 앞에선 울지 말아야지 생각을 했는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고 결국 아이들 앞에서 울어버렸다. 사실 봉사대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잘못된 점도 많고 모자란 부분도 많이 보여줬는데 그런 모습조차 좋아해준 아이들과 헤어질 생각을 하니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던 것이다. 그렇게 아이들과 우리는 헤어졌다. 비록 눈물 속



에서 헤어졌지만 마음속에선 누구보다 기뻐던 1주일을 보냈으리라  
라고 나는 자부할 수 있고 장담할 수 있다. 요즘도 아이들 생각에 잠이  
잘 오지 않고 길가에서 아이들을 볼 때 마다 재산의 이들이 생각난다.

이번 봉사대는 대학교에 들어와서, 아니 대학교뿐만 아니라 내 19년  
인생을 다 살아오면서 처음 경험한 봉사대였다. 첫 단추를 잘 메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 것처럼 나에게 첫 봉사대는 앞으로의 봉사대 활동에 있  
어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경험이 되었어야 한다. 근데 중요하고 소중한  
뿐만 아니라 나에게 봉사하고 싶다는 마음을 더욱 심어주고 심지어  
내 진로까지 결정해준 이번 국내단기봉사대에 나는 만족하며 감사하고  
있다. 얼른 겨울이 되어서 봉사대를 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내 머릿속에  
서 끊이질 않는다.



## 생명과학과

팀 명	생명과학과	주최학과/부서	생명과학과
지도교수	김현희, 나승호	학생대표	윤아름
봉사지역	강원도 평창	활동기간	2012.7.23 ~ 7.29
파견인원	지도교수 : 2명, 대장 : 1명, 대원 : 13명		
협력 및 후원기관	-	주소/연락처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대화2리 947-2
봉사영역	어린이 캠프, 과학교실 (교육)	봉사대상자	어린이들

### ▶ 팀 명단

No	이름	학과	학년	역할/담당	No	이름	학과	학년	역할/담당
지도교수	김현희	생명과학과			지도교수	나승호			
학생대표	윤아름	생명과학과	2	대장, 교사	대원8	오세임	생명과학과	1	교사, 등록
대원2	김상연	생명과학과	1	총무, 교사	대원9	안시은	생명과학과	1	교사, 간식
대원3	유민지	생명과학과	1	서기, 영상, 교사	대원10	이한솔	생명과학과	1	팀장
대원4	주윤하	생명과학과	1	사진, 교사	대원11	정재민	생명과학과	1	교사, 실험팀장
대원5	신대선	생명과학과	1	사진, 교사	대원12	전종혁	생명과학과	1	교사, PPT
대원6	전재현	생명과학과	1	경찬, 교사	대원13	임희수	생명과학과	1	팀장, 단체 티
대원7	강신재	생명과학과	1	팀장, 실험팀장	대원14	이흥수	생명과학과	1	교사, 실험재료



▶ 봉사주요 활동내용 및 결과

No	활동영역	날짜	장소	내용	평가 및 의견	결과(참여인원)
1	문화 교실	07.24 ~ 07. 28	대화리	문화교실	유치 유년 소년으로 나누어서 아이들과 함께 영어노래 배우기, 즐거운 게임시간을 통해 주제를 전해줌	대원: 14명 어린이: 27명
2	교육 봉사	07.24~ 07.28	대화리	초등학교 아이들과 함께 과학교실을 함	폐모형 만들기, 착시현상, 맹점 알아보기 등 과학의 신비함을 통해 아이들이 과학에 흥미를 갖게 해줌	대원 : 14명 어린이 : 평균 23명

▶ 봉사활동 운영 전반평가

매우안중음 1	안중음 2	보통 3	중음 4	매우중음 5	활동에 필요한 준비물은 바짐없이 준비됐는가?	1	2	3	4	5
계획된 활동은 모두 실행했는가?					모두 건강하게 활동을 마무리했는가?	1	2	3	4	5
활동 목표는 달성했는가?					대원들 간에 문제없이 생활했는가?	1	2	3	4	5
활동영역	평가				활동영역	평가				
지도교수역할	모든 활동을 총괄 및 지도				학생대표역할	전체적인 것을 확인하고 일정에 맞게 움직이도록 진행함. 그 밖의 모든 진행을 계획하고 통솔함				
학생대원소양	리더 중심으로 모든 일정 무사히 소화함.				현지반응	아이들의 호응도가 높았으며 특히 과학 교실로 인해 학부모님들도 좋아하심.				
숙식 및 생활여건	숙박 시설과 식사 모두 만족스러웠음.				활동지역 및 안전관련	인근지역에서 활동했음.				
잘된점	각자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므로 운영체제가 잘 되었음. 또한 매일 피드백 시간을 통하여 보완해야할 점들을 충분히 숙지하고 잘 해 나감.				운영평가 및 애로사항	동네가 작아서 인근에 사는 아이들이 많지 않았음.				
개선(보완)사항					총평	동네가 작았지만, 홍보와 특히 과학 교실을 한다는 소문을 듣고 친구들을 데려와주고 함께 함으로써 비교적 많은 아이들이 왔음. 또한 봉사대원들도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들을 통해 많은 것을 느끼고 얻는 시간이 되었음.				

## ▶ 봉사활동 전체 일정표

일정	구분	활동내용
7/23	오전	삼육대학교 집결 및 출발
	오후	정리 및 환경미화와 홍보
7/24 ~ 7/27	7:30	기상
	8:00 ~ 8:30	아침조회
	8:30 ~ 9:30	식사 및 개인준비
	9:30 ~ 10:30	청소
	10:30 ~ 11:30	문화교실 준비
	12:00 ~ 1:00	점심
	1:00 ~ 2:00	문화교실 노래 & 영어 노래 연습
	2:00 ~ 3:30	여름 문화교실
	3:30 ~ 4:30	아이들과 함께 간식시간
	4:30 ~ 6:00	과학교실
	6:30 ~ 7:30	저녁시간
	9:00 ~ 10:00	피드백
10:00 ~	세면 및 취침	
7/28	오전	예배 및 발표회
	오후	교류의 날
		아이들과 함께 물놀이



# PHOTO

▶ The pictures came out well.



▶ 노래시간



▶ 각 반 활동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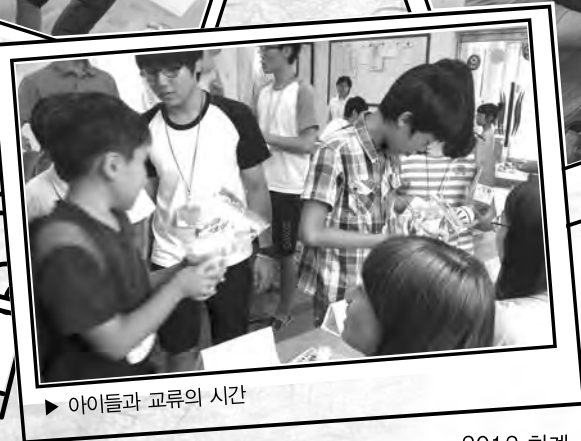
▶ 아이들과 하는 게임시간



▶ 아이들과 하는 게임시간



▶ 신나는 과학교실



▶ 아이들과 교류의 시간





# PHOTO



▶ 계곡에서 물놀이하는 중



▶ 탕탕볼 만들기 수공



▶ 율동을 따라하는 소년반 친구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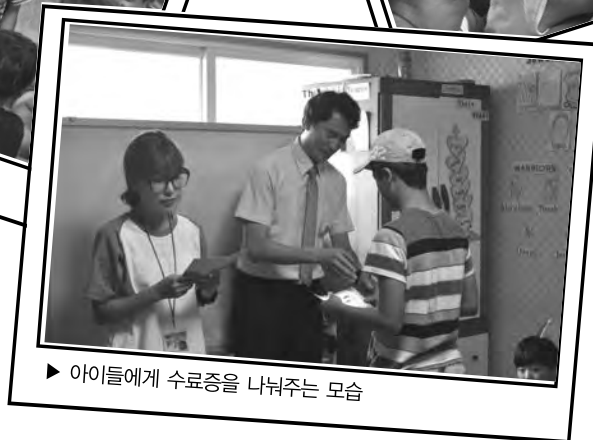
▶ 착시현상을 보여주는 실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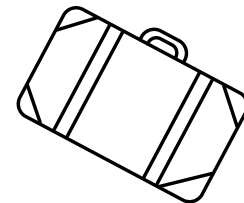
▶ 아이들과 과학실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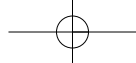


▶ 유년부 아이들



▶ 아이들에게 수료증을 나눠주는 모습





## | 지도교수 소감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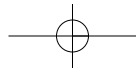


니승호

### “봉사대를 다녀와서”

장마와 더위가 교차하는 7월의 마지막 주에 우리 생명과학과 봉사대 팀은 강원도 평창에 도착하였습니다. 7월 23일 봉사대를 위하여 학교를 출발할 때 마지막 장마 비가 내리더니 약 3시간 뒤에 우리가 도착했을 때 비는 더 이상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봉사대들에게 화창한 날씨를 선물해주셨습니다.

이번 생명과학과 봉사대는 성경학교와 전공을 연계한 과학 교실을 함께 운영하였습니다. 오후 2시부터 성경학교를 시작하여 약 6시 까지 경배와 찬양, 수공, 성경 이야기, 과학 교실, 레크레이션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봉사 대원들 대부분이 과거에 교회를 출석한 학생들이 드물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학생들 각자가 자신의 맡은 곳에서 최선을 다해주었습니다. 봉사대원들이 자신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해 찬양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아이들에게 소개할 때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덥고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사랑과 친절함을 잃지 않으려는 모습과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려는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봉사대원들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씨앗이 심겨졌으리라 믿습니다.





이번 봉사대는 특별히 대원들 간의 연합이 두드러진 특징이었습니다. 이번 봉사대는 생명과학과 안교가 주축이 되어 구성되었고 신앙하지 않는 학생들과 SDA 학생들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러나 서로 나뉘고 다툼 없이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봉사대였습니다. 무더운 날씨와 피로로 힘들고 지쳐있을 때 서로를 위해 안마해주고 격려 해주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서로 웃고 즐거워하며 행복해하는 모습이 참으로 보석처럼 빛나는 봉사대였습니다. 성경학교 학생들은 우리 봉사대원들의 미소와 사랑, 함께 놀아주는 것에 큰 감동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비록 처음엔 작은 아이들이 모였지만 참석한 아이들이 친구들을 초청해서 나중에는 두 배에 가까운 학생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봉사대원들에겐 아이 한명 한명의 사랑과 관심이 큰 기쁨과 보람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일주일이나 되는 긴 봉사 기간 동안 무더위 속에서 종일 우리에게 식사를 만들어주신 김주연 목사님과 집사님들의 수고와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와 불편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늘 웃음과 친절을 잃지 않고 아이들과 동료들에게 최선을 다한 생명과학과 봉사대원들에게도 또한 화이팅입니다.

그리고 봉사 기간 아무런 사고 없이 모두 건강하게 일정을 마치게 하시고, 봉사대원들과 아이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교제를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 대원소감문 |



유민지 | 생명과학과 1학년  
소년부선생님/ 서기/ 영상 만들기

## “믿음”

생명과학과 봉사대는 평창에 있는 대화교회로 어린이 여름방학학교 선생님의 역할과 과학 실험을 가지고 봉사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봉사 활동을 준비하는 동안에 기대가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모든 것들을 그 곳에 있는 아이들이 좋아할까 생각하며, 준비가 힘들었지만 기쁜 마음으로 했습니다. 봉사대가 출발하는 날. 걱정 반 설렘 반으로 그곳에 도착하였습니다. 생각보다 아담한 교회였고 귀여운 고양이들도 있어 왠지 정이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첫 번째 날에는 봉사대원들과 함께 여름학교를 꾸려갈 준비를 했습니다. 밖으로 나가 홍보도 하고 실내 장식 등 여름학교 준비를 마쳤고, 마지막으로 내일 할 것들을 다시 해보기도 했습니다. 밖에 나가서 홍보를 할 때는 같은 날 다른 교회에서 여름학교가 있어 길거리에서는 많은 아이들을 만나지 못했지만 만나는 아이들마다 친근하게 다가가 여름학교 홍보를 했습니다.

두 번째 날. 드디어 아이들과 함께하는 여름학교가 시작되었고 시간이 되었음에도 조금밖에 없는 아이들을 보며 약간은 실망했지만 같이 운동도하고 노래도 부르며 친해지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다들 처음으로 선생님이라는 역할을 맡아 하는 것이라 통솔력 부족과 각 조별 평등한 스티커 분배, 노래 부족

등 많은 개선점을 발견하였지만 선생님들끼리의 단합이 잘되어 각 상황에 맞는 대처를 할 수 있었고 실험할 때는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첫날 유치부와 소년부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피드백시간에 서로 기도해주며 하루를 마쳤습니다.

세 번째 날. 확실히 어제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소년부 선생님인 저는 어제보다 덜 힘들게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과학 실험을 할 때는 다들 너무 신기해해서 저를 포함해서 실험을 준비한 소년부 선생님들이 굉장히 뿌듯해했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의지해 주는 것이 너무 좋았고 벌써 친해져서 함께 여름학교를 즐기고 있다는 것이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평등하게 사랑을 나눠주지 못하는 점에서 약간의 개선해야 할 점이 보였습니다. 유년부의 경우 인원이 많아 통솔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골고루 사랑을 나눠주지 못한 점에서 아쉬웠습니다. 아이들이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 준 것보다 더 크게 우리는 마음을 열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이었습니다.

네 번째 날. 물놀이를 한다는 사실 때문이었을까요. 어제보다 많은 수의 아이들이 왔습니다. 소년부도 어제 보다 늘었고 특히 여자아이들도 두 명이나 더 와서 기뻐했습니다. 노래가 적었던 것도 즉흥울동을 만들어서 개선했고 물놀이 덕분에 어제보다 아이들과 더 친하게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과 함께하는 물놀이가 점점 선생님들끼리의 물놀이가 되어 아쉬웠습니다. 또한 수줍어하는 아이들을 이끌어주지 못한 점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물놀이 후 간식준비가 잘 된 점이나 아이들이 선생님들의 이름을 외워 불러주는 모습. 또 스티커에 상관없이 참



여하는 자발적인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았습니다. 아이들은 이름을 외워 불러주는데 아이들의 이름을 모두 외우지 못한 점과 한명씩 성격을 다 파악하지 못한 점이 미안했고 선생님들을 잘 따라주는 아이들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섯 번째 날, 여름학교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많은 프로그램 중 아이들이 가장 좋아했고 아이다웠던 어제의 물놀이를 또 가기로 했습니다. 아이들과 친해질 수 있는 길은 같이 움직이면서 놀 때라 느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어제처럼 모든 선생님들이 물놀이를 하지 않아 아쉬웠습니다. 많이 피곤했던 까닭에 많은 선생님들이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친해진 탓에 몇 아이들이 선생님들을 너무 막 대하는 경우가 있어 마음이 좋지 않았지만 웃으면서 지시에 잘 따라주는 아이들이 고마웠습니다.

여섯 번째 날, 아이들이 우리와의 일주일을 발표했습니다. 웬지 제가 뿌듯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소년부 아이들이 손수 써온 이번 여름학교에 대한 느낌을 들을 땐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특히 다시 만나



자는 말이 슬프게 들려왔습니다. 마지막 날이어서 수료증도 나누어 주고 달란트 시장도 했습니다. 좋아하는 아이들 표정에 저도 신났습니다. 처음엔 다가오려 하지도 않고 오히려 우리들을 피하려고 했던 아이들인데 이제는 사





진도 같이 찍고 장난도 치는 사이라고 생각하니 느낌이 새로웠습니다.

이번 봉사대를 준비하고 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비록 언니, 오빠들이 아닌 선생님과 학생이라는 사이로 만났지만 아이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그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고 처음엔 어색하여 우리들을 멀리하려 했지만 먼저 다가갈수록 어색함이 사라지고 정이 쌓이는 그 느낌은 이번 봉사대에 참여한 우리 생명과학과 봉사대원들만이 느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기도와 믿음의 위대함을 느끼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한 첫 날, 너무 힘들었고 몇 명 오지도 않아 실망감이 컸었는데 많은 기도 주제로 많이 기도하고 또 그렇게 될 것이라 믿으니 아이들도 더 오고 그 전 날에 비하여 더 힘을 얻은 듯 덜 힘들었습니다.

길지 않았던 일주일이었지만 그 동안 배운 것들이 너무 많아 기분이 좋습니다. 마지막까지 제 옆에서 함께 놀고 저녁을 같이 먹었던 아이들의 얼굴이 아직도 생각이 나고 그 곳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면 다시 가서 모두들 보고 싶은 마음이 큼니다. 다시 돌아간다면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 왠지 모를 서운함도 남습니다. 이런 기회가 또 온다면 저는 또 참여할 것입니다. 그 때는 이번 봉사대보다 더 크고 많은 준비를 한 봉사대가 되었으면 합니다.

## | 대원소감문 |



임희수 | 생명과학과 1학년  
소년반 선생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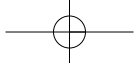
## “강원도 평창 봉사대를 마치고”

처음 참여하게 되는 봉사대라 출발하기 전 날, 밤을 설쳐가면서 설렘 반, 걱정 반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강원도 평창 대화교회에 도착을 했다. 도착한 당일 저희는 다음 날부터 시작할 여름학교를 위해 홍보를 하러 거리를 돌아다녔다. 그러나 외진 곳을 처음에 들어서서 그런지 아이들이 보이지 않아 걱정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대로변으로 나가다보니 몇몇의 아이들을 만날 수 있어 홍보를 하고 들어왔다. 그리고 여름학교가 시작되었다.

여름학교 첫째 날, 소년반 말썹꾸러기 친구들이 많이 와주었다. 4~6학년을 위주로 하는 소년반 친구들은 한창 말썹부리고 장난치기 좋아하는 아이들이었다. 아이들은 계속 밖에 나가 놀고 싶어 했고 공부 시작되면 집중시킬 수 없어서 결국 첫째 날은 우리가 준비한 모든 것이 물거품이 났다. 그리고 둘째 날, 전 날에 비해 많은 친구들이 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오늘도 나와 준 친구들을 위해 좌절했던 마음을 추스르고 몇 명 안 되는 친구이지만 이 친구들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고 해주고 싶었다. 역시나 집중시키기는 어려웠지만 그래도 과학실험을 할 때 아이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해 준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을 했다. 만약 내가 이 친구들과 같은 또래였다면 충분히 유치하다고 무시했었을 수도 있을 법한 실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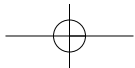
이었지만 재미있게 참여를 해주어서 고맷다.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실망감을 주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셋째 날, 일단 아이들이 어  
 제보다 날로 변해지고 나아진 모습을 보게 돼서 기분이 좋았다. 친구들  
 앞에서 울동을 시켰는데 날 보며 따라 해줄 때 말로 표현 못 할 무언가  
 의 감동이 밀려왔다. 변해가는 아이들을 통해서 뿌듯함을 느꼈다. 하지  
 만 우리가 마지막 달란트 시장을 하기 위해 지급되는 스티커에 목숨을  
 걸고 오로지 스티커에만 집착하는 친구들에게는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  
 이 들었다. 그 친구들에게 바른 참여 정신을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들  
 었다. 넷째 날, 유치, 유년, 소년부 친구들과 다 함께 계곡을 갔다. 이 날  
 가장 기억에 남았던 점은 종민이라는 친구가 나와 물장난을 하기 위해  
 하루 전 날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 물총을 사온 것과 소담이라는 친구가  
 계곡에서 놀다 다쳤는데 내 품에 안겨 허리를 잡고 눈물을 보일 때 이  
 친구에게는 미안했지만 기분이 좋았다. 내가 이 아이에게 의지되는 사  
 람이라는 사실에, 그러나 계곡에서 처음에는 아이들과 함께 놀다가 나  
 중에는 선생님들끼리 놀게 되어서 내 스스로에게 아쉬움이 많이 남는  
 날 이었다. 날 믿고 따라준 아이들에게 미안함도 들고 나에게 실망을 했  
 으면 어쩌나 하고 걱정이 들기도 했다. 내일은 더 노력하고 잘해줘야겠  
 단 다짐을 했다. 다섯째 날, 마지막 날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을 위해 친  
 구들에게 역할분담을 나누어주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과연 말쑥꾸러  
 기 친구들이 자기에게 맡은 책임을 다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  
 지만 내 걱정이 다 헛수고였다는 듯이 친구들이 너무나도 자기가 맡은  
 책임에 임해주어서 너무 고맷다. 일주일동안의 느낀 점을 발표 할 두  
 친구는 집에서 글을 적어오고.. 감동을 받았다. 그리고 마지막 달란트





시장을 했다. 개인적으로 소년반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던 친구는 종민이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날 위해 미니 선풍기를 자신의 스티커로 사주었다. 너무 고마워서 꼭 껴안고 뽀뽀라도 해주고 싶었지만 다 큰 친구이고 남학생이라 그런지 날 피했다 흑흑. 그리고 다시 한 번 계곡을 가게 되었다. 지난번에 끝까지 같이 놀아주지 못한 것을 만회할 기회라 생각하고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놀았다. 무엇보다 마지막이라 생각을 하니까 더욱 더 이 시간 일초 일분을 기억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마지막까지 즐겁게 놀고 교회에 도착해서 친구들과 이별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다.

처음엔 이 친구들과 과연 친해질 수 있을까 걱정도 들고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절대 쉬운 직업이 아님을 느끼고 어떻게 선생님들은 아이들과 지낼까 생각이 들었지만, 이번 계기로 선생님이라는 직업의 엄청난 매력을 발견하고 멋을 보았다. 아이들의 변하는 모습을 보고 아이들이 날 믿고 따라와 주는 모습을 보고 날 의지하고 좋아해주는 모습을 보면 그 만큼 행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일주일동안 많이 부족한 선생님이었지만 마지막까지 나와 주고 함께 해 준 친구들에게 너무 고마움을 느끼고 종민이가 “언젠가 다시 봐요.” 말을 잊지 못할 것이다. 이번 봉사대는 나에게 값진 경험을 주었다.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게 해 주신 목사님들과 안교임원들 그리고 마지막 우리 어리고 순수한 친구들. 고맙습니다. 더 발전해가고 봉사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해해가는 사람이 되어가겠다.



## 음악학과

팀 명	음악학과 하계 봉사대	주최학과/부서	음악학과
지도교수	임형준, 김영문	학생대표	이예슬
봉사지역	경기도 여주	활동기간	2012. 7.22 ~ 7.29
파견인원	지도교수 : 2명, 대장 : 1명, 대원 : 19명		
협력 및 후원기관	-	주소/연락처	-
봉사영역	문화, 교육, 노력봉사	봉사대상자	독거노인, 청소년, 어린이

### ▶ 팀 명단

No	이름	학과	학년	역할/담당	No	이름	학과	학년	역할/담당
지도교수	김영문	음악학과			지도교수	임형준	음악학과		
학생대표	이예슬	음악학과	3	대장	대원11	송주환	음악학과	1	리더
대원2	박혜정	음악학과	3	총무	대원12	김태혁	음악학과	1	리더
대원3	임희주	음악학과	3	송리더	대원13	오성민	음악학과	1	리더
대원4	김은총	음악학과	3	식사	대원14	이은수	음악학과	1	리더
대원5	계소영	음악학과	3	식사	대원15	양현주	음악학과	1	리더
대원6	박정연	음악학과	2	리더	대원16	이동엽	음악학과	1	리더
대원7	박시온	음악학과	2	재무	대원17	김교은	음악학과	1	리더
대원8	김상아	음악학과	2	리더	대원18	안우림	신학과	2	리더
대원9	한혜연	음악학과	1	리더	대원19	이승규	신학과	2	리더
대원10	구효민	음악학과	1	리더					

### ▶ 봉사 주요 활동내용 및 결과

No	활동영역	날짜	장소	내용	평가 및 의견	결과(참여인원)
1	문화 활동	12.7.27	여주	여름방학숙제 캠프 : 종이 접기, 풀꽃 교실	아이들이 즐거워하였다	대원 : 12 어린이 : 12명
2	노력봉사	12.7.27	독거노인 가정	독거노인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방문해서 필요한 것 채워드리м. (건조대, 형광등 갈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좋아하셔서 학생들도 좋아했다	대원:6 독거노인 댁 : 2집
3	음악회	12.7.27	여주	금요일 음악회	봉사대원들이 연주를 직접 함으로써 감동감화를 느낌	대원 : 19

No	활동영역	날짜	장소	내용	평가 및 의견	결과(참여인원)
4	발표회	12.7.28	-	어린이학교에서 일주일간 배운 내용을 발표함	아이들이 봉사대원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감	대원 : 19 어린이 : 17

▶ 봉사활동 운영 전반평가

매우인중음 1	인중음 2	보통 3	중음 4	매우중음 5	활동에 필요한 준비물은 바짐없이 준비했는가?	1	2	3	4	5					
계획된 활동은 모두 실행했는가?					1	2	3	4	5	모두 건강하게 활동을 마무리했는가?	1	2	3	4	5
활동 목표는 달성했는가?					1	2	3	4	5	대원들 간에 문제없이 생활했는가?	1	2	3	4	5
활동영역		평가			활동영역		평가								
지도교수역할	진행되는 일에 있어서 빠지는 것이 없 게끔 도와 주셨다.				학생대표역할	아이들의 고통을 들어주었다.									
학생대원소양	학생들의 봉사정신이 대단했다.				현지반응	주민들이 도와주셔서 감사했다.									
숙식 및 생활여건	자는 곳은 습했지만 모든 것에 감사했 다.				활동지역 및 안전관련	시골마을이어서 안전했다.									
잘된점	하루일과가 진행대로 잘 되었다.				운영평가 및 애로사항	날씨가 더워 야외활동에 제한이 있었다.									
개선(보완) 사항	지역특성을 더 많이 알았더라면.				총평	봉사대 경험자가 있어서 수월했다.									

▶ 봉사활동 전체 일정표

일정	구분	활동내용	일정	구분	활동내용
7/23	오전	여주시내에서 초청장 돌리기	7/25	오전	어린이학교준비
	오후	학교와 집집 방문하여 초청장 돌리기		오후	어린이학교 시간
7/26	오전	초등학교 등교시간에 초청장 나눠주기	7/27	오전	어린이학교 시간
	오후	어린이학교 시간		오후	금요음악회 및 어린이학교





# PHOTO

▶ The pictures came out well.



▶ 솜사탕 만들기



▶ 어린이학교



▶ 봉사활동



▶ 음악순서



▶ 율동시간



▶ 독거노인 방문



# PHOTO



▶ 초대 선물 만들기



▶ 아이들에게 선물과 초대장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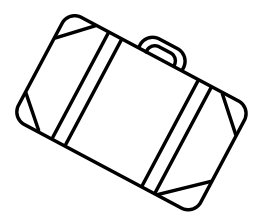
▶ 플래시몹 연습 중



▶ 율동하는 아이들



▶ 어린이학교



## | 지도교수 소감문 |



김영문

## “국내봉사대를 다녀와서”

‘불편해요, 목사님! 그런데 너무 행복해요’

봉사대가 한창 진행 중이던 어느 저녁, 하루 평가회를 마친 후 봉사대에 함께 한 3학년 리더들과 교회 앞마당에 있을 때 그들이 했던 말이다. 무더운 날씨 속의 봉사대이고 여러 가지로 불편하지만 그래도 참 행복하다고 말했다. ‘환경은 불편해도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목사님!’ 그들의 말 한마디가 그동안 어렵고 힘들었던 나의 피로를 말끔히 씻어 주었다. 나 역시 좁고 더운 방에서 남학생들과 함께 잠자리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두고 온 가족들이 그리운 저녁이었다. 그런데 열심히 봉사하고 행복해하는 대원들이 있어 가족에 대한 그리움마저 잠시 잊을 수 있는 행복한 저녁이었다.

몇 번의 봉사대 경험이 있는 나에게 점동교회 숙소는 그리 힘든 곳은 아니었다. 어차피 편하게 지낼 생각으로 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좁고 더운 방도, 좁은 화장실 수도꼭지를 받아 샤워해야 하는 것도 그리 큰 불편은 아니었다. 그런데 곁에 자란 13명의 여학생들이 덥고 눅눅한 한 방에서 지내거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다. 그런 불편함 짙은 이겨낼 결심으로 자원했지만 그래도 누구하나 불평 없이 생활해 나가는 그들을 지켜보는 내 마음은 아팠다.





성경학교와 1박 2일 방학 숙제 캠프를 진행한 초등학교 팀은 많은 초등생들에게 울동과 공부를 가르치고 레크리에이션을 해주느라 저녁이 되면 그야말로 모두들 파김치가 되었다. 그래도 대원들 모두 아이들을 끝까지 돌보며 최선을 다했다. 대원들의 사랑에 4학년 어느 남학생은 거의 반강제로 가야 하는 공부방에 가지 않고 성경학교에 남겠다고 울면서 떼를 써서 대원들이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다.

여주군 자원봉사 센터의 협조를 얻어 점동 지역의 중고생 봉사단을 조직하여 양로원과 지역 거리 청소, 독거노인 방문 봉사를 계획했던 청소년팀은 학생들이 오지 않아 처음에는 실망감을 맛보아야 했다. 열심히 홍보활동을 해서 200여명 되는 점동 지역의 중고생들 얼굴을 거의 외울 정도가 되었지만 막상 그들이 우리가 계획한 봉사활동에 참여하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우리 대원들만 양로원 봉사와 독거노인 봉사를 했는데 대원들이 갈 때마다 눈물로 맞아주시는 할머니들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 대원들이 많은 감동을 받았다. 그리고 그렇게도 기다리던 학생들은 정작 찾아오지 않았지만 점동교회의 교인 자녀들 3명이 출석하여 우리와 함께 생활하면서 앞으로는 초등학생들 지도를 자신들이 하겠다는 결심을 표하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번 봉사대원 어느 누구하나 예쁘고 귀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다. 모두들 너무도 열심히 했다. 그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팀은 식사당번 팀이다. 1주일 내내 꼭 막힌 좁은 부엌에서 화기의 살인적인 열기 속에서도 식사를 책임져준 세 명의 식사당번 대원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그리고 봉사대 기간 내내 함께 해주시며 학생들의 밥도 손수 해 주시고 모든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임형준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보낸다.

봉사대가 끝난 후 며칠이 지난 금요일 저녁 1학년 대원들 세 명을 만났다. '목사님! 겨울에 또 가요. 꼭 가야해요' 라고 말하는 그들이 있어 행복하다. 하나님께 감사하다. 겨울 봉사대를 기도하며 준비해야겠다.

## | 학생대표 소감문 |

이예슬 | 음악학과 3학년  
학생대표

## “봉사대를 다녀와서”

여주 점동 지역에 있는 초등학생과 함께 하계 성경학교를 하였고, 성경학교 마지막 날 이틀 동안 여름 방학캠프를 진행해서 여름방학 숙제를 같이 도와주었다(만들기, 문제집 풀기). 또한 점동중, 고등학교 친구들 중 봉사활동을 희망하는 친구들을 모아서 독거노인 방문 및 반찬봉사와 이천에 있는 삼육의료원에 가서 봉사활동을 했다.

이번 봉사대 대장을 맡고 처음에는 굉장히 막막하고, 준비해야하는 일들이 많아서 힘들었다. 여주에 도착한 첫날, 우리가 하려는 여름학교와 봉사대에 같이 참여할 아이들을 모으기 위해 초대장을 들고 무더운 날씨 속이지만, 아이들에게 초대장을 전달하려고 들뜬 마음으로 학교 앞에 찾아갔다. 그런데 초대장을 전달하며 아이들의 대답은 “저 봉사점수 다 채웠는데요” 라는 말이었다. 학생들 대부분이 미리 미리 시간을 다 채워놓아서 우리가 생각했던 반응과 정반대의 반응이라서 당황스럽고 놀랐었다. 아이들의 등· 학교 시간에 가서 플래시몹도 하면서 아이들의 관심을 끌려고 노력했지만, 공부하기 바쁜 학생들에게는 우리들의 노력이 무의미했다. 그래도 우리 대원들은 봉사를 하고자 왔기 때문에 학생들과 같이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우리 대원들끼리 짝을 지어서 독거노인방문도 하고 어르신들께 반찬도 만들어



서 가져다드렸다. 그 속에서 대원들은 많은 것을 느꼈다며 피드백시간에 자신의 느낀 점을 나누곤 했다.

그리고 초등학교 학생들은 17명 정도의 아이들이 참여했는데, 노래도 열심히 따라하고 즐겁게 게임도 하며 대원들에게 많은 사랑을 나눠주었다. 사랑을 주려고 했던 대원들은 오히려 더 큰 사랑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다. 마지막 날 캠프 때는 1박 2일로 교회에서 대원들과 함께 생활하였는데, 학부모님들께서도 대원들을 믿고 아이들이 캠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셔서 아이들과 더 가까워지고 더 재밌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봉사대 기간 동안 나는 대장 및 식사당번을 같이 했는데, 20명 정도의 대원들과 아이들의 간식을 일주일동안 3명의 친구들과 계속 식사를 준비했다. 아직 칼질도 잘 못하는 친구들 3명이서 빠른 시간 내에 밥을 해서 먹이는 일이 너무나도 힘들었다. 그리고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땀이 흐르는 날씨인데, 불 앞에서 요리를 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다. 정말 식사를 준비해보니까 엄마의 수고를 모르고 반찬 투정했던 나를 보며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이젠 음식 남는 게 너무 아까워서 끝까지 앉아서 다 먹는다. 그리고 교회 집사님들께서 맛있는 반찬들을 해서 음식 하는 걸 도와주셨는데, 정말 집사님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식사 당번 팀은 쓰러졌을지도 모른다. 정말 도움은 받는 사람과 주는 사람 모두 다 기분 좋은 일이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정말 작고 불품없는 자리로 보일지 몰라도 그 한 자리가 비워있다면 무너져버린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봉사할 때는 정말 힘들지만, 봉사를 마치고 난 후에는 우리 마음에 잔잔한





여운을 남기고 다시 한 번 반성하게 만드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 다시 한 번 깨닫게 되었다. 여주 점동교회에 갔을 때는 잠자리도 불편하고 날씨도 너무 더워서 봉사대원들이 많이 힘들었을 텐데, 불평 한마디 없이 항상 밝은 얼굴로 무사히 마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다.



## | 대원소감문 |



김은충 | 음악학과 3학년  
식사봉사

## “여주 점동 교회 봉사대를 다녀와서”

지난 7월 22일부터 29일까지 경기도 여주에 있는 점동 교회로 봉사대를 다녀왔다. 작년에도 하기 봉사대를 국내 지역인 강원도 강릉 강동교회로 다녀왔었는데, 이번에도 국내 봉사대에 참여하게 됐다. 사실 이번 여름에는 봉사대를 갈 계획이 없었다. 3학년이기도 하고, 거의 1~2학년 위주로 갈 것 같기 때문에 봉사대 신청을 머뭇거렸었다. 동생들과 친구들의 오랜 설득 끝에 봉사대에 같이 참여하기로 했지만, 식사봉사를 맡아달라는 말에 또 한 번 고민을 하게 되었다. 사실 나는 요리를 해본 경험이 적고, 칼을 무서워하기 때문이었다. 다른 봉사를 시켜주면 좋겠는데, 식사 봉사라니..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민폐만 끼칠 것 같아 고민을 했었다. 그래도 나 혼자 아니고 3학년 친구들과 함께 하고 또한 봉사대원들이 힘을 내어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식사봉사를 한다고 생각 하니깐, “조금은 힘들겠지만 해 봐야겠다.”고 결심이 들었다.

봉사대원들과 여러 준비를 하고 도착한 경기도 여주 점동 교회는 조용한 마을에 있는 교회였다. 시골 분위기가 났고, 자연과 어우러진 곳이었다. 도착한 날부터 날씨가 너무 더웠다. 더군다나 주방은 좁고 다른 곳보다 더 더워서 걱정이 많이 들었다. 여러 식재료를 사고 매일 조금씩 장을 봐서 식사 준비를 했

다. 셋이 역할을 분담하고 서로 도우면서 하니까 좀 더 수월하게 식사 준비를 할 수 있었다. 감사한 것은 봉사대원에 수가 많다보니깐 밥 양을 어느 정도 할 지 몰랐는데, 옆에 사시는 집사님께서 우렁각시처럼 일찍 일어나셔서 밥을 미리 해주시고, 가끔 국도 해주시고 요리를 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때면 언제든지 오셔서 도와주신 것이다. 또한 가끔씩 여자 집사님들이 오셔서 맛있는 음식을 해 주셨는데, 덕분에 식사 봉사하는 것이 수월해졌다. 주방이 요리를 할 때 열을 사용하기도 하고 창문도 너무 작게 하나 정도 밖에 없어서 식사 준비를 할 때면 얼굴뿐만 아니라 온 몸에 비 오듯 땀이 났다. 폭염 때문에 고생한 봉사대원들을 생각하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야하는데, 조금 힘들다고 그만 둘 수가 없었다. 봉사대원들이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면 흐뭇하기도 하고, 그래도 해냈다는 안도감이 들기도 하였다. 음식을 조금 남기면 “맛이 없나? 입맛이 없나?” 등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을 보면 늘 엄마가 느꼈을 것을 내가 느끼고 있다는 사실에 새삼 놀랐다. 또한 성경학교에 온 어린이들이 맛있게 먹고 있는 모습만 봐도 흐뭇해지고, 물도 따라주고 먹여 주기도 하면서 식사 봉사하는 것에 대해 보람도 느끼게 되었다.

식사 봉사 외에 봉사대에서 느낀 점은 너무 많다. 식사 준비를 하기 전에 잠깐 시간이 남으면 어린이 여름학교에서 아이들 옆에 앉아 노래 하고 손 놀이도 같이 하면서 아이들과 재밌게 보냈다. 저학년 아이들은 하나같이 너무 귀엽고 예쁘고, 고학년 아이들은 손 놀이 하는 것에 대해 조금 부끄러워 하지만 멋있고 대견스러웠다. 소년반 아이들과 저녁 식사 후 게임도 하고 한 발 뛰기 등을 함께 놀고 이야기 하면서 친해졌다. 피아노에 관심을 가진 친구들에게는 나의 전공인 피아노도 들려주고,



같이 치기도 하면서 재밌는 시간을 보냈다.

토요일 오후에는 아이들과 함께 물놀이를 하며 재미있게 놀았고,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아 맛있게 식사를 했었다. 저녁시간에는 봉사대원 모두 둥그렇게 둘러 앉아 봉사대 활동을 하면서 좋았던 점들을 나누고 여러 생각들을 들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봉사대에 와서 정말 좋은 추억을 만들고 가는 거 같다. 처음에는 “1~2학년 동생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 걱정이 들었는데, 일주일 동안 동고동락 했던 경험들 때문인지 친해지고 가까워지게 돼서 정말 좋았던 것 같다. 다들 봉사하느냐 힘들었겠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하는 모습이 아름다웠고 보기가 좋았다. 이곳에서 만난 집사님, 장로님들, 그리고 어린이 친구들, 청소년 친구들 한명 한명을 만나게 되어서 좋았고, 봉사대에 참여한 것이 정말 후회 없이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뿐만 아니라 모든 봉사대원들이 조금은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성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봉사대 참여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더 값진 경험을 하고 싶다. 이번 여주 점동 교회에서의 봉사대는 잊지 못하고 나의 기억에 평생 남을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

## | 대원소감문 |

김태혁 | 음악학과 1학년  
리더

저는 이번에 여주에 있는 점동 교회라는 곳에 갔었습니다. 처음엔 1주일간 어떻게 지낼까 막막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더운 것도 있지만 ‘어떻게 홍보를 해야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즐겁게 놀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첫째 날에는 여주 가는 게 너무 설레었습니다. 도착하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 다 정리하고 홍보를 하러 나섰습니다. 처음에 아이들에게 다가가기 쉽게 말도 걸고 사탕도 나눠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날과 세 번째 날은 홍보를 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오는 네 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속으로 5명만 오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10명이 넘게 왔습니다. 제가 어린이반인데 10명이 와서 속으로는 기뻐지만 이 아이들을 내가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에 당황해서 주변에 있는 같이 온 학과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게임을 좋아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에게 게임은 중요한 놀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아이들이 왔는데 “그 아이들에게 무얼 해줄까? 친구들에게 뭘 할까?” 고민도 하고 하고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팀은 많이 홍보를 했는데 왜 이렇게 안 왔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또 청소년팀이 노인복지관에 가서 노인 분들 도와드리고 했는데 너무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팀이 우리 어린이팀이 힘들 것 같아서 어린이팀을 도와줬습니다. 다섯째 날에는 좋은 일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점동 교회에 다니는 대학생 한 분과 청소년 2명이 와서 저희를 도와줬습니다. 그 아이들이 더 일찍 와서 도와줬으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라도 와줬으니 얼마나 고마운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3명이 와서 점동 교회의 분위기가 더 좋아졌습니다. 여섯 번째 날은 아이들이 와서 1박 2일간 자면서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같이 공부하고 아이들 방학숙제도 도와주고 했습니다. 우리 과가 음악학과다보니 밤엔 작은 음악회를 열어서 도시로 가면 볼 수 있는 음악회를 점동 교회에서 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음악회를 끝내고 나서 아이들에게 어땠냐고 물어보니까 엄청 멋있었다라고 하니 기분이 무척이나 좋아졌습니다. 아이들을 씻기고 나서 재우는데 아이들이 왜 이렇게 잠을 안 자는지... 아이들이 12시나 돼서야 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자들과 목사님은 12시가 넘어서야 잠을 잤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아침에 기도회를 안 하는 게 얼마나 좋던지 계속 잤습니다.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오전에 공부하다가 오후에 물놀이를 하러 갔습니다. 아이들과 저희는 너무 좋았습니다. 처음엔 계곡인줄 알았는데 계곡이 아니라 공원 같은 곳 이었습니다. 거기서 뛰어놀고 아이들이랑 즐겁게 놀고 아주 재밌었습니다. 놀다가 혼나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있는 아줌마가 “아이들 있는데 그렇게 뛰어다니면 어떻게요”하고 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놀이 오랜만에 와서요. 죄송합니다.”하고 말하고 조심히 놀았습니다. 아이들과 신나게 놀고 애들을 보내는데 왜 이렇게 슬퍼지던지 “나중에 만나자.”하고 아이들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을 보내고 나서 교회 장로님댁에 가서 콩국수를 먹었는데 무척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을 보내고 그 다음 날 저희들이 가는 날이 되었습니다. 갈 때 장로님께 인사드리고 나서 출발했습니다.

가면서 ‘벌써 일주일이 갔구나. 참시간이 빠르구나.’ 하고 생각하고 ‘다음에도 봉사대를 신청해야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 신학과(참사랑)

팀 명	참사랑	주최학과/부서	신학과
지도교수	윤주연	학생대표	김기쁨
봉사지역	충청남도 홍성	활동기간	2012.07.22 ~ 7.29
파견인원	지도교수 : 1명, 대장 : 1명, 대원 : 9명, 기타 : 1명		
협력 및 후원기관	참사랑 아동센터	주소/연락처	충남 홍성군 은하면 대율리 161-2
봉사영역	어린이학교	봉사대상자	어린이, 학생

### ▶ 팀 명단

No	이름	학과	학년	역할/담당	No	이름	학과	학년	역할/담당
지도교수	윤주연	신학과		지도교수	대원6	임하림	신학과	2	대원
학생대표	김기쁨	신학과	4	대장	대원7	오다애	신학과	4	대원
대원2	김영광	신학과	3	부대장	대원8	이민환	신학과	3	대원
대원3	조소연	신학과	4	총무	대원9	임보미	신학과	4	대원
대원4	서반석	신학과	3	서기	대원10	김명재	신학과	3	대원
대원5	박인호	신학과	3	찬양대장					

### ▶ 봉사 주요 활동내용 및 결과

No	활동영역	날짜	장소	내용	평가 및 의견	결과(참여인원)
1	아동센터 봉사	7/23~7/27	참사랑 아동센터	아동센터에 다니는 아이들의 학습지도 및 놀이 활동	사전에 아이들과 함께함으로써 성경학교에 원활한 진행을 할 수 있었다.	대원: 10명 어린이: 22명
2	문화교실	7/25~7/28	은하참사랑	노래 및 율동지도	아이들과 정신적 교류를 할 수 있었다.	대원: 10명 어린이: 22명
3	학생고민상담	7/25~7/29	은하참사랑	소그룹을 운영하여 학생들의 고민에 대해 이야기 나눔	학생들이 신앙에 대하여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다.	대원: 10명 학생: 17명

▶ 봉사활동 운영 전반평가

매우안 좋음	안 좋음	보통	좋음	매우 좋음	활동에 필요한 준비물은 비집없이 준비됐는가?	1	2	3	4	5			
1	2	3	4	5									
계획된 활동은 모두 실행했는가?		1	2	3	4	5	모두 건강하게 활동을 마무리했는가?		1	2	3	4	5
활동 목표는 달성했는가?		1	2	3	4	5	대원들 간에 문제없이 생활했는가?		1	2	3	4	5
활동영역	평가				활동영역	평가							
지도교수역할	4- 대원과 많은 시간을 함께 준비하지 못함				학생대표역할	4- 리더십이 조금 약했지만 훌륭히 아이들을 잘 지도함							
학생대원소양	5- 팀웍은 좋으나 개인적 소양을 좀 더 기른다면 좋을 것 같음				현지반응	4- 지속적인 연계 봉사를 원함							
숙식 및 생활여건	5- 숙식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었음.				활동지역 및 안전관련	5- 주변환경이 매우 좋았음							
잘된점	모든 일정이 계획에 따라 훌륭하게 진행되었다.				운영평가 및 애로사항	학생들이 방학중 보충으로 많은 시간 학교에 있어 만나기 힘들었다							
개선(보완) 사항	팀원간 역할 분리 및 준비				총평	봉사대원과 지역교회의 협조로 만족스 러운 봉사대가 된 것 같다.							

1 찬사량 1



# PHOTO

▶ The pictures came out well.



▶ 도착 & 준비



▶ 학생반과 사전모임



▶ 수공시간



▶ 율동시간



▶ 저녁시간



▶ 학생 소그룹 시간



# PHOTO



▶ 학생 간식 시간



▶ 학생 발표 시간



▶ 레크레이션 시간



▶ 봉사대원 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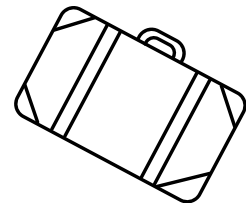
▶ 발표회 준비



▶ 팀 발표



▶ 소그룹활동을 마치고





# PHOTO

▶ The pictures came out well.



▶ 계획 발표



▶ 유년반 어린이들과 함께 봉사대원



▶ 중인 봉사대원



▶ 말씀 전 기도하는 봉사대원



▶ 발표 중



▶ 봉사대원 홍성사에서



## | 지도교수 소감문 |



교목처 | 윤주연

## “국내봉사대를 다녀와서”

찌는 듯한 무더위로 폭염주의보가 내린 봉사대 기간, 그 무더위보다도 더 뜨겁게 타오르는 우리 학생들의 타오르는 열정을 보았다.

참사랑 봉사대는 봉사대원 전부가 모두 교회에서 봉사하는 전도사로 구성된 팀이다. 처음 이 봉사대의 지도를 부탁 받았을 때 학과의 후배들이자 각 교회의 전도사로 봉사하고 있는 친구들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봉사대 지도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이나마 덜고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은하참사랑교회는 충남 홍성에 위치한 아주 아름다운교회다. 우리는 이 교회에서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어린이 성경학교와 중고등 학생들을 중심으로 “신앙의 품격”이라는 주제로 학생 전도회를 진행하였다. 특별히 은하참사랑교회는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서 신앙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과 학생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하루라는 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아이들을 만나는 시간은 고작 몇 시간에 불과하였다. 그 이유는 바로 학생들이 방학 중에도 모두 학교에 출석해 수업을 듣고 활동을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학생들을 만나는 시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또 준비하며 아이들을 기다렸다. 4일간의 학생 전도회와 성경학교를 통하여 우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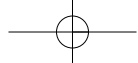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다. 사랑에 목마른 어린 아이들을 감싸 안아주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신앙을 하는 학생들에게는 우리가 꼭 가져야 할 필수적인 신앙의 품격 4가지를 설명해주므로 모두가 다 한층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이번 봉사대를 통해서 얻게 된 가장 큰 수확은 우리 봉사대원들의 변화이다. 매일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마치 습관처럼 물들어 있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참된 방법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고 서로 협력하여 봉사하므로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좀 더 겸손히 낮아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우리는 이번 봉사를 통하여 나 자신이 변화되므로 정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뿌린 이 사랑의 씨앗이 언젠가 넘치는 수확으로 거둬들여질 그날을 기대하며 더욱 힘써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 것 같다.

리더는 리더로서 대원은 대원으로 각자 맡은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므로 하나님의 제자로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던 이번 참사랑 봉사대 기간은 나에게서 꿈같은 시간이었다.



| 대원소감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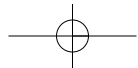
| 신학과(참사령) |

김기쁨 | 신학과 4학년  
대장

## “하계봉사대 후기”

봉사대가 처음이 아니라 봉사대를 가기 전 긴장감과 설레는 감정들이 별로 없었기에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시작하지 않았다. 봉사대 대장이라는 직분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대원들을 뒤에서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이 많이 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나의 기우였을 뿐 대원들이 오히려 나를 많이 도와주었다. 우리의 활동이 성경학교와 학생 전도회이었기에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였다. 우리들의 모든 준비들은 말씀과 기도로써 준비하였다. 그것이 봉사대 기간 동안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우리가 갔던 곳은 충남 홍성에 위치한 은하참사랑교회였다. 그곳은 지역아동센터를 하기 때문에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많은 시골교회였다. 그렇기에 매일 많은 어린이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학에 어린이와 학생 모두 학교를 간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저녁시간이었다. 학교가 끝나고 올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아이들과 오전부터 함께 하고 싶었는데 그 부분이 많이 아쉬웠다. 그리고 저녁시간만 가능했기에 시간이 넉넉지 않아 하려고 했던 활동들을 축소해야만 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말씀 부분에 더 힘을 실어 아이들에게 하나님과 만나도록 노력





했다. 그 결과 날이 갈수록 아이들은 말씀에 집중하였고 그들의 신앙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들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우리의 봉사시간에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시작되었다.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사람인지라 날씨에 넘어질 때가 많았다. 너무 더워 움직이기조차 싫은 날씨 탓에 많이 지쳐있었지만, 다행인 것은 모든 행사들이 날씨에 영향을 그나마 덜 받는 저녁 시간이라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되었다. 우리가 지쳐 쓰러지는 것보다 우리가 봉사해야 할 어린이들과 학생들이 날씨에 지쳐 쓰러졌더라면 아마도 우리는 좌절감과 실패 감으로 무기력해 졌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우리의 모든 행사들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이번 봉사대가 비록 많은 아이들이 오지는 못하였지만, 말씀으로써 그들의 신앙에 많은 부분을 도와주었다고 생각한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나의 신앙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한 봉사대이었기에 더욱더 많은 생각을 하게 하였다. 봉사대원으로써 참여했었던 지난 봉사대와는 달리 봉사대장으로써 참여한 이번 봉사대는 나에게 새로운 긴장감과 셀렘을 안겨주었다. 봉사대원으로써는 느끼지 못하는 책임감과 부담감을 맛보았고 그것이 봉사대를 더욱 열심히 하게하는 나의 원동력이 되었다. 이번 봉사대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의 중요성과 리더로써의 겸손을 배우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다. 이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하든지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말씀에 의지하여 최선을 다한다면 안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몸소 실천하는 내가 되어야겠다. 그리고 리더의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에 앞에서 끌어당기려 하지 말고 뒤에서 겸손함으로 나를 낮추고 밀어주는 리더가 되는 것이 끝까지 좋은 팀으로 이끌어 나가는 리더가 되는 것임을 배우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 대원소감문 |

| 신학과(참사령) |

오다에 | 신학과 4학년  
학생대원

## “하계봉사대 후기”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대학교 2학년 때까지 매년 하계봉사대를 다녀왔다. 봉사대를 가는 것이 힘들고 고되지만 그것이 내게 연중행사처럼 되어버린 이유는 그만큼 내게 보람되고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 매년 여름이면 봉사대의 아련한 추억이 밀려오곤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봉사대를 가고 싶었으나 기회가 오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같은 학번 친구들과 함께 봉사대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고 나는 흔쾌히 그 기회를 잡았다. 친구들끼리 가는 것이라 오히려 더 어려운 점도 있을 것이었다. 그렇지만 더 좋은 점도 분명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봉사대 준비를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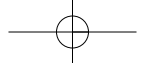
초반에 봉사대 준비를 시작하는 시점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봉사대를 가지 못할 지경까지 갔지만 다행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안정을 되찾고 본격적으로 봉사대 준비를 하게 되었다.

우리 봉사대의 주된 목적은 은하참사랑교회 학생들의 신앙의 품격을 높이는 것이었다. 주제를 정하고, 함께 나눌 소그룹 교재를 만들었다. 몇 명씩 주제별로 파트를 나눠 소그룹 초안을 작성한 뒤 함께 모여 그것으로 직접 소그룹을 해보면서 수정했다. 소그룹교재를 만드는 과정이 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사실 나는 영적인 침체기에 빠져 있었다. 홀로 그것을 빠져나올 힘도 의지도 없었다. 그러다가 봉사

대 준비의 일환으로 소그룹교재를 만들면서 점점 말씀과 다시 가까워지게 되었다. 전도회의 총 주제가 신앙의 품격이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다시 확인하고 굳게 하여 예수님과 같이 되자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러한 주제로 소그룹교재를 만들며 나의 신앙 또한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되었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힘과 용기를 얻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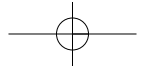
친구들과 함께 작업하면서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좋은 면모들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신학과에 들어와 4, 5년째 보고 지내온 친구들이었지만 나는 그들의 겉모습만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번 봉사대를 하면서 친구들이 가진 달란트들에 대해 알게 되었다. 모두가 같은 달란트를 가지지 않았다. 각자 자신만의 달란트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었다. 사람이 공동으로 함께 일을 할 때에는 그 일의 성과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일을 추진해나가면서 팀원들을 보듬고 좋은 분위기를 만들며 이끌어가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 일을 잘 처리하고 진행해가는 친구들이 있는가하면, 대원들의 감정을 잘 읽어주고 분위기를 따뜻하게 해주는 친구들이 있었다. 이런 대원들 덕분에 힘들지만 행복하게 봉사대를 할 수 있었다.

이번 봉사대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내 자신과의 싸움이었다. 전도회 둘째 날, 그 날 있을 소망에 관한 소그룹교재를 다시 한 번 대원들과 보고 있었다. 그런데 잘 풀리지 않았다. 몇 주 동안 그렇게 연구하고 몇 번이나 수정해서 만든 교재였는데 그 날 다시 보니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았다. 또한 그 전날인 전도회 첫 날, 두려움에 싸여 내가 맡은 것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 자괴감이 몰려왔다. 난 분명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내려놓았던 것



같은데, 왜 이럴까? 내가 또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지? 내가 뭘 얼마나 더 해야 하는 거지? 하나님께 대한 원망 섞인 기도가 마음속에서부터 치밀어 올랐다. 정말 오랜만에 하나님만을 위해서 이 한 몸 불사르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 같지 않았다. 이대로라면 둘째 날도 첫날과 별반 다를 것 없을 것이었다. 그렇게 낙담하고 있을 때 예레미야애가 3장의 소망에 관한 말씀이 떠올랐다. 준비기간에 발견한 말씀인데 다시 한 번 정독하며 읽었다. 나에게 정말 딱 맞는 말씀이었다. 예레미야는 절망 중이었으나 중심에 하나님의 공회에 대한 소망을 다시 찾게 되었다. '잠잠히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림이 좋도다' 모든 걸 포기하고 불평하며 던져버리고 싶었지만 말씀을 읽고 위로를 얻었다. 그리고 잠잠히 기다려보기로 했다.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로 매달렸다. 그리고 그날 저녁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였다. 절망 중에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연습을 하였다. 이 소중한 경험과 깨달음은 강력하게 내 마음에 남게 되었다. 다시 한 번 영적 성숙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이 봉사대는 나에게 아름답게 기억될 것 같다. 이기적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봉사대를 준비해 주신 것 같다. 침체기에 빠져 있던 나를 끌어올려주었다. 마지막 밤에 소감을 한마디씩 말했는데 들어보니 하나님이 나에게만 좋은 것을 주시지 않으신 것 같다. 참여한 모두에게 분명 의미 있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을 것이다. 참 부족한 우리지만 이런 소중한 기회를 허락하시고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다음번엔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영혼들을 위해 봉사하고 싶다.





| 대원소감문 |

조소연 | 신학과 4학년  
총무

## “하계봉사대 후기”

먼저 출발하기 전부터 말 많고 탈이 많았던 봉사대이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다시 경험할 수 없는 생생한 시간들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은하 지역의 순수한 아이들의 남다른 애정과 사랑을 몸으로 마음으로 잔뜩 느끼고 왔기 때문이다.

그 곳은 크지는 않지만, 작지도 않은 아주 평범한 교회였다. 그러나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함께 운영하는 센터가 있어서 아이들이 원체 끊이지 않고 드나든다는 점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에 더욱더 박차를 가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분명 말을 제일 듣지 않는 것 같았던 아이가 마지막 날에 찬양을 가장 크게 부르는 아이가 되었고, 또한 학생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을 때, 언급하지 않은 침례이야기를 먼저 꺼냈던 아이들에게도 그랬다.

기도하면서 준비한 이 봉사대가 빛을 발하는 순간들이었다고 생각이 든다. 우리는 부족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이 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



다.

날씨가 무척 더워서 지치기도 하고 짜증도 났지만, 아이들을 보는 순간 다른 마음이 앞서는 것을 느꼈다. 아이들이 더운 것을 먼저 챙기게 되고, 아이들과의 대화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 그런 나의 모습과 대원들의 모습에 새로움을 느꼈고 또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다.

봉사대를 다녀오면서 가장 크게 느낀 건 대원들과 한 마음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었다. 가서 큰 트러블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무슨 일이든 하나하나 할 때에 한 마음이라면 다른 생각을 가졌어도 함께 맞춰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게 된다. 대원들의 색깔이 가지각색이라서 서로에게 맞추고 이해해가는 과정이 있었지만, 그것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음을 느낀다.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 조화되는 법도 배우고, 이번 방학에 정말 뜻 깊은 시간들을 가지게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 간호학과(BENUFAM)

팀명	BENUFAM	주최학과/부서	간호학과/안교
지도교수	한숙정 교수님	학생대표	박수민
봉사지역	경기도 여주	활동기간	2012.7.22 ~ 7.29
파견인원	지도교수 : 1명, 대장 : 1명, 대원 : 12명		
협력 및 후원기관	-	주소/연락처	-
봉사영역	교육	봉사대상자	초등학생, 중학생

### ▶ 팀 명단

No	이름	학과	학년	역할/담당	No	이름	학과	학년	역할/담당
지도교수	한숙정	간호학과			대원7	최준영	간호학과	1	유년,홍보
학생대표	박수민	간호학과	3	대장	대원8	김규은	호학과	1	유년,홍보
대원2	김진현	간호학과	2	총무	대원9	홍수지	간호학과	1	유치,울동
대원3	김행복	신학과	2	홍보,소년	대원10	김하영	간호학과	1	소년,피아노
대원4	임보미	간호학과	1	소년,학생	대원11	김태훈	간호학과	1	학생
대원5	이루리	간호학과	1	유년,노래	대원12	조수정	간호학과	1	학생,사진
대원6	김예찬	간호학과	1	유치,울동	대원13	박유진	간호학과	1	유치, 울동

### ▶ 봉사 주요 활동내용 및 결과

No	활동영역	날짜	장소	내용	결과(참여인원)
1	교육봉사	7월 22일 ~27일	가남	어린이학교	대원 : 13명 어린이 : 35명
2	문화활동	7월 22일 ~27일	가남	학생진로탐험	학생 : 20명



▶ 봉사활동 운영 전반평가

매우인중음 1	인중음 2	보통 3	중음 4	매우중음 5	활동에 필요한 준비물은 바짐없이 준비됐는가?	1	2	3	4	5
					모두 건강하게 활동을 마무리했는가?	1	2	3	4	5
					대원들 간에 문제없이 생활했는가?	1	2	3	4	5
활동영역		평가			활동영역	평가				
지도교수역할		GOOD			학생대표역할	GOOD				
학생대원소양		GOOD			현지반응	좋아하심				
숙식 및 생활여건		GOOD			활동지역 및 안전관련	완전 좋습니다.				
잘된점		어린이들과 쉽게 친해졌고 학생들도 교 회와 연계하고 올수 있어서 뜻 깊었다.			운영평가 및 애로사항					
개선(보완) 사항					총평					

▶ 봉사활동 전체 일정표

일정	구분	활동내용	일정	구분	활동내용
7월22 ~ 27일	오전	어린이학교			수공, 레크레이션
	오후	학생고민상담			대화의 시간, 레크



# PHOTO

▶ The pictures came out well.



▶ 어린이 미술활동



▶ 아이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모습



▶ 봉사대원 단체사진



▶ 아이들과 함께 율동&노래



▶ 명랑운동회



▶ 소년반 활동



| 지도교수소감문 |



간호학과 | 한숙정

| 간호학과(BENUFAM) |

## “국내봉사대를 다녀와서”

간호(BENUFAM) 봉사대원들과 여주 가남 교회에서 일주일간 이루어진 2012년 하계 봉사대는 간호학과 3학년 1명(대장), 신학과 2학년 1명(학생전도사), 간호학과 2학년 1명(총무), 간호학과 1학년 10명으로 구성되었다.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삼육중고등학교 출신으로 이미 전도봉사의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준비과정과 진행과정 모두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각자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영혼구원의 열망으로 한 낮의 더위 속에서도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데려오기 위해 고군분투하였다. 서울과 마찬가지로 가남 태평리도 유치원, 초등학생부터 다양한 학원에 다니느라 교회에 올 시간이 없다는 학생들이 많았고, 중고등학생들은 더더욱 모으기가 어려웠다. 부모님 모르게 교회에 왔다가 이를 알게 된 부모님이 화를 내면서 학생을 보내지 않는 경우도 발생했고, 혼자 동네에서 놀고 있는 4살 꼬마가 대원들을 따라 교회에 며칠을 계속 따라 다니고 즐겁게 놀았는데 안식일에 엄마가 애를 찾아다니다가 교회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아이를 데려간 것에 대해 대원들에게 꾸중을 하기도 하였다. 이곳만 해도 시골과 도시의 성격을 반반씩 갖고 있어서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교회를 소개하고 참여할 수 있게 데려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어쩔 수 없이





기존의 어린이와 학생들이 그들의 친구들을 소개해주어 그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애쓰는 것이 그나마 용이한 방법임을 알게 되었다.

사실 한 두 살 차이의 비슷한 연령대의 학생들이지만 대장과 총무, 학생전도사가 이끄는 대로 잘 따라주는 1학년 학생들이 있었기에 모든 일이 착오 없이 진행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총무를 맡은 여학생이 선배로써 엄마처럼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식사와 청소 등을 솔선수범해서 도맡아 함으로써 대원들 간의 갈등 없이 편안하게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와 청소년 학생반 운영에 전념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감사할 일은 가남 교회 목사님과 사모님 뿐 아니라 집사님들과 장로님들께서 큰 관심을 갖고 대원들의 잠자리, 간식, 3끼니 식사를 준비해주셔서 참으로 편안하고 풍성한 한 주가 되었다. 특히 수석 집사님께서는 하루도 빠짐없이 오셔서 대원들의 먹을거리를 챙겨주셨고, 아침에 혹은 저녁에 교인들께서 새벽에 탄 옥수수를 바로 찌서 갖다 주시기도하고, 토마토, 살구, 복숭아 등 방금 밭에서 딴 과일을 수시로 갖다 주시고, 농사지신 야채로 카레와 부침개 등의 재료로 쓰셔서 서울에서는 맛 볼 수 없는 신선함을 가득 담은 과일과 채소를 늘 먹을 수 있었다.

내가 대학 1학년 시절에 멋도 모르고 참여했던 봉사대에서의 옛 추억이 떠올라 혼자서 빙그레 웃기도 하고 그 때 같이 봉사를 했던 대원들이 그리워지고 어떻게들 살고 있는지 궁금해지기도 하는 시간이었다. 작은 봉사였지만 가남 교회의 어린이와 청소년들, 또 봉사대원들에게 좋은 추억으로 남아서 앞으로의 신앙생활에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

## | 대원소감문 |



임보미 | 간호학과 1학년  
소년반

## “빛과 소금되어”

우리 BENUFAM은 여주 가남 교회로 봉사를 다녀왔습니다. 어린이 성경학교를 계획하였기 때문에 한 주 전부터 모여 아이들을 위한 울동과 노래를 배웠고, 교재를 만들고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렇게 이것저것 준비하고 드디어 일요일 가남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이태호 목사님과 사모님, 여러 집사님과 선교사 자매, 목사님의 딸인 해언이와 아들 해성이가 우리 봉사대원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부랴부랴 짐을 내려놓고 식사를 한 후에 다음 날부터 돌아다녀야 할 동네를 한번 돌아보기로 하였습니다. 저와 몇몇 대원들은 차를 타고 이동하였고, 다른 몇몇 대원들은 걸어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할 적부터 꾸물꾸물하던 날씨는 우리가 출발한 지 5분도 안 되어 엄청난 비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한 우리는 괜찮았지만, 우산도 없이 걸어 나갔던 다른 대원들은 비를 쫓막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얼마 지나 도착한 대원들은 해언이와 해성이가 빗속을 뚫고 가져다 준 우산을 쓰고 있었습니다.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많이 낯설게 느껴졌을 우리 대원들을 위해 무섭게 내리는 비를 맞아가며 교회에 달려가 우산을 가져온 해언이와 해성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고마운 마음이 들었고 아이들이 우리에게 갖는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지 않도록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 봉사대를 단지 맡은 일만 잘하고 돌아오면 된다는 그냥 그런 봉사활동으로만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기도회 때 전 도사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키시려 이렇게 부족한 저를 이곳까지 부르셨다니 갑자기 엄청난 부담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너무 많이 부족하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같이 소년반을 맡은 하영이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며 함께 기도하자고 하였고, 우리는 서로를 위해 그리고 소년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해언이 해성이의 일과 하영이와의 기도를 통해 처음 올 때와는 확실히 뭔가 달라진 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성경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첫날 그리고 둘째 날까지 우리 소년반은 새로운 아이들이 오지 않았습니다. 원래 교회를 다니던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우리 말씀 주제인 창조와 안식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이들은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습니다. 그 뿐 아니라 우리가 준비해온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잘 따라와 준 아이들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생각한 것만큼 넘치도록 많은 어린이들이 교회에 찾아 준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인지 더운 날씨에 교회를 찾아와 준 아이들에게 더욱더 관심과 애정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낯선 아이들에게 교회를 단지 성경 학교의 짧은 추억이 아닌, 앞으로도 교회를 거리낌 없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였고 기도했습니다.

이번 봉사대를 통해 저 또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우리 봉사대원들과 일주일이라는 짧다면 짧지만 길다면 긴 시간을 함께 생활하면서 더





옥더 돈독한 우정을 쌓았습니다. 대원들은 작은 일이라도 서로 배려하  
 고 양보하며 항상 서로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로 우리 대원  
 들이 이번 봉사대를 통해 제가 받은 최고의 선물입니다. '빛과 소금 되  
 어 주님의 사랑을 전하리 한 알의 씨앗 되어 주의 사랑을 전하리 이 세  
 상 밝혀주는 주님의 선한 등불 되어서 꺼져가는 이 세상 주로 가득 채우  
 리라.' 목사님은 저의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리고 기도하면 오병이어의 기  
 적처럼 더욱더 큰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족한 능력에 좌절  
 하고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면서 저 노래 가사 말  
 처럼 빛과 소금 되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  
 니다.



## | 대원소감문 |



이루리 | 간호학과 1학년  
유년반 선생님

### “기도로 뭉친 비누폼”

2012년 7월 22일, 저희 간호학과 안교 비누 폼은 여주군 가남면에 있는 가남 교회로 파송되었습니다. 사실상 저희는 성경학교 준비를 더 완벽하고 준비된 모습을 보여주고자 그 전 주 수요일부터 모임을 가져 전체회의와 성경학교 때 필요한 물품들을 손수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일요일이 되고 장마가 거의 끝날 무렵 하나님이 주신 맑은 날씨 속에서 평안히 가남 교회까지 도착하였습니다. 도착하고 짐을 푼 뒤 금요일 찬양예배를 위해 준비한 합창노래들을 연습하고, 아이들을 성경학교에 많이 참석시키기 위해 홍보를 할 겸 동네 길을 익히기 위해 차를 타고 이동하였습니다. 그런데 검은 구름이 몰려오더니 갑자기 거센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비가 내려서 그런지 밖에는 아이들이 전혀 보이지 않았고 거센 빗물로 인해 차 이동도 힘든 상황 이였습니다. 결국 첫 홍보는 아이들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교회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밥을 먹은 후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단지 학점을 채우는 형식적인 봉사활동이 아닌 가남 교회에 우리가 온 목적을 깨닫고 한마음으로 기도하여 마음에서 우리나라는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첫째 날이 지나고 둘째 날에는 본격적인 홍보에 나섰습니다. 아이들 등교시간에 나가서 준비한 부채들을 가지고 구역을 나눠 직접 대면해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가남 교회에서 왔



다고 하니깐 자기는 천주교를 믿는다는 등, 근처에 있는 가남 감리 교회랑 햇갈려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저희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차츰 농담도 주고받으며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니깐 아이들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주변에 있던 아이들도 호기심으로 저희에게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매일 홍보하러 나갔습니다. 더위가 쓰나미처럼 몰려왔지만 제 포위망에 들어온 아이들을 나 몰라라 하고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더워 지쳐있어도 꼭 오겠다는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저절로 웃음이 지어지고 한 아이, 한 아이를 더 만나보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화요일이 되고 학생 반은 성경학교보다 하루 앞당겨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대망의 두시가 되고 첫 학생 반 때 아이들이 몇 명이 올까 내심 기대를 했는데 아쉽게도 중학생 남자아이2명이 왔습니다. 사실 마음이 너무 속상하였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햇빛 아래에서 그렇게 홍보를 했지만 2명밖에 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바꿔 학생 수에 민감해 하지 말고 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이 교회에 온 두 명의 학생들에게 따뜻한 관심으로



대해주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경학교 첫째날 저와 눈을 맞추며 꼭 오겠다고 많은 아이들은 오지 않았고, 현재교회에 다니는 아이들마저도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길으로는 내색을

하지 않았지만 기대를 많이 해서 그런지 그만큼 마음이 속상하였습니다



다. 하루가 지나고 고요한 아침예배시간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겠다고면서 전 또다시 제 기대치에 못 미친 학생 수에 속상해했고 교회에 온 아이들에게 사랑으로 따뜻하게 대해주지 못한 것에 기도드렸습니다. 이내 편해진 마음을 가지고 둘째 날 성경학교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날에는 학생 수에 집중하지 않고 가남 교회에 이 아이들을 인도하여 주신 것에 더욱 감사드렸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한 아이, 한 아이가 소중하였고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가끔 장난이 너무 심한 아이들이 있었지만 사소한 행동에도 관심을 쏟고 칭찬을 해주니 이내 우리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왔습니다. 안식일에 달란트시장을 하려면 스티커를 많이 모으는 사람이 유리하다고 말한 다음 울동을 열심히 따라하거나 말쑤키즈는 맞추는 아이들에게 준다고 하니깐 처음에는 시시하게 생각하던 아이들이 나중에는 열정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제가 비록 성경지식은 부족하지만 아는 만큼 이 아이들에게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었고 그에 따라 쫓듯 열심히 귀를 기울이는 순수한 모습에 배울 점이 많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벌써 안식일 예비일이 되고 저희는 예배 때 봉사대원들이 한마음으로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가남 교회에 왔을 때가 일요일 이었는데 벌써 금요일이 되어 내일이면 끝난다는 생각을 하니 시원섭섭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이번봉사대가 두 번째로 간 봉사대인데 그전에 갔던 봉사대량은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전에 갔던 봉사대는 교회에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봄비에 가득 차서 감사기도를 드린 것이었다면 이번 봉사대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감사기도를 드린 것도 있지만 아이들이 많이 오지 않는 것에 하나님께 더 간구하고 가남 교회에



저를 부르신 목적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정말 기도로 푹푹 뭉쳐 하나님께 진심으로 간구하는 제 모습을 자주 발견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오히려 초기 때 실망해하는 저의 모습도 하나님께서 준비되지 않은 내면의 저를 보시고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뜻에서 주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너무 좋은 봉사대원들과 함께 성경학교를 한 것에 감사드리고 친절하시고 상냥하신 성도님들과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티 없이 맑은 아이들을 만나 하나님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일이 우리 힘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할 수 있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아침예배시간에 '축복의 통로'라는 노래를 항상 부릅니다. 이 노래 가사처럼 일주일만 만나고 헤어지는 생명이 없는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이들의 통로가 되어서 일주일만 지나도 이 만남을 잊지 않고 신앙적인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이 작은 기억이 그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앞으로 제가 만난 이 아이들이 하나님과의 끈을 놓지 않고 각자의 마음속에 있으신 자기만의 하나님을 간직하며 살아 갈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일주일동안 너무나도 값진 경험들과 잊지 못 할 추억들을 준 가남 교회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 보건관리학과(보건패밀리)

팀명	보건패밀리	주최학과/부서	보건관리학과
지도교수	유재현 교수님	학생대표	박영은
봉사지역	충청남도 계룡	활동기간	2012.7.30 ~ 8.5
파견인원	지도교수 : 1명, 대장 : 1명, 대원 : 8명		
협력 및 후원기관	신도안	주소/연락처	-
봉사영역	교육	봉사대상자	어린이, 청소년

### ▶ 팀 명단

No	이름	학과	학년	역할/담당	No	이름	학과	학년	역할/담당
지도교수	유재현	보건관리			대원5	배문경	보건관리	2	교사
학생대표	박영은	보건관리	2	대장	대원6	조정근	보건관리	2	교사
대원2	최유나	보건관리	2	총무	대원7	최종문	보건관리	2	교사
대원3	양미선	보건관리	2	진행	대원8	최희원	보건관리	2	사진
대원4	박원욱	보건관리	2	교사					

### ▶ 봉사 주요 활동내용 및 결과

No	활동영역	날짜	장소	내용	결과(참여인원)
1	교육활동	8월 1일~ 8월 4일	신도안	여름방학학교: 미취학 아동들로부터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함.	대원 : 9명 어린이 : 12명
2	소그룹	8월 1일~ 8월 4일	신도안	소그룹활동: 중,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러 활동을 실시함.	대원 : 9명 학생들 : 5명



▶ 봉사활동 운영 전반평가

매우인 좋음 1	인 좋음 2	보통 3	좋음 4	매우 좋음 5	활동에 필요한 준비물은 빠짐없이 준비됐는가?	1	2	3	4	5					
계획된 활동은 모두 실행했는가?					1	2	3	4	5	모두 건강하게 활동을 마무리했는가?	1	2	3	4	5
활동 목표는 달성했는가?					1	2	3	4	5	대원들 간에 문제없이 생활했는가?	1	2	3	4	5
활동영역		평가			활동영역		평가								
지도교수역할		매우 좋음			학생대표역할		좋음								
학생대원소양		매우 좋음			현지반응		매우 좋음								
숙식 및 생활여건		매우 좋음			활동지역 및 안전관련		매우 좋음								
잘된점		초등, 중등, 고등, 대학생들이 어우러진 마무리를 하였다.			운영평가 및 애로사항		없음								
개선(보완) 사항		딱히 없는 것 같다.			총평		모두가 한마음으로 뜻을 이룰 수 있었 던 행복한 봉사였다^^								

▶ 봉사활동 전체 일정표

일정	구분	활동내용	일정	구분	활동내용
7/30	오전	도착 및 짐정리	8/1~8/3	오전	여름방학학교
	오후			정리 및 소그룹 활동	
7/31	오전	홍보준비, 율동연습	8/4	오전	발표회
	오후	환경미화 및 홍보		오후	



# PHOTO

▶ The pictures came out well.



▶ 신나는 율동연습



▶ 풍선아트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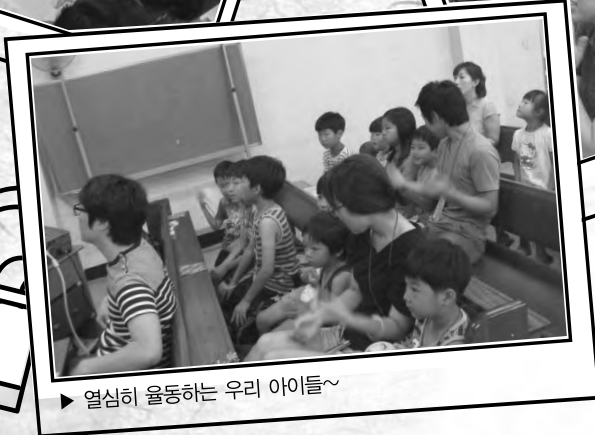
▶ 아이들과 율동을~



▶ 아이들과 선생님



▶ 아이들과 함께하는 손 놀이



▶ 열심히 율동하는 우리 아이들~

# PHOTO



▶ 중, 고등학생들과 소그룹시간~



▶ 학생들과 계곡으로~



▶ 장난치는 아이들~



▶ 발표회 연습하는 아이들



▶ 여름학교 초대장 제작 중



▶ 보건패밀리 단체사진



▶ 활동시간





## | 학생대표 소감문 |



박영은 | 보건관리학과 2학년  
학생대표, 유년반 교사

## “반짝반짝 빛나는”

여름방학이 다가올 무렵, 작년에 다녀온 국내봉사대의 추억이 새록새록 떠올라 친한 친구 몇 명과 이번 봉사대를 추진하였습니다. 특별한 계획도 없이 우선 인원만 맞추자는 마음으로 여기 저기 같이 갈 사람을 모집하였고 생각지 못한 사람들과 봉사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기대만큼이나 즐겁고 유익한 봉사활동이 되겠지 라는 생각과 더불어 약간의 걱정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주 봉사는 성경학교인데 같이 가는 대원들 중에는 교인이 많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혹여 교회 분위기를 많이 낮설어하고 어색해하며 어떡하지 라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걱정은 단순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걱정과는 달리 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모든 프로그램을 같이 만들며 협력하는 대원들을 보면서 정말 고마운 마음뿐이었습니다. 부족한 저를 많이 도와주며 처음부터 끝까지 척척 일을 이끌고 완성해가는 대원들 덕분에 봉사기간 내내 웃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복이 터졌는지 좋은 대원들을 만난 것도 모자라 좋은 교회 분들과 정말 사랑스럽고 예쁜 아이들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봉사를 하러 간 것이 아닌 오히려 봉사를 받은 느낌이 들 정도로 봉사하는데 있어서 불편함 없이 큰 배려를 베풀어 주신 교회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에게 애정표현을 해준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있어 더 행복했습니다. 매일 매일이 너무 빨리 지나갔고 성경학교 마지막 날 안식일 예배가 마치고 나니 아쉽고 무언가 뭉클한 마음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작년에 이어 이번에도 제 여름방학에 잊을 수 없는 반짝반짝 빛나는 별 하나가 새겨졌습니다. 이번 봉사대 추억도 오랫동안 제 기억 속에 자리 잡고 한동안은 제 입에서 성경학교 노래가 흘러나오며 손은 절로 울동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생각나는 그 때 보았던 아이들을 또 만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행복한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신 사회봉사단에 감사합니다.



---

 | 대원소감문 |

최유나 | 보건관리학과 2학년  
여름성경학교 교사

## “7살, 21살”

2012년 7월 30일 - 2012년 8월 8일, 뜨거운 햇빛과 올림픽 열기가 대한민국에 가득했던 6박 7일간의 봉사 기간이었습니다. 저희 보건관리학과 국내봉사단이 다녀온 곳은 충청남도 계룡시 안에 위치한 신도안 교회였습니다. 계룡시는 아직 도심보다는 시골에 가까운 곳이었고, 화요일이면 동네 전체에 장이 열리는 소박하고 정다운 곳이었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 지역, 이 교회로 봉사대를 초청한 것은 저와 저희가족이었습니다. 신도안 교회는 어릴 적,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인 예닐곱 살 때 다녔던 교회입니다. 14-15년 전 그 때는 제가 배우는 어린이이고 부모님 손을 잡고 교회계단을 오르던 아이였으나 이번에 대학생이 되어 다시 찾은 교회는 제가 선생님이 되었으며 어린 유치반 아이들의 계단을 오르내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제 자신이 초청받은 사람이라기보다는 초청한 사람이기에 저는 봉사대원 중 다른 누구보다 이번 국내봉사에 많은 부담과 떨림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국내봉사단은 방학을 맞은 아이들을 위한 여름방학학교를 진행하는 봉사를 하였습니다. 이틀간의 준비기간을 거치며 교회를 꾸미고 아이들을 초대할 초대장을 만들고 주제가 및 여러 노래의 손 놀이





를 배우며 준비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준비가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날씨가 너무나 더워 초대장을 다 만들고 아이들을 초대하기 위해 가지고 동네를 누볐지만 아이들은 학원을 가거나 더위로 인해 집밖으로 나오지 않아 아이들을 만나 초대장을 전하는데 매우 어려움을 가졌었습니다. 또한 저희 봉사대가 꾸러지고 이후 계속해서 이 신도안교회의 목사님과 전화로 이야기를 나누며 여름방학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중에 목사님께서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 이외에도 이 동네의 중고생들을 위해 대학생과 학생들 간에 멘토링 소그룹하면 어떻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서울에서 봉사대원들끼리 미리 만나 가진 시간에는 여름방학학교를 준비하는 데만 시간이 모두 지나가 중고생들을 위한 준비를 거의 하지 못했기에 신도안 교회에 도착하고 나서야 중고생들을 위한 시간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봉사기간 내내 어려움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첫날 아이들을 만나보니 아이들은 저희에게 전혀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저희에게 먼저 말을 걸며 첫날이기에 긴장한 저희들의 마음을 녹여주었고 그렇기에 원래당시 오전시간에만 진행하기로 했던 여름방학학교는 점심을 같이 먹고 급속도로 친해져 식사 후에는 아이들과 저희 봉사대원들이 아이들과 재밌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이 돌아간 후에 뒷정리를 하는 것이 정말 정말로 만만치 않았지만 아이들과 보냈던 시간들이 지금은 그립습니다.

봉사기간동안 도와주신 많은 분들도 그립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아이들, 함께 계곡도 다녀오고 더욱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던 중고생친구들, 매 시간 맛있는 식사를 제공해주셨던 교회집사님들, 저희가 불편한곳은



없는지 매번 물으시고 도와주신 목사님내외분, 그리고 함께 좋은 시간을 보냈던 우리 보건관리학과 봉사대원들, 모든 것이 감사한 봉사대 기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 대원소감문 |



조정근 | 보건관리학과 2학년  
봉사대원/ 교육, 준비 및 율동 담당

## “국내봉사대 활동을 마치며”

나는 이번에 7월 30일~ 8월 4일까지 일주일 동안의 국내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왔다. 고등학교 이후로 봉사활동을 하지 않은 나로서는 매우 낯선 일이었다. 약 5년만의 봉사활동인 것으로 기억한다. 과거에 했던 봉사활동마저도 이렇게 길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 하루에 몇 시간을 채우면 마무리되는 그런 봉사활동이었다. 이번에 내가 참석한 봉사활동은 교회에서 어린이, 청소년을 상대로 하는 여름방학학교였다. 아이들이 익숙지 않은 내가 아이들을 상대로 무엇을 가르친다는 걱정에 막막했던 것이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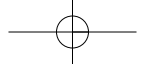
일단 1, 2일차에는 성경학교 진행을 위한 교회 꾸미기와 기획을 짰다. 처음 해보는 풍선 데코레이션 등은 나를 막막하게끔 했다. 하지만 이왕 온 봉사활동, 열심히 하고자 적극적으로 일을 도왔다. 또한 교회에 혹시나 올만한 다른 학생들을 섭외하기 위해 초대장을 손수 만들어 길거리에서 나눠주기도 했다. 매우 더운 날씨였지만 아이들이 더욱 많이 올 수 있다면 오늘 흘린 땀방울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나눠주었다. 마침내 수요일, 여름방학학교의 첫째 날이 밝았다. 예상보다 아이들이 많지는 않았다. 아이들의 숫자는 열 몇 명 정도였다. 의외로 아이들이 없어서 당황스럽기도 했고 민망했지만



달리 생각해보면 소수의 아이들에게 집중할 수 있고 확실한 학습효과가 난다고 생각되었다. 오전에는 유치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학교를 진행하였다. 아이들을 가르치려니 진이 빠지고 힘들었다. 하지만 그런 아이들이 교육내용을 숙지하고 이해하는 것을 보고 매우 보람찬 시간이었다. 오후에는 중, 고등부 학생들과 여름방학학교를 진행하였다. 학생들이라 그런지 웬만한 것을 다 숙지한 상태였고 그들과의 여름방학학교는 즐기다시피 진행된 것 같다. 두 번째 날에도 똑같은 패턴으로 아이들을 가르쳤고 오후, 학생들과의 여름방학학교 시간에는 계곡에서 함께 어울려 노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세 번째 날에는 마지막 토요일, 발표회 날을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다. 아이들에게 울동을 가르치고 간단한 연극 프로그램 연습도 하였다. 금요일 저녁에는 저녁 예배를 드렸고 마지막 발표회에 필요한 소품들을 제작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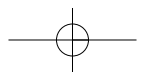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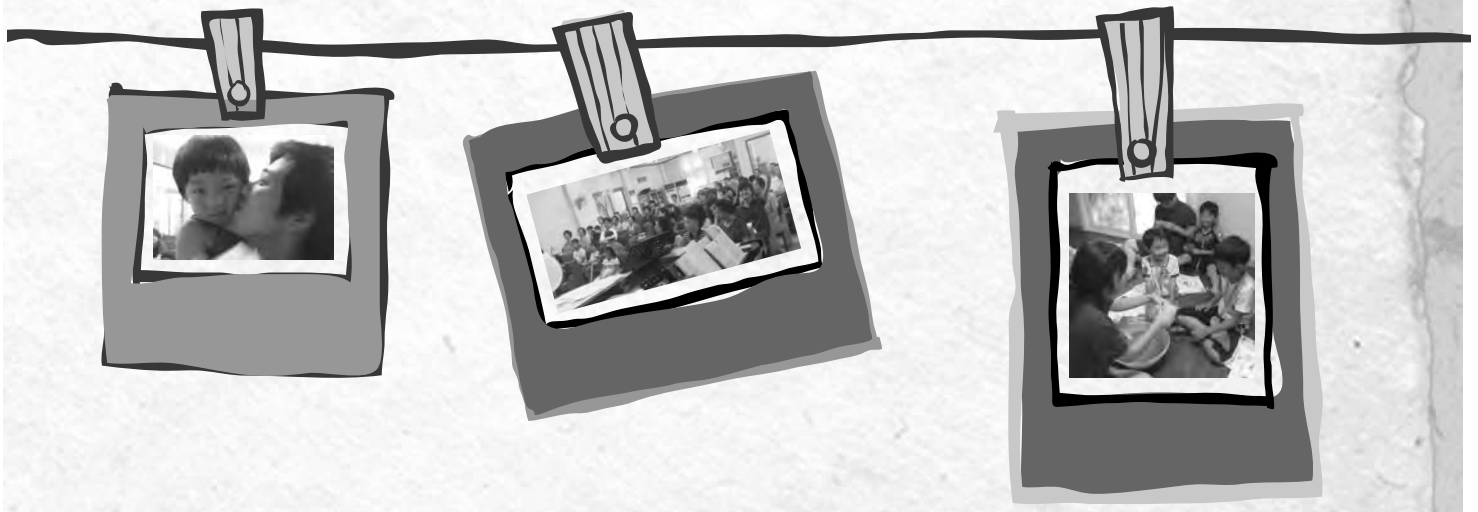
마침내 안식일인 토요일이 되었고 아침 9시부터 식을 진행하였다. 아이들과 울동도 하고 연극도 하였다. 또, 학생들과 봉사대원들을 필두로 준비한 공연도 잘 마쳤다. 매우 성공적인 발표회에 참석한 목사, 장로, 주민 분들은 함박웃음을 지었고 봉사대원인 우리들도 뿌듯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 성공적인 발표회가 끝나고 몇몇 대원들은 그동안의 고생과 봉사대원들과 든 정 때문인지 눈물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런 대원들을 보고 다 된 밥에 숟가락만 올린 것 같은 부끄러운 느낌이 들기도 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봉





사활동의 참뜻을 알게 되었다. 나에게 진정한 뿌듯함과 가슴 따듯함을 느끼게 해주는 활동이고 계속해서 해보고 싶은 그런 활동이다. 사람들과의 협동심, 따뜻한 정을 느끼게 해주는 정말 좋은 시간이었다.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삼육대 관계자 분들과 학과장님인 유재현 교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1 보건권리학과 1



## 경영학과(안교)

팀 명	경영 안교	주최학과/부서	경영학과
지도교수	박철주, 임태중, 강정수	학생대표	김보성
봉사지역	전라북도 정읍	활동기간	2012.7.22 ~ 7.29
파견인원	지도교수 : 3명, 대장 : 1명, 대원 : 25명, 기타 : 10명		
협력 및 후원기관	신태인 포도 영농조합	주소/연락처	전북 정읍 신태인 백산리
봉사영역	노력봉사, 교육	봉사대상자	주민, 학생

### ▶ 팀 명단

No	이름	학과	학년	역할/담당	No	이름	학과	학년	역할/담당
지도교수	박철주	경영			지도교수	임태중	경영		
지도교수	강정수	경영			대원14	박민수	경영	1	대원
학생대표	김보성	경영	2	대장	대원15	신형경	경영	1	대원
대원2	손태일	경영	3	부대장	대원16	심정훈	경영	1	대원
대원3	최해리	경영	2	총무	대원17	이정인	경영	1	대원
대원4	김창성	경영	2	홍보	대원18	이한나	경영	1	기획
대원5	손목민	경영	2	기획	대원19	장아름	경영	1	대원
대원6	김건욱	경영	1	대원	대원20	하동현	경영	1	대원
대원7	김보영	경영	1	대원	대원21	정희재	경영	1	대원
대원8	김세원	경영	1	홍보	대원22	김효진	중국	1	대원
대원9	김수민	경영	1	총무	대원23	이보배	중국	1	대원
대원10	박가령	경영	1	대원	대원24	김다인	중국	1	대원
대원11	유재욱	경영	1	대원	대원25	채 진	커디	3	대원
대원12	이원용	경영	1	대원	대원26	임성경	커디	2	대원
대원13	이유진	경영	1	대원					

### ▶ 봉사 주요 활동내용 및 결과

No	활동영역	날짜	장소	내용	결과(참여인원)
1	노력봉사	7/23~27	각 농가	농촌 일손 돕기 : 포도봉지 씌우기 및 잡초제거	대원 : 23명 농가 : 10가구
2	교육봉사	7/23~26	교육센터	교육센터 학생 교육 : 수학, 영어	대원 : 3명 학생 : 10명



▶ 봉사활동 운영 전반평가

매우안 좋음 1	안 좋음 2	보통 3	좋음 4	매우 좋음 5	활동에 필요한 준비물은 바짐없이 준비됐는가?	1	2	3	4	5					
계획된 활동은 모두 실행했는가?			1	2	3	4	5	모두 건강하게 활동을 마무리했는가?			1	2	3	4	5
활동 목표는 달성했는가?			1	2	3	4	5	대원들 간에 문제없이 생활했는가?			1	2	3	4	5
활동영역		평가			활동영역		평가								
지도교수역할		만족			학생대표역할		만족								
학생대원소양		농촌 생활이 힘든 학생이 있음			현지반응		만족								
숙식 및 생활여건		좋았음			활동지역 및 안전관련		안전								
잘된점		적극적인 참여			운영평가 및 애로사항		예산부족, 지원금 부족								
개선(보완)사항		정확한 농가 수를 확정해야 함			총평		만족								

▶ 봉사활동 전체 일정표

일정	구분	활동내용
7월 22일 (일)	오전	
	오후	용산 집결
	저녁	숙소 정리
7월 23일 (월)	오전	농촌 일손 돕기(23명) 및 교육봉사(3명) 진행
	오후	농촌 일손 돕기(23명) 및 교육봉사(3명) 진행
	저녁	저녁 식사 및 전체 평가회
7월 24일 (화)	오전	농촌 일손 돕기(23명) 및 교육봉사(3명) 진행
	오후	농촌 일손 돕기(23명) 및 교육봉사(3명) 진행
	저녁	저녁 식사 및 전체 평가회
7월 25일 (수)	오전	농촌 일손 돕기(23명) 및 교육봉사(3명) 진행
	오후	농촌 일손 돕기(23명) 및 교육봉사(3명) 진행
	저녁	저녁 식사 및 전체 평가회
7월 26일 (목)	오전	농촌 일손 돕기(23명) 및 교육봉사(3명) 진행
	오후	농촌 일손 돕기(23명) 및 교육봉사(3명) 진행
	저녁	저녁 식사 및 전체 평가회, 안식일학교 준비
7월 27일 (금)	오전	농촌 일손 돕기(23명) 및 교육봉사(3명) 진행
	오후	농촌 일손 돕기(23명) 및 교육봉사(3명) 진행
	저녁	저녁 식사 및 전체 평가회 공연 준비
7월 28일 (토)	오전	문화공연
	오후	농촌 일손 돕기 및 교육봉사 소감 나누기
	저녁	레크리에이션 및 전체 평가회
7월 29일 (일)	오전	짐 정리 및 숙소 정리, 조합원들과 인사
	오후	전북 정읍 오후 12시 출발 학교 3시 도착
	저녁	



# PHOTO

▶ The pictures came out well.



▶ 즐거운 레크레이션



▶ 아이들과 함께 그린 벽화



▶ 가공된 포도주스병에 라벨을 붙이는 작업

# PHOTO



▶ 양파를 망에 담는 모습



▶ 레크레이션 시간



▶ 포도 농장



▶ 작업 후 대원들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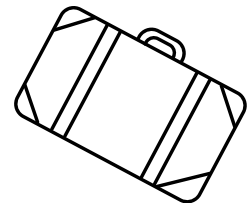
▶ 단팥빵 만들기



▶ 대원들과~



▶ 단팥빵 만들기





## | 지도교수 소감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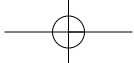


경영학과 박철주

## “웃음과 땀방울이 포도송이처럼 익어가는 곳을 다녀와서...”

어딘가를 향하여 출발한다는 것은 언제나 그렇듯이 약간의 부담감과 함께 가슴 한편을 두근거리게 한다. 버스와 전철을 갈아타고 용산역 대합실에 도착하니 어딘가로 출발하려는 사람들이 시루에 옹기종기 모인 콩나물처럼 빼곡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무리의 청년들이 저마다 배낭을 하나씩 맨채로 나를 보며 꾸벅 인사한다. 그들의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퍼지고 있다. 나야 며칠간 서울을 떠나 고향 같은 곳에서 마음도 매만지고 지인들에게 안부도 전할 수 있는 방편이 되기에 농촌봉사대 지도교수로 떠나는 것이 즐거운 발걸음이 될 수 있겠지만, 이 짐통더위에 모기떼와 싸우며 노지나 비닐하우스에서 땀 흘려 농촌봉사 활동을 해야 하는 학생들이 연신 환하게 웃는 것은 그리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닌 듯했다.

여하튼 서른 명에 이르는 우리 팀을 실은 기차는 용산역을 출발하여 2시간 후 정읍시 신태인역에 도착하였다. 우리 팀은 도착하기가 무섭게 신태인을 백산리 천단마을로 이동한 후, 남녀로 나뉘어 각각 마을회관 1층과 2층에 짐을 풀고 7박8일간의 농촌봉사활동을 시작하였다. 매일 아침마다 마을 사람들이 회관 앞으로 찾아와 자신을 도와줄 학생들을 서너 명씩 요청하여, 트럭이나 SUV 차량에 태워서 일손이 필요한 곳으로 데려갔다. 대한민국 농촌 어디에서나 그런 것처럼 요즘 같은 날씨에 이곳과 같은 시골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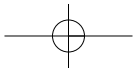


서 일손을 구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비록 서툰 실수도 하지만 이들 학생들을 태우고 가는 마을 사람들의 입가에도 웃음꽃이 수줍게 피고 있었다.

이렇게 마을 사람들과 함께 간 학생들 중 일부는 포도밭에서 봉지 씌우거나 잡초 제거를 하였고, 일부는 파밭이나 수박밭 또는 토마토밭에서 김을 매거나 수확하는 일을 도왔다. 또 다른 학생들은 축사와 마사에서 땅을 고르거나 말뚝을 박느라 비지땀을 흘려야 했고, 아이들을 위하여 교육봉사를 한 학생들도 있었다. 어떤 여학생은 트럭 뒤에 타고 마을길을 달려가는 것이 너무 좋아서 아침마다 제일 먼저 회관 앞에 나가 있다가 트럭만 오면 무조건 얼른 뒤에 올라타기도 하였고, 여학생 몇은 며칠 동안 계속 포도 봉지 씌우기를 하다 보니 준기술자가 다 되기도 하였으며, 몇 명의 남학생은 맛있는 점심과 새참을 위하여 죽음도 불사하는 열정(?)으로 일을 하다 무수한 생채기를 훈장처럼 달기도 하였다.

기록적인 이 더위에 얼굴하나 가릴 그늘조차 없고, 땀과 먼지로 범벅된 얼굴조차도 씻을 변변한 샤워실 하나 없는데도 이 녀석들은 뭐가 그리 좋은지 눈을 뜨고 있는 시간 내내 깔깔깔 웃고 왁자지껄 떠들고 있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지칠 줄 모르는 이 녀석들의 젊음이 부럽기도 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선생된 사람으로서 이 녀석들과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남을 위해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펴지 못했던 내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였다.

서울로 돌아오는 발걸음에는 용산역을 출발할 때와 같은 설렘은 없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모기에 온몸이 물리고도 밝게 웃던 학생들의 얼굴과 마을 사람들의 선하고 환한 얼굴이 천단마을의 유기농 포도와 같이 알알이 익어가고 있었다.



## | 학생대표 소감문 |



김보성 | 경영학과 2학년  
학생대표

## “값진 땀방울”

여름인 지금 걸어도 땀이 나고 서있어도 땀이 나는 무더위가 한창이다. 무더위를 느끼면서 작년 이맘 때쯤 신태인에 내려가서 일손을 도와드리면서 흘렸던 땀이 생각이 났다. 일손을 도와드리면서 흘렸던 땀은 짜증과 더위가 느껴지지 않는 귀한 땀이었다.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에도 봉사할 때 느꼈던 감정과 땀을 흘리며 얻게 되는 많은 것들을 다시 느끼고 싶어 올해는 봉사대 대장으로 신태인에 봉사를 가게 되었다. 그래서 올해는 주민 분들의 일손을 더 도와드리고 싶어 작년보다 일주일 뒤로 미루어 가는 일정으로 가게 되었다. 하지만 농활을 가기 전 주에 비가 많이 와서 봉사대를 가도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가기 이틀 전에 날씨가 개면서 걱정은 하지 않게 되었지만 장마가 온 뒤라서 그런지 무더위가 우리를 반겨 주었다.

신태인에 도착해서 대면식을 했는데 마을 주민 분들이 여전히 우리를 반겨주셔서 정말 감사했다. 우리 봉사대가 인기가 있었던지 도와드릴 농가수가 작년보다 배로 늘어 10가구에 봉사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한 봉사들은 포도봉지 씌우기, 잡초제거와 말 농장 수리하기 등의 일손을 도왔고, 아동센터에 가서 교육봉사도 했다. 다른 봉사들로는 천단마을이 유기농업을 하기 때문에 약을 칠 수 없어 벌레





퇴치를 하고, 벌레들을 유인하기 위해 페로몬을 붙이는 작업을 하는데 비닐하우스 안이어서 땀이 비 오듯 쏟아지는데도 기분은 정말 개운했다. 그리고 벽화의 밑바탕인 흰 페인트를 칠하는 작업을 했다.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하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게 좋았고 피약벌에서 그린 벽화의 완성을 보니 정말 뿌듯했다. 마지막 오전 작업을 끝마치고 오후에 주변의 변산 해수욕장에 가서 일정의 마무리를 하면서 봉사대 일정을 마치게 되었다.

봉사대를 하면서 첫날에 모든 일정이 끝나고 대원들을 만났는데 다들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하다 보니 다들 지쳐있었고, 무엇보다 날이 너무 뜨거워서 대원들을 더 지치게 했다. 하지만 하루 이틀 지나면서 햇볕이 뜨겁고 일이 힘들어도 대원들이 쉬는 시간 후에는 시간을 맞춰서 스스로 작업하러 가는 모습을 보니 정말 대단했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함께 하는 모습을 보니 대원들이 자랑스러웠다. 그리고 봉사대 마칠 때까지 모든 대원이 아픈 사람도 없고 일정이 잘 마무리 될 수 있게 따라와 주어서 고마웠고 기온이 35도가 육박하는데도 열심히 일해 준 대원들과 봉사대를 끝까지 곁에서 지켜주신 마을 주민 분들의 도움에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사한다. 올해 여름도 값진 땀을 흘릴 수 있게 도와주신 마을 주민 분들과 무더운 날씨에도 견디어준 대원들에게 정말 감사한다.

## | 대원소감문 |



김수민 | 경영학과 1학년  
일손 돕기, 교육봉사, 총무부 부팀장

### “신태인에 다녀와서”

처음 신태인역에 도착해 기차에서 내린 순간의 뜨거운 열기가 아직도 생생하게 느껴지는데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었던 일주일간의 봉사를 마치고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경영안교 주관의 하기봉사대였기 때문에 안교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나는 별 다른 생각 없이 하기봉사대에 참가하게 되었다.

나는 이번 하기봉사대의 총무부 부팀장이라는 직책을 맡아 오전에는 일손 돕기, 그리고 오후에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봉사를 했다.

월요일엔 양파를 21kg씩 크기 별로 망에 담는 일을 했다. 처음 해보는 농촌일과 뜨거운 날씨에서 하는 일은 한 없이 고되게만 느껴졌다. 화요일에는 파밭에 가서 잡초 뽑는 일을 했는데 마지막 즈음에는 정말 너무 덥고 힘들어서 쓰러질 것 같았다. 내 생애 가장 땀을 많이 흘린 날이었던 것 같다. ‘다시는 파밭에 오지 않으리라.’, ‘아침에 파밭 아저씨가 오시면 절대로 따라가지 않으리라.’ 다짐을 했다. 그래도 수요일엔 실내에서 포도주스병을 닦고 라벨을 붙이는 작업을 해서 더위는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었다. 그리고 목요일, 여느 날과 같이 일손 돕기를 위해 차에 올라탔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파밭은 피했다



며 안도하고 있었다.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에 나는 그저 헛웃음이 나왔다. 화요일에 갔던 파밭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광활한 파밭 앞에서 나는 그저 조용히 호미를 들었다. 금요일에는 연로하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는 집에 가서 짐을 나르고 청소를 하며 집안일을 도왔다. 그리고 이 날 오후에는 봉사대원들과 함께 바닷가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일주일 동안 오후엔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날 정도로 무척이나 더워서 더위와 싸우느라 진땀을 뺐다.

이렇듯 나는 내 생애 가장 고되었던 일주일을 보냈다. 하지만 신태인에서의 일주일은 나에게 노동의 고됨보다 노동의 보람됨 즐거움, 그리고 친구들과의 추억이라는 긍정적인 요소들을 더 많이 주었다. 나에게 신태인에서의 일들은 참 오래도록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

월요일 처음 해보는 농촌일이 고되었지만, 우리가 더욱까봐 그늘 망을 쳐주시는 주인아저씨와 한참 더위에 힘들어하고 있을 때 직접 만드신 100% 포도액 주스에 얼음을 동동 띄워 가져다주시던 주인아주머니의 배려에 잠시나마 더위를 잊을 수 있었다. 광활한 파밭이 막막하고 힘들었지만 트럭 뒤에 타서 도로를 달리며 차가운 바람을 즐기던, 그 속에서 친구들과 환호성 쳤었던 그 기분은 절대 잊지 못할 것 같다. 더위에 한참 힘들 때 일하시던 낮으로 바로 잘라주시던 수박의 시원함 또한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는 센터에서 공부하기 싫다고 투정 부릴 만도 한데 항상 잘 따라주고 열심히 공부해준





아이들에게도 참 고맙게 생각한다. 거기 원어민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우리가 영어를 능통하게 하지 못해 의사소통에 불편함이 많으셨을 텐데도 시종일관 웃으며 따뜻하게 대해주신 원어민선생님께도 감사함을 전한다. 끝으로 신태인의 모든 농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 | 대원소감문 |



이정인 | 경영학과 1학년  
대원/ 농촌 일손 돕기

## “잊을 수 없는 7일“

7월 22일. 경영 안교 봉사 활동 팀은 용산 역에서 만나 열차를 타고 3시간 가량 걸려 정읍 신태인역에 도착하였다. 도착하자마자 찌는 듯한 더위에 우리 대원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다. 각자 짐을 챙겨 숙소에 도착해 잠깐의 휴식 후 마을 어르신들과의 대면식을 하며 하루를 시작하였다.

우리가 해야 할 봉사 활동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다. 포도밭, 고추밭, 수박, 마구간, 공사 등 여러 가지 일들을 체험해 볼 수 있었다. 그 중 가장 기억에 남은 활동은 마구간 일이었다. 첫날 마구간에서 봉사활동을 한 몇몇 친구들에게 마구간일이 어렵다는 말을 들어서 살짝 긴장을 했었다. 어려웠다. 나를 포함한 친구 5명에서 드릴, 쇠파이프, 이상하게 생긴 망치를 들고 이름 모를 밭으로 향했다. 솔직히 아저씨가 보여주는 시범을 보고 딱 두 마디가 떠올랐다. ‘꽤닉!!’, ‘이건 머지?’ 라는 당황스러움이 먼저 다가왔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울타리를 만드는 일이었다. 시작 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할 말을 잃고 일에만 전념했다. 꿀 같은 점심시간이 되어서 얼른 마구간을 빠져나와 숙소로 향했다. 시원한 등목과 맛있는 밥을 먹고 낮잠을 잔 후 다시 마구간 직행. 이 일정이 이틀 동안 반복되었다. 일을 가자마자 이제는 알아서 도구를 챙겨서 밭으로 향했다. 망치로 쇠파이프를 박을 때 나는 소리가 있다. “땡 땡 땡” 이 소리



는 앞으로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그 작업을 이틀 동안 몇 시간씩 하고 나니 드디어 파이프를 다 박았다. 엄청난 행복감이 몰려 왔을 때 저 멀리 아저씨께서 밧줄을 가져오시는 것을 보고 두 번째 충격. 너무 힘들고 쉬지도 못해서 우리 모두 지쳐있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여차저차해서 밧줄도 다 매고 드디어 임무완수. 사실 마구간에서 이 일 외에도 말 주사 놓기, 먹이 주기, 말똥 치우기 등 다른 일도 했지만 울타리 작업을 따라올 수 없다. 또 한 가지 인상 깊었던 것은 일을 끝나치고 숙소로 돌아갈 때 친구들과 사진을 찍는 것은 정말 재미있었다. 고된 일을 하고 사진 한 장에 순수해지는 우리야말로 이 시대에 찾아보기 힘든 때 묻지 않은 순수남 같았다. 마구간 다음으로 힘들었던 일은 포도밭이었다. 비닐 하우스 안이 정말 더웠고 그 안에 모기들이 우릴 괴롭혔다. 하지만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너무도 친절하게 또 친자식처럼 해주셔서 감사했다. 또 숙소에 와서 서로 친해질 수 있는 레크리에이션 또한 재미있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어르신들께서 하신 말씀이 있다. '정치를 논하는 사람들이 직접 농사일을 해봐야 한다' 고. 서민경제와 1차 산업이 탄탄히 다져져야 원활한 경제순환이 이루어진다. 비록 7박 8일이라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농촌활동의 어려움을 알았다. 우리의 작은 손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작은 손들보다 위에 큰 손이 한 번 움직임이는 것이 대한민국의 농촌에 얼마나 큰 힘이 될지 새삼 느꼈다. 무더위에 짜증도 났었지만 장난도 치며 즐거웠던 7일간의 체험이 나의 대학 생활 첫번째 기억에 남는 일이 되었다.



## | 대원소감문 |



채 진 | 커뮤니케이션디자인과 3학년  
포도농장일, 단팥빵 및 식빵 만들기, 벽화그리기

## “신태인 이장님 댁 첫째딸”

매년 나는 어디론가 봉사를 떠나는 계획을 세운다. 이번 2012년도에는 “신태인” 그 곳으로 떠나게 되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다른 과 다른 특성을 가진 봉사대이지만, 국내 봉사는 처음이므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내가 이곳에서 어떤 능력과 마음가짐으로 봉사를 하게 될지 내 자신에게 많은 기대를 하게 된 것 같다.

이곳 신태인에는 나와 같은 과 후배와 함께 오게 되었는데, 첫날에 꿈을 잘 꾸었는지 우리는 경영학과 1학년 학생 2명과, 이장님 댁의 임무를 맡게 되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아서 팔도 아프고 생각 보다 힘이 들었다. 하지만, 옆에 있는 경영학과 학생들에게 말도 걸어보면서 하루는 그렇게 지나간 것 같다. 둘째 날 아침이 되니 온몸이 아프고, 친하지 않은 벌레들과 동침을 하니 모기들이 물고 간 자국이 남아서 힘이 쭉 빠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오늘도 이장님 댁에 가서 친구들과 같이 열심히 일해야 한다.’ 생각하며 열심히 밥을 먹고 출발했다. 처음엔 서먹서먹했지만 어느새 언니들과 친해진 경영신입생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랑 너무 비슷한 점이 많다는 생각을 했다. 어느새 옆에 계신 이장님과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포도에게 바지를 입혀주다 보니(종이를 감싼다는 표현이다) 어느새 짐

심시간이 다가왔다. 이장님과 읍내로 떠나게 되었다. 어색했던 우리 사이가 포도라는 공통점으로 친해지게 되고, 오늘은 특별히 정음에서 가장 맛있는 냉면도 먹게 되었다. 이장님께 너무 감사해서 오후 일이 시작되면서부터 우리는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되었다. 이제는 속도가 붙어서 포도 바지 입히기 달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셋째 날이다. 역시 우리 경영 임원들은 부지런하다. 아침부터 맛있는 카레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좋은 양식을 주는데, 너무 맛있다. 오늘 하루도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오늘도 이장님댁에 가서 똑같이 포도에게 바지를 입혀 주고, 우리 4명 친구들과 새참인 수박과 이장님이 더울까봐 챙겨주신 연잎꽃물이라는 귀한 물을 먹었다. 우리를 위한 마음 씀씀이에 감동받았다. 오늘도 열심히 일한 우리에게 일찍 잘 수 있는 기회를 주어졌다.

넷째 날이다. 오늘은 특별히 이장님께서 좋은 곳으로 안내해주신다며, 아침 일찍 예쁘게 준비하라고 하신다. 오늘은 어디로 가게 될지 기대가 되었다. 어느 마을의 한 교회를 오게 되었다. 바로 칠보교회였다.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친히 반겨주시니 우리는 또 엄청난 기대에 부풀게 되었다. 오늘은 칠보교회 이웃들과 불우이웃을 돕는 빵을 만들게 되었다. 중학교 때부터 제과제빵에 관심이 많았는데 오늘 드디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날이 와서 많은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을 또 한 번 느끼게 되었다. 이곳에서는 단팥빵과 식빵을 만들게 되는데 호밀로 된 최고 1등급이고 직접 키우시고 제조까지 하신다고 한다. 본격적으로 단팥빵을 만들기 시작했다. 지금 현재시간은 8시 30분 하나둘! 열심히 만들기 시작했다. 동글동글하게 되는 기계에 넣어서 반죽을 만들고 그 안에 앙금을 넣어서 성형을 한다. 이것을 한 만개는 만든 것 같다. 정말 우리 4명



은 단팥빵에 달인이 되었던 것 같다. 어디 가서도 단팥빵 하나는 최고로 만들 자신이 생길 정도로 많이 만들었다. 단팥빵이 구어지는 동안 우리는 점심식사를 했고 단팥빵이 나오자마자 한 입 먹었는데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단팥빵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았다.

다섯째 날이다. 오늘은 이장님이 여수에 떠나셔서 우리끼리 일을 하게 되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포도를 싸는데 우리는 포도 바지 입히기에 달인이 되어 이제는 하루에 일인당 1000개 이상씩 싸게 되었다. 우리는 오늘 포도와 이별을 하기에 이장님이 안 계시는 날이지만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되었다. 우리는 이장님께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아서 보이지 않은 곳에서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이벤트로 수박을 먹은 껍질에 이장님의 이름을 새겨서 남겨두었다. 아마 내일 이장님이 해맑은 웃음을 지으실거라 생각된다. 여섯째 날이다. 오늘은 우리를 따뜻하게 맞아준 신태인 마을을 위해 벽화를 그리게 되었다. 나의 디자인 전공을 살려서 벽화를 그려드리기로 했다 사실 하루 만에 끝내기 어려운 작업이라 걱정이 많이 되었는데 미리 준비해온 덕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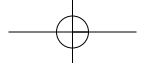


에 예쁜 벽화가 나올 꺼라 믿고 있었다. 하얀 페인트를 칠하고, 이것저것 섞어서 예쁜 빨강, 노랑, 주황, 등 무지개 색을 만들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오늘은 유난히 날씨가 더워 열심히 능력을 발휘하기로 했다. 우리의 테마는 어린왕자로 사계절 콘셉트를 만들기로 했다. 어린왕자도 그리고, 배도 그리고, 장미꽃도 그리니 너무 예쁜 파



스텔색감이 나와서 만족스러웠다. 아이들과 하는 코너도 만들었다. 두 손을 페인트에 칠해서 벽에 찍는 교육프로그램도 같이 진행하였다. 학생들의 꿈과 희망에 대해 글씨를 적으면서 10년 이후에 아이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 물론 우리 4명의 손바닥도 예쁘게 들어갔다. 오후 5시가 되었다. 겨우 완성을 해갔다. 모두가 마음에 들어해주셔서 디자이너로써 정말 뿌듯함을 느꼈다.

예쁘게 완성된 벽화가 마을 주민들에게 소개되면서 ‘아, 내가 이런 능력을 이분들께 선사하면서 기쁨을 느끼는구나.’ 하는 뿌듯함을 느끼니 벌써 마지막 일정이었다. 이번 주에 있었던 모든 힘든 것이 다 풀리면서 기분이 좋았다. 점심을 먹고 지난 하루하루를 생각해보았다. 내게 주신 이 봉사활동이라는 기회를 얻고 좋은 분들과 친구들을 사귀면서 내게 이런 기쁨과 환희를 주셨다는 게 감사했다. 처음 봤는데 나에게 친절하게 해주신 우리 이장님 매번 딸들이라고 챙겨주시면서 벽화를 그리는데 저녁 못 먹었다고 직접 이 먼 곳까지 찾아오셔서 챙겨주신 이장님께 가장 감사드린다. 그리고 우리 같이 활동했던 아름이, 희재 그리고 우리 후배 성경이 정말 나에게서 돌도 없는 동생들이었고 한마디 힘들다는 말없이, 열심히 일 해줘서 너무 고맙고 디자인과가 아닌데도 벽화 그리면서 언니들 덕분에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했던 경영학과 친구들에게도 너무 감사하다. 항상 봉사를 하면서 느끼지만 내 능력을 드리는 것에 대한 활동들이 나에게겐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 또한 따뜻한 시골인심과 서울에서 느끼지 못한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된다. 항상 어느 곳에서 봉사를 올 때 나를 비울 수 있어서 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서 좋은 것 같다. 이 모든 기회를 주신 경영학과 교수님들과 경영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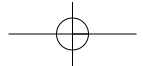


안교친구들 모두 감사하다.

그리고 우리 4명 이장님 딸들 중 가장 언니였지만 많이 챙겨주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하다. 삼육대학교에서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더욱 이 봉사활동이 특별했다.

나에게 봉사란 사람이다.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사람 향기가 나는 봉사라는 것이 나에게겐 행운이고 기회다. 그들을 만날 수 있게 해준 행운, 그리고 그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그 기회에 난 만족한다.

이번 봉사활동은 나에게 큰 특별한 사람들을 만나게 해준 그런 봉사활동이 된 것 같다.



### 간호학과(Brant)

팀 명	Brant	주최학과/부서	간호학과
지도교수	정현철	학생대표	전현경
봉사지역	충청남도 대천	활동기간	2012.8.4 ~ 8.11
파견인원	지도교수 : 1명, 대장 : 1명, 대원 : 10 명		
협력 및 후원기관	-	주소/연락처	충남 보령시 남곡동 491-2 041) 935-7486
봉사영역	교육봉사	봉사대상자	지역 어린이들

#### ▶ 팀 명단

No	이름	학과	학년	역할/담당	No	이름	학과	학년	역할/담당
지도교수	정현철	간호학과			대원6	신서라	간호학과	2	노래지도
학생대표	전현경	간호학과	2	봉사대장	대원7	이성광	간호학과	1	컴퓨터 작업
대원2	이시간	간호학과	2	장소섭외	대원8	이현우	간호학과	1	율동
대원3	강령은	간호학과	2	총무	대원9	박은주	간호학과	1	서기
대원4	이은경	간호학과	2	피아노 반주	대원10	김시애	간호학과	1	율동
대원5	어혜인	간호학과	2	율동	대원11	김명기	간호학과	1	사진

#### ▶ 봉사 주요 활동내용 및 결과

No	활동영역	날짜	장소	내용	평가 및 의견	결과(참여인원)
1	교육 봉사	8/4~8/11	대천	교육프로그램 진행	말은 부분에 대한 숙지가 잘 되어 있었음	대원 : 11명 어린이 : 11명
2	놀이 봉사	8/6~8/11	대천	저녁까지 게임을 하며 안전하게 놀이활동	아이들이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었음	대원 : 11명 어린이 : 11명
3	문화 활동	8/10	대천	문화공연을 준비하여 주민들에게 감동을 드림	기대 이상의 호응이 있었음	대원 : 11명 외 교인들



▶ 봉사활동 운영 전반평가

매우인중음 1	인중음 2	보통 3	중음 4	매우중음 5	활동에 필요한 준비물은 빠짐없이 준비됐는가?	1	2	3	4	5					
계획된 활동은 모두 실행했는가?					1	2	3	4	5	모두 건강하게 활동을 마무리했는가?	1	2	3	4	5
활동 목표는 달성했는가?					1	2	3	4	5	대원들 간에 문제없이 생활했는가?	1	2	3	4	5
활동영역		평가			활동영역		평가								
지도교수역할		준비과정에서 부족한 것이 없도록 도와주심			학생대표역할		준비과정부터 전반적인 계획을 짜고 실행함								
학생대원소양		모두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함			현지반응		열심히 봉사하는 학생들에게 고마워 하심								
숙식 및 생활여건		벌레들이 많았으나 숙식은 편안했음			활동지역 및 안전관련		봉사활동 중 부상자가 2명 가량 있었으나 신속히 처치함								
잘된점		대원들과 아이들이 1:1로 교육할 수 있 었음			운영평가 및 애로사항		동네 특성상 아이들을 모으기 힘들었음								
개선(보완) 사항		수요처에 따른 예산의 차별화			총평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봉사활동이었음								

1. 간헐적(Brant) 1

▶ 봉사활동 전체 일정표

일정	구분	활동내용	일정	구분	활동내용
8/4 (토)	오전	대전으로 출발	8/5 (일)	오전	향후 일정 회의
	오후	현지 적응 및 간단한 회의		오후	- 교육프로그램 준비 (초대장 제작) - 각 부서 별로 요일별 교육프로그램 준비
8/6 (월)	오전	- 홍보활동 (주변 초등학교) - 울동연습	8/7 (화)	오전	- 울동연습 - 여름교육프로그램 여행연습
	오후	- 홍보활동(주변 마을에서 ) - 환경미화 - 피드백 : 반별로 구체적 계획 회의, 내일 순서 짜기 등 역할 분담		오후	- 교육프로그램 진행(울동, 교육프로그램, 만들기, 게임 ) - 피드백 : 첫날인 오늘을 바탕으로 역할분담에 대한 의논(역할분담 : 울동, 아이들&돌보기, 사진촬영, 교육프로그램, 게임 시범&설명 )
8/8 (수)	오전	- 교육프로그램 준비(모자이크, 얼 굴 그리기 등 활동 준비) - 게임 짜기	8/9 (목)	오전	- 게임준비 (물총놀이)
	오후	- 교육프로그램 진행 - 피드백 : 앞에서 진행하는 것에 대한 의견조율		오후	- 교육프로그램 진행
8/10 (금)	오전	교육프로그램 준비( 게임, 찬양)	8/11 (토)	오전	- 문화의 날
	오후	- 문화의 날 준비, 리허설, 교육프로그램 진행, 문화의 날 준비 - 피드백 : 달란트 시장준비(판매할 물건 선택,가격결정)		오후	- 청소 및 마무리 - 서울로 출발



# PHOTO

▶ The pictures came out well.



▶ 아침, 저녁으로 피드백 하는 모습



▶ 아이들과 간식을 만들어먹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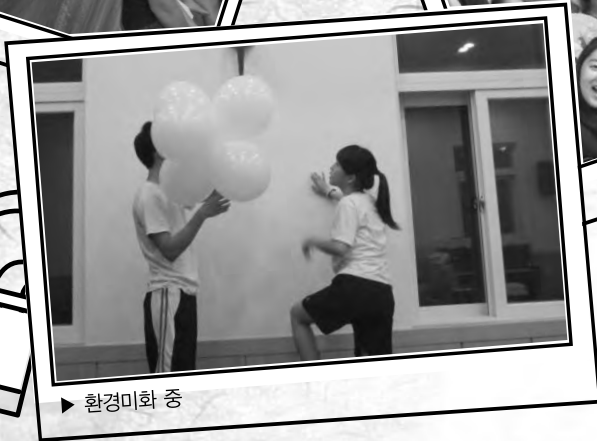
▶ 물총놀이



▶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모습



▶ 아이들과 단체사진



▶ 환경미화 중





# PHOTO



▶ 발표회시간



▶ 율동 지도하는 모습



▶ 아이들과 이야기 나누는 모습



▶ 홍보 나가기 전 단체사진



▶ 유년반 만들기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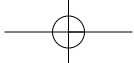


▶ 환경미화 중



▶ 노래시간





| 지도교수 소감문 |



간호학과 | 정현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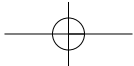
| 간호학과(Brant) |

## “봉사대를 다녀와서”

일 년 중에 가장 무더웠던 기간에, 그것도 몇 십 년 만에 최고의 폭염이 찾아왔던 날씨 중에도 무사히 하계봉사활동을 마친 우리 간호학과 봉사대원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보냅니다.

방학 중인데도 10여일 전부터 학교에 나와 어린이 성경학교를 위해 스케치북과 색종이 등을 가지고 필요한 도구들을 직접 손으로 만들고 준비하는 모습이 대견스러웠고, 그런 열정이 어린이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져 예수님의 사랑을 심어 줄 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비록 짧은 기간의 하계봉사활동이었지만 우리 대원들의 열정과 추억은 나중에 하늘나라 갈 때까지 믿음의 불꽃으로서 영원히 간직될 것입니다.



## | 학생대표 소감문 |



전현경 | 간호학과 2학년  
학생대표

## “감동의 봉사”

작년에 여름성경 학교 봉사를 갔던 추억이 너무 재미있어서 이번에도 가게 되었다. 처음에는 정말 별 걱정 없이 아이들과 재미있게 놀아주고 좋은 추억을 쌓고 싶은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처음 봉사를 기획하고 대장을 하기로 했던 친구의 사정으로 인해 부득이 하게 대장을 맡게 되었다. 봉사대원일 때 느꼈던 감정과는 너무도 달랐다. 내가 열명의 대원을 일주일간이나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에 준비 기간 전에는 밤잠을 설치기까지 했다. 그랬기에 더욱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봉사대가기 2주 전부터 준비를 했다. 생각보다 아이들이 잘 따라와 줬고 계획대로 진행이 되었다. 성경 학교에서 할 달란트 시장을 위해 동대문을 다니며 장난감을 구입하고 말씀 준비와 홍보를 위해 준비물을 사고 나니 정작 봉사대원들의 일주일 식비가 턱 없이 모자랐다. 그러나 매일 매일 총무와 예산 회의를 한 끝에 어느 정도 여유가 생겼다.

2주간의 준비기간이 지나고 봉사대를 출발하게 되었다. 토요일 저녁에 도착하며 월요일에 홍보할 계획과 전체적인 피드백을 하고 식사당번을 정했다. 일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했다. (토요일에 찬양을 드릴 노래를 매일 아침, 저녁 피드백 시간에 연습했다.) 이 날 오후에는 대원들과 목사





님 모두 대천 해수욕장에 갔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들을 위한 목사  
 님의 배려였다. 그곳에서 재밌게 놀면서 팀워크도 다졌다. 그리고 월요  
 일에는 근처 학교로 홍보를 나갔는데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아이들을  
 만나기 힘들었다. 아이들은 방과 후 수업이 끝나면 전부 부모님 차를 타  
 고 집으로 갔기 때문이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동네 한 바퀴를 돌면서  
 아이들 목소리가 나는 집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홍보를 나갔다. 드디어  
 본격적으로 성경 학교를 시작하는 화요일이 되었다. 모두들 많아야 5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었지만 첫날 9명가량의 아이들이 성경학교를 방문  
 했다. 처음이라 어색해하는 아이들을 위해 대원들은 친해지기 위한 노  
 력을 계속했다. 천지창조 이야기를 듣고 소그룹으로 흩어져서 노래도  
 하고 만들기도 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후 아이들과 준비했던 게임을 하  
 면서 많이 친해졌다. 그렇게 성경학교의 첫째 날이 끝나고 대원들이 다  
 같이 모여 첫 날 소감과 각자의 장점을 칭찬해주는 시간을 가졌다. 처음  
 에는 다들 쑥스러워했지만 나중에는 서로의 마음을 좀 더 진솔하게 알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성경학교는 계획보다 더욱 착착 진행  
 되었지만 30명 정도의 아이들을 예상하고 준비를 했었기에 약간의 실  
 망감과 교회에 대한 미안함이 있었다. 그래서 목요일 저녁 피드백에서  
 금요일 저녁에 찬양예배 순서를 준비해보자고 제안을 했고 아이들은 군  
 소리 없이 따라와 주었다. 목요일 새벽 늦게까지 찬양을 준비하고 금요  
 일 저녁이 되었다. 교인 분들 대부분이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셨기 때  
 문에 이러한 찬양예배를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걱정이 되었다. 노래 중  
 간 중간 신앙을 하지 않는 대원들에게 성경 절을 읽게 하고 간증을 하게  
 했다. 순서를 진행하는 대원들과 앉아서 들으시던 교인들의 눈시울이



붙어졌다.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보다 신앙을 하지 않던 대원들에게 이러한 순서를 맡긴 것이 더욱 뿌듯해지는 순간이었다. 어르신들은 연신 '아멘'을 외쳐주시며 호응해 주셨고 감동적이고 열정적인 분위기속에서 찬양예배가 끝났다. 그리고 봉사대 마지막 날인 안식일이 되었다. 일주일간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율동과 천지창조 이야기를 안교시간에 발표하게 되었다. 연습 때 만해도 어수선하고 말도 안 듣던 아이들이 막상 단상에 올라서니 너무도 잘 해주었다. 수고한 아이들을 위해 달란트 시장을 열어주었고 아이들은 굉장히 신나했다. 다 같이 모여 마지막 사진을 찍으면서 마무리를 하고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를 탔다.

그 동안 봉사대를 여러 번 다녀와 봤지만 이번 봉사대는 사실 더 특별했다. 중간에 봉사대장을 맡아서 혼자 스트레스를 계속 받았다. 중간에 그만 둘까도 계속 생각했었다. 대원일 때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데 막상 시키는 입장이 되 보니 신경 써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계속해서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 의지를 했다. 그랬더니 준비도 잘되고 봉사대 가서도(어려움이 있긴 했지만) 상상 이상으로 더 좋은 결과가 따랐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내가 봉사대장을 맡게 된 것도 어쩌면 하나님의 뜻이 계셨던 것 같다. 이번 봉사는 그 누구보다도 나를 더욱 성장 시킨 계기가 되었다. 정말 만족스러운 봉사활동이었기에 모든 것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 | 대원소감문 |



김시애 | 간호학과 1학년  
유년부 교사

## “특별했던 대천에서의 일주일”

‘여름성경학교 하기봉사대’ 서울삼육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졸업했던 나에겐 익숙한 단어였고 이미 두 세 번 정도의 봉사대 경험이 있던 지라 망설임 없이 하기봉사대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시작은 순탄치 않았다. 예상보다 빠르게 봉사대 지원자 인원이 마감되었기 때문에 조금 느지막이 신청한 나는 봉사대에 참석하지 못하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당시 허탈한 기분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까, 갑자기 봉사대 중 한 명이 사정이 생겨 함께 갈 수 없어서 내가 대신 가 줄 수 있겠냐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그렇게 봉사대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그 뒤 출발 2주 전부터 진행된 연습을 거친 뒤 봉사할 곳으로 떠나게 되었다.

우리가 가게 될 교회 이름은 ‘대천 남곡교회’. 대천이라고 하면 보령 머드축제와 대천 해수욕장밖에 몰랐던 나는 그런 곳에 교회가 있다니 어떤 교회일까 무척 궁금해졌다. 부푼 마음을 안고 대천까지 가는 길도 역시 순탄치 않았다. 용산에서 열차를 타고 갔는데 중간에 기관차 고장으로 무려 1시간 24분이 연착되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막히지 않는다고 해도 적어도 3시간은 걸리는 긴 여정인데 그 시간에서 1시간 이상을 더 보태 열차 안에서 앉아만 있던 것을 떠올리니 아직도 숨이 턱턱 막히고 엉덩이가 아려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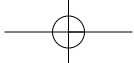


다. 하지만 그 연락으로 인해 우리는 코레일로부터 약간의 보상금을 환급받을 수 있었고, 출발 전부터 항상 문제였던 예산문제의 숨통을 작게나마 트여주었다. 그렇게 힘겹게 교회에 도착한 뒤 우리는 잠이 들었다.

남곡교회는 예상대로 자그마한 교회였다. 여자들은 교회 식당에서 숙식을 해결했고, 남자들은 교회 예배당 다락방에 위치한 자모반에서 잠을 잤다. 교회에 도착한 다음 날 우리는 본격적으로 교회 예배당을 꾸몄다. 풍선도 불고 색종이도 잘라서 벽에 붙이면서 다음 날 아이들이 많이 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에 부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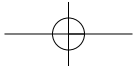
하지만 그 다음날 아이들을 데리러 밖으로 나가 아이들을 모집할 때, 대천 내에 아이들 자체가 얼마 없다는 것과 그 얼마 없는 아이들도 학원 때문에 바쁘다는 사실이 우리들의 발목을 잡았다. 내리쬐는 햇볕 아래 아이들에게 전해 줄 사탕과 전단지를 들고 설레는 맘으로 아이들을 찾아 나섰던 우리 대원들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 그 와중에 성경학교 첫째 날이 밝아왔고, 기존에 교회를 다니던 아이들이 찾아왔다. 아주 어린 아기까지 해서 약 8명 정도의 인원이었다. 우리 봉사대원이 11명이었는데 교사가 아이들보다 많았던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내 이 아이들에게 감사하게 되었다. 비록 얼마 되지 않는 아이들이었지만 모두 천사와 같은 순수함과 선생님들을 향한 애정을 품고 점차 마음을 열어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덥혀 주었다.

어린아이들이 많아서 과연 잘 따라와 줄까 하는 걱정과 달리 매일 울동과 찬양을 따라 해 주었고, 우리가 준비한 부족한 예산으로 짜여서 조금 부실해 보일 수 있는 보잘 것 없는 간식을 맛있게 먹어주고 아이들 모두 선생님들을 진심으로 따랐다. 또 마지막 안식일에는 걱정했던 아



이들의 안교순서도 훌륭하게 해 내 주었다. 처음에는 내가 봉사를 베푸는 생각으로 왔던 곳이었지만 나중엔 아이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봉사를 베푸는 느낌이 들었다. 그렇게 마음이 따뜻하고 즐거웠던 일주일 후딱 지나고 나와 우리 봉사대원들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귀중한 경험을 가슴에 새기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별 기대 없이 왔던 봉사대였지만 특별한 경험들을 마음에 품고 돌아갈 수 있어서 행복한 일주일이었다.

1 (우)한익과(Brant) 1



## | 대원소감문 |



신서라 | 간호학과 2학년  
유년부 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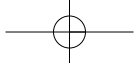
### “대천을 다녀와서”

저는 1학년 때부터 모든 방학 기간에 봉사활동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1학년 때 신청한 간호학과 봉사대는 잘 알지 못하고 신청한 세이교회의 봉사기간과 겹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봉사대를 다녀왔지만 제 성적에는 에프가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학 때는 망친 성적을 회복하고자 봉사대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방학이 시작하자마자 아르바이트에만 전념하던 저는 아르바이트가 끝나고 가는 봉사대가 무척이나 싫었습니다. 성적 때문에 억지로 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얼른 쉬고 싶은데 봉사대라는 일정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핑계로 준비기간에 제대로 참석한 적이 몇 번 없는 것 같습니다. 집에서 거의 두 시간 걸리는 학교에 갔다가 다시 아르바이트를 하러 돌아오는 것이 너무나 귀찮았습니다. 처음부터 이런 마음으로 시작된 봉사대는 저에게 짐으로 밖에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대천남곡교회에서 어린이성경학교의 교사로 활동하는 봉사를 맡았습니다. 화요일부터 시작되는 성경학교를 위해 토요일에 저희는 기차를 타고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중간에 기차가 한 시간씩이나 연착이 되어 그것도 짜증이 났지만 봉사대 연습을 제대로 참석하지 않은 저로서는 그냥 시간이 빨





리 흐르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성경학교가 시작되기 전 월요일 까지만 해도 시계만 쳐다보던 저는 화요일 아이들은 만나는 순간 제 얼어있던 마음은 모두 녹아버렸습니다. 조그만 장난에도 환하게 웃어주는 아이들의 미소를 보는 저의 마음은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피곤한 일이라고만 생각했던 봉사가 아르바이트를 마친 저에게 오히려 휴식이 될 줄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매일 아이들을 위해 새벽까지 준비를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리허설을 해도 몸이 피곤할지언정 마음만은 늘 즐거웠습니다. 제가 왜 봉사대를 오기 전까지 아니 와서 까지 그렇게 짜증을 냈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었고 첫 날 저의 바람대로 시간은 화살처럼 지나가 버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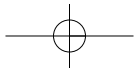
지금도 신서라 선생님 이라고 이름을 외우며 미소 짓던 산이의 얼굴이 아른아른 거리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좋았던 점은 간호학과는 학과 특성상 선후배 간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습니다. 저희 봉사 팀이 간호학과만으로 이루어진 팀이어서 저는 후배들이 나를 불편해할까 걱정이 많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후배들이 너무나 선배를 어



려워하고 마음을 놓고 뭔가 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그냥 저의 존재 자체가 미안했습니다. 그러나 먼저 말을 걸어주고 똑같은 일



을 하고 선배와 후배가 아닌 친한 언니 누나처럼 다가가자 후배들도 이제는 간호학과 선배가 아닌 친한 누나 언니처럼 저를 대해주어서 너무나 기분이 좋았습니다. 저는 먼 거리에서 통학을 하기 때문에 학과 후배들과 친해질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서로에 대해 많이 알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저는 봉사대 기간 내내 아이들과 즐겁고 후배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서 짜증만 내고 참석한 봉사라기에 얻어간 것이 너무나 많은 기간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봉사의 삶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간호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봉사기간을 통해서 두 가지를 다짐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미리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봉사대를 억지로 왔지만 와서는 행복했던 것처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기대만 하기로 다짐했고 뭐든지 어떤 상황이던지 기쁘게 받아들이기로 다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봉사를 위해서는 봉사자는 많은 준비와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앞으로 남은 2년 반 동안 환자를 돌보기 위한 준비를 열심히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일주일 내에 깨닫게 되어 너무나 감사한 기간이었습니다.

교회에서 주신 과일과 채소들 덕분에 부족한 예산이었지만 밥은 굶지 않아서 또한 감사했고, 고생한 후배들에게 간식하나 제대로 먹이지 못해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불평하지 않고 잘 따라 와준 후배들에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 물리치료학과(GATE)

팀 명	GATE 무안봉사대	주최학과/부서	물리치료학과
지도교수	이병희	학생대표	이현석
봉사지역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용포리	활동기간	2012.7.29 ~ 8.4
파견인원	지도교수 : 1명, 대장 : 1명, 대원 : 10명, 기타 : 2명		
협력 및 후원기관	용포리 마을회관	주소/연락처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용포리
봉사영역	물리치료 봉사 및 과학교실 운영	봉사대상자	물리치료: 마을 어르신 과학교실: 초중고등학생

### ▶ 팀 명단

No	이름	학과	학년	역할/담당	No	이름	학과	학년	역할/담당
지도교수	이병희	물리치료학과			대원7	최광옥	물리치료학과	2	의료
학생대표	이현석	물리치료학과	3	팀장	대원8	최진희	물리치료학과	2	식사/ 의료
대원2	신길호	물리치료학과	3	의료팀장	대원9	최지영	물리치료학과	2	식사 / 의료
대원3	손에스더	물리치료학과	3	사진	대원10	이정봉	대학원 음악학과		
대원4	박은비	물리치료학과	3	교육	대원11	이주원		초2	
대원5	손명희	물리치료학과	2	교육	대원12	이재원		초6	
대원6	김남열	물리치료학과	2	의료					

### ▶ 봉사 주요 활동내용 및 결과

No	활동영역	날짜	장소	내용	평가 및 의견	결과(참여인원)
1	의료봉사	7.29 ~ 8.4	무안	동네 어르신에게 초음파, 열, 전기, 마사지 등의 물리치료봉사	숙련돼있지는 않지만 열심히 정성을 다함.	매일 30여명
2	교육봉사	7.29 ~ 7.31	노원/ 무안	뼈와 근육의 심화교육과 혈액형 판정실험 및 물 로켓 만들기를 함	아이들이 집중하여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질문하고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음.	어린이 19명

▶ 봉사활동 운영 전반평가

매우인중음 1	인중음 2	보통 3	중음 4	매우중음 5	활동에 필요한 준비물은 바짐없이 준비됐는가?	1	2	3	4	5					
계획된 활동은 모두 실행했는가?					1	2	3	4	5	모두 건강하게 활동을 마무리했는가?	1	2	3	4	5
활동 목표는 달성했는가?					1	2	3	4	5	대원들 간에 문제없이 생활했는가?	1	2	3	4	5
활동영역		평가			활동영역		평가								
지도교수역할		봉사기간동안 학생들이 힘들지 않도록 매일 응원 해 주시고 물질적 지원도 아 끼지 않고 해 주셔서 학생들이 어려움 없이 봉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목포까지 차량봉사..			학생대표역할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팀원들의 도움으로 봉사대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었고, 특히 대원들도 맡은 일에 최선 을 다해주어 어려움 없이 봉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대원소양		봉사기간동안 대원들 간에 잘 협력하였고 아무런 문제없이 잘 생활하였습니다.			현지반응		어르신들이 물리치료를 너무 좋아하셨으며, 과학교실도 성공적이어 서 다음에 다시 와달라고 하심								
숙식 및 생활여건		어린이집을 하던 빈 집을 빌려 생활하여 조금은 불편하였지만 재미있는 추억을 많이 만들었던 것 같다.			활동지역 및 안전관련		활동지역은 시골이라 인심도 좋고... 할머니들이 많았으며, 안전상 문제는 전혀 없었음								
잘된점		시골이라 물리치료봉사가 매우 적합하였음			운영평가 및 애로사항		과학교실을 준비할 때 현지 학생들의 수준 파악 및 수요조사가 필요하였음								
개선(보완) 사항		과학교실을 준비할 때 현지 학생들의 수준 파악 및 수요조사가 필요하였음			총평		봉사대원들이 적극적으로 잘 참여 해 주었고 지도교수님들과 현지에 계신 분들께서도 지원을 아낌없이 해 주셔서 어려움 없이 봉사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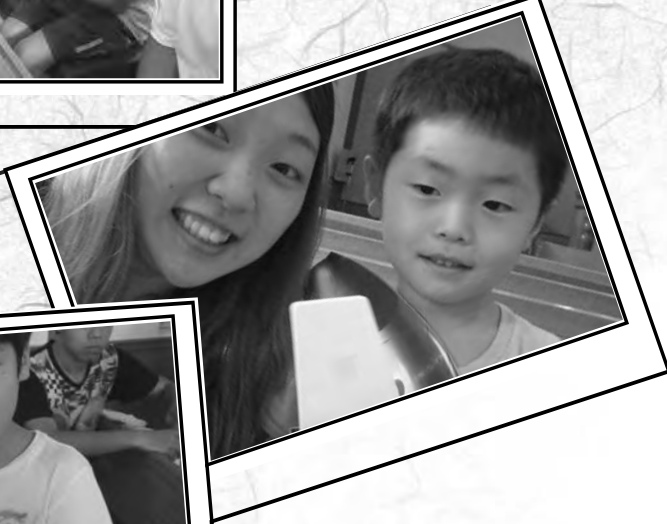
▶ 봉사활동 전체 일정표

일정	구분	활동내용	일정	구분	활동내용
7.29	오전	집합	7.31	오전	물리치료 준비 및 활동
	오후	인체과학교실 교육 및 출발		오후	물리치료 및 물로켓 만들기
7.30	오전	물리치료 준비 및 활동	8.1	오전	물리치료봉사
	오후	물리치료 및 과학실험교육		오후	물리치료봉사
8.2	오전	개인정비	8.4	오전	물리치료봉사
	오후	물리치료봉사		오후	물리치료봉사
8.3	오전	개인정비			
	오후	물리치료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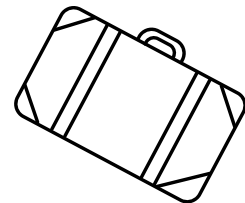
# PHOTO

▶ The pictures came out well.





# PHOTO



| 지도교수 소감문 |



물리치료학과 | 이병희

## “최고의 팀이 아니면 난... 봉사대 안가!”



인체 과학(근육의 기능과 역할)

우리 팀은... 지역주민 봉사활동을 의뢰해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용포리로 봉사활동을 가기로 결정하였다. 봉사지역이 결정된 후 현지 담당자와 여러 차례 전화로 용포리에 가장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여러 차례 의견 조율 끝에 마을 어르신을 위한 물리치료봉사와 마을 청소년을 위한 과학교실 등의 봉사활동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다. 총 12명

의 학생들이 모였으나 1-2명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봉사대를 취소하여... 대학생 10명과 우리 두 아들을 합하여 총 13명이 참여하였다.

우리 팀은... 7월 28일(토) 상계 3, 4동 어린이들을 위한 과학교실 운영, 29일(일) 노원구 어린이 26명을 위한 인체 과학 교실(우리 몸의 뼈와 근육 알기, 근육의 생리와 근력의 변화, 각 관절의 움직임과 보행, 심장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혈관계의 이해 등)을 마친 오후 6시쯤에 목포를 향하여 출발하였다. 생



각보다 일정이 많이 지체되었다. 휴가철인데 고속도로의 정체가 될 경우 언제 도착할지 몰라... 우선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컵라면으로 저녁을 대충 해결하고 일단 목표를 향해 출



인체 과학(근육의 기능과 역할)

발하였다. 호남 고속도로에 접어들어... 겨우 한숨을 돌리며 휴게소를 향하였다. 간단히 저녁식사와 간식거리를 구입한 후 다시 목표를 향해 달리다보니... 자정이 조금 넘어 삼향읍에 도착하였다. 우리가 거할 숙소는... 어린이집을 하다가 지금은 그만둔 낡은 집에 거하게 되었다. 1박 2일 체험도 아니고, 과연 우리 학생들이 이런 곳에 살아본 적이 있을까 걱정이 되었다. 아니나 다를까... 학생들이 폐가 체험이란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서로 다른 환경이지만 곱게 자란 학생들이 지도교수를 잘못 만나 고생한 이야기...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무척 재미있고 보람된 하루하루의 생활이었다.

우리의 일과는 아침 7시에 기상하여 8시에 아침조회 및 아침식사를 한 후, 9시까지 마을회관으로 이동하였다. 햇살이 따갑지 않은 이른 아침에는 어르신들이 밭에 나가셔서 10시경이 되어야 마을회관으로 모이신다. 우리들은 마을회관에서 어르신들이 오시기만을 기다리다... 한분 두분 마을회관으로 모이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물리치료 봉사를 시작하였다. 물리치료는 고학년 학생이 할머니를 간단히 상담한 후 저학년 학생에게 배정을 한다. 이때 고학년 학생은 자신이 아는 범위 안에서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



고, 바로 옆에서 치료를 하다가 언제든지 후배가 문의하면 친절하게 가르쳐주었다. 기본적으로 전기 핫팩, 경피신경자극치료기(TENS), 초음파를 실시한 후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가르쳐 드렸다. 또한 어르신들의 상태에 따라 공기압치료기, 파라핀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물리치료는 오후 6시까지 계속되었다.



물리치료 봉사 활동

이른 아침부터 피곤하게 일한 마을 주민을 위하여 온열치료, 전기치료와 운동치료 및 마사지 등을 통하여 동네 주민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우리를 보기 위해 하루에 2-3번이나 오시는 할머니도 계시다. 우리 용포리 스타가 되었다. 할머니들이 살아온 삶을 가늠할 수 있는 거친 손으로 쥐고 오신 옥수수과 감자... 그리고 다 녹아서 먹을 수 없는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주스를 먹어보지 않은 자와는 할머니들의 삶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이다.



과학 실험 (움직이는 플로버)

오후에는 대원들이 2개의 팀으로 나누어진다. 1팀은 오전과 동일하게 물리치료 봉사를 실시하고, 다른 한 팀은 과학교실을 운영한다. 과학교실에는 초중고생 19명 정도가 참석하

였으며, 혈액형검사, 움직이는 플로버, 물로켓 등의 실험을 하였다. 물로켓의 경우 많은 시간을 들여 완성하였는데... 발사대가 불안정하여 성공적인 발사가 되지 않아서 아쉬웠다.

1주일간의 무안에서의 물리치료 봉사활동. 부모를 떠나 시골에 처음 와본 학생... 10년 만에 바다를 처음 본 학생, 바다 계를 처음 만져본 학



생... 폐가 체험을 한 학생 등... 이젠 추억의 한 장면이 되어 이 친구들이 눈에 선하다.

장소를 섭외해 주고 도와주신... 정훈선생님, 한신숙 선생님, 그리고 용포리 마을 이장님 이하 어르신들의 이해와 도움이 없었다면 이런 멋진 친구들과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지 못했을 것이다. 함께 해 주신 모든 분에게 서면으로나마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우리가 가서 한 것이라고는 손을 잡아주고, 할머니들과 사진을 찍고 온 것 밖에 없는 것 같은데... 마을 어르신들에게 손자 손녀와 같은 대접을 받고 온 것 같다. 일주일의 봉사를 통하여 학교에 배운 전공 지식과 각 개인의 역량 안에서 용포리 어르신들과 소통함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의 일부분을 경험하고 왔다. 이제 우리 대원 모두는 세상을 향한 진리와 사랑의 봉사자로서 살아가고자 한다.



---

 | 학생대표 소감문 |

이현석 | 물리치료학과 3학년  
팀장

## “국내봉사 다시 한 번”

안녕하십니까. 삼육대학교 물리치료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고, 지금은 GATE팀 학생대표로 활동 중인 이현석 이라고 합니다. 저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 국내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는 충남금산으로 대학생살을 한 후, 첫 봉사활동이었습니다. 그 때 봉사하면서 느꼈던, 감동을 잊지 못하여, 올해에도 다시 국내봉사를 시작하였습니다.

맨 처음으로 하게 된 것은 노원영어과학센터에서 주최한 인체과학교육봉사였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에게 인체 중에서 뼈와 근육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간단히 교육한 후, 네 그룹으로 나뉘어 순환, 근력, 기립근력, 보행과 같은 세부적인 부분으로 나뉘어 교육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교육하면서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을 학교에 있는 최첨단 장비를 이용하여 교육하는 것을 보면서 신기해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마치고 보람을 느끼면서 우리 팀은 본래 목표였던 목포 무안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늦은 시간에 출발을 하고 워낙 거리가 멀었던 터라 결국 자정이 돼서야 숙소에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늦은 밤 숙소에서 짐을 풀고, 대충 씻은 후 그 날은 그렇게 잠을 청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우리의 일정이 시작되었는데, 우리가 지내는 숙소와 멀지 않은 곳의 계두마을회관에서 의료봉사를 시작하





였습니다. 전기치료, 초음파치료, 온열치료, 마사지로 구성된 4가지의 물리치료를 하였습니다. 치료를 하면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사투리를 구사하셔서 이야기 도중 계속 되묻기도 했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전국이 아파”이러셨는데, “맨 처음에는 전국이 어디지?” 이랬는데, 전국이 아프다는 말이 온 몸 전체가 아프다는 뜻이었습니다. 의료봉사를 하면서 할머니들이 계속 쉬지 않고 먹을 것을 주셔서 배가 꺼질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봉사를 하면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오후에는 이제 그 마을에 있는 아이들과 함께 간단한 실험과 물로켓을 만들었습니다. 실험 시에는 상계동에서 했던 노하우를 가지고 순조롭게 하였으며, 물로켓은 중학교 때 만들었던 경험을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물로켓 제작 후 발사대조립에 실패하면서 생각했던 물로켓이 물을 뿜으며 하늘로 날아가는 꿈이 정말 하늘로 날아가 버리게 되었습니다. 비록 물로켓은 실패하였지만, 아이들과 함께 무언가를 만든다는 것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며, 짧지만 행복했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봉사는 '하나님이나 교회와 이웃에 대한 사랑과 섬김의 행위'라고 정의합니다.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고 하신 적이 있는데 (막10:45)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일 외에도 이웃에게 봉사하는 것도 십계명의 정신이여 크리스찬의 할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봉사하며, 섬기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 | 대원소감문 |



신길호 | 물리치료학과 3학년  
의료팀장

## “바다와 가까운 목포에서의 추억..”

이번에도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봉사대를 다녀왔다. 과에서 만들어진 국내 및 해외 봉사대가 많이 있지만 이번에는 해외에 나가기보단 국내에서 봉사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국내봉사대를 선택하였다. 우리 팀은 총 12명의 물리치료학과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었고, 전라남도 목포로 목적지를 잡은 후 7월 29일 날 출발하였다. 마침 우리가 출발한 날부터 전국적으로 폭염이 시작되는 날이어서 고생이 심했다. 특히 인원에 비해서 비좁은 차 때문에 무더운 여름 날씨에 팀원들과 다닥다닥 붙어갈 수밖에 없었다. 비록 그 때는 그 찻집함에 짜증이 나기도 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재미있는 추억이 된 것 같고, 대원들끼리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기도 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도착한 곳은 전라남도 목포시 무안군의 영포리라는 시골이었다. 밤에 도착했는데 숙소는 예전에 어린이집으로 쓰였지만 이제는 문을 닫은 그런 건물이어서 마치 폐가처럼 으스스한 분위기가 풍겼다. 그래서 그런지 먼지도 많이 쌓여있었고, 화장실도 제대로 쓸 수 없는 그런 건물이었다. 남자인 나는 크게 상관하지는 않았지만, 여자 대원들은 화장실도 마음 놓고 쓰지 못하는 등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런 환경에서도 불평불만 없이 일주일 동안 잘 따라주고, 치료봉사 할 때에도 누



구하나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않았던 대원들에게 고마움을 느낀다.

우리는 숙소에서 차로 5분 정도 떨어진 계두마을이라는 곳의 마을회관에서 소규모로 물리치료 봉사를 하게 되었다. 가져갈 수 있는 장비가 제한되어 있어서 다양한 장비를 이용해서 치료 해드릴 수 없다는 것이 아쉬움에 남지만 오히려 한 분 한 분 직접 손으로 정성스럽게 만져드릴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기도 했다. 작은 마을이라서 그런지 어르신들이 많이 안계시기도 했고, 폭염 때문에 어르신들이 댁에서 나오지 않으셔서 사람이 많이 없었다. 덕분에 치료 받았던 분들이 또 받으시기도 했고, 한 분 한 분과 얘기를 많이 나누면서 더욱 정성스럽게 치료 할 수 있었다. 솔직히 우리는 아직 물리치료사도 아니고 단지 학생일 뿐이다. 그런데도 우리가 치료해 드릴 때마다 어르신들께서 너무 큰 반응을 해주셔서 사실 좀 민망하기도 했다. “원래는 밤에 잘 때가가 허리가 쑤시고, 무릎이 쑤시고, 전국적으로 아팠었는데 여기서 학생들한테 치료받고 가니 밤에 아프지도 않고 잠도 푹 자고 왔어~” 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제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것들 하나하나에 사람의 정을 느껴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했고, 비록 내가 하는 것은 별거 아니지만 다른 방식으로나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었다.

그리고 역시나 시골이라 그런지 어르신들의 정을 느낄 수도 있었는데 오실 때마다 아이스크림이면 아이스크림, 옥수수면 옥수수 같은 것들을 가져오셔서 우리에게 주셨다. 한 번은 봉사 때문에 고생하러 왔으며 점심식사로 닭을 몇 마리 잡으셔서 닭죽을 끓여주시기도 했다. 어르신들 덕분에 오히려 집에서보다 더 많이, 잘 먹은 것 같아서 감사했다. 한편으로는 치료는 잠깐 한 시간 정도 해드렸는데 점심 준비 하신다고





는 다시 벌떡 일어나셔서 두 시간 동안 준비하시는 모습에 죄송스럽기도 했다. 이번 봉사활동을 별로 안 친했던 후배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친해질 수 있는 기회라서 좋았고, 내가 배우고 있는 물리치료라는 전공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내 전공에 대한 더 큰 확신이 들었다. 무엇보다도 봉사하면서 몸은 힘들었지만 다 끝나친 후에 느끼는 그 뿌듯함은 참 기분 좋은 일인 것 같다. 다음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또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다.



| 대원소감문 |

| 물리치료학과(GATE) |

박은비 | 물리치료학과 3학년  
의료봉사, 물로켓 제작

## “봉사활동을 다녀와서”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우리 물리치료학과 학생들은 편찮으신 노인 분들께 의료봉사를 하기 위하여 7박 8일간 목포에서 국내봉사를 가지도록 하였다. 우리 과 학생 9명과 이병희 교수님 가족 분들을 포함하여 총 13명이 함께 했다.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치료의 목적으로 봉사를 해본 적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적지 않은 부담감과 책임감도 따랐지만 반대로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들뜨기도 했다.

목포로 가기 전 우선 1시까지 삼육대학교에서 집합을 한 이후 우리는 초등학생들과 중학생들에게 인체에 대해 체험할 수 있는 과학캠프를 실시하도록 했다. 파워포인트로 뼈와 근육에 관련된 근골격계에 대해 쉽게 설명을 해주고 혈압 실습, MMT(Manual Muscle Test), 3D Newton, Gait Rite(보행분석)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어린 아이들의 호기심 많아하던 표정과 푹뭉뭉망 빛나던 눈동자들을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5시까지 과학캠프를 한 후 간단하게 컵라면을 먹은 다음 6시쯤 목포를 향하여 출발했다. 5시간을 넘도록 차안에서 지내야 해서 불편했지만 ‘목포’란 곳에 처음 와봤기 때문에 설레었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전라남도 무안군인데 주변에는 논밭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첫째



날은 바로 취침한 후 다음 날부터 마을회관에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함께 보냈다. 워낙 조용한 산골이라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이 온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좋아하셨고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잘해주셨다. 한 가지 불편한 점은 날씨가 굉장히 더웠기 때문에 짧은 시간 이동할 때조차 머리통이 너무 뜨겁고 등줄기에 땀이 흘러내렸다. 그렇지만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이 더운 날 불편하신 몸을 이끌고 찾아와주신 할머니들을 생각하면 의욕이 넘쳐났다. 우선 편찮으신 곳이 어디냐고 여쭙본 후 아픈 곳을 집중적으로 핫팩으로 마사지를 해드린 후 tens라는 기구를 이용하여 전기 자극치료를 실시했다. 3차적으로 ultra sound로 초음파 치료를 해드렸다. 주로 어깨, 무릎, 발바닥과 관련된 발목주위의 고통을 많이 호소하셨다. 하체를 중심으로 공기압 마사지를 할 수 있는 기구도 사용했다. 이 외에도 손이나 발 같은 곳을 주물러 드려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시골의 어린 학생들에게 물로켓을 만들어서 날리는 창작 과학 활동을 갖도록 했다. 초등학생, 중학생을 포함한 총 10명의 학생들과 함께 삼향교회에 모여 페트병을 이용한 물로켓을 만들기에 성공했다. 아이들은 굉장히 신기해했고 우리는 아이들이 가지고 놀 수 있도록 물로켓과 발사대를 주고 왔다.

7박 8일 동안 크나큰 변화 없이 주로 마을회관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치료사가 되어주는 동시에 말동무가 되어드리는 정겨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처음이라 서투른 점도 많았지만 뜻 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할머니들과 함께 보내면서 물리치료사라는 직업이 굉장히 보람찬 직업이라는 것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다.



## | 대원소감문 |

최지영 | 물리치료학과 2학년  
의료/교육

### “봉사대를 다녀와서”

2012년 7월 29일부터 8월 4일까지 이병희 교수님의 지도 아래 물리치료학과 학생 9명은 전라남도 무안에 있는 한 마을로 국내봉사를 다녀왔습니다.

7월 29일, 첫 번째 날은 학교에 오후 1시까지 모여 국내봉사를 떠날 준비와 과학캠프 준비를 하였습니다. 노원 영어과학교육센터 학생들이 방문해서 저희들은 과학캠프를 진행하였습니다. 처음엔 전체적인 설명을 학생들에게 해준 후 약 24명의 학생들을 4팀으로 나누어서 약 2시간동안(15시~17시) 진행하였습니다. 과학캠프를 마친 후 서둘러 목포로 떠나서 오후 11시 쯤 숙소로 도착해서 첫째 날은 짐정리를 한 후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날부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마을의 마을회관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을 위해 말동무도 해드리고 불편하신 곳은 물리치료와 마사지도 해드렸습니다. 오후 시간부터는 두 팀으로 나누어 한 팀은 마을회관에서 의료봉사를 하고 한 팀은 교회에서 학생들을 위해 과학 캠프를 진행하였습니다.

7월 30일 오후에는 과학캠프를 위해 교회로 갔는데 생각보다 학생들이 많이 참여해주어서 고마웠습니다. 첫 번째 과학캠프 때는 혈액형 검사와 철가루 플러버 만들기를 진행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아직 어

러서 혈액형 검사하는 것을 바늘로 손 곳을 찔러 피가 나오게 해야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지만 한두 명 다른 친구들이 실험하는 것을 보고 흥미가 생기고 호기심을 가지며 모두 실험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험 결과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고 뿌듯함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철가루 플러버를 만드는 시간에는 쉽고 재밌게 모두 즐기는 시간이 되어서 좋았습니다.

7월 31일 과학캠프 시간에는 물로켓 만들기를 하였는데 이 날 역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 주었습니다. 발사대 때문에 물로켓을 제대로 날려보지는 못해 다들 아쉬워했지만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고 학생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이여서 아쉬웠습니다.

31일부터는 의료봉사시간을 오후 6시까지로 늘리기를 부탁하셔서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을 위해서 치료해드렸습니다. 아직 이번이 처음해





보는 의료봉사였기 때문에 치료적인 부분에서는 부족했지만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저희를 믿고 맡겨주시고 편하게 해주셔서 저희도 편하게 치료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치료기기도 부족하고 더 섬세하게 치료해드리지 못해 아쉬운 점도 많았지만 작은 것에도 고마워해주셔서 감사하고 뿌듯했습니다. 저희는 별로 해드린 게 없는 것 같지만 작은 것에도 감사해 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을 보면서 시골에 계신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도 생각나게 되는 일주일이었고, 일주일 내내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이 손주, 손녀처럼 따뜻하게 해주셔서 깊은 정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간 국내봉사였는데 정말 즐겁고 뜻 깊은 시간이 된 것 같아 앞으로도 국내봉사나 해외봉사에 매번 참여하고 싶어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흘러 보낼 수 있었던 여름방학을 국내봉사 시간을 통해서 기억에 남게 된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 약학과

팀명	삼육대학교 약학대학 가평 봉사대	주최학과/부서	약학대학
지도교수	강진양, 강태진	학생대표	김대현
봉사지역	경기도 가평	활동기간	2012.7.30 ~ 8.10
파견인원	지도교수 : 2명, 대장 : 1명, 대원 : 9명		
협력 및 후원기관	삼육대학교 약학대학	주소/연락처	
봉사영역	교육	봉사대상자	초등학생, 중학생

### ▶ 팀 명단

No	이름	학과	학년	역할/담당	No	이름	학과	학년	역할/담당
지도교수	강진양	약학과			지도교수	강태진	약학과		
학생대표	김대현	약학과	4	선생	대원6	권기쁨	약학과	1	선생
대원2	고승진	약학과	1	총무	대원7	이수연	약학과	1	선생
대원3	강영우	약학과	4	선생	대원8	김연화	약학과	1	선생
대원4	김준혁	약학과	1	선생	대원9	박준희	약학과	1	선생
대원5	손모국	약학과	1	선생	대원10	김지나	약학과	1	선생

### ▶ 봉사주요 활동내용 및 결과

No	활동영역	날짜	장소	내용	평가 및 의견	결과(참여인원)
1	교육 봉사	7.30 ~ 8.3	가평	초등학생 수학과외 (오전) 중학생 수학과외 (저녁)	효율적이고 헌신적인 자세로 봉사를 함	대원: 4명
2	교육 봉사	8.6 ~ 8.10	가평	초등학생 수학과외 (오전) 중학생 수학과외 (저녁)	경험자들을 바탕으로한 전문적이고 헌신적인 자세로 봉사를 함	대원: 5명

▶ 봉사활동 운영 전반평가

매우인중음 1	인중음 2	보통 3	중음 4	매우중음 5	활동에 필요한 준비물은 바짐없이 준비했는가?	1	2	3	4	5					
계획된 활동은 모두 실행했는가?					1	2	3	4	5	모두 건강하게 활동을 마무리했는가?	1	2	3	4	5
활동 목표는 달성했는가?					1	2	3	4	5	대원들 간에 문제없이 생활했는가?	1	2	3	4	5
활동영역		평가			활동영역	평가									
지도교수역할	학생대원들에게 필요한 소양과 자세에 대한 조언은 물론 생필품 등을 적재적 소로 준비하였다.				학생대표역할	학생대원들이 봉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학생대원소양	기쁘고 효율적이고 전문적이며 헌신적 인 자세로 봉사에 임하였다.				현지반응	학생들과 학부모의 학업성취도가 높았 다.									
숙식 및 생활여건	쾌적한 숙소에서 지낼 수 있었다.				활동지역 및 안전관련	안전에 대한 확고한 의식덕분에 무사히 봉사활동을 마칠 수 있었다.									
잘된점	학생대원들의 풍부한 경험으로 교육과 봉사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				운영평가 및 애로사항	봉사활동 일정상 식사를 해먹을 시간이 없어 대부분 외식으로 해결하여 지출이 많았다.									
개선(보완) 사항	불가피한 외식 지출이 많아 학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지 못했다.				총평	전체적으로 즐겁고 활기찬 분위기속 에서 보람차게 봉사활동을 마무리 하였 다.									



▶ 봉사활동 전체 일정표

일정	구분	활동내용	일정	구분	활동내용
7/29	저녁	도착	8/5	저녁	도착
7/30	오전	초등학생 과외	8/6	오전	초등학생 과외
	오후	수업준비		오후	수업준비
	저녁	고등학생 과외		저녁	고등학생 과외
7/31	오전	초등학생 과외	8/7	오전	초등학생 과외
	오후	수업준비		오후	수업준비
	저녁	고등학생 과외		저녁	고등학생 과외
8/1	오전	초등학생 과외	8/8	오전	초등학생 과외
	오후	수업준비		오후	수업준비
	저녁	고등학생 과외		저녁	고등학생 과외
8/2	오전	초등학생 과외	8/9	오전	초등학생 과외
	오후	수업준비		오후	수업준비
	저녁	고등학생 과외		저녁	고등학생 과외
8/3	오전	초등학생 과외	8/10	오전	초등학생 과외
	오후	해산		오후	해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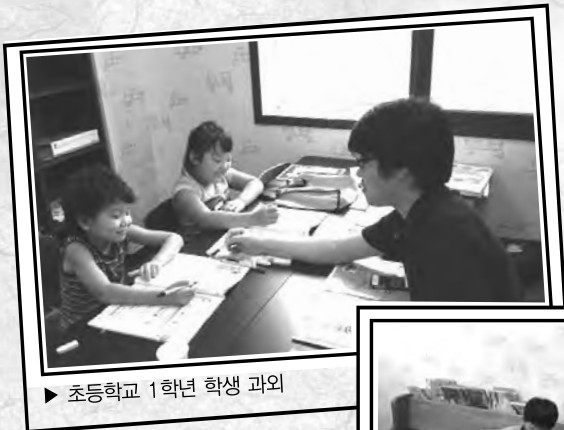






# PHOTO

▶ The pictures came out well.



▶ 초등학교 1학년 학생 과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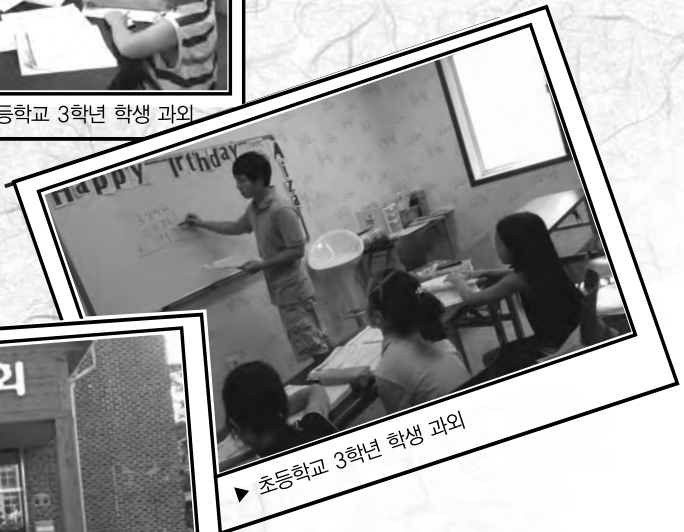
▶ 초등학교 4학년 학생 과외



▶ 초등학교 3학년 학생 과외



▶ 초등학교 3학년 학생 과외



▶ 초등학교 3학년 학생 과외



▶ 저녁 중등 1팀 단체 사진

## SAY 1

팀 명	SAY 1	주최학과/부서	SAY
지도교수	김영문, 차민경	학생대표	이우림
봉사지역	영남삼육중,고등학교	활동기간	2012.7.06.~ 7.14
파견인원	지도교수 : 2명, 대장 : 1명, 대원 : 18명		
협력 및 후원기관	-	주소/연락처	-
봉사영역	선교봉사	봉사대상자	영남삼육 중, 고등학교 학생

### ▶ 팀 명단

No	이름	학과	학년	역할/담당	No	이름	학과	학년	역할/담당
지도교수	김영문	음악학과			지도교수	차민경	환경그린디자인		
학생대표	이우림	간호	4	대장	대원11	백아름	유교	1	
대원2	정성민	신학	4	전도사	대원12	서민지	보건	2	
대원3	홍바다	중국어	4	총무	대원13	윤요한	사복	3	
대원4	박정연	음악	2	서기	대원14	윤종현	경영	1	
대원5	장시운	상담	3		대원15	은재현	영문	3	
대원6	강수련	간호	2		대원16	정제원	물치	2	
대원7	김예찬	간호	1		대원17	조미정	상담	4	
대원8	문지수	간호	1		대원18	조성배	물치	2	
대원9	민태욱	컴과	1						
대원10	김의민	건축	1						

### ▶ 봉사 주요 활동내용 및 결과

No	활동영역	날짜	장소	내용	평가 및 의견	결과(참여인원)
1	선교봉사 - 새벽 기도	06:00 07:00	다사랑 교회	새벽마다 모여 말씀묵상을 하였다.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의가 있다.	대원: 19명 학생: 50~60명
2	- 침례 반공부	7:40~8:10	대강당	미리 신청한 학생들 중심으로 성경공부를 진행하였다.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모였고 실제 결심자들도 있었다.	학생들 60여명
3	- 종교 수업	총 15학급 (중고포함)	대강당	한 학급당 한 시간씩 종교 수업에 들어가 소그룹으로 진행하였다.	전교생을 종교수업으로 한번 이상씩 접촉할 수 있었다.	전교생

No	활동영역	날짜	장소	내용	평가 및 의견	결과(참여인원)
4	- 기도 주일	11:00 ~ 12:00	대강당	경배와 찬양을 같이 진행하였다.	기존에 있었던 경배와 찬양팀을 더욱 훈련시키는데 의의가 있다.	경배와 찬양팀 10명
5	기숙사 전도회	18:00 ~ 17:00	기숙사	소그룹별로 들어가서 성경공부를 하였다.	기숙사 친구들과 더 친밀하고 깊은 이야기를 할 기회였다.	기숙사생 350명

▶ 동시활동 운영 전반평가

매우안 좋음 1	안 좋음 2	보통 3	중음 4	매우중음 5	활동에 필요한 준비물은 바짐없이 준비됐는가?	1	2	3	4	5					
계획된 활동은 모두 실행했는가?					1	2	3	4	5	모두 건강하게 활동을 마무리했는가?	1	2	3	4	5
활동 목표는 달성했는가?					1	2	3	4	5	대원들 간에 문제없이 생활했는가?	1	2	3	4	5
활동영역	평가				활동영역	평가									
지도교수역할	기도주일 강사와 대원들 지도해주셨다. 두 지도교수님 모두 최고였다.				학생대표역할	대원들의 스케줄 정리와 학교와의 의견조율 및 전체 일정 관리									
학생대원소양	갖춰진 기본소양이 부족한 면도 있지만 기도하면서 열정을 다하는 모습으로 모두가 각기 충분히 역할을 다하였다.				현지반응	처음에는 이전에 다녀간 SAY팀과 비교하였지만 마지막에는 이전 팀보다 더 많이 정들 것 같다고 하였다.									
숙식 및 생활여건	학생들과 기숙사를 같이 사용하며 더욱 친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좋았다.				활동지역 및 안전관련	학교가 인근지역과 독립된 곳이었기 때문에 특별한 안전문제는 없었다.									
잘된점	많은 씨앗을 뿌리고 또 열매들을 거둔 점이 잘되었다.				운영평가 및 애로사항	대원들이 충분한 휴식을 갖기가 어려워 후반기에는 많이 지쳤다.									
개선(보완) 사항	사전에 봉사대의 성격과 목적에 맞는 준비가 미흡하였다.				총평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 봉사활동 전체 일정표

일정	구분	활동내용	일정	구분	활동내용
7/6	오전	학교에서 출발	7/7	오전	안식일학교로 SAY팀이 연극
	오후	영남삼육에 도착 및 짐정리		오후	휴식 및 저녁에 기도회
7/8	오전	개인전도 준비	7/9	오전	새벽기도, 종교수업, 기도주일
	오후	개인전도법 준비 및 야간자습 끝난 학생들 응원		오후	개인성경공부, 기숙사 소그룹, 심야 기도회
7/10	오전	새벽기도, 종교수업, 기도주일	7/11	오전	새벽기도, 종교수업, 기도주일
	오후	개인성경공부, 기숙사 소그룹, 심야 기도회		오후	개인성경공부, 기숙사 소그룹, 심야 기도회
7/12	오전	새벽기도, 종교수업, 기도주일	7/13	오전	새벽기도, 종교수업, 기도주일
	오후	개인성경공부, 침례식		오후	안식일 학교 준비
7/14	오전	안식일 학교순서로 영남학생들과 같이 연극			
	오후	기도회 및 마지막 인사			



# PHOTO

▶ The pictures came out well.



▶ 침례식 이후 단체사진



▶ 침례 축하 영상 찍는 모습



▶ 개인성경공부



▶ 개인상담



▶ 침례식 이전



▶ 침례식 이후 목사님 말씀



# PHOTO



▶ 칠투식 이후 자유 사진촬영



▶ 기도주일 경배와 찬양



▶ 마지막 안식일학교 연극준비



▶ 모두 함께



▶ 대원들과 학생들의 기도



▶ 저녁마다 진행된 심야기도회의 모습



▶ 중학생 저녁 기도회





| 지도교수소감문 |



김영문

## “봉사대를 다녀와서”

‘19명의 침례자’

19명의 대원들의 헌신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연령대인 중, 고생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까? 고민하며 기도했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오는 영남 삼육에 대한 정보는 교인 비율이 매우 낮은 학교라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대원들이 처음 만나는 그들과 1주일 만에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습니다. 4시간의 긴 여행을 마치고 영남 삼육 교정에 들어서는 순간, 그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 교회 관계자들과 종교부 임원들이 나와 여자 대원들의 짐을 들어 주었습니다. 우리를 기다렸고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우리를 많이 기다렸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따뜻한 환대조차 우리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영남 삼육 봉사대의 일정표는 2주간의 제자훈련 기간으로 영적으로는 충만했지만 육적으로 지친 대



원들에게는 벽차 보이는 시간표였습니다. 6시-새벽기도회(말씀 묵상), 7시-식사, 7시 40분 ~ 8시 10분까지 종교부 임원 제자 훈련, 경찬팀 지도, 침례반 공부 그리고 1교시부터 일과가 마치는 시간까지 계속 이어지는 개인 상담 및 성경공부, 5시-6시 식사, 6시-7시 기숙사 소그룹 전도회, 7시-8시 세면, 8시-9시 봉사대 자체 기도회, 9시-9시 30분 중학교 심야 기도회, 10시-10시 30분 고등학교 심야 기도회, 그리고 내일 일정까지 준비하는 강행군이었습니다. 매일 밤 12시를 넘겨야 휴식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대원들 누구 하나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두가 틈만 나면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하나님께 올렸던 감동적이고 끊임없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이런 대원들의 헌신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은 하루가 더해갈수록 쌓여가는 성경공부자들의 수로 나타났습니다. 매일 우리 대원들이 만나는 학생들의 숫자가 100명을 넘어갔습니다. 드디어 침례식이 있는 목요일 19명의 귀중한 영혼들이 예수님을 평생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대원들이 19명의 어린 영혼들,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세대라고 하는 중, 고생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봉사대 활동이 끝나갈 무렵 '이제는 피를 나눈 형제만큼 가까워졌다.'는 어느 대원의 지나가는 말이 제 마음 속에 절절이 새겨집니다. 우리는 많은 헌신과 봉사를 하고 왔다고 생각했지만 이번 봉사는 오히려 우리 대원들의 생애에서 잊지 못할 은혜를 받는 기간이 되었습니다. 수고한 모든 봉사대원들에게 깊은 고마움을 전합니다. 특별히 같이 봉사대에 합류해서 불철주야 대원들을 지도한 차민경 목사님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귀한 축복의 기간 속에 저를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 | 대원소감문 |



이유림 | 간호학과 4학년  
대장

## “봉사대 소감문”

지금까지 참여한 수많은 봉사대 중에 이번만큼 힘들었던 봉사대는 없었다. 보통 지역교회로 나가면 성도님들의 사랑과 관심을 받으며 지내다 오는 반면에 이곳에서는 교목실의 압박에서 오는 부담감과 살인적인 스케줄로 나의 극한을 경험하는 시간이었다. 그러나 그만큼 기도하며 매달렸고 하나님 앞에 앞으로의 삶을 걸 정도로 간절히 임하였다.

결론을 미리 말하자면 작년에든 SAY가 와서 18명 침례를 주고 학교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던 부담 가운데 더욱 기도로 매달린 결과 하나님이 19명의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고, 마지막 날에는 중, 고등 학생 중 50명이 자원하여 학교를 위해 체계적인 훈련을 받아 SAY 언니, 오빠들의 사명을 지켜나가기로 결심하였다. 이 결과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다. 절대 우리 대원들이 잘나서 된 것이 없다. 작년에 SAY팀이 뿌려놓은 씨앗들이 열매 맺음과 동시에 대원들이 만나는 영혼들 마다 성령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 주셔서 결심하게 해주셨다. 또한 침례식이 목요일 저녁에 진행되는 터라 더욱 시간이 촉박하여 불가능해 보이는 조건이었지만 이런 가운데 더 확실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침례식 이후 시간은 마지막으로 학생들과 한 주간의 은혜를 토대로 금요일 밤늦게까지 연극을 준비





하였다. 이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처음으로 연극의 대본을 짜는 터라 막막하였지만 이번에 팀을 이끌어주신 두 분의 목사님 중에 차민경 목사님께 정말 성령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한 시간 만에 대본을 짜게 도와주셨다. 이렇게 연기에 열정인 영남삼육 친구들과 마지막으로 추억을 만들었고, 이후 안식일 오후시간에 마지막으로 그들과 시간을 보내며 다시 한 번 우리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을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만날 수 있었다. 아이들이 우리 대원들을 보며 얼마나 열광하던지.. 앞에 나가 몇몇 대원들이 찬양을 하는 모습이 마치 유명가수가 콘서트를 하는 모습을 연상케 하였다. 심지어 솔직히 정말 잘생기지도 않은 한 대원이 노래도 못하였는데..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으며 감동이라고 우는 친구가 있었다.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었는데 목사님이 이런 모습이 천국의 모습일 것이라고 하였다. 광적인 부분이 아닌 허물을 가리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만 말이다. 마지막으로 그곳에 모인 친구들 중심으로 우리의 사명을 전하며 영남삼육의 SAY로 남길 수 있었다. 이제 영남삼육은 새로운 출발을 한다. 이들과 함께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아 앞으로 영남을 다시 하나님의 학교로 세우고 회복할 수 있음을 확신한다.

## | 대원소감문 |



정성민 | 신학과 4학년  
전도사, 대원

## “제 2의 고향”

나는 충청도 출신이며 학교는 중학생 때부터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다. 경상도, 나에게 경상도는 너무나도 먼 곳이었고 어색한 곳이었다. 외국처럼 말이다. 그래서 군대 가기 전 잠깐 주말 가족여행지로 부산, 경상도를 다녀왔다.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다. 우연히도 나의 군 복무지는 경북 대구로 정해졌고, 내 인생의 잊지 못할 많은 경험과 추억들을 2년 동안 그 곳에서 보내게 되었다. 그렇게 끝날 줄 알았다. 그러나 그 후 매년 여름 또는 겨울마다 전도회를 경상도로 오게 되었다. 부산중앙교회, 대국국제 교회에 이어 영남 삼육 중고등학교에 가게 된 것이다.

중, 고등학교학교에 오는 만큼 다른 봉사대랑와는 굉장히 다른 차원의 봉사대였다. 우선 대원들도 참 많고 할 일도 참 많았다. 중, 고등학교 다 합쳐서 500명이나 되는 학생들을 우리가 만나야 했다. 20명 남짓한 우리가 500명을 감당한다면, 적어도 한명 당 20명 이상의 학생들을 일주일 동안 만나고 함께 하는 것이다. 그것을 책임져야 하는 사람으로서 이 친구들 모두를 이끌어야 한 다는 것이 정말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전도회와 봉사대를 다녀보았지만 이번처럼 시작하기도 전에 힘들게 느껴지는 것은 처음이었던 것 같다. 그래서 정말 많이 기도했다. 우선 내가 이 많은 학생들을 지도하고

이끌어야 할 위치의 사람이지만 그런 역량을 갖추지 못한 것을 인정하고 기도하게 되었다. 하나님 저는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감당해야 할 것은 너무나도 크지만 그것은 다 제 역량 밖입니다. 저에게 그런 능력을 한순간에 주실 수 없다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끌어 주세요. 처음에는 내가 무조건 다 해야 되는 것인 줄 알았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이끌고 지도해 주실 훌륭한 리더들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새삼 알게 해주셨다. 사실 우리와 함께 목사님이 계셨던 것이다.

김영문 목사님, 차민경 목사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셨다. 특별히 누군가는 리더로 나서서 아이들에게 동기유발 시켜주고 아이들을 이끌어 줬다. 나도 그랬지만 아이들에게도 큰 학교로 가는 것이 많은 부담으로 다가 간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도착한 첫날 우리는 목사님의 지도하에 특별한 기도회를 가졌다. 우선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를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묻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기도했을 때 우리가 왜 이곳에 다 함께 오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학교 캠퍼스로 나갔다. 중, 고등학교로서 작지 않은 캠퍼스인 영남 삼육을 돌기 시작했다. 이름하며 Prayer Marching. 이 캠퍼스에 발을 디디며 다닐 모든 학생들을 위해 정문부터 시작해서 학교의 모든 곳을 돌아다니며 기도했다. 정문을 붙잡고 무릎 꿇고 기도했다. 운동장 한가운데 가서 기도했다. 건물 외벽을 붙잡고 기도했다. 그리고 나서 지습이 끝나 나오는 친구들을 기다렸다가 한 명씩 말아서 기숙사로 들어가는 길에 우리가 기도를 해줬다. 그렇게 우리는 봉사대를 시작했





다. 일정으로는 시작이었지만 우리는 그때부터 결과를 알 수 있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모아 기도를 하고 서로에게 공감했을 때 이미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이 봉사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는 여러 파트로 나누어져서 일했다. 침례반 공부, 제자훈련 등으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기도주일 집회를 인도하게 되었다. 나는 경찬팀을 맡아 경찬을 같이 준비하면서 제자훈련을 했고, 실제로 기도주일 경찬을 함께 했다. 고등학교 경찬팀을 맡아서 한 주간 동안 지내는 것은 참 흥미로웠다. 대학에서도 많은 아이들을 지도하고 함께 찬양을 하지만 1년이 지나도 가르치는 것이 잘 바뀌지는 않았다. 영남삼육 경찬팀, 처음 봤을 때는 참 압울했다. 어느 누구의 지도도 없이 자기들끼리 아등바등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도 그들의 하고자 하는 열정만큼은 대단했다. 함께 말씀묵상으로 시작하며 기도로 시작하게 되었다. 그리고 함께한 아이들. 정말 놀라웠다. 다른 것보다 그들의 흡수력은 대단했다. 함께했던 대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1년이나 걸렸는데, 고등학생들은 며칠도 안 되서 많은 것들을 다 흡수해서 하고 있는 것이다. 대단했다. 어릴 때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깨닫게 되었다. 보고 듣고, 배우는 것들을 빨리 습득하고 주변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는 아이들에게 지금 하나님을 가르치고 그 문화를 알려준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가 와 있는 것이었다. 매일 밤 아이들과 함



께 한 기도회는 그래서 더 특별했다. 어린 중학생부터 고3까지 찬양과 기도가 울려 퍼졌다. 어리숙해 보이지만, 그들의 진실한 기도와 찬양이 나를 감동시켰고 나를 무릎 꿇게 했고 나를 회개하도록 했다.

영남삼육이란 곳, 두렵고 막막하게만 느껴졌던 곳. 하지만 하나님은 또 다시 나를 경상도로 이끄셨고 그 곳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 매년 이 곳을 이끄셨던 하나님, 이곳이 나에게서는 제 2의 고향이 되었다.



## | 대원소감문 |



김익민 | 건축학과 1학년  
학생 상담 및 성경공부/선생님

## “사랑하는 영남삼육”

2주간 제자훈련을 힘들게 마치고 10일간 영남삼육에 봉사대를 떠나게 되었다. 도착하자마자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 예배순서를 준비하기 위해 연극 연습을 하기 시작했다. 피곤한 몸을 가지고 3시간 연극 연습을 마치고 겨우 12시가 넘어서 잠을 청하였다. 다음날 총 연습을 위해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연습에 들어갔다. 모두 자신이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순서를 준비해 나갔다. 연극하는 동안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쉬는 틈에 기도를 했고 기적적으로 3시간 연습한 연극은 사람이 할 수 없을 정도라 평을 받았다.

연극이 마치고 잠깐 영남삼육 학생들과 시간을 갖았다. 처음대하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한 상황이었고, 선배가 요령에 맞게 분위기를 주도해 나갔다. 그 날 학생들과 친해지려고 저녁 10시 넘어 자습이 끝날 때 기다렸다가 기숙사까지 데려다 주면서 학교에 대한 아이들의 반응과 작년과의 문제점 등 여러 이야기를 들으며 친해지는 시간을 갖았다. 매일 저녁 중학생은 9시, 고등학생은 10시에 자습이 마치는 시간에 학생들을 기다렸다가 같이 30분 동안 기도회를 가졌다. 월요일이 시작되는 아침 새벽 말씀묵상을 시작함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아이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모든 스케줄은 학생들과 동일하게



이루어졌다.

수업시작하기 30분 전에 학생들과의 성경공부시간이 주어졌다. 처음에는 3명으로 시작한 성경공부는 마지막 날에는 6명으로 늘어 같이 공부해야 할 학생들이 많아졌다. 1교시부터 7,8교시까지 개인적으로 상담, 면담, 성경 공부하는 등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가졌으며, 특히 점심시간에는 FREE HUG, FREE PRAY 행사를 운영하여 잘 몰랐던 아이들과 시간을 함께했다.

SAY팀은 2팀으로 나뉘어 한 주 동안 종교시간을 대신하여 학생들과 접촉하는 시간을 가졌다. 개인적으로 나는 성경공부를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꿈과 자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진로에 대해 알려주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중, 고 학생의 선배로써 상담과 면담의 시간을 갖았다. 처음에는 다가가기 힘들었던 학생들이 SAY팀의 적극적인 모습과 사랑의 헌신의 모습을 보며 학생들도 사랑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그런 학생들의 사랑으로 SAY팀의 스케줄은 모두 바쁘게 되었고, 모두 지친 상태가 되어 힘든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학생들도 면담시간에 힘들어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대원들 모두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노력을 했고 아이들을 볼 때마다 힘을 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목요일 저녁 칩레식이 있었다. 칩레식 과정

에 많은 사람들이 동원

되었으며

많은 학

생들과





친구들이 침례식을 감동의 눈물과 기쁨의 박수로 맞이했다. 침례식을 마치고 학생들은 모두 자습을 하러 갔을 때 세이 팀들은 교회로 모여 찬양의 향기가 넘쳐나도록 찬양을 했다. 모두가 힘들었던 한 주의 고생을 벗어버리고 정말 기쁨으로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항상 6시에 일어나 기본 새벽 1시까지의 강행군에 모두가 지쳐 있었으나 그 지친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안식일 순서를 준비하기 위해 금요일 저녁부터 다시 연극을 준비하고 간증을 준비하며 정말 힘들어도 기도로써 안식일 순서를 무사히 마친



게 되었다. 파송 예배 때 아이들과 봉사대원들은 눈에서 눈물을 감출 수 없었다. 숨겨왔던 눈물을 마지막으로 헤어졌다.

사랑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일들이 있다 봉사대를 떠나면서 정말 이 학생들을 사랑으로 다가가고 사랑했었구나, 알게 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봉사대였다.

## | 대원소감문 |



은재현 | 영문학과 3학년  
성경공부 및 상담/중1,고2

## “더 가까이 다가감”

어느덧 대학교에 들어와서 생활을 한지가 꽤 오래되었다. 슬슬 취업에 대한 준비를 해 나아가야 하는 시점에서 나는 제자훈련이라는 것을 선택하게 되었고 하나님이란 분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앞으로의 내 삶에 있어서 먼저 그 분에 대한 확실한 정립과 정리가 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분이 어떠한 분인지 먼저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선택하게 되었다. 제자훈련의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배우고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란 분이 어떠한 분이고 나의 삶에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느끼고 알아가는 기회가 되었지만 봉사대를 선택하는 것에는 정말 많은 고민이 들었다. 왜냐하면 남은 방학기간 동안이라도 학업이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될 것만 같아서 그런 것 같다.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는 왠지 모르게 가야된다는 음성이 들리고 기도를 했을 때 가야될 것만 같았기에 결국에는 봉사대를 가게 되었다. 내가 가게 된 봉사대는 영남삼육 중, 고등학교로 가서 아이들을 대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하여야 했다.

처음으로 가는 봉사대여서 설레는 감정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내가 도대체 여기에 와서 어떠한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지 두려움과 걱정이 더 크게 자리 잡았다. 제자훈련을 통해서 배우고





공부하였다고 하지만 내가 여기에서 아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에는 두려움이 크고 부족함이 많았다.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것도 첫 날에는 피하게 되고 가까이 다가가지 못한 것 같다.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서 여기로 나를 보내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완전하지 못한 상태였기에 더 큰 갈등과 고민을 한 것 같다.

이런 상태 속에서 안교순서와 종교시간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대해야 하는 시간들이 각 개인별로 주위졌을 때 정말 막막하고 어떤 말을 해주고 어떠한 것을 통해 아이들에게 유익한 것들을 전해 줄 수 있을지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았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나를 영남삼육에 보내셨고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영남삼육에 보내셨다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말씀을 들으니 웬지 모르게 자신감이 생기고 힘이 났다. 그래서 정말 아이들 수업에 들어가거나 아이들과의 성경공부 시간 및 상담시간 전에 많은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매달린 것 같다.

아직도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생각난다. "하나님, 저 정말 많이 부족합니다. 성경적인 지식도 없고 아이들에게 말도 잘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고 뜻이 있어서 저를 사용하시려 한다면 아이들의 마음의 문을 먼저 찾아가서 열어주시고 성령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제 자신을 주관하여 주셔서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 정말 하나님만 믿고 나아갈게요!"라고 수도 없이 기도를 한 것 같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아이들은 더듬거리고 말도 되지 않는 나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고 상담시간을 통해 아이들에 대해서 더욱 잘 알아가는 기회가 되었으며 나 스스로도 아이들에게 관심이가고 그 아이들을 더욱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에 놀라게 되었다. 그 결과로 정말 부족한 나의 인생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열매를 세 명이나 맺게 해주셨다.

선규, 대희, 가민이 정말 부족하지만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게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행복했다. 세 친구들 외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해주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 것 같다고 대답해준 아이들에게 너무나도 고맙고 나는 이 감사함을 정말 하나님께 돌리고 싶다. 너무나도 부족한 나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곳에 나를 보내시어 아이들을 만나게 하셨으며 자신감도 없고 두려움만 있었던 내가 하나님께 의지했을 때 사용하시는 일들을 경험하





고 느끼게 되니 더욱 하나님께 나 스스로도 가까이 다가가고 느끼며 배  
우게 된 잊지 못할 추억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끝으로 평소 생각하는 봉사활동은 육체적으로 힘들거나 어려운 분들  
을 내가 가서 도와주고 그분들에게 위로를 해주고 힘든 일들을 거들어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번 봉사활동은 정말 육체적으로 정  
신적으로 특히 영적으로도 보람을 느끼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행  
복이 배가되는 봉사활동이 되었던 것 같다. 정말 매순간 함께 해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이번 봉사대는 앞  
으로 나의 삶에 있어서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겠다고 결심하고 나아가게 하는 계기가 되었기에 정말 잊지 못할 기억  
으로 남을 것이다.



## SAY 2

팀 명	SAY 2	주최학과/부서	SAY(삼육대학교 청년교회)
지도교수	이훈재, 나승호 목사님	학생대표	신상은
봉사지역	용인수지교회	활동기간	2012. 7.6 ~ 7.14
파견인원	지도교수 : 2명, 대장 : 1명, 대원 : 5명, 기타 : 1명		
협력 및 후원기관	수지 교회, 뉴스타트 재가노인복지센터	주소/연락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 2동 509-4 031)261-8876/2004
봉사영역	선교, 교육, 노력봉사	봉사대상자	교회 성도님, 재가 노인 어르신들

### ▶ 팀 명단

No	이름	학과	학년	역할/담당	No	이름	학과	학년	역할/담당
지도교수	이훈재	SAY 교회협력목사			지도교수	나승호	SAY 교회협력목사		
학생대표	신상은	환경그린디자인	3	대장	대원5	원미솔	간호학과	4	
대원2	이요셉	SAY 교회전도사		총괄	대원6	이준엽	경영학과	3	
대원3	이가현	간호학과	2	총무	대원7	박유진	간호학과	1	
대원4	김근호	일본어과	1	서기					

### ▶ 봉사 주요 활동내용 및 결과

No	활동영역	날짜	장소	내용	평가 및 의견	결과(참여인원)
1	노력봉사	7/6~7/14	뉴스타트 재가 노인복지센터	뉴스타트 재가 요양 센터에서 어르신들 봉양 및 프로그램 진행	목표한 작업량을 수행하였음	대원: 9명 센터 어르신: 약 16명
2	교육, 선교봉사	7/6~7/14	용인 수지교회	말씀묵상 세미나 진행 및 실제 진행, 전도법 교수, 성인구도자 접촉 및 전도, 센터 어르신들 대상으로 전도회 진행	누적 참가인원 70명	대원: 9명

▶ 봉사활동 운영 전반평가

매우인중음 1	인중음 2	보통 3	중음 4	매우중음 5	활동에 필요한 준비물은 빠짐없이 준비됐는가?	1	2	3	4	5			
계획된 활동은 모두 실행했는가?		1	2	3	4	5	모두 건강하게 활동을 마무리했는가?		1	2	3	4	5
활동 목표는 달성했는가?		1	2	3	4	5	대원들 간에 문제없이 생활했는가?		1	2	3	4	5
활동영역		평가				활동영역		평가					
지도교수역할		잘 이끌어주셔서 학생들을 격려하시고 지도해주셨다.				학생대표역할		학생들 간의 연락이나 상황을 파악하여 잘 하였다.					
학생대원소양		각자 제 역할에 충실하게, 성실히 봉사하였다.				현지반응		처음에는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었으나 점차 좋아져서 후에는 정말 감사하고 한번으로는 아쉽다는 피드백이 나왔다.					
숙식 및 생활여건		교회에서 생활하였으므로 큰 불편함은 없었다.				활동지역 및 안전관련		용인 수지 지역은 안전하였다.					
잘된점		봉사 대상들의 피드백에 따라 신속히 움직였고 따랐다.				운영평가 및 애로사항		전반적으로는 운영에 있어서 균형있었고, 만족스럽다.					
개선(보완) 사항		단기 봉사대이므로 후속 프로그램이나 봉사를 생각했으면 좋겠다.				총평		전반적으로 만족스럽고 봉사를 하고 온 입장이나 받으신 입장 다 의미 있고 원 원하는 봉사대였던 것 같다.					

▶ 봉사활동 전체 일정표

일정	구분	활동내용	일정	구분	활동내용
7/6	오후	말씀묵상세미나 진행	7/7	오전	안식일학교 - 섬김이 세미나
				오후	말씀묵상 실제 교육, 월삭기도회
7/9 ~ 7/15	오전	제자훈련반(말씀묵상 교육, 전도법 교수) 진행, 뉴스타트 재가 노인복 지 센터 프로그램 운영	7/16	오전	안식일 순서 진행
	오후	노인복지 센터 어르신 대상 전도회, 성인구도자 방문, 학생반 교제 및 소그룹나눔			



# PHOTO

✦ The pictures came out well.



▶ 도착 직후 봉사대 회의



▶ 안식일 예배 시간



▶ 말씀묵상 세미나



▶ 청년들과 안교 교과 토의



▶ 오전 제자 훈련반 수업 진행



▶ 뉴스타트 재가노인복지센터 프로그램 진행



## | 지도교수 소감문 |



니승호

## “SAY 소감문”

약 2주간의 제자훈련을 마치고 전도 대원들과 함께 선교지인 용인 수지교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지로 떠나는 마지막 파송 예배에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선교지의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 전도단은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씀 묵상과 노인 센터를 위한 전도회를 준비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는 구도자가 준비되어있지 않았고 교회는 어른 보다는 학생과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봉사하기를 원했습니다.

금요일에 수지 교회에 도착한 후 우리는 먼저 우리가 전도해야할 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노인센터 어르신들의 근황을 들었습니다. 어르신들의 상황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어르신들의 연세는 평균 약 85세였고 16분 중 절반 이상은 치매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치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침에 일어난 일을 그 날 오후에 잘 기억하지 못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전도단은 조금 당황하였습니다. 혹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였다 하더라도 그날 오후에 아니면 다음 날에 그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음은 아팠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전도단원 한명씩 총 세분의 어르신들을 맡아서 기도하고 케어하기로 하였습니다. 전도단은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어르신들을 돌봐드렸고 오후 3시 30분부터 30분동안 찬양과 말씀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전도회를 열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는 하루에 세 번씩 함께 모여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충명을 주신 것처럼 어르신들에게 잠깐이라도 충명과 지혜를 주셔서 복음을 이해하고 결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셋째 날 말씀이 마쳐지고 어르신들에게 결심서를 드렸을 때 세분의 어르신이 신앙을 받아들이고 침례를 받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전도단은 기뻐하면서도 어르신들이 사실을 잊어버리시지는 않을까 내심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결심서 정리가 끝나고 노인 센터 직원 분이 오늘 있었던 일들을 어르신들께 여쭙보기 시작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침례를 결심한 네 분 모두 아침부터 방금 전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순간 저는 감동의 눈물과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모두 성령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전도단은 수교회에서 크게 4가지를 봉사하였습니다. 직장인들을 위한 아침 5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의 말씀 묵상,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전도법과 말씀 묵상 세미나,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노인 센터 케어와 전도회, 그리고 저녁에는 학생반 활동이 그것입니다. 전도대원들은 모두 피곤에 지쳤고 몸살과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참 감사했던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 누구도 짜증을 내거나 자신의 일을 회피하거나 불성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도하면서 각자의 맡은 역할과 임무대로 모두 최선을 다했고



서로에게 용기를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섬김의 모습과 연합이 있었음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마음들의 진정한 연합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임을 고백합니다. 힘든 여정임에도 불평 없이 주님의 사업을 위해 최선을 다해준 전도단 모두에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끝으로 같이 했던 전도대원 중에 한 학생이 뇌수막염으로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전도 기간 내내 함께 하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치유의 능력을 주셔서 쾌유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 기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학생대표 소감문 |



신상은 | 환경원예디자인과 3학년  
학생대장

##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전염”

요즘 많은 질병과 재난을 보면 대부분 ‘전염성’을 가지고 오는 것이 많다. 최근에는 이런 소재를 가지고 영화도 나온다. 그만큼 세상에는 여러 원인과 이유 모를,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도 결코 이길 수 없는 많은 불가항력적 요소 속에 살아간다.

사람은 사람이기에 뜻대로 될 수 없고, 그것 때문에 상처 받고 절망하는 많은 이들이 있다. 우리가 갔던 용인 수지 교회와 그 교회에서 뉴스타트 재가 요양 센터 같은 경우도 그렇다.

먼저 뉴스타트 재가 요양 센터는 대부분 가족이 있으시지만 치매나 중풍 등 여러 외적, 내적인 질병을 가지셔서 일과 시간동안 가족들이 어르신들을 봉양하기 힘들어 센터로 보내신 경우가 많았다.

사실 처음에는 어르신들의 지적 상태라든가, 인지력, 병력에 대해서 들었을 때 많은 걱정과 염려를 가졌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짧은 시간 무엇을 가지고 위로하고, 마음과 몸을 치유해드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곳에서 매일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함께 하면서 그곳에 계신 어르신들을 돌봐드리고 말벗이 되어드리는 노력 봉사와 더불어 오후에는 항상 우리 대원들과 함께 노래하고, 율동하고,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을 소개하는 시간도 가지게 되었다.

어르신들이 처음부터 서울에서 올라 온 기특한 청년들이라며 반겨주시고 손자, 손녀처럼 대해주셔서 오히려 많은 격려와 사랑을 받았다. 그리고 매일 어르신들과 함께 지내며 따뜻한 정과 사랑을 나누었다.

간식시간에 어르신 드실 간식을 계속 내 입 속으로 넣어주시는 어르신도 계셨고, 계속해서 대원들의 손을 쓰다듬으시면서 “곱다, 예쁘다”를 연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셨다.

나는 함께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마음을 치유하고 좋은 말씀을 나누는 그 작은 우리의 봉사가 어르신들의 삶을 더 아름답고 행복하며 궁극적인 소망을 품게 했음에 감사했다.

다음으로 우리가 봉사한 것은 용인에 위치한 수지 교회에서 함께 말씀묵상을 나누고 그 곳에 계신 분들과 교제하며 교육, 선교 봉사하는 일이었다.

보통 교회라고 하면 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교회가 구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녹록치 않은 삶에 대한 시름, 걱정, 불안, 내면적 고통 속에서 그들은 불완전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교회가 된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그 안에서 진정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분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그들이 궁극적으로 ‘교회’ 라는 이름을 가지고 모인 것이기는 하나 연약한 사람이기에 때로는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세상의 상처를 고스란히 교회에 안고, 짊어지고 오기도 한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래서 많은 경우 교회를 떠나기도 한다. 모든 교회가 가진 문제이므로 용인 수지 교회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실제로 교회가 가진 서로를 이해하는 문제, 세대 간의 소통, 교인들의 각성, 삶에서의 변화 등이 말씀 묵상을 새벽과 오전 시간 함께 하고 나누는 가운데 결심하고 변화되는 모습들을 실제로 보면서 우리가 단순히 그 기간 내에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그들 스스로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하고 교육하는 봉사 역시 의미있고 값지다는 것을 다시 느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고 내게 있는 작은 은사를 나누고자 했는데 더 큰 사랑과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들로 고스란히 센터 어르신들과 수지교회 성도님들과 나눌 수 있었다.

세상에 많은 불가항력 요소들 때문에 힘들고 그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전염되어 있던 그곳 어르신들, 교회 분들 그리고 우리가 아름다운 사랑과 나눔, 그리고 봉사라는 이름의 활동들로 그 마음들과 행동들이 전염되어져 이전에 몸이 아프고, 고되고 마음이 힘들었고, 영적으로 갈급했던 그 모든 것들이 '치유'되었던 봉사대였던 것 같다. 더욱 아름다운 사랑이 곳곳에 전염되어 아름다운 열매 맺길 기대한다.



## | 대원소감문 |



이가현 | 간호학과 2학년  
총무

## “기도의 체험”

불안감. 모든 사람들이 무언가를 처음 시작할 때 느끼는 감정이다. 내게는 이번 SAY봉사대가 그랬다. 난 작년에 이미 한번 경험했음에도 불안했다. 하지만, 이 불안감은 작년과는 다른 것이었다. 그건 내게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 확신이란 봉사대 지역에 관한 것이었다.

사실 나는 봉사대 지역으로 배정받은 용인 수지보다는 영남 삼육 중·고등학교에 가길 원했다. 나는 작년에 영남 삼육 중·고등학교로 봉사대를 다녀왔고, 그 곳에서 참 좋은 아이들을 만났다. 아이들은 내 생각과는 달리 사랑이 많고, 배풀 줄 아는 아이들이었다. 무엇보다 그 곳에 가고 싶었던 이유는 그 곳에 내 구도자가 있기 때문이었다. 작년에 만난 구도자 친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게 알려주고 싶었고, 그 사랑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영남 삼육에 가길 원한다고 기도드렸다.

하지만, 용인 수지로 봉사대 지역 배정을 받았다. 그러나 그 때, 영남 삼육보다는 지역 교회로 봉사대를 가고 싶어 하는 인원이 한 명 있었다. 그리고 내 마음에는 혼란이 왔다.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아는 바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기도드렸다. 어느 곳으로 가야할지



알려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게 그 날 바로 응답하셨다. 용인 수지로 가라고.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간 용인 수지. 그 곳은 독특한 구조를 가진 교회였다. 총 5층으로 이루어진 건물이었는데, 그 중 1층은 노인주간보호센터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 센터는 용인시에서 지원하고 있었는데, 주로 생활에 제한이 있는 치매 노인분들이 이용하고 있었다. 노인분들은 열다섯 분 정도 계셨고, 그 중 의식이 제대로 있으신 분은 몇 분 되지 않았다. 치매 노인 분들이 많다는 것은 그렇게 희망적인 메시지는 아니었다. 그건 비록 그 분들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말씀하실지라도, 그게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말씀하시는 건지 우리가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상황에 실망하거나 멈춰있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이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사람이 가늠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게 센터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전도회는 시작되었다. 어르신들은 언제 돌아가실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기도회를 가진 후 전도회에 임했다. 난 전도회에서 특별히 순서를 맡은 것이 없었지만, 그렇다고 쉬고 있을 수는 없었다. 다른 대원이 재미있는 율동을 하고 있을 때일지라도 사단이 틈타지 않기를 기도했고, 목사님이 말씀주시기 전이나 말씀주시는 동안에 기도드렸다.

그런 모두의 기도의 능력 때문이었을까? 침례를 받겠다는 분이 세 분이나 계셨고, 우리는 감사했다. 이번 봉사대는 떠나기 전부터 기도의 능력을 참 많이 체험한 시간인 것 같다. 매순간 기도하길 원했고, 그대로 기도했던 마음들이 고스란히 이루어진 것 같다. 감사한다.

| 대원소감문 |



원미슬 | 간호학과 4학년  
봉사대원/ 반주

## “사랑을 반사하는 달이 되어”

사랑.

행복.

기쁨.

봉사하면 떠오르는 것들이다.

하지만 봉사활동을 하며 나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달’ 이었다.

달은 태양의 빛을 반사하여 지구를 비춘다. 하지만 태양이 없으면 비출 수 없다.

봉사도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랑을 다시 나눌 수 없다.

봉사대 동안 끊임없이 사랑을 나눌 수 있었던 것은 달이 되어 무언가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반사했기 때문이다.

그 사랑은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서 왔다.

그 사랑은 우리를 도와 주셨던 많은 분들에게서 왔다.

그 사랑은 절대자에게서 왔다.



그 사랑은 그리고 다시 우리가 베풀었던 사랑의 반응에서 왔다.

내 속안에서 받은 사랑이 차곡차곡 쌓여져 나갈 때 다시 폭포수처럼 세상을 향해 뿜어져 나갔다.

그리고 달빛이 어두운 온 지구를 비추듯, 사랑의 빛은 수지교회와 함께 한 모든 이들과 내 마음속까지 비추었다. 달빛을 받은 물건들이 다시 달빛에 반짝이듯, 제자훈련이 끝나며 집사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였다. “이 좋은 말씀을 우리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배워서 양육반을 열어서 알려줍시다.”

나를 통하여 또 다른 누군가가 결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빛의 흐름이라고, 사랑의 흐름이라고 생각한다.

정말 짧은 일주일의 시간이었지만 내가 받았던 사랑들을 한 사람 한 사람과 나누고 또 다시 내가 채워진 충만한 한 주였다. 한 주만 더 길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뒤로 하고 떠나왔다. 내가 떠났을 때 그곳이 내가 오기 전보다 더 큰 곳이 되는 곳. 멈추지 않고 계속 달빛이 여기저기로 비춰나가는 곳.

그것이 진정한 봉사가 아닐까 느낀 한 주가 되었다.

이야기는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 한주의 이야기로 봉사활동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끊임없이 지속될 것이다. 매일 같이 받은 사랑들을 반사하며 사랑의 달빛은 흘러보내고 싶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어르신들이다.

어르신들은 이제 헤어지면 또 볼 수 없을 텐데. 더 많이 이야기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경험들을





나누지 못한 것이 너무 아쉽다. 함께 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더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더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었을 텐데.

“저희가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마지막이라고 하지 말고 더 놀러 와요”라고 하시는 말씀 속에서 ‘마지막’이라는 것에 대해 민감함을 느끼는 어르신들의 감정을 느낄 수 있었다.

마지막.. 정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서로를 더 배려하고 이해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사랑하기에도 짧은 인생, 정말 더 많은 사랑을 나눠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봉사대였다.



### SAY 3

팀 명	SAY 3	주최학과부서	SAY(삼육대학교 청년교회)
지도교수	지성훈, 김동욱	학생대표	박은별
봉사지역	일산 화정 교회	활동기간	2012.7.6 ~ 7.14
파견인원	지도교수 : 2명, 대장 : 1명, 대원 : 6명		
협력 및 후원기관	삼육대학 교회	주소/연락처	-
봉사영역	선교, 성경공부	봉사대상자	교회 성도, 학생

#### ▶ 팀 명단

No	이름	학과	학년	역할/담당	No	이름	학과	학년	역할/담당
지도교수	지성훈				지도교수	김동욱			
학생대표	박은별	유아교육	4	대장	대원5	김예도	기초의약	1	사진
대원2	강유영	신학	3	예배	대원6	김예영	간호	1	
대원3	박소영	간호	2	총무	대원7	유승우	카메카트로닉스	1	
대원4	김진현	간호	2	서기					

#### ▶ 봉사주요 활동내용 및 결과

No	활동영역	날짜	장소	내용	평가 및 의견	결과(참여인원)
1	말씀 묵상 세미나	7.6		성경 말씀 묵상 세미나: 전교인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함		대원: 20명 어린이: 50명
2	섬김이 세미나	7.7		섬김이 세미나: 교회에 필요한 섬김이를 교회 청년과 집사님들 대상으로 세미나를 함		
3	노방 전도	7.9	화정역/근처 공원	교회의 전도지를 가지고 역 근처에서 사람들에게 나누어줌		대원: 7명
4	개인 성경 공부	7.6~7.13	교회	1:1로 교회 구도자와 함께 성경공부함	마지막 안식일에4명의 결심자와 2명의 침례자	대원:7명 성경공부대상자:8명



▶ 봉사활동 운영 전반평가

매우인중음 1	인중음 2	보통 3	중음 4	매우중음 5	활동에 필요한 준비물은 바짐없이 준비됐는가?	1	2	3	4	5					
계획된 활동은 모두 실행했는가?					1	2	3	4	5	모두 건강하게 활동을 마무리했는가?	1	2	3	4	5
활동 목표는 달성했는가?					1	2	3	4	5	대원들 간에 문제없이 생활했는가?	1	2	3	4	5
활동영역		평가			활동영역		평가								
지도교수역할	학생들의 필요와 요구를 잘 들어주었고, 지도와 조언을 적절하게 해 주었다.				학생대표역할	대원들의 말을 많이 듣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학생대원소양	2주간의 훈련을 받고, 봉사 활동에 필요한 소양을 잘 갖추었다.				현지반응	중, 고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반응을 보였고, 성경공부에도 가장 많은 반응을 보였다.									
숙식 및 생활여건	항상 잘 먹고, 잘 자고, 부족한 것 없이 교회에서 잘 챙겨 주었다.				활동지역 및 안전관련	도심에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다른 안전에 관한 문제는 없었다.									
잘된점	봉사대원 간의 화합이 좋았고, 봉사활동을 하는 중에 항상 교회 학생들이 참여하고 잘 따라 주었다.				총평	전교인 대상으로 간 봉사활동이었지만 대부분 학생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많았고, 학생들과 공부하며 사역하는 시간이 많이 있었다. 또 우리가 목표했던 말씀묵상 훈련을 학생들에게 생활화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왔다.									

▶ 봉사활동 전체 일정표

일정	구분	활동내용	일정	구분	활동내용
7/6	오전		7/10	오전	말씀 묵상/ 기도회
	오후	화정 교회 도착/ 예배 (말씀 묵상 세미나)		오후	1:1 성경공부/ 저녁 기도 훈련
7/7	오전	섬김이 세미나(전교인)	7/11	오전	말씀 묵상/ 오픈 클래스(말씀 연구)
	오후	섬김이 세미나/ 학생 말씀 묵상 훈련		오후	기도회/ 1:1 성경공부
7/8	오전	말씀 묵상	7/12	오전	말씀 묵상/ 헌신회 준비
	오후	학생들 마음 열기 시간(볼링)		오후	1:1 성경공부/ 헌신회
7/9	오전	말씀 묵상/ 노방전도	7/13	오전	말씀 묵상/ 1:1 성경공부
	오후	기도회/ 1:1 성경공부		오후	저녁 예배
			7/14	오전	예배 훈련/ 일주일 간증 순서
				오후	청년 말씀 묵상 훈련/ 떠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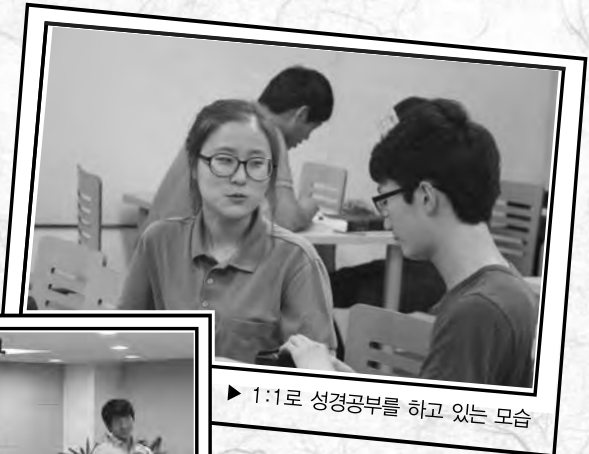


# PHOTO

▶ The pictures came out well.



▶ 교회 근처 공원에서 노방전도



▶ 1:1로 성경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



▶ 말씀묵상 세미나



▶ 참례식이 끝난후 단체사진



▶ 섬김이 세미나를 하고 있는 모습



▶ 성경 공부시간

## | 지도교수 소감문 |



SAY 3팀 | 지성훈

## “SAY 봉사대 소감문”

SAY 하계 제자훈련 인텐시브 코스의 대미를 장식한 전도단(봉사대) 활동은 그야말로 대원들의 인내와 끈기와 무한 적극성의 열매를 볼 수 있는 장이었다. 굶은일은 누가 말하기 전에 먼저 나서서 하고, 맛있는 것은 서로의 입에 먼저 들이민다. 잠이 모자라도 새벽부터 일어나 현지 교회의 학생과 청년들을 초청하여 말씀묵상과 기도에 열정을 낸 대원들은 그렇게 가르친 학생들이 마지막 날 침례를 받자, 드디어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무엇이 이들을 뜨겁게 하며, 희생하게 하며, 간절하게 했는가? 그것에 대한 다른 답변은 없다. 그것은 말씀이다. 그리고 그 말씀은 이들을 통로로 하여 잘 영근 씨앗처럼 더욱 멀리 흩뿌려질 것이다.

인솔교수라는 직책은 꽤 큰 짐이었다. 아직은 활동하고, 뛰어야 할 것 같은데, 내가 나하면 학생들은 자라날 수 없었다. 그저 방에서 콧 틀어박혀서 찾아오는 학생들의 상담역만 해주었다. 한 가지 한 일이 더 있다면, 가족적인 분위기를 위해 아빠를 자처하고, 함께 간 전도사님에게 엄마 역할을 맡긴 것, 그런데 학생들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었다. 정말 봉사대 기간 중 내가 한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겠지만, 얼마동안은 SAY 3팀 카톡방에 붙어 날 것 같다. 은별이, 유영이, 진현이, 소영이, 예영이, 예도, 승우, 그리고 김동욱전도사... 이 패밀리가 늘 함께 하기를 소망한다.



## | 학생대표 소감문 |



박은별 | 유아교육과 4학년  
학생대표

## “화정교회에서”

7월 6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일산 화정교회로 갔다. 처음 교회에 도착했을 때에는 굉장히 풍족하고 좋아 보였다. 하지만 겉은 좋아 보이지만 속은 텅 비어있는 곳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이곳에서 내게 할 일을 주셨다. 첫 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에 내가 섬김이 세미나를 했다. 안교 시간에 교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섬김이 세미나를 한 후에 오후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만 모여서 따로 섬김이 교육을 하였다. (섬김이란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을 어떻게 교회에 정착 시킬 수 있을지 교육하는 것)오후에 사람이 정말 많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청년들과 집사님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다. 그래서 예상 했던 것과는 달리 오고가는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지역교회에 어떻게 하면 섬김이를 정착 시킬 수 있을지 많은 생각을 나누고, 좋은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다음 날 부터는 노방 전도와 1:1 성경 공부를 시작했다.

노방전도는 모든 대원들이 함께 전단지를 접고 돌씩 나누어서 나간 후에 각자 흩어져서 전단지를 전달하는 형식으로 했다. 처음에는 어떻게 주어야 하나 많은 고민이 들고, 사람들에게 말을 꺼내는 것이 너무 어려웠었는데, 막상 한 사람, 두 사람 전달하다 보니 부끄러움은 별로 들지 않았다. 또 도시에서 그



렇게 전도를 한다는 것이 많이 두려웠었는데, 사람을 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도시 사람들도 모두 외롭고 관심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노방전도를 끝내고, 학생들과 1:1 성경 공부를 했다. 침례를 받지 않은 친구들과 성경공부를 하기도 하고, 교회에 다니기는 하지만 열정이 없는 친구들과 성경공부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다들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난 아이들이라 마음 열기도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을 여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다. 난 20살 아이와 함께 성경공부를 했는데,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표면적인 관계만 유지할 뿐이었는데, 내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고 내가 어려웠던 이야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 이야기를 먼저 했을 때 아이도 자신이 처한 상황,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떤 문제에 빠져 있었는지 나에게 이야기해주고, 서로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었다. 이렇게 아이들과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고 싶어 하는지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나도 이 아이를 정말 하나님 품으로 이끌어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가지게 되었고, 이 교회의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게 되었다.



화정교회에서 봉사대를 하면서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더 느끼는게 많았고,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더 많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이런 봉사대를 통해서, 또 누구에게 성경을 가르치면서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지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았다.

## | 대원소감문 |



강유영 | 신학과 3학년  
대원틀 영적 도움/학생 전도사

### “사랑은 나눠질 때 아름다운 것”

지난 7월 6일 금요일에 시작하여 7월 14일 토요일까지 8박9일 동안 일산에 있는 화정교회로 전도회를 다녀왔다. 주요 목적은 첫 번째로 도시교회 중 하나로 알려진 화정교회 성도님들이 성경 말씀 묵상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말씀묵상을 정착시키는 것이고, 두 번째로 연예인 시아준수의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로 알려져 많은 학생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것을 감안하여 새로운 손님이 교회에 찾아왔을 때 어떻게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세미나를 여는 것이었다. 이것은 섬김이 세미나라고 하는 것인데 특별히 개인주의가 강하고 도시적인 교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와도 관심과 사랑이 부족하여 떠나는 경우가 허다하여 성도님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첫째 날 (금) 짐을 풀고 안식일 첫 시간에는 지도 목사님께서 말씀 묵상 세미나를 하셨다. 우리에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내용이었고, 둘째 날 안식일학교 시간에는 간단한 폰트와 섬김이 세미나를 준비하여 함께 공부 하였다. 그런데 셋째 날부터 새벽 6시에 말씀묵상을 하기 위해 모였는데 성도님들은 아무도 나오지 못했고, 교회에서 만난 학생들 몇 명이 말씀 묵상을 하기위해 모였다. 참 실





망스러웠다. 하지만 곧 우리들의 기도가 부족했음을 깨닫고 더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교회 분위기가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참여하려는 의지가 없어보였다. 담임 목사님도 거의 포기한 상태였다. 조금 목표를 바꿔서 젊은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기도한 끝에 나중에는 7명의 학생들이 나오게 되었고 그 중 3-4명의 학생들은 학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새벽 6시면 어김없이 교회로 와서 말씀을 읽고 함께 나누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머지 학생들도 모두 오후에는 함께 모여서 말씀묵상 & 개인 성경 공부를 함께 했다. 우리 대원들은 자신이 맡은 구도자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여 성경공부를 시켰고, 나는 72살이 되신 한 할아버지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시간씩 직접 집에 방문하여 성경공부를 했다. 이 할아버지는 철도청의 직장을 역임하셨던 한 때 잘나가던 분이었고 한 가정의 가장이었다. 할아버지의 아내는 모태교인으로 아주 오래 전부터 교회를 끊임없이 다니고 계신 집사님이셨는데, 40년 동안 한 번도 교회에 나간 적이 없으시다가 요즘 들어 몸이 많이 안 좋아지시고 암까지 걸리게 되어서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요즘은 매주 안식일 마다 교회를 나오시는데, 함께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알 수 있었다.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해 왔지만, 꾸짖지 않고 이렇게 몸이 약해지고 힘든 상황이 오기까지 인도하시고 이끄신 섭리에 감사하게 되었다. 정말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내가 전한 하나님을 그 할아버지 역시 마음으로 느끼고 있었다. 성경 공부 내내 하나님께서 나를 통로로 사용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할아버지께서 마음에 평안을 얻고 계신 것을 보니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다. 역시 사랑은 나뉘질 때 배가 되고 아름다워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 | 대원소감문 |



김예도 | 기초의약과학과 1학년  
말씀묵상, 개인성경공부

### “서로 먼저”

화정교회로 봉사대를 다녀왔다. 고양시 도시 중심에 위치한 교회이다. 전형적인 도시교회, 재정적으로는 풍부하지만 열정이 없는 그런 교회였다. 우리는 가서 많은 고민을 했다. 어떻게 이 교회를 부흥시켜야 하는지, 우리는 그곳에 청년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다. 처음에는 여러 가지 일을 자원하여 일을 맡았는데 다들 쉽게 자원해서 일을 하지 않았다. 나도 물론 그렇다. 하지만 나는 자발적으로 손을 들어 여러 일들을 맡았다. 그렇게 많은 일은 아니지만 그 일들 때문에 불평을 하게 되었다. “다른 사람들은 왜 자발적이지 않은 거야..”라고.. 내 자신을 다시 돌아 봤을 때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 알게 되었다. 칭찬 받기 위해 자발적이지 않았다.. 괜히 남이 안하는 것 같고 다들 각자 일을 맡아 하고 있는데 나는 이기적으로 생각만 했다. 봉사대가 끝나고 돌아보면 성공적인 봉사대였던 것 같다. 교회 학생들이 7~8명 정도가 있는데 이들에게 말씀묵상을 가르치고 말씀 안에 살게 하는 게 우리의 목표였다.

처음에 말씀묵상을 가르쳤는데 아이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았다. 아이들이 잘 할 수는 있을까 하는 생각을 끊임없이 했다. 그리고 새벽에 아이들이 오거나 할까 하는 걱정도 했다. 그러나 아이들은 잘 나왔고 어떨 때는 우리보다 먼저 말씀묵상을 하고 있었다. 이 모습을 보고 너무 기뻐했다. 아이들



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또 학교가 끝난 오후에는 각자 한 학생씩 맡아 같이 성경공부를 했다. 나는 침례를 받을 예정인 한 6학년 친구를 맡아 같이 성경공부를 했다. 내용이 조금 어려운데도 그 아이는 정말 잘 이해했다. 심지어 내게 설명까지 해주었다. 아이들이 너무나도 달라졌다. 마음을 열지 않던 아이들이 마음을 열고 다가오고 자기 이야기를 진지하게 하는 것이다. 흔히 생각하기를 전도단이 오면 교회전체가 변해야지. 라고 생각 하는 경우가 많다. 전도는 그게 아니다. 한사람, 아이들의 삶을 바꿔 주었고 말씀 안에 살게 하면 그게 전도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떠난 후에도 아이들은 말씀을 우리와 나눴고 우리가 올린 말씀을 매일 보고 아멘으로 화답해준다. 너무 성공적인 봉사대였다. 아이들이 변화된 게 너무 기쁘고 이 은혜가 다 하나님 덕택이다!





2012 하계 국내봉사대 보고서

2012년 9월 10일 인쇄

2012년 9월 20일 발행

발 행 삼육대학교

발행인 김상래

편 집 삼육대학교 사회봉사단

인 쇄 한맥출판사

주 소 139-742 서울특별시 노원구 화랑로 815

삼육대학교 사회봉사단

전 화 02)3399-3261~5 FAX 02)3399-3266

이메일 service@syu.ac.kr

홈페이지 www.syu.ac.kr/web/service